

直指

직지

직지심체요절

直指心體要節

백운 경한(1298~1374)

동국역경원 역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直指

직지

## 백운 경한 (1298~1374)

백운경한(白雲景閑)은 태고보우(太古普愚1301-1382), 나옹혜근(懶翁惠勤1320-1376)등과 함께 고려 말의 대표적 고승이다. 화상은 1298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했으며 출가 후 전국을 다니면서 수행하다가 구법(求法)을 위해 1351년 원(元)나라로 유학가서 임제종 석옥청공(石屋淸珙)의 법을 이었다. 이후 귀국하여 신팔사, 흥성사에 머물면서 선종의 가풍을 선양하였다. 현존하는 저술로는 〈백운화상어록〉과 〈불조직지심체요절〉이 있다.

### 직지심체요절 直指心體要節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은 편찬자인 백운화상이 입적하고 3년 뒤인 1377(高麗 禱王 3)년 청주 흥덕사에서 상·하 두 권을 간행했으나,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에 소장된 하권 1책만 남아있다. 수백 년 동안 이 책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다가 19세기 말 서울에 온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주한 프랑스 공사가 고서적 수집 과정에서 입수하여 프랑스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911년 경매를 거쳐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Henry Vever)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죽은 뒤 그의 유족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해 현재에 이른다.

그 뒤 1967년부터 13년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하던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가 “현재까지 전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 서적이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그해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도서의 해 기념 도서 박람회’에 실물이 공개되었다.

2001년 9월 13일에는 조선시대의 『승정원일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온 국민이 고귀한 우리 문화재인 『직지』가 귀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직지 본문의 원본 이미지를 본 도서에 소개함으로써 640여 년 전의 최고의 인쇄술의 자취와 아름다운 글귀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본 도서에 수록한 직지 내지 이미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허락을 받아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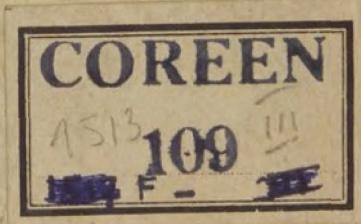
# 直指



Le plus ancien livre imprimé connu  
en caractères <sup>Coreen</sup> fondus,  
avec date = 1377.

下

120



陳其事遂白德山山曰不必畏矣但痛加精彩  
待渠開口撞入裏許便了禪者依教坐至中夜倘  
復現前禪者以頭用極力一撞則在函櫃中於是  
廓然契悟後出世文殊道法大振即真禪師也  
圭峯宗密禪師云但可以空寂爲自體勿認色  
身以靈知爲自心勿認妄念妄念若起都不隨  
之則臨命終時自然業不能繫天上人間隨意寄  
托此是悟理之人朝夕修行要節

張拙相公采石霜霜問先輩何姓曰名拙姓張師  
云覓巧了不可拙自何來張於言下有省乃述頌  
云光明寂照徧何沙凡聖含靈共一家一念不生

軟如紅蓮花

○華嚴座主問禪師何故不許青青翠竹盡是真  
如<sub>如</sub>譬如黃花無非般若大珠禪師答曰法身無  
相應翠竹以成形<sub>般</sub>若無知對黃花而現相非  
彼黃花翠竹而有法身<sub>般</sub>若故經云佛真法身  
猶若虛空應物現形如水中月黃花若是般<sub>般</sub>若  
若即同無情翠竹若是法身<sub>竹</sub>還能應用座主  
降伏領悟其旨

德山密禪師會下有一禪客用功甚銳看狗子  
無佛性話久無所入一日忽見狗頭如日輪之大張  
口欲食之禪者畏避席而走隣人問其故禪者具

持犯不二

丈夫運用無導不爲戒律所制持犯本自無生愚人被他禁繫智者造作皆空聲聞觸途爲滯大士肉眼圓通一垂天眼有翳空中妄執有無不達色心無導菩薩與俗同居清淨曾無染世愚人貪著涅槃智者生死實際法性空無言說緣起略爲茲偈百歲無知小兒小兒有智百歲

佛與衆生不二

衆生與佛無殊大智不異於愚何須向外求寶身田自有明珠正道邪道不二了知凡聖同途迷悟本無差別涅槃生死一如究竟攀緣空寂惟求

他死語不觀已身無常心行貪如狼虎堪嗟二乘  
狡劣要頑摧伏六府不食酒肉五辛邪眼看他飲  
咀更有邪行猖狂修氣不食鹽醋若悟上乘至真  
不假分別男女

誌公和尚十四科頌

菩提煩惱不二

衆生不解修道便欲斷除煩惱煩惱本來空寂  
將道更欲覓道一念之心即是何須別處尋討大  
道皎在目前迷倒愚人不了佛性天真自然亦無  
因緣修造不識三毒虛假妄執浮沉生老昔時迷  
日爲晚今日始覺非早

名爲智。智能入覺。不思議。

○  
承古禪師常勸諸人。莫學佛法。但自無心去。利根人。畫時解脫。鈍根人。或三五年。遠不過十年。若不悟。去老僧替你入我舌。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卷下

宣光七年丁巳七月日清州牧外興德  
寺鑄字印施

○一得無心便道情六門休歇不勞形有緣不是余  
朋友無用雙眉却弟兄

悟了還同未悟人無心勝負自安神從前古德稱  
貧道向此門中有幾人

○大法眼禪師因僧看經頌

今人看古教不免心中閑欲免心中閑但知看  
古教又 古德頌曰照盞盞皆空處深行般若時  
不唯超苦厄決定證無生又

又若欲見正性先擺我相又亡形容何處有六尤本無  
從豁爾靈明性翛然世界通又 古德頌曰

火從木出還燒木智因情起却除情正心觀妄

# 直指

직지

## 直指心體要節

백운 경한(1298~1374)

동국역경원 역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 ● 밸간사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교가 전파되어 유품가는 가르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교 역사 2600년, 시대와 공간에 따라 남아시아의 상좌부불교, 한국·중국·일본과 베트남의 대승불교 그리고 티베트와 몽골러시아 내 몽골계 민족의 금강승불교 등 다양한 전통의 불교가 화려한 꽃을 피우고 단단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불교는 오늘날까지 선禪의 전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으며 수많은 참선 수행자들이 진리를 깨닫겠다는 일념으로 용맹 정진하는 곳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어서, 한국 불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한국불교가 이미 오래전부터 훌륭한 선의 전통을 이어온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직지심체요절』을 편찬하고, 그것을 더 많은 수행자들이 교과서로 삼을 수 있도록 인쇄하여 보급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1377년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주조해서 간행했다”는 자랑스러운 문화재라는 관점에서만 『직지심체요절』을 높이 여기지만, 『직지심체요절』의 가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이라는 수준을 넘어 ‘한국 선불교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고려시대 백운白雲 화상이 과거칠불過去七佛에서부터 시작해 인도와 중국의 조사 165분이 남긴 말씀 중에서 참선 수행자

---

---

들이 ‘선법禪法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선禪 불교의 요체’를 뽑아 엮어낸 책입니다. 한국불교가 자부심을 갖는 ‘훌륭한 선불교 전통’은 바로 이 『직지심체요절』 덕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의 ‘직지直指’는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보면 그 본성을 바르게 보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직지인심 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지심체요절』은 불교라는 특정 종교 신자 여부를 떠나 세계 인류를 행복한 삶으로 안내해주는 지침서 역할을 훌륭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석굴암·불국사·경주역사유적지구·해인사 팔만대장경 그리고 올 해 12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 등과 함께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직지심체요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15년 전에 발간된 『직지심체요절』을 이번에 다시 간행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발간사를 쓰면서 훌륭한 책을 편찬해 후대에 물려주신 백운 화상의 은혜를 거듭 떠 올려 봅니다. 더불어 뛰어난 우리말로 읊기는 불사를 해준 동국역경원에도 감사드립니다.

불기2564(2020)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합장

---

---

## ● 머리말

직지심체요절은 백운 화상께서 75세 되던 해에 손으로 직접 써서 상·하 2권으로 편집을 하였습니다. 백운 화상께서는 조사들의 오도송과 그들이 법맥을 잇는 과정, 여러 고승들의 법거량과 선문답, 일화를 담아 오늘날 선을 참구하는 수행자들이 언제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위대한 불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직지심체요절의 한글 번역이 2005년도에 월운 큰스님께서 동국역경원장으로 재직하실 때 1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다행히도 직지심체요절의 한글 번역이 여러 뜻있는 스님들에 의해 다수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한글 번역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차로 한글 번역을 완성하신 월운 큰스님의 업적을 바탕으로 올 해 역경원에서 여러 번역서를 참고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2005년 직지심체요절 한글 번역을 추진하신 월운 큰스님의 덕화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이를 간행하면서 굳이 한마디의 말을 덧붙인다면 세계 최초의 활자가 중앙정부도 아닌 청주의 외진 흥덕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할 금속활자를 통하여 가장 먼저 『직지심체요절』을 들어 인쇄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 그 책에 담긴 선사상의 중요성을 알고서 이를 널리 전하려는 서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텐베르크의 활자로 성경을 간행한 것은 그만큼 서구에서 가장 존귀한 책으로 성경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직지심체요절』 또한 선문에 있어서 성경에 상당하는 경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 필요에 의한 서원으로 간행된 이 책은 그 당시의 필요에 비해 오늘날에는 더욱더 절실한 시대입니다. 정신적 가치의 혼란과 모순의 첨예화로 심신의

---

---

안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안겨줄 안정된 정신과 평화의 마음을 바로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즈음에 다시 이 책을 중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에 의한 쾌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흥덕사에서의 금속활자 출판은 조선조에 들어 내각內閣 활자본으로 크게 발전하여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서적의 출판으로 조선조 유학의 문명을 밝혀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직지심체요절』의 출판은 직간접으로 유교문화의 출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그 내용의 심오함뿐 아니라, 출판문화에 있어서도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신문화의 승화를 촉진하고 전승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책의 출간을 통하여 안으로는 선사상을 기조로 현대인들의 정신문화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밖으로는 이러한 우리 문화의 궁지가 세계로 비약하여 정신문화 중심국으로의 도약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서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서원이 흥덕사에서 이 책을 처음 금속활자로 출간한 간절한 마음이자, 오늘날 이 책을 다시 인쇄에 부치는 서원으로 천여 년 이전이나 천여 년 이후의 사람이 하나가 된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간행을 추진하신 총무원장스님과 출간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불기2564(2020)년 12월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장 혜 거

---



I. 과거 7 불佛

● 발간사	… 10
● 머리말	… 12
1. 비바시불毘婆尸佛	… 21
2. 시기불尸棄佛	… 22
3. 비사부불毘舍浮佛	… 22
4. 구류손불拘留孫佛	… 23
5.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 24
6. 가섭불迦葉佛	… 24
7.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 25

II. 서천 西天의 조사 祖師

1. 2. 가섭迦葉 · 아난阿難	… 29
3. 상나화수商那和脩	… 30
4. 우파국다優波鞠多	… 32
5. 제다가提多迦	… 33
6. 미차가彌遮迦	… 34
7. 바수밀波須密	… 36
8. 불타난제佛陀難提	… 36
9. 복타밀다伏駄密多	… 39
10. 협臆 존자	… 40
11. 부나야사富那夜奢	… 41
12. 마명馬鳴	… 43
13. 가비마라迦毗摩羅	… 44
14. 용수龍樹	… 45
15. 가나제바迦那提波	… 47
16. 라후라다羅睺羅多	… 50

---

II. 서천西天의 조사祖師

17. 승가난제僧伽難提	50
18. 가야사다伽耶舍多	51
19. 구마라다鳩摩羅多	53
20. 사야다闇夜多	55
21. 바수반두波須般頭	56
22. 마나라摩擎羅	57
23. 학륵나鶴勒那	57
24. 사자師子	58
25. 바사사다婆舍斯多	59
26. 불여밀다不如密多	60
27. 반야다라般若多羅	62

III. 중국의 조사祖師

28. 초조初祖 보리 달마菩提達磨와 2조조 혜가慧可	65
29. 바라제波羅提	72
30. 반야다라般若多羅	74
31. 3조조 승찬僧璨	74
32. 4조조 도신道信과 5조조 혼인弘忍	76
33. 6조조 혜능慧能	77
34. 청원 행사清源行思	82
35. 남악 회양南岳懷讓	83
36. 영가 현각永嘉玄覺	85
37. 남양 혜충南陽慧忠	89
38. 하택 신회荷澤神會	92
39. 장폐障蔽 마왕	94
40. 마조 도일馬祖道一	94
41. 백장 회해百丈懷海	96
42. 황벽 희운黃蘖希運	99
43. 남진 보원南泉普願	104
44. 반산 보적盤山普積	106
45. 귀종 지상歸宗智常	108

46. 대매 법상	大梅法常	109	
47. 대주 해해	大珠惠海	109	
48. 분주 무업	汾州無業	110	
49. 귀종	歸宗 선사	111	
50. 서산 양	西山亮 좌주	111	
51. 영목	靈默 선사	113	
52. 석공	石聾慧藏	113	
53. 약산 유엄	藥山惟嚴	115	
54. 위산 영우	鴻山靈祐	116	
55. 조주 종심	趙州從諗	117	
56. 해충	慧忠 국사	120	
57. 몽산 도명	蒙山道明	122	
58. 흥선 유관	興善惟寬	123	
59. 염관	鹽官 화상의 회하승	會下僧	124
60. 형인 혜사	衡岳惠思	124	
61. 조과 도림	鳥窠道林	125	
62. 대위 회수	大鴻懷秀	126	
63. 나안	懶安 화상	126	
64. 양산 연관	梁山緣觀	128	
65. 무업	無業 국사	128	
66. 대원부	大原孚 상좌	129	
67. 섭현 귀성	葉縣歸省	130	
68. 양수	良遂 좌주	132	
69. 자명	慈明 화상	132	
70. 경조 현자	京兆蜆子	133	
71. 무주	無住 화상	134	
72. 월산	越山 화상	135	
73. 장사	長沙景岑	136	
74. 송악	嵩嶽惠安	137	
75. 아호	大鵝湖大義 화상의 좌선명	坐禪銘	138

76. 대주 해해 大珠慧海	142
77. 불감 佛鑑 화상	142
78. 나산 羅山 화상	143
79. 보은 현칙 報恩玄則	144
80. 양기 방회 楊岐方會	145
81. 용담 승신 龍潭崇信	146
82. 관계 지한 灌溪志閑	147
83. 위산 영우 濃山靈祐	148
84. 남대 수안 南臺守安	148
85. 현사 사비 玄沙師備	149
86. 문익 법안 文益法眼	151
87. 계침 桂琛 선사	152
88. 문익 법안 文益法眼	153
89. 소수 산주 紹修山主	155
90. 자방 子方 스님	156
91. 소수 산주 紹修山主	157
92. 용아 거둔 龍牙居遜	158
93. 분양 무덕 汾陽無德	160
94. 동사 여회 東寺如會	161
95. 원오 극근 圓悟克勤	162
96. 천태 덕소 天台德韶	163
97. 설봉 의존 雪峯義存	165
98. 장로 長蘆 화상	169
99. 설봉 雪峯 화상	170
100. 대수 법진 大隨法眞	170
101. 지통 智通 선사	171
102. 현정 玄挺 선사	172
103. 보수 寶壽 화상	173
104. 신안 神晏 국사	173
105. 영운 지근 靈雲志勤	174

106. 양산 혜직仰山慧寂	174
107. 경조 미호京兆米胡	175
108. 경산 법홍徑山法欽	176
109. 덕산 선감德山宣鑑	177
110. 동산 양개洞山良价	178
111. 청평 영준清平令遵	180
112. 고정 간고停簡 선사	181
113. 운암 담성雲嵒彙星	181
114. 운거 도응雲居道膺	181
115. 천복 승고薦福承古	182
116. 운거雲居 선사	183
117. 조산 본직曹山本寂	184
118. 경청鏡淸 선사	185
119. 처진處眞 선사	186
120. 신라新羅 대령大領 선사	186
121. 지장 계침地藏桂琛	187
122. 혜구惠球 선사	188
123. 파릉巴陵 선사	189
124. 동산 수초洞山守初	189
125. 천복薦福 선사	190
126. 청활淸豁 선사	191
127. 현각玄覺 도사	191
128. 천태 덕소天台德韶	192
129. 목암 법충牧菴法忠	192
130. 낭야鄖 선사	193
131. 우적于迪 상공	194
132. 수산 성념首山省念	194
133. 신조 본여神照本如	194
134. 인도의 어진 일곱 여인	195
135. 광효 안광孝安 선사	196

136. 화엄華嚴 좌주	198
137. 덕산 연밀德山緣密	198
138. 규봉 종밀圭峯宗密	199
139. 장졸張拙 상공	200
140. 운문 문언雲門文偃	200
141. 향엄 지한香嚴智閑	201
142. 도오道悟 선사	202
143. 백운 수단白雲守端	202
144. 원오 극근圓悟剋勤	203
145. 응암 담화應岩曇華	204
146. 고령 신찬古靈神贊	205
147. 학림 현소鶴林玄素	206
148. 대전 보통大顛寶通	207
149. 조산 텁장曹山耽章	208
150. 몽산 덕이蒙山德異	209
151. 낙보樂普 화상의 부구가浮漚歌	214
152. 등등騰騰 화상의 요원가了元歌	215
153. 양梁 보지寶誌 화상의 대승찬송大乘讚頌 10수	217
154. 지공誌公 화상의 14과송科頌	227
155. 미증유경未曾有經	241
156. 능엄경楞嚴經	244
157. 기신론起信論	244
158. 동산 양개 화상의 「부모님과 작별하는 편지」	245
159. 후서後書	247
160. 어머니의 답장(娘廻書)	249
161. 규봉 종밀圭峯宗密 선사의 계송	250
162. 용아 거둔龍牙居遁 화상의 계송	251
163. 대법안大法眼 선사 인승간경송因僧看經頌	251
164. 고덕古德의 계송	252
165. 천복 승고薦福承古	253

# I.

## 과거 7불佛<sup>1</sup>



### 1. 비바시불毘婆尸佛<sup>2</sup>

과거 장엄겁莊嚴劫<sup>3</sup>의 비바시毘婆尸 부처님께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몸은 형상이 없는 데에서 생겨나니  
환술(幻)이 온갖 형상을 만들어낸 것과 같네.  
환술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마음이 본래 없으니  
죄와 복은 모두 공하여 머물 곳이 없네.

毘婆尸佛過去莊嚴劫佛偈曰

- 
- 1 과거7불過去七佛의 계송. 비바시毘婆尸, 시기尸棄, 비사부毘舍浮 부처님은 과거의 3불佛이고, 구류손拘留孫,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 가섭迦葉, 석가모니釋迦牟尼 부처님은 현재의 4불佛이다.
- 2 Vipaśyin-buddha. 정관淨觀 · 승관勝觀이라 번역한다. 과거7불의 제1. 과거 장엄겁 제998위의 부처님. 인간 세상의 수명이 8만 세일 때 출세出世한 부처님. 찰제리 종족으로 성은 구리야拘利若. 아버지는 반두槃頭이고, 어머니는 반두바제槃頭婆提이다. 반두바제 성에서 태어나 바라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었고, 3회의 설법으로 34만8천 명을 제도하였다고 한다.
- 3 현재 현겁賢劫 이전에 있었던 과거 겁의 이름. 이 장엄겁 동안에 화광불華光佛로부터 비사부불毘舍浮佛에 이르는 천 명의 부처님이 세상에 났다고 한다.

身從無相中受生 猶如幻出諸形相  
幻人心識本來無 罪福皆空無所住

## 2. 시기불尸棄佛<sup>4</sup>

시기尸棄 부처님은 앞의 겁과 같은데,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착한 법 일으키는 것도 본래 환술(幻)이요,  
온갖 악업 짓는 것 또한 환술이네.  
몸은 물거품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도 같으니  
환술로 생겨난 것에는 근본도 실상도 없네.

[“환술로 일으키는 것은 근본이 없으니, 이것이 곧 실상이며 허망이 곧 진실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尸棄佛同前劫偈曰  
起諸善法本是幻 造諸惡業亦是幻  
身如聚沫心如風 幻出無根無實相 [如云幻起無根 卽實相 是了妄卽眞]

## 3. 비사부불毘舍浮佛<sup>5</sup>

비사부毘舍浮 부처님도 앞의 겁과 같은데,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

4 Śikhi-buddha. 上上 · 승勝 · 대大라 번역한다. 과거7불의 제2. 과거 장엄겁 제999위의 부처님. 인간 세상의 수명이 7만 세일 때에 출세出世한 부처님. 칠제리 종족으로, 성은 구담瞿曇. 아버지는 명상明相, 어머니는 광요光耀, 아들은 무량無量이다. 광상성光相城에서 태어나 분타리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었고, 3회의 설법으로 25만 명을 제도하였다고 한다.

5 Viśvabhū-buddha. 일체승一切勝 · 변일체遍一切라 번역한다. 과거7불의 제3. 과거 장엄겁 제1000위의 부처님. 인간 세상의 수명이 6만 세일 때 출세한 부처님. 칠제리 종족으로, 성은 구리야拘利若. 아버지는 선등善燈, 어머니는 칭계稱戒이다. 무유성無喻城에서 태어나 바라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었고, 2회의 설법으로 13만 명을 제도하였다고 한다.

사대四大를 빌려서 몸으로 삼았고  
마음은 본래 생겨나지 않았으나 대상을 따라서 있게 되었네.  
앞에 대상이 없다면 마음 또한 없으니  
죄와 복도 환술(幻)과 같아 생겼다가 사라지네.

[“마음은 본래부터 형체가 없으나 대상에 의지하여 비로소 생겨나는데, 대상의 성품도 역시 공하므로 마음과 대상은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毘舍浮佛同前劫偈曰  
假借四大以爲身 心本無生因境有  
前境若無心亦無 罪福如幻起亦滅 [如云心本無形 托境方生 境性亦空 心境一如]

## 4. 구류손불拘留孫佛<sup>6</sup>

구류손拘留孫 부처님은 현재 현겁賢劫<sup>7</sup>의 첫 번째 부처님인데,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몸이 실체가 없음을 보는 것이 부처님의 봄이요,<sup>7</sup>  
마음이 허깨비와 같음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네.  
몸과 마음의 본성이 공한 줄 안다면  
이 사람이 부처와 무엇이 다르랴!

[“몸과 마음이 하나요,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거늘, 산하와 대지가 어디에서 생겨날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拘留孫佛現在賢劫第一偈曰  
見身無實是佛見 了心如幻是佛了  
了得身心本性空 斯人與佛何殊別 [如云身心一如 身外無餘 山河大地 莫處得來]

---

6 Krakucchanda-buddha. 성취미묘成就微妙 · 정결頂結이라 번역한다. 과거7불의 제4. 현재 현겁賢劫 제1위의 부처님. 바라문 종족으로, 성은 가섭迦葉. 아버지는 예득禮得, 어머니는 선지善枝이다. 안화성에서 태어나 시리사 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루었고, 1회의 설법으로 4만 명을 제도하였다고 한다.

7 천 분의 부처님, 혹은 천오백 분의 부처님과 같이 어질고 현명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때문에 현겁(현명한 겁)이라 부른다.

## 5.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sup>8</sup>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 부처님은 현겁의 두 번째 부처님인데,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란 몸을 보지 않아도 부처인 줄 알지만  
만약 진실로 안다면 부처가 따로 없네.  
지혜로운 이는 죄의 성품이 공한 줄 잘 알아서  
결림이 없이 생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네.

拘那含牟尼佛賢劫第二偈曰  
佛不見身知是佛 若實有知別無佛  
智者能知罪性空 坦然不怖於生死

## 6. 가섭불迦葉佛<sup>9</sup>

가섭迦葉 부처님은 현겁의 세 번째 부처님인데,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여  
본래부터 생겨나거나 없어질 수 없네.  
이 몸과 마음은 환술(幻)으로 생겨난 것이니  
환술로 만들어진 것에는 죄와 복이 없다네.

迦葉佛賢劫第三偈曰  
一切衆生性清淨 從本無生無可減  
即此身心是幻生 幻化之中無罪福

---

8 Kanakamuni-buddha, 금선인金仙人이라 번역한다. 과거 7불의 제5. 현재 현겁賢劫 제2위의 부처님. 바라문 종족으로, 성은 가섭迦葉이고, 아버지는 대덕大德, 어머니는 선승善勝이다. 청정성清淨城에서 태어나 우담바라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었고, 1회의 설법으로 3만 명을 제도하였다고 한다.

9 Kāśyapa-buddha. 음광불欲光佛이라 번역한다. 과거 7불의 제6. 현재 현겁賢劫 제3위의 부처님. 인간 수명이 2만 세일 때 출세한 부처님. 바라문 종성으로, 성은 가섭이고, 아버지는 범덕梵德, 어머니는 재주財主, 아들은 집군集軍이다. 바라나성波羅奈城에서 태어나 니구율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었고, 1회의 설법으로 2만 명을 제도하였다고 한다.

## 7. 석가모니불 釋迦牟尼佛<sup>10</sup>

석가모니 釋迦牟尼 부처님은 현법의 네 번째 부처님인데,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별을 보고 깨닫게 되었지만  
깨달은 뒤에는 별이 아니네.  
사물을 뒤쫓지 않지만  
무정無情은 아니네.

釋迦牟尼佛賢劫第四偈曰

因星見悟 悟罷非星  
不逐於物 不是無情

세존께서 영산靈山<sup>11</sup>에서 설법하실 때, 하늘에서 네 가지 꽃이 비처럼 쏟아졌다. 세존께서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이시니 가섭이 빙그레 웃었다. 이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sup>12</sup>과 열반묘심涅槃妙心<sup>13</sup>이 있으니, 이를 마하가섭에게 부축하노라.”<sup>14</sup>

世尊在靈山說法 天雨四花 世尊遂拈花示衆 迦葉破顏微笑 世尊云 吾有正法眼藏涅槃妙心 付囑摩訶迦葉

10 Śakyamuni-buddha. B.C.623~B.C.544. 능인적묵能仁寂默이라 번역한다. 석가모니란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다. 중인도 가비라성迦毘羅城 정반왕의 태자로, 어머니는 마야摩耶이다. 룸비니 동산 무우수無憂樹 아래에서 탄생, 29세(혹은 19세)에 출가하여 6년 동안 수행한 끝에 35세(혹은 30세)에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었다. 이어서 45년 동안 중생을 교화하다가 80세에 사라쌍수沙羅雙樹 아래서 열반에 들었다.

11 영취산靈鷲山.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곳으로, 염화미소拈華微笑가 유래된 산이다.

12 정법正法은 일체를 비추는 지혜의 밝은 눈은 물론, 일체의 교법을 포함하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13 깨달음의 절묘한 마음. 열반은 깨달음의 청정한 경지이고, 묘심은 말로 하기 어려운 현묘한 마음으로 선禪의 극치를 말한다.

14 석가모니께서 가섭 존자에게 법을 전한 계송(傳法偈)은 다음과 같다. “법이란 본래의 법은 법이 없으며 (法本法無法) 법이 없다는 그 법 또한 법이다(無法法亦法). 이제 법 없음을 부축할 때에도(今付無法時) 법을 법이라 하나 어찌 법인 적이 있었으랴(法法何曾法).” 삼처전심三處傳心의 첫째는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눠줌(多子塔前分半座), 둘째는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임(靈山會上擧拈花), 셋째는 네란자라 강가에서 관에서 두 발을 내밀어 보임(尼蓮河畔櫛示雙趺)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의 자리에서 손으로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나의 자마금색紫磨金色<sup>15</sup>의 몸을 잘 살펴보고 충분히 우리러보아 공경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 만약 내가 멸도滅度<sup>16</sup>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내가 멸도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또한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었다.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 나지도 않았고 또한 열반하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佛於涅槃會上 以手摩胸 告大衆曰 汝等善觀吾紫磨金色之身 瞻仰取足勿令後悔 若謂吾滅度 非吾弟子 若謂吾不滅度 亦非吾弟子 時百萬億大衆 悉皆契悟 [如云如來不出世亦無有涅槃也]

세존께서 니구을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실 때, 상인 두 사람이 여쭈었다.

“혹시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보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는 들으셨습니까?”

“듣지 못하였다.”

“혹시 선정에 들어 계셨습니까?”

“선정에 들어 있지 않았다.”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자고 있지 않았다.”

상인들이 감탄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깨어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흰 모직천 두 필을 세존께 바쳤다.

[“몸과 마음이 흙이나 나무와 같아져서 듣고 보는 것이 마치 눈멀고 귀먹은 것과 같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

15 자줏빛 윤이 나는 금색. 자마금은 염부 나무 아래를 흐르는 강물 속에서 나는 사금砂金을 말한다.

16 ① 니르바나를 가리킨다. 깨달음. 도도는 (피안으로) 건너갔다는 뜻이다. ② 생로병사와 같은 육체적인 커다란 걱정근심이 영원히 사라져서 번뇌의 흐름을 뛰어넘은 것을 말한다. ③ 죽다. 석가모니의 죽음을 의미한다. 불멸佛滅, 입멸入滅의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세 번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世尊在尼拘律樹下坐次 有二商人問 還見車過不 曰不見 曰還聞不 曰不聞 曰莫禪定不 曰不禪定 曰莫睡眠不 曰不睡眠商人歎 曰善哉善哉 世尊覺而不見 遂獻白氈兩段 [如云身心如土木 聞見似盲聾]

세존께서 앉아 계실 때 밸다바라跋多婆羅가 함께 수행하던 개사開士<sup>17</sup> 16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존의 발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한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스님들이 목욕할 때 예법에 따라 욕실에 들어갔는데, 문득 물의 인(水因)을 깨달았습니다. 때를 씻어내는 것도 아니요 또한 몸을 씻는 것도 아니며, 그 중간이 편안해져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을 체득하였으니 묘한 감촉이 분명해서 불자주佛子住<sup>18</sup>를 이루었습니다.”

世尊坐次 跋多婆羅 併其同伴十六開士 卽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於浴僧時 隨例入室 忽悟水因 既不洗塵 亦不洗體 中間安然 得無所有 妙觸宣明 成佛子住

흑지 범지黑氏梵志<sup>19</sup>가 신통력을 부려 양손에 합환合歡 오동꽃나무 두 그루를 들고 와서는 부처님께 공양하려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선인仙人<sup>20</sup>을 부르자 범지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범지가 왼손에 들고 있던 꽃나무 한 그루를 내려놓자, 부처님께서 또 선인을 불러 내려놓으라고 하셨다.

범지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꽃나무 한 그루도 마저 내려놓았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

17 보살의 다른 이름. 『능엄경』에 등장하는 ‘개사입욕開士入浴’ 또는 ‘개사수인開士水因’으로, 설두 중현雪竇重顯은 이 일을 들어서 뜻을 묻고 있다.

18 법왕자주法王子住와 같이, 적어도 보살로서 부처님의 제자다운 가장 최고의 보살을 말한다. 부처님의 아들로서 머무는 것으로 왕의 태자와 같은 지위가 불자주이다. (각성, 『불조직지심체요절』 p.65 강해 참고)

19 다른 번역본에는 흑치黑齒로 되어 있다. 범지梵志(brahmacārin)란 범사梵士라고도 쓴다. 범梵은 청정을 뜻하며 바라문을 일컫는다. 바라문은 청정한 수행을 하고 범천에 태어나기를 지향하는 자이므로 이와 같이 말한다.

20 rsi. ①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 살면서 신통력 등의 술법을 닦는 이. ② 바라문교 등 외도의 수행자로서 신통력이 있는 사람.

“선인이여, 내려놓아라.”

그러자 범지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양손에 들고 있던 꽃을 이미 다 내려놓았는데, 다시 또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들고 있던 꽃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내려놓되, 외부의 여섯 가지 감각의 대상(六塵, 색·소리·냄새·맛·촉감·법)과 내부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根, 눈·귀·코·혀·몸·의지) 중 여섯 가지 마음 작용(六識, 眼識·耳識·鼻識·舌識·身識·意識)을 일시에 내려놓으라는 말이었다.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대는 생사를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범지는 세존의 말씀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닫고 물러났다.

世尊因黑氏梵志 以神通力 左右手擎合歡梧桐花兩株 來供養佛 佛召仙人 梵志應喏 佛云放下着 梵志放下左手一株花 佛又召仙人放下着 梵志又放下右手一株花 佛又云 仙人放下着 梵志云 世尊 我今兩手花 皆已放下 更放下个什麼 佛云吾非令汝 放下手中花 汝今當放下 外六塵內六根中六識一時放下 到無可捨處 是汝脫生死處 梵志於言下悟去

## II.

### 서천西天의 조사祖師



#### 1·2. 가섭迦葉·아난阿難

가섭<sup>1</sup>이 계송으로 말하였다.

법이란 법은 본래 법이니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네.  
어찌 한 가지 법 속에  
법과 법 아닌 것이 있으랴.

迦葉頌曰  
法法本來法 無法無非法  
何於一法中 有法有不法

---

1 Mahākāśyapa.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의 하나. 마하가섭摩訶迦葉이라고도 하며, 대음광大飲光·대귀씨大龜氏라 번역한다. 본래 바라문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지 3년쯤 뒤에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두타頭陀 제일. 부처님의 심인心印을 전해 받았다. 석존이 입멸한 뒤 5백 아라한을 데리고 제1결집結集을 하면서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

보譜<sup>2</sup>에 “교敎의 바다는 아난<sup>3</sup>의 입으로 흐르게 하고, 선禪의 등불은 가섭 존자의 마음에 붙이셨다”고 하였다. 그리므로 아난이 가섭에게 “세존께서 금란가사金欄袈裟<sup>4</sup>를 전해주신 것 외에 따로 어떤 법을 전해 주셨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가섭이 아난을 부르자 아난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가섭이 말하였다. “지 문 앞의 칠간刹竿<sup>5</sup>을 넘어뜨려라.”<sup>6</sup>

[내가 말한다면 “두 분의 큰 스승이 동시에 세상을 교화하지 않는다. 부르는 곳이 분명하고 대답하는 곳이 진실하고, 그 속에 형상과 소리와 언어를 갖추었으니,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선이다”라고 하리라.]

譜云 教海瀉阿難之口 禪燈點迦葉之心 故阿難問迦葉 世尊傳金欄外別傳何法迦葉召  
阿難 阿難應喏迦葉云倒却門前刹竿着

[私曰二尊不並化 喚處分明應處真 个中具色聲言語也 最初禪也]

### 3. 상나화수商那和脩

제3조 상나화수商那和脩<sup>7</sup> 존자가 우파국다優波鞠多를 만나 시자로 삼고 나서 물었다.

“몇 살인가?”

2 보譜란 것은 석가모니의 족보를 말한 것으로 『석가보釋迦譜』를 말한다. 지금 나온 말은 거기에는 나오지 않고 『선문염송』 3권에 나오는 말을 따온 것이다.(각성, 앞의 책, p.71)

3 Ānanda. 부처님 10대 제자의 한 사람. 아난이라고도 한다. 무염無染 · 환희歡喜 · 경희慶喜라 번역한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부처님이 전도 생활하신 지 20년 후에 여러 제자들 중에서 선출되어 부처님을 모시는 시자가 되었다. 항상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 불린다.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대가섭을 중심으로 제1차 결집 때에 부처님께 들은 것을 암송하여 경장經藏을 확립하였다. 또한 여성의 출가를 부처님께 간청하여 비구니 교단이 있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4 금란金欄으로 지은 가사袈裟로서, 전법傳法의 표시이다.

5 설법이나 법회 중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찰 앞에 세우는 것대.

6 가섭 존자가 석가모니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제1조이고, 아난 존자가 제2조이다. 아난 존자가 제3조인 상나화수商那和脩에게 전한 계송은 다음과 같다. “본래 부축할 때엔 법이 있었는데(本來付有法) 부축한 뒤에는 법이 없다고 말하네(付了言無法). 각각 스스로 깨달아야 하니(各各須自悟) 깨달은 뒤에 법 없음도 없네(悟了無無法).”

7 Śānakavāsa. 생몰연대 미상. 자연복自然服 · 태의胎衣 · 마의麻衣라 번역한다. 성은 비사다毘舍多.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3조. 마돌라국摩突羅國 출신. 아난의 법을 이어받았다. 우파국다에게 법을 전한 뒤 계빈국罽賓國 상백산象白山에 은거하였다. 『전등록』에 의하면 주周 선왕宣王 37년(B.C.806)에 입적하였다고 한다.

우파국다가 답하였다.

“저는 열일곱 살입니다.”

“너의 몸이 열일곱 살인가, 너의 성품이 열일곱 살인가?”

우파국다가 대답하였다.

“스승님의 머리카락은 이미 백발이신데 머리카락이 세신 것입니까, 마음이 세신 것입니까?”

상나화수 존자가 대답하였다.

“나는 머리카락만 세었을 뿐 마음까지 센 것은 아니다.”

우파국다가 답하였다.

“제 몸은 열일곱 살이지만 성품까지 열일곱 살은 아닙니다.”

그러자 존자는 우파국다가 법기法器<sup>8</sup>임을 알아차리고 그를 출가시켜 구족계具足戒<sup>9</sup>를 주며 말하였다.

“옛날에 여래<sup>10</sup>께서 위없는 정법안장正法眼藏을 가섭 존자께 부축하신 아래로 그 것이 대대로 전해 내려와 나에게 이르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니 그대는 그 것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나의 계송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상나화수 존자는 다음과 같이 계송으로 말하였다.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마음도 없으며 법도 없네.

마음이니 법이니 말로 설명하려들 땐

---

8 불법을 담을 그릇. 곧 불도를 수행할 만한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9 upasampada. 구계具戒 또는 대계大戒라고도 한다. 이 계를 받으려는 이는 짚은이로서 일을 감당할 만하고, 몸이 튼튼하여 병이 없고 모든 죄과가 없고, 이미 사미계沙彌戒를 받은 이에 한한다. 비구·비구니가 받아 지킬 계법으로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이다.

10 Tathāgata. 부처님 10호號의 하나. 이 말 뜻에 대하여는 이 말을 조성하는 두 단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말을 tatha 또는 tathā, 둘째 말을 gata 또는 āgata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tatha는 ‘진실·진리’란 뜻이고, tathā는 ‘여시如是’ 또는 ‘여실如實’의 뜻이다. gata는 ‘가다(逝)’의 뜻이고, āgata는 ‘도달·오다(來格)’의 뜻이다. 그러므로 만일 ① tathā+gata라 하면 지금까지의 부처님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 열반의 피안彼岸에 간 사람이란 뜻이고, ② tathā+āgata라 하면 진리에 도달한 사람이란 뜻이며, ③ tathā+āgata라 하면 지금까지의 부처님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 동일한 이상경理想境에 도달한 사람이란 뜻이다. 또 이 밖에도 āgata를 ‘오다(來格)’의 뜻이라 하면 여래라는 것은 부처님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 이 세상에 내현來現한 사람, 또는 여실한 진리에 수순하여 이 세상에 와서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한역漢譯에서는 이 뜻에 의하여 여래를 해석하되 여如로서 내생來生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이 법은 마음도 법도 아니네.

第三祖商那和脩 得優波鞠多 以爲給侍 因問曰 汝年幾耶 答曰我年十七 師曰汝身十七 汝性十七耶 答曰師髮已白 爲髮白耶心白耶 師答曰但髮白也 非心白耳 鞠多曰 我身十七 非性十七也 師知是法器 遂爲出家受具 乃告曰 昔如來以無上法藏 付囑迦葉 轉轉相授而至於我 我今付汝 勿令斷絕 聽吾偈曰  
非法亦非心 無心亦無法  
說是心法時 是法非心法

## 4. 우파국다優波鞠多

제4조 우파국다優波鞠多<sup>11</sup>는 20세에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은 후 여러 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화하여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였다. 최후에 미묘한 진리를 찾아 출가할 뜻이 간절한 향중香衆이라는 장자<sup>12</sup>를 만나서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몸으로 출가를 하려 하오, 마음으로 출가하려 하오?”

“저는 몸이나 마음으로 출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나 마음으로 출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출가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출가라는 것은 나와 나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sup>13</sup> 나와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곧 마음이 생멸하지 않고, 생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항상하는 도인 것이니, 여러 부처님들 또한 항상하십니다. 마음에 형상이 없고 그 본체 또한 그렇습니다.”

“그대는 크게 깨달아 마음이 저절로 활짝 열릴 것이니,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sup>14</sup>에 의지해서 머물러야 할 것이다.”

---

11 Upagupta. 또는 우파국다라고도 한다. 생몰연대 미상. 근호近護 · 근장近藏 · 무상無相이라 번역한다.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4조. 상나화수에게서 수행하여 아라한과를 얻고 아육왕阿育王에게 법을 가르쳤다.

12 인도에서 좋은 집안에 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덕을 갖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13 보통 경에는 나(我)와 나의 것(我所)이 없다고 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후자의 나(我)는 ‘나의 것(我所)’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14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세 가지이니, 불보佛寶 · 법보法寶 · 승보僧寶를 말한다. 불보는 부처님, 법보는 진리眞理, 승보는 승가僧伽를 말한다.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불교인이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우파국다 존자는 항중을 머리 깎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고 그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계송으로 말하였다.

마음은 본래부터 마음이요  
본래의 마음에는 법이 있지 않네.  
법이 있고 본래의 마음도 있다면  
마음도 아니고 본래의 법도 아니네.

第四祖優波鞠多者二十出家證果隨方行化度無量衆最後有一長者名香衆志求妙道出家尊者問曰汝身出家汝心出家答曰我來出家非爲身心尊者曰不爲身心復誰出家曰夫出家者無我我故無我我故卽心不生滅不生滅卽是常道諸佛亦常心無形相其體亦然尊者曰汝當大悟心自通達宜依佛法僧住卽爲剃度受具卽付法偈曰心自本來心本心非有法有法有本心非心非本法

## 5. 제다가提多迦

제5조 제다가提多迦<sup>15</sup> 존자는 통진량通真量이라고도 한다. 어느 날 존자가 미차가彌遮迦에게 말하였다.

“옛날 여래께서 큰 정법안장을 가섭 존자에게 부축하신 아래 대대로 전하여 나에게 이르렀다. 나는 이제 그것을 그대에게 부축하고자 하니 그대는 늘 염두에 두고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계송으로 말하였다.

근본인 법과 마음을 통달하면  
법도 법 아닌 것도 없네.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으니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네.

---

15 Dhrtaka. 생몰연대 미상. 유괴有媿라고 번역한다.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5조. 중인도에 머물면서 대중을 교화하고 미차가에게 법을 부축하였다.

제다가 존자는 계송을 말한 뒤에 허공으로 날아올라 열여덟 가지의 변화(十八變)<sup>16</sup>를 보인 뒤에 화화삼매化火三昧<sup>17</sup>로 스스로 몸을 태웠다.

第五祖提多迦者此云通真量也 尊者謂彌遮迦曰 昔如來以大法藏 付囑迦葉 轉轉相授而至於我 我今付汝 汝當護念 倭曰  
通達本法心 無法無非法  
悟了同未悟 無心亦無法  
說偈已 踊身虛空 作十八變 化火三昧 自焚其身

## 6. 미차가彌遮迦

제6조 미차가彌遮迦<sup>18</sup> 존자는 북천축국에서 교회를 펴다가 망루 위에 금빛 찬란한 상 서로운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다.

“반드시 나의 법을 이을 대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성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술병을 들고 맞은편에서 오며 물었다.

“스님, 어디서 오시며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미차가 존자가 답하였다.

“나는 마음에서 오며, 무처無處로 가려고 하네.”

“스님은 저를 아십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안다고 하면 내가 아닐 것이다.”

미차가 존자가 또 말하였다.

---

16 불보살이 나타내는 열여덟 가지 불가사의한 신통력.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제37권에 있다. 진동震動 · 치연熾然 · 유포流布 · 시현示現 · 전변轉變 · 왕래往來 · 권卷 · 서舒 · 중상입신衆像入身 · 동류왕취同類往趣 · 은隱 · 현顯 · 소작자재所作自在 · 제타신통制他神通 · 능시변재能施辯才 · 능시역념能施憶念 · 능시안락能施安樂 · 방대광명放大光明이다. 또 『법화경法華經』 「엄왕품」에도 있다.

17 화광火光삼매 · 화염火燄삼매와 같은 뜻으로, 몸에서 세찬 불길을 내는 삼매를 말한다.

18 생몰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6조. 처음에는 8천 명의 대선大仙을 이끈 우두머리였지만 제다가 존자를 만나 무리들과 함께 보리심을 벌하여 제자가 되었다. 『전등록』에 의하면 주周 양왕襄王 17년(B.C.637)에 입적했다고 한다.

“그대의 성명이나 말해 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본래의 인연을 말하겠네.”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저는 한량없는 겁을 따라  
이 나라에 태어나기까지  
본래 성은 바라타頗羅墮이고  
이름은 바수밀波須密입니다.

미차가 존자가 말하였다.

“옛날 세존께서 북인도를 지나시다가 아난 존자에게 이르시기를 ‘이 나라에서 내가 열반에 들고서 300년이 지난 후에 성은 바라타이고, 이름은 바수밀이라는 한 성인이 나타나서 선禪의 일곱 번째 조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네.”

“지금 스님의 말씀과 꼭 들어맞으니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미차가 존자는 곧 그를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말하였다.

“정법안장을 지금 그대에게 부축하니 끊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계송으로 말하였다.

마음이 없어서 얻을 것도 없으니  
얻은 것이 있다면 법이라 할 수 없네.  
마음이 마음 아닌 줄 깨달으면  
비로소 마음과 마음의 법을 알리라.

존자는 계송을 마친 뒤에 화화삼매로 스스로 몸을 태웠다.

第六祖彌遮迦 行化北天竺國 見雉堞上有金色祥雲 嘆曰必有大人 爲吾嗣法 乃入城有一人 手持酒器 逆而問曰 師何方而來 欲往何所 師曰從自心來 欲往無處 曰師知我否 師曰我卽不識 識卽非我 又謂曰 汝試自稱名氏 吾當後示本因 彼人說偈而答 我從無量劫 至于生此國 本姓頗羅墮 名字波須密  
師曰世尊 昔遊北印度 語阿難言 此國中吾滅後三百年 有一聖 姓頗羅墮 名波須密 而於禪祖 當得第七 曰今符師說 願加度脫 師卽與披剃授具 乃曰正法眼藏 今付於汝 勿令斷絕 乃說偈曰  
無心無可得 說得不名法  
若了心非心 始解心心法

## 7. 바수밀波須密

제7조 바수밀波須密<sup>19</sup> 존자는 미차가 존자를 만나 여래의 옛 기록을 전해 듣고서 스스로 전생의 인연을 살핀 뒤에 나아가 (불타난제 존자를)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었다. 그 후에 바수밀 존자는 다시 “여래의 정법안장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니, 그대는 잘 지니고 수호하라”고 당부한 뒤에 계송으로 말하였다.

마음은 허공계와도 같기에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는 것이네.  
허공을 증득할 땐  
옳은 법도 그른 법도 없으리라.

존자는 계송을 마치고 이내 삼매에 들어 열반하였다.

第七祖波須密 遇彌遮迦尊者 宣如來往誌 自省前緣 乃出家授具 復告曰 如來正法眼藏  
我今付汝 汝當守持 乃說偈曰  
心同虛空界 示等虛空法  
證得虛空時 無是無非法  
說偈已 卽入三昧 示涅槃相

## 8. 불타난제佛陀難提

제8조 불타난제佛陀難提<sup>20</sup> 존자는 처음 바수밀 존자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출가하였

---

19 Vasumitra, 생몰연대 미상. 바수밀다婆須蜜多 · 화수밀다和須蜜多라고도 한다. 세우世友 · 천우天友라 번역한다.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7조. 항상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광인狂人이었는데, 우연히 미차가를 만나 출가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제4결집 때 결집을 주도하여 『대비바사론』을 편집하였다고 한다. 『전등록』에 의하면 주周 정왕定王 19년 임직했다고 한다.

다. 그는 후에 교화하러 다니다가 제가국提加國의 성에 있는 비사라毘舍羅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 위에서 흰 광명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집에 틀림없이 성인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하지는 못하나 진짜 대승大乘<sup>21</sup>의 그릇일 것이다.”

불타난제가 말을 마치자 장자가 나와서 절을 올리며 물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시자侍者<sup>22</sup>를 구하고 있소.”

“저에게는 복타밀다伏駄密多라는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50이 되도록 말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말한 대로라면 참으로 나의 제자요.”

불타난제 존자는 복타밀다를 보러 가니 복타밀다는 별떡 일어나서 존자에게 절을 올린 후 계송으로 말하였다.

부모는 나와 친하지 않으니  
그 누가 가장 친한 사람입니까?  
부처님들도 나의 도가 아니니  
무엇이 궁극적인 도입니까?

불타난제 존자는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그대의 말은 마음과 친하니  
부모에게 견줄 바는 아니다.  
그대의 행이 도와 일치하니

---

20 생물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8조. 성은 구담瞿曇. 정수리에 육계肉髻가 있고, 말재주가 막힘이 없었다고 한다. 『전등록』에 의하면 주周 경왕景王 12년(B.C.525)에 입적했다고 한다.

21 mahāyāna. 수레란 깨달음의 경지로 중생을 실어 나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교리를 의미한다. 자기 혼자만 열반의 경지에 머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깨달음을 향해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모두가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대승이라 한다.

22 장로長老의 곁에 친히 모시면서 그 시중을 드는 소임. 아난이 부처님의 시자로 있었던 것이 그 시초다.

모든 부처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밖에서 아무리 형상이 있는 부처를 구하여도  
그대와 같지 않으리라.  
그대의 근본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그와 하나 되지도 말고 떨어지지도 말아야 하리라.

복타밀다는 존자의 깊은 뜻이 담긴 계송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일곱 걸음을 걸었다. 이에 불타난제 존자는 바로 그를 출가시켜서 구족계를 준 뒤에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여래의 정법안장을 그대에게 부축하니, 끊이지 않도록 하라.”  
존자는 계송으로 밀하였다.

허공은 안과 밖이 없으며  
마음의 법 또한 그리하다.  
허공을 환히 안다면  
진여의 이치에 이를 것이다.

불타난제 존자는 계송을 마친 후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더니 완전하게 적멸寂滅<sup>23</sup>에 들었다.

第八祖佛陀難提 初遇波須密 受教出家 行化至提加國城毘舍羅家 見舍上有白光上騰  
謂其徒曰 此家當有聖人 口無言說 眞大乘器 言訖 長者出致禮問何所須 尊者曰 我求  
侍者 曰我有一子 名伏駄密多 年已五十 口未會言足未曾步 尊者曰 如汝所說真吾弟子  
尊者見之 卽起禮拜而說偈曰  
父母非我親 誰是最親者  
諸佛非我道 誰是最道者  
尊者以偈答曰  
汝言與心親 父母非可比  
汝行與道合 諸佛心卽是  
外求有相佛 與汝不相似  
欲知汝本心 非合亦非離

---

23 열반涅槃. 번뇌를 모두 끊어 더 이상 나고 죽는 인因·과果를 멀하여 다시는 미혹迷惑한 생사生死를 계속하지 않는 고요한 경계를 말한다.

伏駄聞師妙偈 便行七步 尊者卽令出家授具戒 復告之曰 我今以如來正法 付囑於汝 勿令斷絕 乃說偈曰  
虛空無內外 心法亦如此  
若了虛空故 是達真如理  
說偈已 尊者卽現神變 了然寂滅

## 9. 복타밀다伏駄密多

제9조 복타밀다伏駄密多<sup>24</sup> 존자는 교화하러 나섰다가 중인도에 이르렀다. 그 곳의 향  
개香蓋라는 장자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 절을 올린 뒤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이는 제 어미의 태 속에서 60년이나 있었으므로 난생難生이라 부릅니다.  
이제 스님을 뵙게 되었으니 출가시켜 주십시오.”

이에 복타밀다 존자는 곧바로 난생의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게 하였다. 갈마羯  
磨<sup>25</sup>를 할 때 상서로운 빛이 그 자리를 밝히더니 37과 颗의 사리舍利<sup>26</sup>가 나타났다.  
이때부터 난생은 피로한 줄을 모르고 부지런히 정진하였다. 그 후 복타밀다 존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래의 정법안장을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니 그대는 잘 지켜서 잃어버리지 말아  
야 한다.”

존자는 계송으로 말하였다.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는데  
이름으로 인하여 진리를 나타낸다.

---

24 Buddhamitra, ?~B.C.487. 불타밀다佛駄密多라고도 한다.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9조. 성은 비사라毘舍羅. 50세에 출가 수계하였다. 『전등록』에 의하면 주周 경왕敬王 35년(B.C.442)에 입적하였다고 한다.

25 karman. 수계나 참회할 때의 작법作法.

26 Śarīra. 설리라設利羅 · 실리라室利羅라고도 한다. 신골身骨 · 유신遺身 · 영골靈骨이라 번역한다. 전신사  
리全身舍利 · 쇄신사리碎身舍利 · 생신사리生身舍利 · 법신사리法身舍利로 구별되는데, 전신사리는 다보  
불多寶佛과 같이 전신이 그대로 사리인 것이고, 쇄신사리는 석가불釋迦佛의 사리와 같이 몸에서 나온  
낱알로 된 것이며, 생신사리는 여래가 멸도滅度한 뒤에 전신사리나 쇄신사리를 남겨 두어 인과 천  
이 공양케 하는 것이고, 법신사리는 대승 · 소승의 일체 경전을 밀한다. 본래는 신골이나, 주검을 모두  
사리라 하였는데, 후세에는 화장한 뒤에 나온 작은 구슬 모양으로 된 것만을 사리라 한다.

진실한 법을 얻으면  
그것은 참도 아니며 거짓도 아니다.

존자는 난생에게 법을 부촉한 뒤에 이내 멸진삼매滅盡三昧<sup>27</sup>에 들었다.

第九祖伏馱密多 行化 至中印度 有一長者香蓋 携一子來 禮尊者曰 此子在胎六十歲  
因號難生 今遇尊者 可令出家 尊者卽與落髮授具 羯摩之際祥光燭座 仍感舍利三七箇  
自此精進忘疲 旣尔師告之曰 如來大法 今付於汝 汝護念之 乃說偈曰  
眞理本無名 因名現眞理  
受得眞實法 非眞亦非僞  
尊者付法已 卽入滅盡三昧

## 10. 협臆 존자

제10조 협臆<sup>28</sup> 존자가 태어날 적에 존자의 아버지는 흰 코끼리 한 마리를 꿈에 보았는데, 코끼리의 등 위에는 보배 의자가 있었고 그 의자 위에는 눈부시게 밝은 구슬하나가 놓여 있었다. 코끼리가 문으로 들어오자 구슬의 광채가 사부대중을 환히 비추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 협 존자가 태어났다.

후에 협 존자는 복타밀다 존자를 뵙고 곁에서 극진히 시봉을 하였는데, 누워 잠든 적이 없었으므로 ‘옆구리가 자리에 닿지 않는다’하여 협 존자라 불리게 되었다.

훗날 협 존자가 화씨국花氏國으로 교화하러 들어갔다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한 장자의 아들인 부나야사富那夜奢가 다가와 합장을 하고 존자의 앞에 섰다. 협 존자가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부나야사가 답하였다.

“제 마음은 가지 않았습니다.”

---

27 수受(느낌)와 상想(생각, 지각작용) 등의 일체 소연所緣에 의한 작용이 모두 멈춘 선정.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고도 한다.

28 Pārśva. 생몰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10조. 성은 난생難生이다. 일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협臆 존자’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대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제 마음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대는 정해지지 않았는가?”

“모든 부처님들도 그리하셨습니다.”

협 존자는 부나야사의 뜻을 알아차리고 바로 출가하게 하여 구족계를 준 뒤에 이렇게 밀하였다.

“여래의 정법안장을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니 그대는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협 존자가 계송으로 밀하였다.

참의 본체는 그대로가 참이니

참으로 인해서 이치가 있다고 말한다.

진실한 법을 깨닫는다면

가는 것도 없고 멈추는 것도 없으리라.

협 존자는 법을 그에게 부축한 뒤에 바로 열반에 들더니 화화삼매에 들어 스스로 몸을 태웠다.

第十祖脇尊者 將誕 父夢一白象 背有寶座 座上安一明珠 從門而入 光照四衆 既覺遂生 後值伏駄 執侍左右 未嘗睡眠 謂其脅不至席 遂號脇尊者焉 行化花氏國 憇一樹下有一長者子富那夜奢 合掌前立 尊者問汝從何來 答曰我心非往 尊者曰汝何住 曰我心非止 尊者曰汝不定耶 曰諸佛亦然 尊者知其意 卽令出家授具戒品 乃告之曰 如來大法今付於汝 汝護念之 乃說偈曰  
眞體自然眞 因眞說有理  
領得眞眞法 無行亦無止  
尊者付法已 卽入涅槃 化火自焚

## 11. 부나야사富那夜奢

제11조 부나야사富那夜奢<sup>29</sup> 존자는 협 존자에게서 법을 얻은 뒤에 바라나국波羅那國

---

29 생물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11조. 성은 구담瞿曇이다. 『전등록』에 의하면 주周 안왕安王

을 찾아갔다. 그 곳에 사는 마명馬鳴 대사大士<sup>30</sup>가 부나야사 존자를 찾아와 절을 올리고는 여쭈었다.

“저는 부처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처입니까?”

부나야사 존자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부처에 관해서 알고 싶다고 하였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

“아직 부처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것이 부처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부나야사 존자가 대답하였다.

“아직 부처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부처가 아닌 줄은 어찌 아는가?……”

이에 마명은 한 순간에 환히 깨달아서 바로 출가하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부나야사 존자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대사는 옛날에 비사리국毗舍離國의 임금이었소. 그런데 그 나라의 어떤 부류 사람들은 말처럼 벌거벗은 채로 지내고 있었소. 이에 대사가 신통력으로 누에로 변신하니 그들은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소. 그 후에 중인도에 다시 태어났는데 말과 사람들이 모두 다 감격하고 연모하여 구슬피 울었으므로 이름을 ‘마명’이라 하였던 것이오.”

이어서 존자는 마명에게 출가를 허락하고 구족계를 주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여래의 큰 법(정법안장)을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노라.”

그리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미혹함과 깨달음은 숨음과 드러남과도 같나니  
빛과 어둠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네.  
이제야 숨음과 드러남의 법을 부축하니  
그것은 하나도 아니며 둘도 아닌 것이다.

존자는 법을 부축한 뒤에 고요히 원적圓寂<sup>31</sup>에 들었다.

---

14년(B.C.338) 입적했다고 한다.

30 mahā-sattva. 마하살이라 음역한다. 또는 개사開士라고도 한다. 보살의 다른 이름이다.

31 parinirvāṇa. 원만한 적정寂靜. 번뇌로 물든 세계를 여의고 청정한 열반계에 돌아간다는 말로, 부처님의 열반을 뜻한다. 후세에 스님들의 죽음을 귀적歸寂·입적入寂·시적示寂이라 하는 것은 이 말이 조금 변하여 쓰이게 된 것이다.

第十一祖富那夜奢 既得法於脣尊者 尋詣波羅奈國 有馬鳴大士 延而作禮 因問曰 我欲識佛 何者卽是 師曰汝欲識佛 不識者是 曰佛既不識 焉知是乎 師曰既不識佛 焉知不是 云云 馬鳴豁然省悟 卽求剃度 師謂衆曰 此大士昔爲毗舍離國王 其國有一類人 如馬裸露 大士運神力 分身爲蠶 彼乃得衣 後復生中印度 馬人感戀悲鳴 因號馬鳴 既遇尊者 出家授具 卽告之曰 如來大法 今付於汝 卽說偈曰  
迷悟如隱現 明暗不相離  
今付隱現法 非一亦非二  
付法已 卽湛然圓寂

## 12. 마명馬鳴

제12조 마명馬鳴<sup>32</sup> 존자에게 어느 날 어떤 외도外道<sup>33</sup>가 찾아와서 토론을 하고자 하였다. 마명 존자는 국왕과 대신 그리고 사부대중들을 토론장에 모두 모이게 하였다. 마명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으로 주장의 종지宗旨를 삼고 있는가?”

외도가 답하였다.

“어떤 말이든지 나는 모두 깨뜨릴 수 있소.”

이에 마명 존자가 왕을 가리키면서 외도에게 말하였다.

“지금 온 나라가 태평할 뿐만 아니라 대왕도 장수하고 계시다. 그럼 그대가 이것을 깨뜨려 보라.”

외도는 굴복하고 말았다.

---

32 Aśvaghoṣa, 1~2세기 경.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12조. 처음에는 외도를 믿었지만 부나야사에 의해 불교에 귀의하였다. 탁월한 지혜와 말솜씨를 지녀서 카니슈카왕의 종교고문이 되었다. 저서로는 『불소행찬』, 『건치법찬』 등이 있다. 마명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던 『대승기신론』과 『대종지현문본론』은 그의 작품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작품이라는 설도 있다. 『전등록』에 의하면 주周 현왕顯王 37년(B.C.327)에 입적했다고 한다.

33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는 이들이 아닌 다른 종교나 사상가를 일컫는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법正法, 내법內法이라 하는 데 반하여 그릇된 믿음, 그릇된 사유, 그릇된 수행을 하여 종국에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을 말한다. 부처님 당시 대표적인 외도로는 육사외도六師外道가 있었으며, 이들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것을 삼종외도三種外道라 한다.

第十二祖馬鳴尊者 一日有外道索論議 集國王大臣併及四衆 俱會論場 馬鳴云 汝義以何爲宗 外道云 凡有言說 我皆能破 馬鳴乃指國王云 當今國土康寧 大王長壽 請汝破之 外道屈伏

## 13. 가비마라迦毗摩羅

제13조 가비마라迦毗摩羅<sup>34</sup> 존자는 마명 존자로부터 가르침을 전수 받은 뒤<sup>35</sup>에 교화를 하다 서인도에 이르렀다. 그 나라의 산에서 북쪽으로 10리를 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늘이 500마리의 용을 덮을 정도로 컸다. 그 나무왕의 이름은 용수龍樹라 하였으며, 그는 항상 용의 무리를 위하여 설법을 해주고 있었다.

존자가 제자들과 함께 그 곳으로 가자 용수가 나와 존자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용과 뱀들이 사는 외롭고 적적한 이 깊은 산중에 덕 높고 존귀하신 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비마라 존자가 답하였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오. 그저 현자를 만나러 왔을 뿐이오.”

이에 용수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존자는 결정된 성품을 얻어 도의 눈(道眼)이 밝아지셨을까, 위대한 성인들의 참다운 법(眞乘)을 이어받으셨을까?’

그러자 가비마라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나는 이미 그대의 마음을 다 알고 있소. 그대는 출가할 결심이나 할 것이지 어찌 내가 성인인지 아닌지를 염려하는가?”

용수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뉘우치면서 사죄하자 가비마라 존자는 곧 그를 출가시키고 5백 명의 그의 무리들도 모두 구족계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존자는 다시 용수

---

34 Kapimala, 생몰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13조. 비라毘羅라고도 한다. 『전등록』에 의하면 주周 난왕桓王 46년(B.C.269)에 입적했다고 한다.

35 마명 존자는 “숨고 나타남이 곧 본래의 법이며(隱現即本法), 밝고 어두움은 원래 둘이 아니다(明暗元不二). 지금 깨달은 법을 부축하니(今付悟了法), 취합도 아니고 떠남도 아니다(非取亦非離)”라는 전법계를 남겼다.

에게 말하였다.

“이제 여래의 정법안장을 그대에게 부축하노라.”

그리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드러나지도 숨지도 않는 법을

진실眞實際라 말하네.

숨고 드러나는 법을 깨달으면

어리석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네.

존자는 법을 부축한 뒤에 신통 변화를 나타내고 화화삼매로 스스로 몸을 태웠다.

第十三祖迦毘摩羅 於馬鳴尊者得法 行化至西印度彼國出中 北去十里有大樹 陰覆五百大龍 其樹王名曰龍樹 常爲龍衆說法 尊者遂與徒衆詣彼 龍樹出迎 尊者曰深出孤寂 龍鱗所居 大德至尊 何枉神足 師云吾非至尊來訪賢者 龍樹默念曰 此師得決定性明道 眼不 是大聖繼眞乘不 師云汝雖心語 吾已意知 但辦出家 何慮吾之不聖 龍樹聞已悔謝 尊者卽與度脫及五百衆 俱受具戒 復告龍樹曰 今以如來大法 付囑於汝 卽說偈曰 非現非隱法 說是眞實際 悟此隱現法 非愚亦非智 付法已 卽現神變 化火自焚

## 14. 용수龍樹

제14조 용수龍樹<sup>36</sup> 존자는 가비마라 존자에게서 법을 얻은 뒤에 남인도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복업福業 짓는 교리만을 믿고 있었다. 그들은 용수 존자가 미묘한 법을 설한다는 말을 듣고 서로 수군거렸다.

“사람이 복업 짓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인데, 어찌하여 쓸데없이 불성을 말하다니

---

36 Nāgārjuna. 생몰연대 미상. 용맹龍猛 또는 용승龍勝이라고도 한다.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14조. 처음에는 바라문 교학을 배우고 후에 서북인도에서 대승 교학으로 전향하였다. 만년에 남인도 샤다바하나 왕조의 보호를 받아 크리슈나강 중류의 흑봉산黑峰山에 머물렀고 나가르주나 콘다에서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중론송』, 『회쟁론』, 『육십송여리론』, 『대지도론』, 『십주비바사론』 등이 있다. 후세 중국 등 의 북방불교에서는 8종宗의 조사祖師로 존경받게 된다.

어느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용수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불성을 보고 싶다면 먼저 아만을 없애야 할 것이오.”

“불성은 큅니까, 작습니까?”

“크지도 작지도 않고 넓지도 좁지도 않으며, 복 짓는 일도 아니고 그 과보도 없고 죽거나 생겨나지도 않는 것이오.”

그들은 뛰어나고도 미묘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 모두가 처음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sup>37</sup> 다시 용수 존자가 법좌 위에서 보름달과 같은 자재로운 몸을 나타내자, 그 대중들은 용수 존자의 설법하는 음성만 들을 수 있었을 뿐, 존자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 대중들 가운데 가나제바迦那提波라는 어떤 장자의 아들이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바로 존자께서 불성의 본체를 형상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대체로 무상삼매無相三昧<sup>38</sup>는 형체가 보름 달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불성의 이치가 확연히 비고 밝기 때문인 것이오.”

가나제바의 말이 끝나자마자 용수 존자는 보름달과 같은 형상을 거두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계송으로 말하였다.

몸으로 보름달을 나타낸 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체를 표현한 것이요,  
법을 설할 때 그 형체가 없는 것은  
소리와 형체가 없음을 밝힌 것이네.

그 대중들은 이 계송을 듣고는 무생법인無生法忍<sup>39</sup>을 단박에 깨달아서 모두 출가하여 해탈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용수 존자는 그들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니 모두 다 삼보에 귀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난 후에 용수 존자는 가나제바에게 말하였다.

---

37 복업만을 지으려던 처음의 생각을 돌이켜, 그것만이 최고라던 생각을 반성하고 용수 보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음을 말한다.

38 3삼매三昧의 하나. 열반은 모습(相)이 없는 것이라고 관하는 삼매를 말한다.

39 일체 제법의 불생불멸하는 진여 법성의 이치를 체득하여 거기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보살이 초기初地나 7·8·9지地에서 얻는 깨달음이다.

“여래의 미묘한 법을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려 하니, 나의 계송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계송으로 말하였다.

숨고 드리나는 법을 밝히기 위해  
비로소 해탈의 이치를 말하였네.  
법에서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성념도 없고 기쁨도 없도다.

용수 존자는 가나제바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월륜삼昧月輪三昧<sup>40</sup>에 들어 고요히 선적禪寂<sup>41</sup>하였다.

第十四祖龍樹 於毘盧尊者得法 後至南印度 彼國之人 多信福業 聞尊者爲說妙法 互相謂曰 人有福業 世間第一 徒言佛性 誰能見之 尊者曰汝欲見佛性 先須除我慢 彼人曰 佛性大小 尊者曰非大非小 非廣非狹 無福無報 不死不生 彼聞勝理 悉迴初心 尊者復於座上 現自在身 如滿月輪 彼衆唯聞法音 不見師相 彼衆中有一長者子 名迦那提波 謂衆曰 此是尊者現佛性體相 以示我等 何以知之 盖以無相三昧 形如滿月 佛性之義 廓然虛明 言訖 輪相即隱 復居本座而說偈言  
身現月輪相 以表諸佛體  
說法無其形 用辨非聲色  
彼衆聞偈 頓悟無生 咸願出家 以求解脫 尊者卽爲剃髮授具 皆歸三寶 告迦那提波曰 如來妙法 今當付汝 聽吾偈曰  
爲明隱現法 方說解脫理  
於法心不證 無瞋亦無喜  
付法已 入月輪三昧 凝然禪寂

## 15. 가나제바迦那提波

용수 대사大士는 가나제바迦那提波<sup>42</sup>가 오는 것을 보고 먼저 시자를 시켜 발우에 물

---

40 자기 마음을 달의 광륜廣輪이라고 관하는 관법. 불보살의 형상 뒤의 광배는 이 상징이다.

41 열반에 들. 입적入寂의 다른 이름이다.

42 생몰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15조. 성은 비사라毘舍羅이다. 용수의 법을 이어받아 라후라

을 떠다가 가나제바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가나제바가 바늘 하나를 발우 속에 던져 넣자 용수 존자는 말하였다.

“정定의 물이 맑고 깨끗하니<sup>43</sup> 이는 나의 덕을 나타내는데, 그대가 와서 바늘을 던지는 것은 그 바닥까지 철저히 알고자 함이로다.”

그 후에 가나제바 존자는 용수 존자로부터 법을 얻은 뒤에 비라국毘羅國으로 갔다. 그 나라에는 범마정덕梵摩淨德이라는 장자가 있었다. 어느 날 장자의 정원의 나무에 버섯같이 생긴 큰 귀가 생겼다. 그것은 아주 맛이 좋았는데, 오직 장자와 둘째 아들인 라후라다羅睺羅多만 따라 먹었다. 그런데 그것은 따가면 이내 자라나고 다 잘라내어도 곧 다시 자라났지만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이때 가나제바 존자는 지난 세상부터 쌓아온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알고 그 집을 찾아갔다. 장자가 그 식물에 관해 묻자 존자는 말하였다.

“그대의 집안이 예전에 어떤 비구를 공양하였소. 그런데 그 비구는 깨달음의 눈이 열리지도 않았으면서 믿음으로 올린 보시물을 함부로 누렸기 때문에 그 과보로 버섯으로 태어난 것이오. 오직 그대와 그대의 아들만이 그 비구에게 정성껏 공양을 하였으므로 두 사람만 버섯을 먹을 수가 있으며, 다른 가족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 이오.”

가나제바 존자가 물었다.

“장자는 올해 몇이시오?”

장자가 대답하였다.

“79세입니다.”

존자가 계송으로 말하였다.

진리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깨닫지 못했으니

몸을 바꾸어서 그 시주물을 갚아야 하네.

그대가 여든한 살이 되면

나무에는 더 이상 버섯이 나지 않으리라.

---

다에게 전하였다.

43 마음이 선정에 들어 명경지수明鏡止水처럼 맑은 상태를 말한다.

장자는 계송을 듣고 나서 깊이 탄복하며 다시 존자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늙어서 스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을 맡기니 스님을 따라 출가하게 해 주십시오.”

가나제바 존자가 답하였다.

“옛날 여래께서 그대의 둘째 아들을 ‘두 번째 500년에 큰 교주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는데 이제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과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리고 나서 바로 둘째 아들을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준 뒤에 계송으로 말하였다.

본래부터 법을 전할 사람에게  
해탈의 이치를 말해주게 되었네.  
법에는 실제로 증득할 것이 없으니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라.

존자는 계송을 마친 뒤에 적멸에 들었다.

龍樹大士 見迦那提波來 先令侍者 將一鉢水 置面前 提波乃以一針投之 樹云定水澄清  
此方我德 彼來投針 欲窮其底 尊者得法 後至毘羅國 彼有長者 名梵摩淨德 一日園中  
樹生大耳如菌 味甚美 唯長者與第二子羅睺羅多 取而食之 取已隨長 盡而復生 自餘他人  
皆不能見 時尊者知其宿因 遂至其家 長者問其故 尊者曰 汝家昔曾供養一比丘 然其比丘道眼未明 虛沾信施故 報爲木菌 唯汝與子精誠供養 得以享之 餘即否矣 又問長者年多少 答曰七十有九 乃說偈曰  
入道不通理 復身還信施  
汝年八十一 其樹不生耳  
長者聞偈 彌加歎伏 又曰弟子衰老 不能師事 願捨次子 隨師出家 尊者曰昔如來記此子  
當第二五百年 爲大教主 今之相遇 盖符宿因 卽與剃髮授具已 而說偈曰  
本對傳法人 爲說解脫理  
於法實無證 無終亦無始  
說偈已而歸寂滅

## 16. 라후라다 羅睺羅多

제16조 라후라다 羅睺羅多<sup>44</sup> 존자는 승가난제 僧伽難提를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준 뒤 정법안장을 부축하면서 계송으로 말하였다.

법은 실제로 중득할 것이 없으니  
취하거나 떠날 것도 없다.  
법은 상相이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니  
안이니 밖이니 하는 말이 어찌 일어나리.

라후라다 존자는 승가난제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편안히 앉아 적멸에 들었다.

第十六祖羅睺羅多尊者 命僧伽難提 出家授具已 而付法眼偈曰  
於法實無證 不取亦不離  
法非有無相 內外云何起  
付法已 安坐入寂滅定

## 17. 승가난제 僧伽難提

제17조 승가난제 僧伽難提<sup>45</sup> 존자가 바람에 쇠방울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동자에게 물었다.

“방울이 우는 것인가, 바람이 우는 것인가?”

동자는 답하였다.

“바람이 우는 것도,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이 울고 있을 뿐입니다.”

---

44 Rāhulata. 생몰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16조. 『전등록』에 의하면 전한前漢 무제武帝 28년 (B.C. 113)에 입적했다고 한다.

45 Saṅghanādi. 생몰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17조. 보장엄왕寶莊嚴王의 아들. 7세에 출가하여 라후라다에게 법을 이어받고 마제국摩提國에 머물면서 대중을 교화한 후 기야사다를 만나서 전법한 후 입적하였다.

“바람이 우는 것도, 방울이 우는 것도 아니라면, 마음은 또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고요하기<sup>46</sup> 때문이지, 삼매의 경지는 아닙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나의 도를 이어갈 사람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존자는 곧 동자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계송으로 말하였다.

마음자리(心地)<sup>47</sup>에는 본래 나는 것이 없으나  
인의 자리(因地)는 연緣에서 일어나네.  
연緣과 씨앗(種)은 서로 방해하지 않고  
꽃과 열매 또한 그러하네.

존자는 동자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오른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은 채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第十七祖僧伽難提 因風吹銅鈴鳴 乃問鈴鳴耶 風鳴耶 童子云 非風鈴鳴 我心鳴耳 祖曰非風鈴鳴心復誰乎 童子云 俱寂靜故非三昧也 祖曰善哉善哉 繼吾道者 非子而誰 卽付法偈曰  
心地本無生 因地從緣起  
緣種不相妨 花果亦復尔  
尊者付法已 右手攀樹而化

## 18. 가야사다伽耶舍多

제18조 가야사다伽耶舍多<sup>48</sup> 존자는 거울을 가지고 놀러 나갔다가 승가난제 존자를 만나 제도를 받았다. 그 뒤에 교화하러 다니다가 대월지국大月氏國에 이르렀다.

마침 그 나라의 한 바라문 집에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가야사다 존자는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집 주인인 구마라다鳩摩羅多가 물었다.

---

46 방울과 바람과 마음이 모두 본래 있지 않아 공空하다는 뜻이다.

47 땅에서 풀·나무 등이 자라나는 것처럼, 마음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또 마음은 3업業 중에 가장 수승하므로 이같이 말하였다.

48 Gayaśāta. 생몰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18조. 아버지는 천개天蓋, 어머니는 방성方聖이다. 전한前漢 성제成帝 20년(B.C.13)에 입적했다고 한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오?”

“부처님의 제자들이오.”

그는 부처님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져서 즉시 문을 닫았다. 잠시 뒤에 가야사다 존자가 몸소 그 문을 두드리니 구마라다가 말하였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야사다 존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아무도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누구요?”

구마라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범상치 않게 느껴서 곧바로 문을 열고서 존자를 맞아들였다. 이에 존자가 말하였다.

“옛날 세존께서 ‘내가 열반에 든 지 천년 후에 월지국에서 어떤 보살이 출현하여 법을 이어나가 세상을 크게 교화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는데 이제 그대가 이토록 좋은 운을 만나게 되었도다.”

이에 구마라다는 숙명지宿命智<sup>49</sup>를 일으켜 존자에게 자신을 맡겨 출가하여 구족 계를 받았다. 존자는 그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계송으로 말하였다.

씨앗도 있고 마음의 땅도 있으니

인연에 의하여 싹은 돋아날 수 있네.

못 인연이 서로 장애되지 않으리니

생겨날 때는 생겨나지만 생겨난 것 아니네.

가야사다 존자는 구마라다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허공으로 솟아올라 화화삼매에 들어 스스로 몸을 태웠다.

第十八祖伽耶舍多童子 持鑑出遊 遇難提尊者 得度後 行化至大月氏國 見一波羅門舍有異氣 尊者將入彼舍 舍主鳩摩羅多 問曰是何徒衆 曰是佛弟子 彼聞佛名 神心悚然 卽時閉戶 尊者良久自扣其門 羅多曰此舍無人 尊者曰答無者誰 羅多聞語異之 卽開門迎接 尊者云昔世尊記曰 吾滅後一千年 有大士出現於月氏國 紹隆玄化 今汝應斯嘉運 於是鳩摩羅多 發宿命智 投師出家授具 付法偈曰  
有種有心地 因緣能發萌

---

49 과거 전생에 일어난 일을 모두 아는 초인적인 지혜. 여섯 가지 신통력(6신통) 가운데 하나로, 자신과 타인의 과거세過去世의 수명이나 살아왔던 모습들이 어떠하였는지를 환히 아는 능력이다.

於緣不相尋 當生生不生  
尊者付法已 踊身虛空 化火自焚

## 19. 구마라다鳩摩羅多

제19조 구마라다鳩摩羅多<sup>50</sup> 존자는 가야사다 존자를 만나 법을 얻은 뒤에 중천축으로 갔다. 그 나라에는 사야다闍夜多라는 대사大士가 있었는데, 그가 구마라다에게 물었다.

“우리 부모님은 일찍부터 삼보를 믿었지만 항상 병을 앓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모두 뜻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은 오랫동안 전다라旃多羅<sup>51</sup> 노릇만을 해왔건만 언제나 몸은 건강하였고 하는 일은 모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집은 무슨 행운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무슨 죄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에 구마라다 존자가 답하였다.

“그것을 어찌 의심하고 있소? 선악의 과보는 삼세<sup>52</sup>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오. 보통 사람들은 항상 어진 사람이 일찍 죽고 못된 사람이 장수하며, 반역하는 사람이 길하고 의로운 사람이 흉한 것만을 보고서는 인과도 없고 죄와 복도 없다고들 하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와 메아리가 서로 따르되 추호도 어긋남이 없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오. 백천만 겁을 지나더라도 그것(인과의 법칙)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오.”

사야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의심이 단번에 풀렸다.

구마라다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이미 세 가지 업<sup>53</sup>을 믿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업은 미혹(惑)에서 생기는

---

50 Kumarālabdha, ?~22.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19조, 월지국月氏國 출신. 처음에는 외도의 법을 믿었으나 가야사다 존자의 교화를 받고 출가하였다. A.D.22년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갈라 두 쪽으로 만든 뒤 큰 광명을 별하면서 입적했다고 한다. (『조당집』2, 『전등록』2)

51 인도에서 4성계급에 들지 못하는 천민. 사냥이나 도살, 망나니 역할을 해왔다. 가장 낮은 계급으로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52 삼세란 과거세·현재세·미래세를 말한다. 업인業因과 그 과보果報가 삼세에 걸쳐서 이어가는 것을 삼세인과설三世因果說이라고 한다.

53 몸으로 짓는 업(身業)·입으로 짓는 업(口業)·뜻으로 짓는 업(意業)이 있어 이것을 3업이라 하고, 몸으

것이고, 미혹은 식별(識)로 인해 생기며, 식별은 불각不覺<sup>54</sup>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한 불각은 마음을 따라 나타나는 것임을 밝게 알지 못하고 있소.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하여 생멸하지 않고 만들거나 짓는 일도 없으며 보응報應도 승부도 없는 것이요,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밝은 것이오. 그대가 만약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어오면 여러 부처님들과 똑같아질 것이오. 모든 선악과 유위·무위는 모두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이오.”

사야다는 존자의 말을 이어받아 종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전생에 닦았던 지혜(宿慧)를 일으켜 출가할 것을 간절히 바랐다. 존자는 그에게 구족계를 준 뒤에 법을 부축하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성품에는 본래부터 나는 것이 없지만  
구하는 사람을 상대하여 말하는 것이네.  
법은 이미 얻을 것이 없는데  
어찌 해결하고 하지 못함을 생각하는가.

“그대는 후학들에게 잘 전하라.”  
말을 마친 뒤에 적멸에 들었다.

第十九祖鳩摩羅多 遇舍多得法 後至中天竺 有大士名闍夜多 問曰我家父母 早信三寶 而常繁疾 凡所營作 皆不如意 而我鄰家 久爲施多羅行 身常勇健 所作和合 彼何幸而我何辜 尊者曰何足疑乎 且善惡之報 有三世焉 凡人但見仁天暴壽逆吉義凶 便謂亡因果虛罪福殊 不知影響相隨毫釐不差 縱經百千萬劫 亦不磨滅 夜多聞是語已 賾釋其疑 尊者曰汝雖已信三業 而未明業從惑生 惑因識有 識依不覺 不覺依心 心本清淨 無生滅 無造作無報應無勝負 寂寂然靈靈然 汝若入此法門 可與諸佛同矣 一切善惡有爲無爲 皆如夢幻 夜多承言領旨 卽發宿慧 勤求出家 既授具戒 乃付法偈曰  
性上本無生 爲對求人說

---

로 짓는 나쁜 업에 살생·도둑질·삿된 음욕의 세 가지, 입으로 짓는 나쁜 업에 욕·거짓말·꾸밈말·이간질하는 말의 네 가지, 뜻으로 짓는 나쁜 업에 탐욕·성냄·여리석음의 세 가지가 들어 있어 이것을 열 가지 악한 업(十惡業)이라 부른다.

54 ① 깨닫지 못한 것. ② 마음의 본성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 진여법眞如法이 본래 평등하고 한 가지 맛이며,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迷妄). 불각不覺인 무명無明을 가리키며, 여기에 근본무명과 지말무명이 있다. 본각本覺의 반대말. ③ 도리를 알지 못함.

於法既無得 何懷決不決  
汝宣傳後學 言訖 入寂滅

## 20. 사야다闇夜多

제20조 사야다闇夜多<sup>55</sup> 존자는 바수반두波須般頭 존자가 언제나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으며, 하루에 여섯 차례<sup>56</sup> 예불을 올리고, 청정하고 욕심이 없어서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것을 보았다. 사야다 존자는 그를 제도하기 위하여 먼저 그를 따르는 대중들에게 물었다.

“이 변행두타徧行頭陀<sup>57</sup>가 범행梵行<sup>58</sup>을 닦아서 불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대중들이 반문하였다.

“우리 스승님께서 저토록 정진하시는데 어찌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대들의 스승은 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설사 진겁塵劫<sup>59</sup> 동안 고행한다 해도 모두가 허망의 근본일 뿐이다.”

“그렇다면 존자는 도대체 어떤 덕행을 쌓으셨기에 우리 스승님을 비웃으십니까?”

“나는 도를 구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도 않았다. 나는 부처님을 예경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나는 오래도록 앓아서 좌선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

55 Jayata, 생몰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19조. 나열성羅閱城에서 바수반두를 만나 그에게 법을 부축하고 입적하였다. 『전등록』에 의하면 후한後漢 명제 17년(74)에 입적하였다고 한다.

56 하루를 낮 3시 · 밤 3시로 나눈 것. 합하여 여섯 차례(六時). 아침(晨朝) · 낮(日中) · 해질 무렵(日沒) · 초저녁(初夜) · 밤중(中夜) · 새벽(後夜)을 말한다.

57 여러 가지 엄격한 수행(두타)을 두루 하는 행자라는 뜻으로, 바수반두를 가리킨다. 두타頭陀(dhūta)는 혼들어서 떨어뜨린다는 뜻을 가졌다. 번뇌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의식주에 탐욕을 일으키지 않으며 오로지 불법수행에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58 범梵은 청정清淨이라는 뜻으로, 욕망을 끊는 수행, 즉 수행자가 계율을 지니고 수행하는 일을 말한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이다. 오행의 하나로, 청정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보살의 수행을 뜻하기도 한다.

59 진겁塵劫. 아주 오랜 세월을 의미한다. 어떤 해석에 의하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땅을 갈아서 먹물로 만들고, 그 먹물을 묻혀 일천국토에 점 하나씩 찍어서 먹물이 다 없어지는 기간. 또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계를 미진微塵으로 부수어서 그 먼지 하나를 1겁劫으로 헤아렸을 때의 전체 숫자를 말한다고 한다.(中村元, 『佛教語大辭典』, p.799)

여러 번 먹지도 않는다. 나는 만족할 줄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탐욕스럽지도 않다. 마음에 바람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다.”

바수반두는 사야다 존자의 말을 듣고 무루無漏<sup>60</sup>의 지혜를 일으켰다. 그러자 존자는 그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계송으로 말하였다.

말을 마치자마자 무생無生의 이치와 합치되고

법계의 성품과 같아졌네.

이와 같이 깨달을 수만 있으면

이치(理)와 현상(事)<sup>61</sup>의 경지를 통달하리라.

존자는 계송을 말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훌연히 열반에 들었다.

第二十祖闍夜多 見波修般頭尊者 常一食不臥 六時禮佛 清淨無欲 爲衆所歸 祖將欲度之 先問徒衆曰 此偏行頭陀 能修梵行 可得佛道乎 彼衆曰 我師精進如是 何故不可 祖曰汝師與道遠矣 設若苦行 歷於塵劫 皆妄之本也 衆曰尊者蘊何德行 而譏我師 祖曰我不求道 亦不顛倒 我不禮佛 亦不輕慢 我不長坐 亦不懈怠 我不一食 亦不雜食 我不知足 亦不貪欲 心無所希 名之曰道 波修聞已 發無漏智 付法偈曰  
言下合無生 同於法界性  
若能如是解 通達事理竟  
祖說偈已 不起于座 奄然歸寂

## 21. 바수반두波須般頭

제21조 바수반두波須般頭<sup>62</sup> 존자는 계송으로 말하였다.

거품과 환술(幻)이 모두 걸림 없는데

60 anāsrava. 누漏는 객관 대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육근六根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온다(漏出)는 뜻으로, 번뇌의 다른 이름이다. 무루란 번뇌가 없는 경지를 말한다.

61 이理는 평등을 떠난 절대 무차별적인 진여, 사사는 상대적인 현상을 말한다.

62 Vasu-bandhu. 생몰연대 미상. 바수반두婆修槃陀, 바수반두婆敷盤豆라고도 한다.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21조. 15세에 광도나한光度羅漢에게 출가한 뒤 사야다에게 사사하여 그의 의발을 물려받았다. 『전등록』에 의하면 후한後漢 상제殤帝 13년(117)에 입적했다고 한다.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법이 바로 그 속에 있음을 통달하면  
지금도 아니며 옛 일도 아니리라.

第二十一祖波須般頭尊者 儒曰  
泡幻同無碍 如何不了悟  
達法在其中 非今亦非古

## 22. 마나라摩擎羅

제22조 마나라摩擎羅<sup>63</sup> 존자는 계송으로 말하였다.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굴러가니  
구르는 곳마다 참으로 심오하구나.  
흐름을 따라서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으리라.

第二十二祖摩擎羅尊者 儒曰  
心隨萬境轉 轉處實能幽  
隨流認得性 無喜亦無憂

## 23. 학륵나鶴勒那

제23조 학륵나鶴勒那<sup>64</sup> 존자는 마나라 존자를 만나 법을 전해들은 뒤에 교화를 떠나

---

63 생몰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22조. 30세에 바수반두 존자를 만나 출가하여 그 법을 잊고 서인도에서 교화를 하였다. 후에 대월지국에 가서 학륵나에게 법을 전하고 입적하였다. 『전등록』에 의하면 후한後漢 환제桓帝 19년(165)에 입적했다고 한다.

64 생몰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23조. 월지국 출신. 아버지는 천승千勝, 어머니는 금광金光이라 하며, 7불에게 기도하여 수미산정의 한 동자를 꿈에 임태하였다고 한다. 22세에 출가하여 30세에 마나라에게 법을 이어받았다. 중인도에 와서 국왕의 귀의를 받았으며 무외해無畏海라고 불린다.

중인도에 이르렀다. 그 나라에서 사자師子 존자를 만났는데 사자 존자가 물었다.

“제가 도를 구하려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쓰면 되겠습니까?”

학륵나 존자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굳이 마음을 쓸 일이 없소.”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누가 불사佛事를 하겠습니까?”

“그대가 마음을 쓴다면 그것은 이미 공덕이 아니다. 그대가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내가 공덕을 지었으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사자 존자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 이에 학륵나 존자는 그에게 법을 부족한 뒤에 계송으로 말하였다.

마음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너무나 분명하여 얻을 것이 없고  
얻었을 때는 있다고 말하지 않네.

존자는 계송을 마친 뒤에 열반에 들었다.

第二十三祖鶴勒那 遇摩擎羅尊者得法後 行化至中印度 見師子尊者 尊者而問曰 我欲求道 當何用心 祖曰汝欲求道 無所用心 曰既無用心 誰作佛事 曰汝若有用 卽非功德 汝若無用 卽是佛事 經云 我所作功德而無我所故 師子聞是語已卽入佛慧 乃付法偈云 認得心性時 可說不思議 了了無可得 得時不說知 說偈已而歸寂

## 24. 사자師子

제24조 사자師子<sup>65</sup> 존자에게 어느 날 계빈국의 왕이 칼을 차고 물었다.

---

65 ?~259. 중인도 스님.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24조. 바라문 출신. 『전등록』에 의하면 위魏 제왕齊王 20년에 입적했다고 한다.

“스님은 오온五蘊<sup>66</sup>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았습니까?”

사자 존자가 답하였다.

“그렇소.”

“오온이 공함을 깨달았다면 생사를 여의셨습니까?”

“이미 여의었소.”

국왕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스님의 머리를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몸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머리가 내 것이겠소?”

이에 국왕이 곧 칼로 존자의 머리를 베니 흰 젖이 한 길 높이로 솟아올랐고, 왕의 팔도 저절로 떨어지고 말았다.

第二十四祖師子尊者 因罽賓國王仗劍問曰 師得蘊空不 曰已得 曰既得蘊空 離生死不  
曰已離 王曰乞師頭得不 曰身非我有 況乃頭耶 王便斬之 白乳高丈 王臂自落

## 25. 바사사다婆舍斯多

제25조 바사사다婆舍斯多<sup>67</sup> 존자는 무아존無我尊이라는 외도와 토론할 때 59차례나 문답을 주고받았다. 결국 외도는 말이 막혀 존자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그때 바사사다 존자는 홀연히 북쪽을 향하여 합장을 하고 길게 탄식하면서 말하였다.

“나의 스승이신 사자 존자께서 오늘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셨으니 참으로 슬프도다.”

그리고 곧바로 남천축으로 가서 산골짜기에 숨어 지냈다. 한편 그 나라의 불여밀다不如蜜多라는 태자가 출가하기를 원했다. 바사사다 존자가 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출가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오?”

---

66 색色, 수受(느낌), 상想(생각), 행行(결합), 식識(식별)의 다섯 가지 근간根幹.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67 생물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25조. 계빈국 출신. 아버지는 적행寂行, 어머니는 상락常樂이다. 『전등록』에 의하면 동진東晉 명제明帝 태령太寧 3년(325)에 입적했다고 한다.

“부처님 일을 하려 합니다.”

이에 바사사다 존자가 말하였다.

“태자의 지혜는 타고 났으니, 반드시 여러 성인들께서 강림하신 자취일 것이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태자의 출가를 허락하니 태자는 6년 동안 바사사다 존자를 시봉하였다. 그 후 왕궁에서 구족계를 받고 갈마를 할 때 대지가 진동하는 등 자못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이에 바사사다 존자가 명하였다.

“그대는 정법안장을 잘 지켜서 많은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라. 그리고 나의 계송을 들어라.”

성인께서 지견知見을 말씀하셨지만

경계에 당해서는 옳고 그름이 없네.

나 이제 참된 성품을 깨달았으니

도道도 없고 이치도 없구나.

바사사다 존자는 계송을 마친 뒤에 신비로운 변화를 나타내었다가 화화삼매에 들어 스스로 몸을 태우고 열반에 들었다.

第二十五祖婆舍斯多 因與外道無我尊 論議往返五十九番 外道杜口信伏 于時祖忽然面北 合掌長吁曰 我師師子尊者 今日遇難 斯可傷焉 卽達南天 隱于山谷 彼國有太子名不如蜜多 遂求出家 祖問太子曰 汝欲出家 當爲何事 曰當爲佛事 祖曰太子智慧天至必諸聖降迹 卽許出家 六年侍奉後於王宮 受具羯摩之際 大地震動頗多靈異 祖命之曰 汝當善護正法眼藏 普利羣品 聽吾偈曰  
聖人說知見 當境無是非  
我今悟眞性 無道亦無理  
說偈已現神變 化火自焚入寂滅

## 26. 불여밀다不如密多

제26조 불여밀다不如密多<sup>68</sup> 존자는 바사사다 존자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법을 전해 들

---

68 생몰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26조. 남인도 출신. 외도를 신봉하고 있던 동인도의 견고왕堅

었다. 동인도에 이르러 그 곳에서 국왕에게 말하였다.

“이 나라에 성인이 나와서 나의 법을 이을 것이오.”

이때 20살 먹은 바라문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어 이름도 성도 몰랐다. 그는 자기를 ‘영락纓珞동자’라 불렀다. 이 영락동자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결식을 하며 지내왔는데 마치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sup>69</sup>과 같았다.

사람들이 동자에게 “자네 성이 뭔가?”라고 물으면, 곧 “당신과 같은 성이오”라고 대답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까닭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훗날 그 나라의 왕이 불여밀다 존자와 함께 수레를 타고 나오다가 영락동자를 만났다. 동자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자 불여밀다 존자가 물었다.

“그대는 지난 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영락 동자가 답하였다.

“기억해 보니, 저는 지난 겁에 스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마하반야’를 설하고 계셨고, 저는 매우 뜻이 깊은 수다라(경전)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도 지난 옛 인연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여밀다 존자가 국왕에게 말하였다.

“이 동자는 다름 아닌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sup>70</sup>입니다. 이 성인 이후에도 다시 성인 두 사람이 더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중 한 사람은 남인도를 교화하시게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진단<sup>71</sup>에 인연이 있어 머물다가 20년 이내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존자는 옛 인연을 따라서 영락 동자를 반야다라般若多羅라고 하고 법을 부축한 뒤에 계송을 말하였다.

---

固王과 문답하여 그를 불교에 귀의케 하고, 그 곳에서 60여 년간 대중을 교화하였다. 『전등록』에 의하면 동진東晉 효무제孝武帝 대명大明 원년에 입적했다고 한다.

69 『묘법연화경』 제7권에 등장하는 보살. 재가에 있는 이나 출가한 이를 가라지 않고 누구든 만날 때마다 절을 하면서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살도를 수행하여 반드시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는 그를 욕하고 심지어는 매질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조금도 변함없이 언제나 이 말을 하며 다녔다고 한다.

70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에 자리하여 부처님을 보필하는 보살. 왼쪽의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고,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

71 Chinistan. 고대 인도 사람들이 중국을 일컬던 말.

진실한 성품의 심지장心地藏<sup>72</sup>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지만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교화하기에  
방편으로 지혜라 부르네.

불여밀다 존자는 반야다라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나는 이제 교화의 인연이 끝났다. 그러니 이제 적멸로 돌아가리라”라고 말하였다.

第二十六祖不如密多 既受度得法 至東印度 謂王曰 此國當有聖人 而繼於我 是時波羅門子年二十 幼失父母 不知名氏 或自言纓珞童子 遊行閭里 乞求度日 若常不輕之類人問汝何姓 乃曰與汝同姓 人莫知其故 後王與尊者 同車而出 見纓珞童子 稽首於前 尊者曰 汝憶往事不 答曰我念遠劫中 與師同居 師演摩訶般若 我轉甚深脩多羅 今日之事 盖契昔因 尊者又謂王曰 此童子非他 卽大勢至菩薩是也 此聖之後 復出二人 一人化南印度 一人緣在震旦 四五年內 却返此方 遂以昔因 故般若多羅 付法偈曰  
真性心地藏 無頭亦無尾  
應緣而化物 方便呼爲智  
尊者付法已曰 吾化緣已終 當歸寂滅

## 27. 반야다라般若多羅

제27조 반야다라般若多羅<sup>73</sup> 존자는 법을 얻은 뒤에 교화를 다니다가 남인도에 이르렀다. 그 나라의 향지왕香至王이 반야다라 존자를 궁으로 초청하여 지극히 예를 갖추어 모시고 공양을 올린 뒤에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값진 보배 구슬을 보시하였다.

왕에게는 왕자가 셋 있었는데 그 중 막내 왕자는 보살이었다. 반야다라 존자는 그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왕이 준 보배 구슬을 가지고 세 왕자에게 물었다.

“이 보배 구슬은 둥글고 깨끗한데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소?”

---

72 심지心地는 마음을 땅에 비유한 말이다. 땅에서 만물이 생장하듯이 마음에서 일체의 현상이 생겨나므로 이렇게 비유하였다. 그런 심지의 창고(藏)가 심지장이다. 심지가 우주 만법을 다 간직했다는 뜻이다.

73 생몰연대 미상.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27조. 보리 달마의 스승. 동인도 출신. 『전등록』에 의하면 유송劉宋 효무제孝武帝 대명大明 원년(457)에 입적했다고 한다.

두 왕자가 모두 말하였다.

“이 구슬은 칠보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어서 그것을 능가할 보배는 절대로 없습니다. 존자와 같은 도력道力を 지닌 분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이런 보배 구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왕자인 보리다라菩提多羅<sup>74</sup>는 말하였다.

“이것은 세속의 보석이기에 으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모든 보석 중에서 법의 보석(法寶)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속의 빛이기에 으뜸이라고 할 수 없으니, 모든 빛 중에서 지혜의 빛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속의 밝음이기에 으뜸이라고 할 수 없으니, 모든 밝음 중에서도 마음의 밝음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슬의 광명은 제 힘으로 비추지 못하며, 지혜의 빛을 빌려야만 이것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라고 알아차린 뒤에야 구슬인 줄 알 수 있고, 구슬인 줄 알고 난 뒤에야 그 구슬이 보배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스님께서는 그런 도가 있으셔서 보배 구슬이 저절로 드러났고, 중생에게도 그런 도가 있으므로 마음의 보배가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야다라 존자는 보리다라의 말솜씨와 지혜에 감탄하였다. 존자는 그가 자신의 법을 계승할 사람임을 알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짐짓 가만히 두고 보기만하였다. 그 후 향지왕이 세상을 떠나자 대중들이 모두 구슬프게 통곡을 하였는데 셋째 왕자만은 향지왕의 관 앞에서 선정에 들어 7일 만에 깨어났다. 그리고서 출가를 청하니 반야다라 존자는 보리다라에게 구족계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반야다라 존자는 보리다라에게 말하였다.

“여래의 바른 법이 대대로 전해져 나에게 이르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노라. 나의 계송을 들어라.”

마음의 땅에서 여러 씨앗이 자라나며  
현상(事)을 말미암아 다시 이치(理)가 자라나네.  
결과가 원만하면 보리도 원만하리니  
꽃이 피면 세계가 일어나네.

---

74. 훗날 반야다라 존자의 법을 잊는 보리 달마를 가리킨다.

존자는 보리다라에게 법을 부축한 뒤에 곧 그 자리에서 양손을 펼쳐 각각 광명을 놓으니, 스물일곱 줄기의 오색 빛이 찬란하게 빛났다. 반야다라 존자는 허공으로 몸이 솟아올라 일곱 다라수多羅樹<sup>75</sup> 높이로 솟았다가 화화삼매에 들어 스스로 몸을 태웠다.<sup>76</sup>

第二十七祖般若多羅 既得法已 行化至南印度 彼王香至 請祖宮中 尊重供養 施無價寶珠 王有三子 其季開士也 尊者欲試其所得 乃以所施珠問三王子曰 此珠圓明 有能及此不 二子皆曰 此珠七寶中尊 固無踰也 非尊者道力 孰能受之 第三子菩提多羅曰 此是世寶 未足爲上 於諸寶中法寶爲上 此是世光 未足爲上 於諸光中 智光爲上 此是世明 未足爲上 於諸明中 心明爲上 此珠光明 不能自照 要假智光 乃辨於此 既辨此已 卽知是珠 卽知是珠 卽明其寶 然則師有其道 其寶自現 衆生有道 心寶自現 尊者歎其辯慧 尊者知是法嗣 以時未至 且默而混之 及香至王獸世 衆皆號哭 唯第三子 於柩前入定 經七日而出 乃求出家 既授具戒 尊者告曰 如來正法 轉轉乃至於我 我今付汝 聽吾偈曰

心地生諸種 因事復生理

果滿菩提圓 花開世界起

尊者付法已 卽於座上 舒左右手 各各放光明 二十七道五色光耀 踊身虛空 高七多羅樹化火自焚

---

75 종려나무와 비슷한 나무의 이름인데, 높이의 단위로 쓰이기도 한다.

76 반야다라 조사까지 하여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의 맥은 보리 달마에게 이어지는데, 보리 달마는 서천 부법장 제28조이면서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가 된다.

### III.

## 중국의 조사 祖師



### 28. 초조初祖 보리 달마菩提達磨와 2조祖 혜가慧可

제28조 보리 달마菩提達磨<sup>77</sup>가 반야다라 조사에게 물었다.

“저는 이미 법을 얻었는데, 이제 어느 나라로 가서 불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반야다라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법을 얻었다고는 하나 아직 멀리 떠나지는 말라. 우선 남천축에 머물렀다가 내가 열반에 든 지 67년 뒤에 중국으로 가서 큰 법의 묘약을 마련해 놓고 곧바로 상근기上根機<sup>78</sup>들만을 교화하라. 행여 너무 빨리 떠나서 순식간에 쇠락하는 일이

---

77 ?~495, ?~436, 346~495, ?~528 등의 여러 설이 있다. 서천西天 부법장付法藏 제28조이면서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 보리 달마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보리류지菩提流支와 광통光統 율사의 질투로 인해 독살을 당한 뒤 관 속에 한 짹의 신발만 남겨 놓고 서천으로 돌아갔다는 전설이 있다. 달마 선사상의 기본은 4여시四如是와 2입4행二入四行이라 볼 수 있다. 4여시란 여시안심如是安心·여시발행如是發行·여시순물如是順物·여시방편如是方便을 말하며, 2입이란 이입理入(원리적 방법)과 행입行入(실천적 방법)을 말하며, 4행이란 행입行入을 세분한 보원행報怨行(전생의 원한에 보답하는 실천행)·수연행隨緣行(인연에 내맡기는 실천행)·무소구행無所求行(물질을 바라지 않는 실천행)·칭법행稱法行(도리에 맞게 살아가는 실천행)이다. 당시 경론 연구와 강연에 전념하는 풍토를 벗어난 공무소득空無所得의 실천적인 선을 고취한 사상이라 볼 수 있다. 『전등록』에 의하면 후위後魏 병진(495)에 입적했다고 전한다.

78 상근上根이라고도 한다. 뛰어난 능력, 또는 그것을 지닌 사람. 근기根機란 능력·소질을 의미하며, 근기根器·기근機根이라고도 한다. 보통의 근기는 중근中根, 부실한 근기는 하근下根이라 한다.

없도록 하라. 그대가 교화할 지방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 후에 보리 달마 조사는 마음으로 중국을 생각하고 있다가 인연이 무르익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서 먼저 스승인 반야다라 존자의 탑에 가서 하직인사를 올린 다음 함께 공부하던 도반들과도 작별을 고하였다.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가서 왕을 만나 위로하고 독려하였다.

“선업을 부지런히 닦고 삼보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더라도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니 19년 뒤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왕은 조사의 말을 듣고 슬픔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이 나라에는 무슨 죄가 있으며, 저 나라에는 무슨 복이 있는 것입니까! 숙부께서 인연이 그러하시다니 제가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모국을 잊지 마시고 일을 마치신 대로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큰 배를 마련하여 온갖 보물을 가득 채워 주고 몸소 신하들을 거느리고 바닷가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보리 달마는 배를 타고 3년간 바다를 항해한 뒤에 남해에 도착하였으니 때는 양  
梁나라 보통普通 8년 정미년丁未年 9월 21일이었다.

第二十八祖菩提達摩告祖曰 我既得法 當往何國而作佛事 尊者曰 汝雖得法 未可遠遊  
且止南天 待吾滅後六十七年 當往震旦 設大法藥 直接上根 慎勿速行 衰於日下 汝所  
化之方 得菩提者 不可勝數 祖心念震旦 緣熟行化時至 乃先辭祖塔 次別同學 然至王  
所 慰而勉之 曰當勤白業 護持三寶 吾去非晚 一九卽廻 王聞師言 淚淚交集曰 此國何  
罪 彼土何祥 叔既有緣 非吾所止 惟願不忘父母之國 事畢早廻 王卽具大舟 實以衆寶  
躬率臣僚 送至海堧 師汎重溟 凡三周寒暑 達于南海 實梁普通八年丁未歲九月二十一  
日也

광주廣州의 자사刺史인 소양蕭昂이 지극한 예를 갖추어 보리 달마를 영접하고 무제武帝에게 표表를 올려서 보고하였다. 무제는 소양의 보고를 받고 사지를 보내서 보리 달마를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보리 달마가 10월 1일에 금릉金陵에 이르니, 무제가 이렇게 물었다.

“짐이 왕위에 오른 아래로 절을 짓고 불경을 베풀며 썼으며 출가 스님을 배출한 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보리 달마 조사가 답하였다.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무제가 다시 물었다.

“어째서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만 인간과 하늘에 나게 되는 작은 과보이고 유루의 인연일 뿐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있는 것 같아도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한 공덕입니까?”

“정정한 지혜는 미묘하고도 둥근 것이어서 그 본체가 스스로 텅 비고 고요한 것 아니, 이러한 공덕은 세상의 이치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거룩하고 으뜸가는 진리입니까?”

“성스러운 진리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짐과 마주 앉아 있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제는 보리 달마의 말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후 보리 달마는 갈대 잎 하나를 타고 강을 건너서 위魏나라로 갔다. 그 곳에 가서 송산嵩山의 소림사에 머물면서 벽을 향해 앉아서 종일 토록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자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이가 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그저 ‘벽만 바라보는 바라문’이라고 불렀다.

廣州刺史蕭昂 具主禮迎接 表聞武帝 帝覽奏遣使齋詔迎請 十月一日至金陵 帝問曰朕卽位已來 造寺寫經度僧不可勝記 有何功德 師云片無功德 帝曰何以無功德 師曰此但人天小果有漏之因 如影隨形 雖有非實 帝曰如何是真功德 答曰淨智妙圓 體自空寂 如是功德 不以世求 帝又問如何是聖諦第一義 師云廓然無聖 帝曰對朕者誰 師曰不識 帝不契 師一葦渡江至魏 寓止于嵩山小林寺 面壁而坐 終日默然 人莫知之 謂之壁觀波羅門

그때 신팍神光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치에 통달한 선비였다. 그 스님은 오랫동안 이락伊洛<sup>79</sup>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서적을 많이 읽어 현묘한 이치를 막힘없이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는 늘 이렇게 탄식하였다.

---

79 이수伊水와 낙수洛水. 낙양 근처의 지역 이름.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에는 예절과 규범들뿐이며, 『장자』와 『주역』에는 미묘한 이치가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요사이 달마라고 하는 큰스님이 소림사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지극한 인물이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 깊은 경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신풍은 달마에게 가서 아침저녁으로 예를 갖추고 가르침을 구하였다. 하지만 달마 대사는 언제나 벽을 향해 단정히 앉아 있을 뿐 그에게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않았다.

신풍은 이에 결심하였다.

‘옛 사람들은 도를 구할 때 뼈를 두드려 골수를 빼고 피를 뽑아서 굶주린 중생을 구해주었고, 머리카락을 진흙땅에 덮고 벼랑에서 몸을 던져 굶주린 호랑이를 먹였다. 옛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내 어찌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 해 12월 9일 함박눈이 내리던 날 밤에 신풍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맞으면서 있었다. 새벽녘에는 그의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다. 달마 대사는 신풍을 불쌍히 여겨 물었다.

“그대는 대체 무엇을 구하려고 그리 오랫동안 눈 속에 서 있는가?”

그러자 신풍은 슬피 울면서 간청하였다.

“스님,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감로의 문<sup>80</sup>을 열어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주십시오.”

이에 달마 대사가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지극한 도는 오랜 겁 동안 쉬지 않고 닦아야 하며,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내야 한다. 어찌 작은 덕과 작은 지혜, 경솔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참된 가르침을 바라는가? 부질없이 애쓰지 말라.”

신풍은 달마 대사의 가르침을 듣자 슬며시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더니 자기 원쪽 팔을 잘라서 달마 대사 앞에 내려놓았다. 그런 모습을 본 달마 대사는 그가 바로 법 기임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들도 처음에 도를 구하실 때에는 법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내던지

---

80 감로문 甘露門. 불사不死의 법문. 단 이슬처럼 진리의 맛이 좋은 부처님 또는 탁월한 승려의 교법을 말한다.

셨다. 그대가 이제 내 앞에서 팔을 자르면서까지 도를 구하니 구할 만하구나.”

그리고 조사는 지난 인연에 따라서 이름을 ‘혜가慧可’<sup>81</sup>로 바꿔주었다.

신광이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법인法印<sup>82</sup>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보리 달마는 대답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법인은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다.”

“제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리 달마 조사는 말하였다.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時有僧神光曠達之士 久居伊洛 博覽羣書 善談玄理 每嘆曰 孔老之教 禮術風規 莊易之書 未盡妙理 近聞達磨大士 住止小林 至人不遙 當造玄境 乃往彼晨夕叅承 師常端坐面壁 莫聞誨勵 光自思惟曰 昔人求道 敲骨取髓 刺血濟飢 布髮掩泥 投崖飼虎 古尚如此 我又何人 其年十二月九日夜 天大雨雪 光堅立不動 遲明積雪過膝 師憫而問曰 汝久立雪中 當求何事 光悲泣曰 惟願和尚 慈悲開甘露門 廣度衆生 師曰諸佛無上妙道 廣劫勤修 難行能行 難忍能忍 豈以小德小智輕心慢心 欲冀真乘 徒勞勤苦 光聞師誨勵潛取利刀 自斷左臂 置於師前 師知是法器 乃曰諸佛最初求道 爲法忘形 汝今斷臂吾前求亦可在 師遂因與易名曰慧可 光曰諸佛法印 可得聞乎 師曰諸佛法印 匪從人得 光曰 我心未寧 乞師與安 師曰將心來與汝安 曰覓心了不可得 師曰與汝安心竟

하루는 보리 달마가 혜가 대사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밖의 모든 인연을 끊고 안의 마음에 헐떡임이 없게 하여 마음이 장벽과

---

81 487~593. 위진남북조 시대의 스님. 선종 제2조. 아명은 신광神光. 승가僧可라고도 한다. 어려서 노장과 불교경전을 공부하고 나중에 낙양 용문龍門의 향산香山에 이르러 보정賓靜 선사 문하에서 출가, 영목사 永穆寺에서 수계한 후 여러 곳을 다니며 참구하였다. 40세 때 소림사의 보리 달마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고, 후에 하남성 업도鄆都에서 34년간 설법하며 종풍을 크게 선양하였다. 북주北周의 파불破佛(574~578)이 있자 환공산皖公山에 은둔하였고, 파불이 끝나자 다시 업도로 돌아갔다. 수隋 개황開皇 13년 3월 16일 입적하였다.

82 dharma-mudrā. 법法은 부처님의 가르침, 인印은 특징·특질·징표를 뜻한다.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의 특징을 의미한다.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가 있으리라.”

혜가는 여러 가지로 마음과 성품을 설명해 보았지만 그 어느 것에도 계합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홀연히 그 이치를 깨닫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미 모든 인연이 다 그쳤습니다.”

보리 달마가 물었다.

“단멸을 이루지 않았느냐?”

“없습니다.”

보리 달마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어떠한가?”

“밝고 밝아 어둡지 않으며, 분명하게 깨달아 언제나 알기에 말하려 해도 말로는 미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이 전하는 마음의 본체(心體)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達磨一日爲可大師曰 汝但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牆壁 可以入道 可作種種說心說性  
皆不契 一日忽悟乃曰 我已息諸緣 祖曰莫成斷滅不 可曰無 祖曰子作麼生 可曰明明不  
昧了常知故 言之不可及 祖曰此是諸佛諸祖所傳心體 更勿疑矣

달마는 9년이 지나자 서천축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에 문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대들은 각자 얻은 바를 말해 보아라.”

그때 문인門人 도부道副가 대답하였다.

“제가 얻은 바로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도의 작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마가 말하였다.

“그대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

총지惣持가 말하였다.

“제가 지금 이해한 바는 경희慶喜(아난)가 아축불국阿闍佛國을 보고서 한 번 보고는 다시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달마가 말하였다.

“그대는 나의 살을 얻었다.”

도육道育이 말하였다.

“사대四大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있지 않으니,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마가 말하였다.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혜가 대사가 나와 스승에게 삼배를 올린 뒤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자 달마가 말하였다.

“그대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그러고 나서 혜가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옛날 여래께서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부축하신 아래 대대로 이어지다 나에게 이르렀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니 그대는 잘 지키고 간직해야 한다. 아울러 나의 가사도 그대에게 함께 주어서 법에 대한 믿음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그것들이 각기 상징하는 바가 있음을 알아야 하리라.”

혜가가 청하였다.

“스님,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안으로는 심인心印<sup>83</sup>을 전수하여 본심에 계합되었음을 증명하고, 밖으로는 가사를 부축하여 종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후세의 경박한 사람들이 얄팍하게 온갖 의심을 다투어 일으키면서, ‘달마는 서천축국 사람인데 이 지역의 사람인 그대가 교법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대는 이제 이 가사와 법을 받아두었다가 훗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 가사와 나의 계송을 꺼내어 증명의 징표로 삼는다면 교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들고 200년<sup>84</sup> 이 지나면 이 가사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법만은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두루 하게 될 것이다. 도를 밝히려는 사람은 많아도 도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적으며, 이치를 말하려는 사람들은 많아도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

83 또는 불심인佛心印이라고도 한다. 심心은 불심佛心, 인印은 인가印可 · 인증印證이란 숙어로서 확증하는 뜻이 있다. 이는 언어 · 문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부처님 자내증自內證의 심지心地를 말한다. 선가에서는 수중일여修證一如라 하여 깨달음 그 자체와 깨달아가는 마음을 구별하지 않는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차츰 수행의 공을 쌓은 뒤에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마음이 곧 부처며, 깨닫는 것도 수행이라는 것이다. 이 깨달은 것과 깨닫는 마음이 하나인 것이 바로 심인 또는 불심인의 뜻이다.

84 6조 혜능 대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적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진리에 부합되고 비밀스럽게 증명하는 사람이 천만 명을 넘을 것이니 그대는 이 법을 널리 펼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이 심기를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본래부터 깨달은 것과 같을 것이다. 나의 계송을 들어보아라.”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었네.  
꽃 한 송이에 다섯 장의 잎이 피어났으니  
그 결과는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達磨迄九年已 欲返西竺 乃命門人曰 時將至矣 汝等盍各言所得乎 時門人道副對曰 如我所見 不執文字 不離文字 而爲道用 師曰汝得吾皮 惚持曰我今所解 如慶喜見阿闍佛國一見更不復見 師云汝得吾肉 道育曰四大本空 五陰非有 而我見處 無一法可得 師曰汝得吾骨 最後慧可大師出禮三拜依位而立 師曰汝得吾髓 乃顧慧可而告之曰 昔如來以正法眼藏 付囑迦葉 轉轉相承 而至於我 我今付汝 汝當護持 并授汝袈裟 以爲法信各有所表 宜可知矣 可曰請師指陳 師曰內傳心印 以契本心 外付袈裟 將表宗旨 後代澆薄疑慮競生云 吾西天之人 言汝此方之人 憑何得法 以何證之 汝今受此衣法 却後難生 但出此衣并吾法偈 用以表明 其化無尋 至吾滅後二百年 衣止不傳 法周沙界 明道者多 行道者少 說理者多 通理者少 潛符密證 千萬有餘 汝當闡揚 勿輕未悟 一念廻機便同本得 聽吾偈曰  
吾本來此土 傳法救迷情  
一花開五葉 結果自然成

## 29. 바라제波羅提

이견왕異見王<sup>85</sup>이 바라제波羅提<sup>86</sup> 존자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

85 생몰연대 미상. 남인도 향지왕香至王의 아들. 월정다라月淨多羅의 장자로서 보리 달마가 그의 숙부이다. 처음에는 불교를 탄압했지만 나중에 달마에게 교회를 받아서 불교를 외호하게 된다.

86 달마 대사가 인도에 있을 때 교회를 받아 법을 깨달은 제자이다.(각성, 앞의 책, p.188)

존자가 답하였다.

“성품을 보는 것(見性)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렇다면 스님은 성품을 보셨습니까?”

“예,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이견왕이 다시 물었다.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성은 작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불성)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데 왕께서 보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작용이 있습니까?”

“왕께서 만약 작용한다면 그것 아닌 것이 없을 것이나, 왕께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본체조차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작용할 때에는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작용하여 나타날 때에는 여덟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덟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머물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고 하고, 코에 있으면 향기를 구별하고, 혀에 있으면 대화를 나누고, 손에 있으면 사물을 집거나 붙잡고, 발에 있으면 돌아다니거나 달립니다. 널리 드러내면 항하사와 같은 세계에 두루 차지만, 거두어들이면 티끌 하나 속에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것이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이는 이것을 정신흔백(精魂)이라고 합니다.”

이견왕은 계송을 듣고 마음이 곧 열려 깨달음을 얻었다.

波羅提因異見王問何者是佛 答曰見性是佛 王曰師見性不 答曰我見佛性 王曰性在何處 答曰性在作用 王曰是何作用 我今不見 答曰今見作用 王自不見 王曰於我有不 答曰王若作用 無有不是 王若不用 體亦難見 王曰若當用時 幾處出現 曰若出現時 當有其八 王曰其八出現 當爲我說 波羅提曰 在胎爲身 處世名人 在眼曰見 在耳曰聞 在鼻辨香 在舌談論 在手執捉 在足運奔 徧現則俱該沙界 收攝則在一微塵 識者知是佛性 不識者喚作精魂 王聞偈 心即開悟

## 30. 반야다라般若多羅

동인도의 국왕이 제27조 반야다라般若多羅 존자를 청하여 궁에서 재齋(공양)를 올렸다. 이때 왕이 반야다라 존자에게 물었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경을 읽고 계시는데 스님은 어찌하여 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존자가 답하였다.

“빈도貧道는 숨을 들이쉴 때에는 오온五蘊과 십팔계十八界<sup>87</sup>에 머물지 않고, 숨을 내쉴 때에는 뭇 인연에 얹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와 같이 백천만억 권의 수많은 경을 읽는 것입니다.”

東印度國王 請二十七祖般若多羅尊者入內齋 王問曰諸人盡轉經 師何不看經 師曰貧道入息不居陰界 出息不涉衆緣 常轉如是經百千萬億卷

## 31. 3조祖 승찬僧璨

3조 승찬僧璨<sup>88</sup> 대사가 2조 혜가 대사에게 청하였다.

“제 몸에 풍병이 왔습니다. 스님, 제발 제가 죄를 참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혜가 대사가 말하였다.

“먼저 그대의 죄를 가져오면 그대의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죄는 이미 다 참회되었으니 앞으로는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서 머무르도록 하라.”

승찬 대사가 혜가 대사에게 여쭈었다.

---

<sup>87</sup> 여섯 가지 감각기관(6根)과 여섯 가지 인식 대상(6境), 그리고 여섯 가지 식별(6識)이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

<sup>88</sup> ?~606. 중국 선종의 제3조. 속가에서 풍질風疾에 걸렸을 때, 2조 혜가를 만나 문답을 주고받은 후 풍질이 공空하여 얻을 수 없다는 이치를 깨닫고 혜가에게 출가하였다. 혜가의 법을 이어받은 뒤 서주舒州 사공산司公山에 은거하였고, 북주 무제의 파불(574) 때 동주同州 환공산皖公山에서 10년을 은거하였다. 이어 나부산羅浮山에 들어가 대재회大齋會를 열고 심요心要를 설한 뒤 수隋 대업大業 2년에 입적하였다.

“제가 지금 스님을 뵙고서 승보僧寶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처님(佛寶)이라 하고, 가르침(法寶)이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님이며, 마음이 곧 법이니, 부처님과 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승가 또한 그러하다.”

“오늘에야 죄의 성품이 안에도 밖에도 그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그러하듯이 부처님과 법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혜가 대사는 승찬 대사를 법기로 여기게 되었다.

3조 승찬 대사는 계송으로 말하였다.

지극한 도에는 어려움이 없으니  
가리는 마음만을 꺼릴 뿐이네.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환하게 밝아지고 또 밝아지리라.

대사는 또 말하였다.

원만하기가 큰 허공과도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네.  
쉽게 취하거나 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지 못할 뿐이네.

三祖璨大師 問二祖曰 弟子身纏風恙 請師爲我懺罪 祖曰將罪來與汝懺 云覓罪了不可得 祖曰與汝懺罪竟 宜依佛法僧住 曰某甲今見和尚 已知是僧 未審何名佛法 祖曰是心是佛 是心是法 佛法無二 僧寶亦然 曰今日始知罪性不在內外中間 如其心然 佛法無二 祖深器之 三祖偈云  
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又云  
圓同大虛 無欠無餘  
良由取捨 所以不如

## 32. 4조 祖 도신道信과 5조 祖 홍인弘忍

4조 도신道信<sup>89</sup> 대사는 재송裁松<sup>90</sup>이라는 도자道者가 찾아오자 그와 마주 앉아 이야 기를 나누었는데 말이 서로 통하였다. 그러자 도신 대사가 말하였다.

“그대가 너무 나이 들었으니 몸을 바꾸어서 다시 와야 할 것이오.”

그러자 도자는 아무 말도 없이 산을 내려갔다.

그는 탁항濁港으로 이르러 그 곳에서 뺨래를 하고 있던 어떤 처녀를 보고는 다가 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의 집을 빌려서 하룻밤 자고 가려 하오.”

그 처녀가 답하였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대는 괜찮은 것이오?”

“제 부모님에게 가셔서 여쭈어 보십시오.”

도자는 멀리 가지 않고 어느 나무 아래에서 앉은 채로 입적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곧 그 처녀는 잉태하여 사내아이를 낳았다. 처녀는 부모의 질책을 당함은 물론이요, 자신의 결백을 아무리 주장해도 통하지 않자 결국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 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강으로 나가 보니 아이가 강물을 거슬러서 가고 있으므로 차마 다시 거두어 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랜 세월 걸식을 하며 아이를 키워 어느덧 그의 나이 7살이 되자 소년을 데리고 황매黃梅<sup>91</sup>로 가서 살았다.

---

89 580~651. 중국 진말陳末 당초唐初의 스님. 중국 선종의 제4조. 13세부터 3조 승찬 대사에게 10여 년 동안 참학하고 3조의 선법을 이어받았다. 이후 길주吉州와 여산廬山 대림사大林寺에 10년간 머물다가 기주 쌍봉산雙峰山으로 옮겨 30여 년간 머물렀다. 그는 동산법문東山法門의 초조初祖로서, 문하에 5백 여 명의 학도자學道者를 두었다. 당唐 영휘永徽 2년에 입적하였다.

90 중국 선종의 제5조 홍인弘忍(594~674) 스님. 4조 도신 스님을 만나 뵙 후부터 소나무를 심었으므로 이런 별명이 붙었다. 4조 도신의 제자가 되어 오랫동안 그의 회하에서 수행하고 법을 이어받았다. 홍인의 사상은 심성의 본원에 철저히 함을 본지로 하여 수심守心을 참학의 요체로 삼는다. 그의 제자로는 신수神秀, 혜능慧能 등이 있는데 특히 혜능이 그의 법을 이어받아 남방으로 가 법문을 선양하였다. 숙종肅宗 상원上元 2년 입적하였다.

91 중국 호북성 동남단에 있는 도시. 강서성의 북단, 안휘성의 서남과 경계를 접하며 양자강 중류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4조 도신道信과 5조 홍인弘忍의 동산법문東山法門의 근거지로서 서남쪽 밖에는 6조 혜능이 의발을 전수받은 동선사東禪寺가 있고, 동북쪽 30리에는 홍인이 거주한 갑찰 빙무산 진혜사眞惠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서 4조 도신 대사를 만나게 되었다.  
도신 대사가 소년에게 물었다.  
“너의 성姓이 무엇인가?”  
소년이 답하였다.  
“성은 있지만 흔한 성이 아닙니다.”  
“어떤 성인가?”  
“불성佛性입니다.”  
“너에게 불성이 있기는 해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듯하구나.”  
그러자 소년이 말하였다.  
“모르고 있기는 저뿐만 아니라 삼세三世의 모든 부처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모르신다고 말하느냐?”  
“성품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신 대사는 동자가 법기임을 짐작하고 곧 그를 출가시켜 가사를 전하고 법을 부촉하였다.

四祖 因栽松道者來相見 語言相契 祖曰汝年已老 改形而來可也 道者珍重 便行下山至  
濁港 見一處女浣衣 遂云我欲借汝家一宿 女云有父母在 道者曰你肯麼 女云去問我父母宿  
道者去不遠 於一樹下 坐化去 其女 從此有孕 生一男子 被父母呵嘆 及是非不能洗  
便將兒子 抛於江水中去 復廻次日見兒 逆流而去 不忍復收養之 乞食度日至七歲  
携在黃梅 路上見四祖 祖問曰童子何姓 子答曰姓卽有 不是常姓 祖曰是什麼姓 子曰佛  
性 祖曰雖有佛性 汝且不會 子曰非但我不會 三世諸佛亦不會 祖曰爲什麼不會 子曰性  
空 故祖默識其法器 卽便出家 乃傳衣付法

### 33. 6조祖 혜능慧能

6조 혜능慧能<sup>92</sup> 대사는 나무를 해다 팔아서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지냈다. 어느 날 땔

---

寺, 서북쪽 40리에는 도신이 거주한 갑찰 쌍봉산 정각사正覺寺가 있다.

92 638~713. 당대唐代 스님. 중국 선종의 제6조. 5조 홍인 대사에게는 걸출한 제자인 신수神秀 대사도 있었는데, 신수가 북방의 장안과 낙양 부근에서 포교하고 점수주의漸修主義였던 것에 반해, 혜능의 선

감을 짊어지고 저잣거리로 나갔다가 어떤 나그네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應無所住而生其心)”라는 『금강경』 구절을 외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혜능은 전율하고 서 곧 그 나그네에게 물었다.

“그것은 무슨 가르침이며, 누구에게서 얻은 것입니까?”

“이것은 『금강경』인데 황매산의 홍인 대사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이에 혜능은 곧장 황매산 동선사 東禪寺로 달려갔다. 홍인 대사는 첫눈에 혜능을 알아보았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혜능은 돌을 나르고 방아를 짚다가 마침내 홍인 대사에게서 가사와 법을 전수 받았다. 그 후 남쪽으로 가서 회집懷集과 사회四會에 숨어 살다가 조계曹溪에 이르러 큰 법우를 내리니 그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들이 천 명 이상이었다.

중종이 신룡神龍 원년에 혜능 대사에게 다음과 같은 조칙을 내렸다.

“짐이 혜안과 신수 두 대사를 궁으로 초청하여 공양을 하고 나랏일을 돌보는 틈틈이 일승의 이치를 구하려 하였는데 두 대사는 똑같이 ‘남방에 계시는 혜능 선사가 홍인 대사의 가사와 법을 남몰래 전수 받았으니 그분께 여쭈어 보라’ 하고 천거하셨습니다. 이제 내시 설간薛簡을 파견하여 조서로써 대사님을 초청하니 자비를 내리시어 속히 상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혜능 대사는 병을 핑계 삼아 자연에서 일생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며 사양의 표를 올렸다.

이에 설간이 대사에게 물었다.

“서울에 있는 선덕禪德들은 한결같이 ‘도를 얻고자 한다면 좌선을 하여 선정을 익혀라. 만약 선정을 익히지 않는다면 결코 해탈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대사는 대체 어떤 법을 설하고 계십니까?”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앓는 데 달렸겠는가? 경(『금강경』)에서 ‘만일 여래를 앓는 것으로 보거나 눕는 것으로 본다면 그는 그릇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라 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바로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기 때문이오. 생멸이 없으면 그것이 여래의 청정하신 선정(禪)이며, 모든 법이 비고 고요하면 그것

---

은 남방에서 퍼졌고 돈오주의頓悟主義였다. 후세에 이 두 사람의 선풍禪風을 남돈북점南頓北漸이라고 칭하고, 남종선南宗禪·북종선北宗禪이라고도 한다. 혜능은 선천先天 2년 8월 3일 국은사國恩寺에서 입적하였다.

이 바로 여래의 청정하신 앉음(坐)인 것이오. 끝끝내 증득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앉는 것이겠소?”

설간이 말하였다.

“제가 국왕에게 돌아가게 되면 왕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제발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심요心要를 가르쳐 주십시오.”

“도에는 밝음도 어둠도 없소. 밝음과 어둠은 서로 뒤바뀔 수 있는 이치요. 밝음은 다함이 없으나 그래도 이것은 다함이 있는 것이오.”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하는 것일 텐데 수도하는 사람이 밝은 지혜를 가지고 어둔 번뇌를 비추어 깨버리지 않는다면 끝없이 돌고 도는 이 생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 번뇌를 깨뜨린다면 이것은 이승二乘<sup>93</sup>의 아이들이 갖는,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의 근기根機<sup>94</sup>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크게 지혜로운 높은 근기들은 절대 그렇지 않소.”<sup>95</sup>

설간이 다시 여쭈었다.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밝음과 어둠은 그 성품이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은 성품은 곧 진실한 모습(實相)인 것이오. 진실한 모습은 어리석은 범부의 경지에 머물러 있다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성현의 자리에 있다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오. 번뇌에 머물러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에 머물러도 고요하지 않으며, 끊기거나 항상하지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으며, 중간이나 안팎에도 있지 않으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이오. 성품(性)과 형상(相)이 여여如如<sup>96</sup>하여 항상 머물러 옮겨다니지 않는 것을 ‘도’라고

---

93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 승乘이란 해탈의 언덕으로 실어다 줄 수레,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성문은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닫는 사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사성제의 도리에 의해서 깨닫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연각은 이치를 체득하여 스스로 깨달은 사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혼자서 12연기의 이치를 관찰하여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 대승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완성에만 머물러 있을 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저열한 입장小乘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94 기근機根이라고도 한다. 어떤 사람의 종교적 소질이나 능력, 깨달을 수 있는 소질.

95 『묘법연화경』『비유품』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자기 집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성문(양이 끄는 수레)·연각(사슴이 끄는 수레)·보살(소가 끄는 수레)의 세 가지 장난감으로 아이들을 불러서 구출해낸 뒤에 그 세 가지가 아닌 새하얗고 커다란 소가 끄는 수레(一佛乘)를 주었다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오.”

“스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은 외도外道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멸하는 것으로써 생기는 것을 그치게 하고, 생기는 것으로써 멸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오. 그러니 멸함도 멸함이 아니고, 생함도 생함이 없다고 설하는 것이오.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본래부터 난 것도 없고 지금까지도 멸하지 않은 것이므로 외도들과는 다르오. 그대가 심요心要를 알고 싶다면 그저 모든 선악을 일체 생각하지 말아야 하오.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의 본체를 깨달아서 침착하고 항상 고요하며 현묘한 작용이 갠지스 강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오.”

설간은 혜능 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활연히 크게 깨달았다.

六祖能大師 採樵以給偏母 一日負薪至店中 聞客誦金剛經應無所住而生其心 心卽悚然 問其客曰 此何法也 得於何人 客曰此名金剛經 得於黃梅忍大師 師直造黃梅東禪寺 忍大師一見默而識之 師負石春米 遂傳衣法 南行隱于懷 集四會之間 至曹溪 雨大法雨 學者不下千數 中宗神龍元年降詔云 朕請安秀二師 宮中供養 萬機之暇 每究一乘 二師 並推云 南方有能禪師 密受忍大師衣法 可就彼問 今遣內侍薛簡馳詔迎請 願師慈念 速赴上京 師上表辭疾 願終林下 薛簡曰京城禪德 皆云 欲得會道 必須坐禪習定 若不因禪定 而得解脫者未之有也 未審師所說法如何 師曰道由心悟 豈在坐也 經云若見如來 若坐若臥 是行邪道 何故無所從來 亦無所去 若無生滅 是如來清淨禪 諸法空寂 是如來清淨坐 究竟無證 豈況坐也 簡曰弟子之廻主 上必問 願和尚慈悲 指示心要 師曰道無明暗 明暗是代謝之義 明明無盡 亦是有盡 簡曰明喻智慧 暗況煩惱 修道之人 倘不以智惠照破煩惱 無始生死 憑何出離 師云若以智惠照破煩惱者 此是二乘小兒羊鹿車等機 上根大智 悉不如是 簡曰如何是大乘見解 師云明與無明 其性無二 無二之性 卽是實相 實相者處凡愚而不滅 在賢聖而不增 住煩惱而不亂 居禪定而不寂 不斷不常 不來不去 不在中間及其內外 不生不滅 性相如如 常住不遷 名之曰道 簡曰師所說不生不滅 何異外道 師曰外道所說不生不滅者 將滅止生 以生現滅 滅猶不滅 生說無生 我說不生不滅者 本自無生 今亦無滅 所以不同外道 汝若欲知心要 但一切善惡 都莫思量 自然得入清淨心體 湛然常寂 妙用恒沙 簡蒙師指教 豁然大悟

6조 대사가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

96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진여眞如.

“어떤 물건이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며, 밝기는 해와 같고  
검기는 웃칠과 같다. 작용하는 가운데 항상 있기는 하나 그 작용하는 가운데에도 거  
둘 수 없다. 그대들이여, 그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사미 신회神會<sup>97</sup>가 대중들 속에서 나와서 답하였다.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저의 불성입니다.”

혜능 대사는 말하였다.

“내가 ‘한 가지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어찌 감히 ‘근  
원이다, 불성이다’라고 답하는가?”

六祖謂衆曰 有一物 上挂天下挂地 明如日黑似漆 常在動用中 動用中收不得 汝等諸人  
喚作甚麼 沙彌神會出衆曰 諸佛之本源 神會之佛性 祖曰我喚作一物 尚自不中 那堪喚  
作本源佛性

또한 계송으로 말하였다.

보리는 본래부터 나무가 아니요

명경도 경대鏡臺가 아니었네.

본래 한 가지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又偈云

菩提本非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또 계송으로 말하였다.

---

97 하택 신회荷澤神會, 670~762, 중국 당대唐代 스님. 하택종의 개조, 하택은 주석하던 절 이름. 어려서 5경경과 노장老莊을 배웠으며 후한서後漢書에 의해 불교를 안 후, 국창사의 호원顯元 법사에게 참학하고 출가하였다. 뒤에 대통 신수大通神秀 문하에서 참학하고 대죽大足 원년(701)에 신수의 권고에 따라 혜능의 회하에서 참학하였다. 개원開元 20년, 하남성 대운사大雲寺에서 무차대회를 열고 승원崇遠 선사와 논전을 벌였다. 당시 장안과 낙양에서 교세를 떨치던 대통 신수·승산 보적·의복義福의 북종선을 ‘사승시방 법문사점師承是傍法門是漸’이라고 비판하며, 스스로 혜능의 직계 제자이며 보리 달마의 정계正系임을 주장하였다. 건원乾元 원년 5월 13일 입적하였다.

우뚝하여 선업을 닦지 않고  
걸림이 없어서 악업을 짓지 않네.  
고요하여 보고 듣는 것이 끊어지고  
사심이 없어 마음에 집착이 없네.

又云

兀兀不修善 騰騰不造惡  
寂寂絕見聞 蕩蕩心無着

또 계송으로 말하였다.

혜능은 아무런 재주가 없어서  
온갖 생각들을 끊지 못하였네.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어찌 보리가 자랄 수 있으리.

又云

惠能沒伎倆 不斷百思想  
對境心數起 菩提作麼長

또한 계송으로 말하였다.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그릇되고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게 되리라.

又云

有念念成邪 無念念卽正

## 34. 청원 행사 清源行思

청원 행사 清源行思<sup>98</sup> 선사가 6조 혜능 대사에게 물었다.

---

98 ?~741. 중국 당대 唐代 스님. 청원은 주석하던 산 이름. 6조 혜능에게서 법을 이어받아 남악 회양 南岳 懷

“어떻게 힘써야만 계급에 떨어지지<sup>99</sup> 않겠습니까?”

혜능 대사가 반문하였다.

“그대는 일찍부터 무엇을 해오고 있는가?”

행사 선사가 대답하였다.

“거룩한 진리를 행하지도 못하며 지내왔습니다.”

“어떤 계급에 떨어졌는가?”

“거룩한 진리도 행하지 못하였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혜능 대사는 그를 법기로 깊이 여겼다.

清源行思禪師 問六祖 當何所務 卽不落階級 祖曰汝曾作甚麼來 師云聖諦亦不爲 祖曰  
落何階級 師曰聖諦尚不爲 何階級之有 祖深器之

## 35. 남악 회양南岳懷讓

남악 회양南岳懷讓<sup>100</sup> 화상이 처음으로 6조 대사를 참배하러 갔을 때, 혜능 대사가 물었다.

“어디에서 왔느냐?”

회양 화상이 답하였다.

“승산嵩山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떻게 왔느냐?”

“한 가지 물건이라 하여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닦아 증득할 수는 있겠는가?”

---

讓과 함께 2대 제자로 불린다. 개원開元 28년 11월 13일 입적하였다.

99 계급에 떨어진다는 말은 돈오성불頓悟成佛하지 못하는 것, 즉 수다원·사다함·아나함·아라한·연각 등의 수행 과위가 정해져 있는 단계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100 677~744.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은 주석하던 산 이름. 15세에 호북성 형주荊州의 홍경弘景 율사를 찾아뵙고 출가하여 율장을 공부하였다. 그 후 승산에 올라 승악 혜안嵩嶽慧安을 만나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6조 혜능에게 5년간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정월 행사와 더불어 혜능의 2대 제자로, 개원開元 연간(713~741)에 마조 도일馬祖道一에게 법을 전했다. 그의 문하가 후일 중국 선종의 주류가 된다. 현종玄宗 천보天寶 3년 8월 11일 입적하였다.

“닦아 증득하는 것이야 없지 않으나, 더러움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부처님들이 염두에 두고 지키는 것이다. 그대가 이미 그려하였고, 나 또한 그와 같다.”

讓和尚初叅六祖 祖問什麼處來 曰嵩山來 祖曰甚麼物伊麼來 曰說似一物卽不中 祖曰  
還假修證不 曰修證卽不無 汚染卽不得 祖曰只這不污染底 是諸佛之所護念 汝既如是  
吾亦如是

회양 선사는 마조馬祖<sup>101</sup>가 좌선을 많이 익히고 있자, 어느 날 벽돌을 들고 마조의 암자 앞으로 가서 그것을 갈았다. 마조가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을 한다고 어찌 부처님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소가 수레에 매여 있을 때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소를 때려야겠느냐, 수레를 때려야겠느냐?”

師因馬祖多習坐禪 一日將甄 於菴前磨 祖問磨甄作甚麼 師曰磨作鏡 祖曰磨甄豈得作  
鏡 師曰磨甄既不成鏡 坐禪豈得成佛 祖曰如何卽是 師曰比牛駕車 車若不行 打牛卽是  
打車卽是

---

101 마조 도일馬祖道一, 709~788.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南嶽 문하. 어려서 9류流 6학學을 공부하고 나한사羅漢寺 치적處寂에게 출가하고, 사천성 유주渝州의 원圓 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6조 혜능의 법을 이은 회양懷讓이 남악南嶽에서 수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남악 마전南嶽 磨磚의 기연機緣으로 심인心印을 얻었다. 정원貞元 4년 2월 1일 입적하였다. 마조는 강서를 중심으로 교화를 펴 나갔기 때문에 호남의 석두 희천石頭希遷과 더불어 선계의 쌍벽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의 선풍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즉심시불卽心是佛’을 표방하며, 경전이나 관심觀心에 의거하지 않는 대기대용大機大用의 선이다. 백장 회해百丈懷海 등 130여 명의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 36. 영가 현각永嘉玄覺

영가 현각永嘉玄覺<sup>102</sup> 대사가 조계에 가서 주장자를 짚고 서 있으니 6조 대사가 물었다.

“사문은 삼천 가지의 위의<sup>103</sup>와 팔만 가지의 세세한 행동거지(細行)를 갖추는 법인데 대덕은 어디에서 왔기에 이렇게 대단하게 자만을 부리는가?”

영가 대사가 답하였다.

“나고 죽는 일은 더없이 중대하고 무상은 빠르기만 한 것인데, 예의를 갖출 틈이 어디 있습니까?”

“생멸이 없음은 체득하였으면서 어찌하여 빠름이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체득함에는 생멸이 없고, 깨달음에는 본래 빠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

영가 대사가 바야흐로 위의를 갖추어 절을 올린 뒤 이내 작별인사를 올렸다. 6조 대사가 말하였다.

“어찌 그리 바빠 돌아가려 하는가?”

영가 대사가 말하였다.

“본래부터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누가 움직이지 않은 줄 아는가?”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고 계십니다.”

“그대는 생멸이 없는 이치를 아주 잘 체득하고 있구나.”

“생멸이 없는데 어찌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치가 없다고 하면, 누가 분별을 하겠느냐?”

---

102 665~713. 중국 당대唐代 스님. 영가는 출신 지역 이름. 어려서 출가하여 두루 삼장을 탐구하였으며 특히 천태 지관의 법문에 정통하였다. 좌계 현랑左谿玄朗의 권고로 무주 현책婺州玄策과 함께 6조 혜능에게 나아가 여러 차례 상견 문답하여 곧바로 인가를 받고 그 날 일숙一宿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일러 일숙각—宿覺이라고 하였다. 당나라 현종玄宗 선천先天 2년에 입적하였다. 저술로는 『증도기證道歌』, 『영가집永嘉集』이 있다.

103 규율과 예법에 맞는 올바른 행위, 몸가짐.

“분별 또한 이치가 아닙니다.”

6조 대사가 감탄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永嘉玄覺大師 到曹溪 振錫而立 祖云夫沙門者 具三千威儀八萬細行 大德自何方而來  
生大我慢 師云生死事大 無常迅速 何暇具禮儀在 祖曰何不體取無生 了無速乎 師云體  
則無生 了本無速 祖曰如是如是 師方具威儀參禮 須臾告辭 祖曰返大速乎 師云本自非  
動 豈有速耶 祖曰誰知非動 曰仁者自生分別 祖曰汝甚得無生之意 曰無生豈有意也 祖  
曰無意誰當分別 曰分別亦非意也 祖歎曰善哉善哉

영가 현각 선사는 말하였다.

“마음은 근根(六根)이요 법은 티끌(塵: 六境)이니, 이 두 가지는 거울의 흔적과도  
같다. 먼지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을 때 거울의 빛이 나타나고, 마음과 법을 함께 잊  
었을 때 성품이 곧 진실하다.”<sup>104</sup>

師云心是根法是塵 兩種猶如鏡上痕 痘垢盡除光始現 心法雙忘性卽眞

선사는 또 말하였다.

“한 가지 물건도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니,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삼천대천세  
계가 바다에 이는 거품이요, 모든 성현들은 번개가 번쩍하는 것과 같다.”

又 了了見無一物 亦無人亦無佛 大千沙界海中漚 一切聖賢如電拂

선사는 또 말하였다.

“참을 구하지도 않고 혀망을 끊지도 않으며 이 두 가지 법이 공하여 형상이 없는  
줄 알아야 한다. 형상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는 것이 바로 여래의 진실한  
모습이다.”

又 不求眞不斷妄 了知二法空無相 無相無空無不空 卽是如來眞實相

---

104 영가 스님의 『중도가』에 나오는 구절을 발췌한 것이다.

선사는 또 말하였다.

“모든 행이 무상하고 일체가 공한 것이 바로 여래의 대원각大圓覺<sup>105</sup>이다.”

又 諸行無常一切空 卽是如來大圓覺

선사는 또 말하였다.

“헐뜯을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으니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한계가 없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나, 찾아보려고 하면 그대는 볼 수 없음을 알게 되리라.”

又 不可毀不可讚 體若虛空勿涯岸 不離當處常湛然 實則知君不可見

선사는 또 말하였다.

“실상實相인 인과 법이 없음을 증득하면, 찰나에 아비阿鼻지옥<sup>106</sup>에 떨어질 업을 없애게 된다. 만약 거짓말로 중생을 속인다면 티끌 같은 많은 겁 동안 발설拔舌지옥<sup>107</sup>에서 받게 될 과보를 자초할 것이다.”

又 證實相無人法 刹那滅却阿鼻業 若將妄語誑衆生 自招拔舌塵沙劫

선사는 또 말하였다.

“어떤 두 비구가 음행과 살생을 범하자 우바리<sup>108</sup> 존자는 빛으로 그 죄를 더 무겁게 하였다. 그런데 유마 대사<sup>109</sup>가 이글거리는 태양이 서리와 눈을 녹이는 것처럼 그

---

105 원만하고 완전한 깨달음.

106 아비阿鼻란 ‘(고통의) 간격이 없다’는 뜻으로, 무간無間지옥을 말한다. 잠시도 숨 돌릴 틈 없이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이 가는 곳이다. 살가죽을 벗겨 불 속에 집어넣거나 쇠매가 눈을 파먹는 등의 고통을 끊임없이 받는다.

107 살아서 입으로 악업을 지은 이가 죽은 뒤에 가는 지옥. 욕과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과 번드레하게 꾸미는 말을 일삼으면 죽어서 이 지옥으로 떨어져 혀가 뽑히고 뽑힌 혀를 쟁기와 같은 농기구로 갈려지는 고통을 받게 된다.

108 upāli.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하나. 석가족의 이발사였는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계율이 엄격하여 지계제일持戒第一이라 일컫는다. 부처님 입멸 직후, 제1차 결집 때 계율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암송함으로써 울장 성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의심을 단번에 풀어주었다.”<sup>110</sup>

[“그저 뒤바뀐 생각으로부터 생겨났으니 머물 곳이 없는 것이다”라거나 또는 “생각의 본체가 본래 공하다면 그것이 변하더라도 어찌 실제이겠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又 有二比丘犯婬殺 波離螢光增罪結 維摩大士頓除疑 猶如赫日消霜雪 〔如云但從顛倒生 無有住處 又如念體本空 所變何實〕

영가 현각 선사는 말하였다.

“몸은 허망한 허깨비요 자기 성품이 없음을 알면, 색이 바로 공인 것이니, 나는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모든 법은 거짓이름만 있을 뿐 일정한 실체가 없다. 이 나의 몸이라는 것도 사대四大와 오음五陰(五蘊) 하나하나가 내가 아니니 화합 또한 없다. 안팎으로 찾아보아도 물보라나 거품, 아지랑이와도 같아 끝내는 사람이라 할 것이 없다. 그런데 무명을 깨닫지 못하여 허망하게 나라고 집착하여 그것이 실체가 아님에도 그릇되게 탐내고 집착하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욕에 빠지고 미혹에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업을 짓게 된다. 비록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악업에는 과보가 따르니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 스스로 제 몸의 실상을 관찰하듯이 부처님을 관찰하는 것도 그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는 눈앞에 있다’고 하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셋은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師云知身虛幻 無有自性 色卽是空 誰是我者 一切諸法 但有假名 無一定實 是我身者 四大五陰 一一非我 和合亦無 內外推求 如水聚沫 浮泡陽焰 畢竟無人 無明不了 妄執爲我 於非實中 橫生貪着 煙生偷盜 嫵穢荒迷 竟夜終朝 破壞造業 雖非眞實 善惡報應 如影隨形 應自觀身 實相觀佛亦然 故云道在目前 心佛衆生三無差別

109 유마힐維摩詰. 부처님의 속제자로, 대승보살도를 닦아 무생인無生忍을 얻어 변재辯才가 뛰어나다.

110 『유마경』에서 부처님의 성문 제자들이 유마의 병문안을 가라는 부처님의 권고에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며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고백한다. 지계제일持戒第一 우바리도 죄를 지은 비구들에게 참회하게 하는데 이때 유마 거사가 등장하여 죄의 자성에 대한 법을 설하는 일화를 말하는 것이다.

## 37. 남양 혜충南陽慧忠

혜충慧忠<sup>111</sup> 국사가 어느 날 시자를 부르니 시자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국사가 세 차례를 부르니 시자는 세 차례 모두 대답하였다.

국사는 말하였다.

“내가 너를 저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忠國師 一日喚侍者 侍者應喏 如是三喚 侍者三應 師曰將謂吾辜負汝 却是汝辜負吾

어떤 스님이 혜충 국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본신本身인 노사나 부처님입니까?”

국사가 답하였다.

“깨끗한 물병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스님이 물병을 가지고 오자 국사가 말하였다.

“본래 있던 곳에 도로 가져다 두어라.”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본신인 노사나 부처님입니까?”

“옛 부처님께서 지나가신 지가 오래 되었구나.”

忠國師因僧問 如何是本身盧舍那 師云與我過淨瓶來 僧將淨瓶到 師云却安舊處着 僧復問如何是本身盧舍那 師云古佛過去久矣

어떤 스님이 혜충 국사에게 물었다.

---

111 남양 혜충南陽慧忠, ?~775.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양은 주석한 지역 이름. 어려서 6조 혜능에게 수학하고 그의 법을 이었다. 혜능 입멸 후 여러 곳을 유력한 뒤에 하남성 남양南陽 백애산 당자곡으로 들어가 40여 년간 산문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당 상원上元 2년(761) 숙종이 그의 명성을 듣고 수도로 모시고 스승의 예를 올렸다고 한다. 혜충은 청원 행사·남악 회양·하백 신회·영가 현각과 더불어 혜능 문하의 5대 종장宗匠으로서, 그 선풍은 다르지만 당시 혜능 선양 운동에 앞장선 신회와 더불어 북방에 선풍을 거양했으며, 마조 도일 등이 남방에서 창도한 선을 비평하였다. 그의 선은 신심 일여身心一如·즉심즉불即心即佛로서 무정설법無情說法을 처음으로 일컬었다. 또한 남방의 선승들이 경전을 중시하지 않고 뜻에 따르는 설법을 하는 것을 비판, 널리 경·율·논을 펼쳤으며 교학을 중시하여 사설師說에 의거하라고 주장하였다. 대력大曆 10년 12월 9일 입적하였다.

“어떤 것이 한 가지 생각이 서로 응하는 것(一念相應)입니까?”

국사가 답하였다.

“기억과 지혜를 모두 잊으면 그것이 서로 응하는 것이다.”

“기억과 지혜를 모두 잊는다면 어떻게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잊으면 없는 것이고,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될 일인데 어찌 감히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없음도 공하고, 부처도 공하다. 그러므로 없으면 곧 부처이며 부처는 곧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忠國師因僧問 如何是一念相應 師曰憶智俱忘 卽是相應 僧曰憶智俱忘誰見諸佛 師曰忘卽無 無卽佛 僧曰無卽言無 何得喚作佛 師曰無亦空 佛亦空 故曰無卽佛 佛卽無

숙종肅宗 황제가 혜충 국사에게 연극을 보러 가자고 권하자 국사가 말하였다.

“어떤 몸과 마음이 연극을 보겠습니까?”

황제가 거듭 권하자 국사가 말하였다.

“참으로 연극을 좋아하십니다, 그려.”

忠國師因肅宗 帝請看戲 師云有甚麼身心看戲 帝再請 師云幸自好戲

혜충 국사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최근에 어느 곳에서 떠나 왔는가?”

그 스님이 답하였다.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의 선지식은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가?”

“남방의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하루아침에 풍화風火가 흩어진 후<sup>112</sup>에는 뱀이 허물을 벗고 용이 뼈를 바꾼 것과 같으니, 본래 그러한 참된 성품은 또렷하여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112 사람이 죽고 난 뒤를 뜻한다.

이에 국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남방 선지식들의 설법은 반은 생멸하고, 반은 생멸하지 않는 것이 구나.”

그 스님이 물었다.

“남방의 선지식들은 그렇거니와 스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국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요, 몸 이외에 달리 아무것도 없다’고 설법한다오.”

“스님은 어찌하여 물거품이나 허깨비 같은 이 몸을 법체法體와 같다고 하십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그릇된 도에 들어갔는가?”

“저의 어떤 점이 그릇된 도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경에서 ‘만일 형상으로 나(如來)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如來)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그릇된 도를 행하는 사람일뿐이니 결코 여래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보지 못하였는가!”

忠國師問僧 近離甚處 云南方 師云南方知識 以何法示人 云南方知識 只道一朝風火散後 如蛇退皮 如龍換骨 本爾眞性 宛然不壞 師云苦哉苦哉 南方知識說法 半生半滅 半不生滅 僧云南方知識卽如是 未審和尚 此間說何法 師云我此間身心一如 身外無餘 云和尚何得將泡幻之身 同於法體 師云你爲什麼 入於邪道 云甚麼處是某甲入於邪道處 師云不見教中道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어떤 스님이 해충 국사에게 물었다.

“경에서 ‘유정有情이 부처가 되었다는 말만 보이고, 무정無情이 수기를 받았다는 말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겁賢劫의 천千 부처님 중에서 도대체 어느 분이 무정의 부처님이십니까?’”

국사가 답하였다.

“그것은 황태자가 왕위를 물려받기 전에는 오직 자기 몸 하나뿐이었지만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는 온 국토가 모두 국왕에게 예속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니, 어찌 국토가 별도로 왕위를 물려받는 일이 있겠는가? 지금 그저 유정이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을 때 시방의 모든 국토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일진대 어떻게 달리 무정 물이 수기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忠國師因僧問 教中但見有情作佛 不見無情受記 且賢劫千佛孰是無情佛耶 師云如皇

太子 未受位時 唯一身耳 受位之後 國土盡屬於王 寧有國土 別受位乎 今但有情受記  
作佛之時 十方國土 悉是遮那佛身 那得更有無情受記耶

영각靈覺 스님이 혜총 국사에게 물었다.

“발심하여 출가하는 일은 본래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그리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사는 말하였다.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야만 부처가 될 수 있소.”

“쓸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누가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니, 부처님도 마음이 없소.”

“부처님에게는 위대한 불가사의가 있어서 중생을 제도하실 수 있었는데, 만약 마음이 없다면 그 누가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마음 없는 것이 바로 진실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오. 만일 제도해야 할 중생을  
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있는 것이며 틀림없이 생멸하는 것이오.”

忠國師因靈覺僧問 發心出家 本爲求佛 未審如何用心卽得 師云無心可用 卽得成佛 曰  
無心可用 阿誰成佛 師云無心自成 佛亦無心 曰佛有大不可思議 爲能度衆生 若也無心  
阿誰度衆生 師曰無心是真度衆生 若見有生可度者 卽是有心 宛然生滅

어떤 스님이 혜총 국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응할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성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부처님과 중생  
을 동시에 놓아 버리면 그 자리가 해탈이다.”

忠國師因僧問 作麼生相應去 師云善惡不思 自見佛性 又佛與衆生 一時放下 當處解脫

## 38. 하택 신회荷澤神會

하택 신회荷澤神會 선사는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한 가지 물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인 것이다. 이것은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수행도 없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참다운 삼매인 것이다. 법에는 오고 가는 것이 없고 과거와 미래는 끊어졌으니 생각이 없는 것이 최상승이 되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러 학인 대중들에게 이르니, 밖에서 이리저리 내달리며 그것을 구하지 말라. 만약 그것이 최상승의 선법禪法이라면 짓는 것이 없어야 하리라.”

荷澤神會禪師示衆云 不思一物 卽是自心 非智所知 更無別行 悟入此者 眞三摩提 法無去來而前後際斷 故知無念爲最上乘 告諸學衆 無外馳求 若最上乘禪 應當無作

하택 신회 선사는 또 말하였다.

“생각이 없는 것을 종지로 삼고, 짓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진여는 생각이 없는 것이요, 생각을 한다 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모습(實相)은 생겨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겠는가. 생각 없음으로 생각하면 바로 진여를 생각하는 것이며, 생겨나지 않음으로 생겨나면 곧 진실한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머무르면 항상 열반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수행하면 바로 피안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생각 생각마다 구하지 않으니, 구함은 본래 생각 없음이다.”

又云無念爲宗 無作爲本 夫眞如無念 非想念而能知 實相無生 豈色心而能見 無念念者 卽念眞如 無生生者 卽生實相 無住而住 常住涅槃 無行而行 卽超彼岸 念念無求 求本無念

광보光寶 스님이 하택 신회 선사에게 물었다.

“눈과 귀가 소리와 형상을 반연攀緣<sup>113</sup>할 때에는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것(抗行)입니까, 서로 어울리는 것(廻互)입니까?”<sup>114</sup>

선사가 말하였다.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거나, 서로 어울리는 것은 잠깐 미루어 두세. 그대는

---

113 반攀은 의지하다는 뜻, 연緣은 기댄다는 뜻 또는 대상을 가리킨다. 대상에 의해 마음 작용을 일으키는 일. 대상을 인식하는 일.

114 항행抗行은 서로 세력이 비슷하여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회호廻互는 서로 열기설기 어울리는 것, 조직체를 이루어서 상호유대가 된 것을 말한다(각성, 앞의 책, p.265 참고).

대체 어떤 법을 소리와 형상의 본체라 여기는가?”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리와 형상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리와 형상의 본체가 공하다고 깨닫고,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이나 범부와 성인들이 모두 똑같이 허깨비 같은 줄을 믿는다면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일과 서로 어울리는 그 이치가 분명해질 것이다.”

광보는 이 말을 듣고 종지를 깨달았다.

師因光寶問 眼耳緣聲色時 爲復抗行爲有廻互 師曰抗互且置 汝指何法爲聲色之體 寶云如和尚所說 卽無有聲色可得 師云若了聲色體空 亦信眼耳諸根 及與凡聖 平等如幻抗行回互 其理昭然 光寶於是領旨

## 39. 장폐障蔽 마왕

장폐障蔽 마왕이 권속들을 거느리고 천년 동안 금강제金剛齊보살을 따라다니며 보살이 기거하는 곳을 찾아다녔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폐 마왕이 우연히 금강제보살을 만나게 되자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천 년 동안 그대의 거처를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였소.”

“나는 머뚫이 있는 데 의지해서 머무르지도 않았고, 머뚫이 없는 데 의지해서 머물지도 않으면서 이와 같이 머물러 왔소이다.”

障蔽魔王 領諸眷屬 一千年隨金剛齊菩薩 覓起處不得 忽因一日得見 乃問汝當依何住  
我一千年 覓汝起處不得 菩薩云 我不依有住而住 不依無住而住 如是而住

## 40. 마조 도일馬祖道一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그러자 마조가 답하였다.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도입니까?”

“마음 없음이 바로 도이다.”

“부처님과 도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도는 손을 편 것과 같고 부처님은 주먹을 쥔 것과 같다.”

馬祖因僧問 如何是佛 答曰卽心是佛 又問如何是道 答曰無心是道 又問佛與道 相去多少 答曰道如展手 佛似握拳

마조가 말하였다.

“도는 닦는 데에 있지 않다. 만약 ‘닦아서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닦아서 이루었을 때 도리어 무너지고 말 것이니 이는 성문과 같을 것이요, ‘닦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범부와 같다.”

어떤 사람들이 물었다.

“어떤 견해를 가져야 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마조가 말하였다.

“자기 성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으니 선악에 막히지 않는다면 도를 닦는다고 말할 것이다.”

馬祖曰道不屬修 若言修成 修成還壞 卽同聲聞 若言不修 卽同凡夫 問作何見解 卽得達道 師曰自性本來具足 但於善惡上不滯 喚作修道

마조가 말하였다.

“사람들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드는데 이것은 곧 짓는 일에 속한다. 다시 밖을 향해 정신없이 구한다면 더욱 떨어져 갈 뿐이다. 그저 삼계의 마음과 헤아림을 다해야 할 뿐이다. 한 순간의 혓된 생각(一念妄想)이 곧 삼계 생사의 근본이니, 그저 한 순간의 혓된 생각이 없다면 생사의 근본도 없을 것이다.”

祖曰人取善捨惡 觀空入定 卽屬造作 更若向外馳求 轉疎轉遠 但盡三界心量一念妄想  
卽是三界生死根本 但無一念妄想 卽無生死根本

마조는 말하였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니 그저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해라. 무엇을 더러움에 물든다고 하는가? 생사의 마음이 있으면 하면 조작하고 나아가니 이 모든 것을 더러움에 물든다고 한다. 도를 알고 싶다면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이다. 무엇을 평상의 마음이라 하는가? 만들거나 짓는 일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으며, 취하거나 범림도 없고 단멸하거나 항상함도 없으며, 범부나 성인도 없는 경지다. 그러므로 경에서는 ‘범부의 행도 성현의 행도 아닌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祖云道不用修 但莫染汚 何爲染汚 但有生死心 造作趣向 皆是染汚 若欲直會其道 平常心是道 何謂平常心 無造作無是非無取捨無斷常無凡聖 故經云 非凡夫行 非聖賢行 是菩薩行

마조는 말하였다.

“유위를 없애지 말고 무위에 머물지도 말라. 유위가 바로 무위의 작용이며 무위가 바로 유위의 의지처이니, 의지처에 머무르지도 말라. 그러므로 경에서는 ‘허공은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마음에는 생멸의 뜻이 있고, 마음에는 진여의 뜻이 있다. 마음의 진여란, 깨끗한 거울이 모습을 비추어 내는 것과 같으니 거울은 마음을 비유하고, 모습은 법을 비유한다. 만약 마음이 법을 취하면 바깥 인연에 얹매이게 되며 이것이 바로 생멸의 뜻이고, 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여의 뜻이다.”

祖曰不盡有爲 不住無爲 有爲是無爲之用 無爲是有爲之依 不住於依 故經云 虛空無所依 心生滅義 心真如義 心真如者 喻如明鏡照像 鏡喻於心 像喻於法 若心取法 卽涉外緣 卽是生滅義 不取於法 卽是真如義

## 41. 백장 회해百丈懷海

백장 회해百丈懷海<sup>115</sup> 선사가 법당에 올라 설법하였다.

---

115 749~841. 중국 당대唐代 스님. 백장은 주석하던 산 이름. 20세에 서산 혜조西山慧照에게 출가, 마조도일馬祖道一에게 참구하여 인가를 얻었다. 백장에게 귀의한 도속道俗들이 강서성 홍주 대옹산에 대지성수선사大智聖壽禪寺를 세우니, 백장이 개조開祖가 되어 이곳에서 선풍을 크게 고취하였다. 제자로는 위산 영우鴻山靈祐, 황벽 희운黃蘖希運 등이 있다. 당唐 원화元和 9년 정월 17일에 입적하였다.

“신령스러운 광채가 스스로 빛나서 육근六根과 육진六塵을 멀리 벗어나고, 본체가 참 모습을 드러내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 마음의 성품은 물들지 않는 것이므로 본래부터 저절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허망한 연을 떠나기만 한다면 그대로 여여하신 부처님이니라.”

百丈海禪師上堂云 瞳光獨耀 迦脫根塵 體露眞常 不拘文字 心性無染 本自圓成 但離妄緣 卽如如佛

어떤 스님이 백장 회해 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대승의 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단번에 깨치는 법요(頓悟法要)입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그대는 먼저 못 인연을 쉬고 만사를 쉬어라. 선과 불선,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 법을 모두 버리고 기억하지도 말며 얹매이거나 생각지도 말라. 몸과 마음을 놓아버려서 온전히 자유자재로워지면 마음은 목석과도 같아지고 입으로는 말할 것도 없으며, 마음이 수행할 것도 없게 되리라. 마음의 바탕이 허공과 같아지면 자비의 태양이 절로 나타나리니 마치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드러나는 것과 같으리라.”

百丈因僧問 如何是大乘入道 頓悟法要 師云你先歇諸緣 休息萬事 善與不善 世出世間一切諸法 並皆放却 莫記莫憶 莫緣莫念 放捨身心 全令自在 心如木石 口無所辨 心無所行 心地如空 惠日自現 如雲開日出

백장 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때가 낀 옷을 빨듯이 공부를 해야 한다. 옷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때는 밖에서부터 온 것이다. 보고 들은 일체의 유무와 소리나 형상에 관한 말씀은 마치 기름 때와도 같으니 절대로 마음이 머물게 하지 말라.”

百丈示衆云 學似浣垢衣 衣是本有 垢是外來 聞說一切有無聲色 如似垢膩 都莫將心湊泊

백장 선사가 말하였다.

“사람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성인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고, 사람이 지옥에 이르는 것은 범부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다. 지금 범부와 성인의 두 경지에 애착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유정有情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며, 범부와 성인의 두 경지와 일체 유무의 모든 법에 대해 취하거나 버리는 마음이 전혀 없고 또한 취하거나 버림이 없는 마음까지도 없으면 이것을 ‘무정無情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 마음(情)에 얹매임이 없기 때문에 무정이라 하는 것이니, 나무나 돌, 넓디넓은 허공, 노란 국화나 푸른 대나무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무정이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중에 수기를 받고 성불했다는 자를 경전에서 볼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인가? 다만 그 비추어 깨달음(鑑覺)이 유정의 변화에 전도되지 않는 것이 푸른 대나무와 같다고 비유한 것이고, 항상 근기에 응하는 것이 노란 국화와 같다고 비유한 것이다.”

百丈云 從人至佛 是聖情執 從人至地獄 是凡情執 只如今但於凡聖二境 有染愛心 是名有情無佛性 只如今但於凡聖二境 及一切有無諸法 都無取捨心 亦無無取捨心知解 是名無情有佛性 只是無其情繫 故名無情 不同木石大虛黃花翠竹之無情 將爲有佛性 若言有者 經中不見受記而得成佛 只如今鑑覺 但不被有情改變 喻如翠竹 無不知時 無不應機 喻如黃花

또 말하였다.

“부처님의 단계를 밟으면 무정에게도 불성이 있는 것이 되고, 부처님의 단계를 밟지 않으면 유정에게도 불성이 없는 것이라.”

又云若踏佛階梯 無情有佛性 未踏佛階梯 有情無佛性

백장 선사가 말한 세 가지 나쁜 욕심은 첫째는 사부대중들이 나를 떠받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문도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셋째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성인이나 아라한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百丈三種惡欲 一欲得四衆圍繞 二欲得一切人爲我門徒 三欲得一切人知我是聖人及阿羅漢

## 42. 황벽 희운黃壁希運

황벽 희운黃壁希運<sup>116</sup> 선사가 일찍이 대중들을 해산시키고 홍주洪州의 개원사開元寺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상국相國 배휴裴休<sup>117</sup>가 절에 왔다가 벽에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보고 원주院主에게 물었다.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주가 대답하였다.

“고승입니다.”

“모습은 보이는데 고승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원주가 답을 하지 못하자 배휴가 다시 물었다.

“이곳에 참선을 하시는 스님이 계십니까?”

원주가 대답하였다.

“희운希運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참선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배휴가 희운 선사를 불러서 앞의 일들을 말하자 선사는 말하였다.

“마음대로 물어 보시오.”

배휴가 물었다.

“모습은 보이는데 고승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자 선사가 배휴를 부르니 배휴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선사가 말하였다.

“고승이 여기 있소.”

배휴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

116 ?~850.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南嶽 문하. 황벽은 주석하던 산 이름. 복주의 황벽산에서 출가한 후, 강서성 백장산百丈山 백장 회해의 제자가 되어 그의 현지玄指를 이어받았다. 대안사大安寺에 머물며 많은 제자를 가르치다가 배휴裴休의 청에 응하여 강서성 종릉鐘陵에 가서 자신의 출가지인 복주 황벽산의 이름을 따서 황벽이라 이름 짓고 개조가 되었다. 제자로는 중국 임제종의 시조인 임제 의현臨濟義玄이 있다. 배휴가 집록集錄한 법어집으로 『전심법요傳心法要』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선가의 심법心法에 대한 대의大意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117 797~870. 중국 당대唐代 거사. 하동河東 대사라고도 부른다. 규봉 종밀圭峰宗密과 방외方外의 벗이 되었고, 또 황벽 희운을 임지任地인 용홍사와 개원사에 초빙하여 조석으로 문안하며 선법을 참구하고 널리 공부하였다. 「권발보리심勸發菩提心」을 지었고, 황벽과의 문답을 실은 『전심법요』가 전해지고 있다. 또 규봉 종밀의 여러 저서에 서서를 지었다. 함통咸通 11년에 입적하였다.

黃蘖運禪師 曾散衆 在洪州開元寺 裴休相國 一日入寺 見壁間畫相 間院主云 壁間是什麼 主云高僧 休云形儀可見 高僧向甚麼處去 主無語 休云這裏莫有禪和麼 主云有希運上座頗似禪和 休遂召師 舉前話似之師曰但請問來 休云形儀可見 高僧向甚麼處去 師召相公 公應喏 師曰高僧在者裏 公於言下領旨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이 본원청정한 마음의 본체는 항상 스스로 둉글고 밝으며 두루 비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見聞覺知)만을 인정하여 이것을 마음으로 삼으니,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뒤덮여서 맑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심이기만 하면 본체는 저절로 드러나리니 큰 태양이 허공에 떠올라 시방을 두루 비추되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과도 같으리라.”

師又曰 此本源清淨心體 常自圓明遍照 世人不悟 只認見聞覺知爲心 爲見聞覺知所覆 所以不覩精明本體 但直下無心 本體自現 如大日輪 昇於虛空 徧照十方 更無障礙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법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인은 마음을 취하나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는 것이 바로 참다운 법이다. 그런데 경계를 잊기는 쉬우나, 마음을 잊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이 마음을 잊지 못하고서 텅 비어 잡을 것 없는 곳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공은 본래 공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참다운 법계法界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師又云 凡夫取境 道人取心 心境雙忘 乃是眞法 忘境猶易 忘心至難 人不敢忘心 恐落 空無撈摸處 殊不知空本無空 唯一眞法界耳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심법心法을 전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 외에 달리 증득하거나 가질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다고 여겨 결국 마음으로 법을 찾았던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 곧 법이며 법이 곧 마음임을 몰랐기 때문이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을 수는 없으니 천만 겁 동안 수행하여도 끝내 얻을 날이 없을 것이요, 당장에 무심함이 곧 본래 법인 것만 못하리라.”

師又云 世人聞道諸佛皆傳心法 將謂心上別有一法 可證可取 遂將心覓法 不知心即是

法 法卽是心 不可將心更求於心 歷千萬劫修 終無得日 不如當下無心便是本法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성불하려고 한다면 모든 부처님 법을 공부할 필요 없이 오직 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될 것이다.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하지 않을 것이니, 생기지도 않고 멀하지도 않으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그저 한 가지 생각만 있어도 두려워해야 하니, 한 가지 생각만 있어도 도와는 멀어진다. 생각마다 상相이 없고 생각마다 함(爲)이 없으면 이것이 곧 부처인 것이다.”

師又云 學道人 若欲得成佛 一切佛法 總不用學 唯學無求無着 無求卽心不生 無着卽心不滅 不生不滅卽是佛 學道人 只怕一念有 卽與道遠矣 念念無相 念念無爲 卽是佛

황벽 희운 선사는 말하였다.

“마음 없음이 곧 도를 행함이니 다시 어떤 얻음과 얻지 못함을 말할 것인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곧 경계이고, 또한 한 가지 생각이 없는 것도 경계이다. 마음을 잊으면 저절로 멀하게 되므로, 다시 쫓아다니며 찾을 만한 것은 없다.”

師云 無心卽便是行 此道 更說什麼得與不得 且如譬如一念 便是境 若無一念 便是境 忘心自滅 無復可追尋

황벽 희운 선사가 말하였다.

“법은 본래부터 있지 않으니 없다는 견해를 내지 말고, 법은 본래부터 없는 것도 아니니 있다는 견해를 내지 말라.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가 모두 정견情見<sup>118</sup>이다.”

師云法本不有 莫作無見 法本不無 莫作有見 有之與無 皆是情見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

118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분별 판단. 법부의 견해. 정견은 시작을 알 수 없는 과거부터 있어온 무명에 의해서 일어난다.

“허망은 본래 실체가 없고 바로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대가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은 본래 허망하지 않은데 어찌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허망함을 인식하겠는가?”

又云妄本無體 卽是汝心所起 汝若識心是佛 心本無妄 那得起心 更認於妄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의문은 어디에서 오며,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것과 일체의 소리와 형상이 다 부처님의 일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찾는가? 머리 위에 머리를 둘 필요가 없다. 다른 견해를 내지 않는다면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바로 자기일 터인데 어느 곳에 이런저런 것이 있겠는가?”

又云問從何來 覺從何起 語默動靜 一切聲色 盡是佛事 何處覓佛 不可更頭上安頭也  
但莫生異見 三千世界 都來是个自己 何處有許多般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선과 악을 모두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문득 삼계를 벗어난 것이다. 여래가 세상에 나신 것은 삼유三有<sup>119</sup>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니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으면 삼계도 또한 있지 않을 것이다.”

又云善惡都莫思量 當處便出三界 如來出世 爲破三有 若無一切心 三界亦非有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범부들은 모두 경계를 따라서 마음을 내어 마음이 결국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경계를 없애려면 그러한 마음을 잊어야 한다. 마음을 잊으면 경계가 공하고, 경계가 공하면 마음이 멀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잊지도 않고 경계만을 없애려 한다면, 경계는 없애지도 못한 채 오히려 어지러움만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오

---

119 유有는 존재(bhava)라는 뜻으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생명체로서의 삶(生存)을 말한다. 삼계三界에서 각기 존재하고 있는 모습, 세 종류의 존재, 세 가지 삶의 형태를 가리킨다. 욕유欲有(탐욕의 존재) · 색유色有(담욕은 벗어났으나 형상에 얹매인 존재) · 무색유無色有(형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의 세 가지이다.

직 마음뿐이요, 그 마음도 얻을 수 없거늘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又云凡夫皆逐境生心 心逐忻厭 若欲無境 當忘其心 心忘卽境空 境空卽心滅 若不忘心  
但除其境 境不可除 只益紛擾故 萬法唯心 心亦不可得 復何求哉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보통 사람들이 목숨을 마칠 때에는 오온이 모두 공하고 사대는 내가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 참 마음에는 모습이 없고 가고 옴도 없어서, 생겨날 때 성품이 온 적도 없고 죽을 때 성품 또한 간 적도 없다. 침착하고 원만하고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이와 같을 수만 있다면 단번에 깨달아 삼계에 얹매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세간을 벗어난 사람이다. 텔끝만큼이라도 취향함이 없으니 모든 부처님이 와서 마중하거나 갖가지 좋은 일들을 보더라도 따라가려는 마음을 내지 말라. 만약 나쁜 일들이 갖가지로 나타나게 되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품지 말라.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어버리면 법계와 같아져 자재를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又云凡人臨欲終時 但觀五蘊皆空 四大無我 真心無相 不去不來 生時性不會來 死時性  
亦不會去 漵然圓寂 心境一如 但能如是 直下頓了 不爲三界所拘繫 便是出世人也 切  
不得有分毫趣向 若見善相諸佛來迎及種種現前 亦無心隨去 若見惡相種種現前 亦無  
心怖畏 但自忘心 同於法界 便得自在 此是要節也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교법教法(경전, 교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심법心法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오랜 겁을 지나도록 수행해도 결코 본래 부처가 아닌 것이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않고 내지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경시하고 교를 중시하여 결국 훙덩이만 쫓아다닌 셈이 될 것<sup>120</sup>이니 본래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다만 본래 마음에 계합하면 애써 법을 구할 것이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기 때문이다.”

---

120 한로축괴韓盧逐塊. 한로韓盧는 중국 고대 한국韓國이라는 사람이 기르던 개. 한로의 개가 훙덩이를 쫓아다닌다는 말로, 지역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정작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수행자를 비유하는 말이다.

又云學道人 多於教法上悟 不於心法上悟 雖歷劫修行 終不是本佛 若不於心悟 乃至於教法上悟 卽輕心重教 遂成逐塊 忘於本心故 但契本心 不用求法 心卽法也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사람들은 대체로 경계가 마음을 방해하고 일(事)이 이치(理)를 방해한다고 여겨서, 항상 경계에서 도망쳐서 마음을 안정시키려 하고, 일을 물리쳐서 이치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이 경계에 걸리고, 이치가 일에 걸리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공하면 경계도 저절로 공해지고, 이치가 고요해지면 일도 저절로 고요해지니 절대로 거꾸로 쓰지 말라.”

又云凡人 多爲境導心事導理 常欲逃境 以安心併事 以存理不知 乃是心導境理導事 但令心空境自空 理寂事自寂 勿倒用也

황벽 희운 선사는 말하였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곧바로 무심이 되지 못한다면 티끌과 같은 많은 겁을 지나 더라도 성인의 도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곧바로 무심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도이다.”

又云學道人 若不直下無心 縱經塵劫不成聖道 若能直下無心 便是究竟

## 43. 남전 보원南泉普願

남전南泉<sup>121</sup> 선사가 원주를 부르자 그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선사가 말하였다.

---

121 남전 보원南泉普願. 748~834.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전은 주석하던 산 이름. 757년 밀현 대외산의 대혜 종고大慧宗杲에게 출가하여 삼장을 수학하였다. 법상法相과 삼론三論을 수학하였으나 현기玄機는 경론經論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마조 도일에게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정원貞元 11년(795) 지양 남전산에 머물며 선원을 열고 사립을 쓰고 소를 치며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며 선풍을 펼쳤고, 스스로를 왕노사王老師라고 칭하면서 30년간 한 번도 하산하지 않았다. 태화太和 8년 12월 25일에 입적하였다.

“부처님께서 90일 동안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셨을 때에 우전왕優闡王이 부처님을 그리워하여 목련 존자를 청하니, 이에 목련 존자가 신통력으로 세 차례나 여러 장인들을 거느리고 그 곳으로 가서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하게 하였다. 그런데 서른한 가지 부처님의 모습은 조각하였지만 범음상梵音相<sup>122</sup>만은 조각할 수 없었다.”

이에 원주가 물었다.

“범음상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사람을 속이는구나.”

南泉喚院主 主應喏 師云佛九十日在忉利天 爲母說法 時優闡王思佛 請目連以神通 三度攝諸匠人 往彼彫佛形相 只彫得三十一相 唯有梵音相彫不得 院主乃問如何是梵音相 師云賺殺人

남전 선사가 장원莊園에 가자 장원의 주인이 미리 준비를 하였다가 선사를 맞이하였다. 선사가 물었다.

“내가 평소 드나들 때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리도 일찍 모든 준비를 다 하였소?”

장원의 주인이 답하였다.

“지난밤에 토지신이 와서 알려 주었습니다.”

“나의 수행이 힘이 없어서 귀신에게도 들키고 말았구나.”

시자가 물었다.

“스승님은 위대한 선지식이신데, 어떻게 귀신에게 들키셨습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토지신 앞에도 밥 한 그릇을 더 놓아라.”

南泉因至莊偶莊主 預備迎奉 師云老僧居常出入 不與人知 何夙排辦 至於如此 主云昨夜土地神來報 師云王老師修行無力 被鬼神覲見 侍者便問 既是大善知識 爲什麼却被鬼神覲見 師曰土地前更添一分飯着

---

122 티 없이 깨끗하고 완전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처님의 음성.

어떤 스님이 남전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

南泉因僧問 和尙以何法示人 師曰不是心不是佛不是物

남전 선사가 막 입적하려 할 때 제일 상좌(第一座)<sup>123</sup>가 여쭈었다.  
“스승님께서는 백년 후에 어느 곳에 가 계시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저 산자락에 있는 한 마리 물소가 되어 있으리라.”  
“저도 스승님을 따라서 가고 싶습니다.”  
“풀 한 줄기를 입에 머금으면 그대도 나를 따라올 수 있으리라.”

南泉將順世 第一座問 和尙百年後 向甚麼處去 師曰山下作一頭水牯牛去 僧云某甲隨和尙去得麼 師曰汝若隨我 須含一莖草 始得

## 44. 반산 보적盤山普積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러 푸줏간에 가서 주인에게 말하였다.  
“깨끗한 것으로 한 점만 잘라 주오.”  
그러자 푸줏간 주인이 칼을 내려놓고 손을 모으고서 물었다.  
“이보시오. 대체 어느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오?”  
반산 보적盤山普積<sup>124</sup> 선사는 이 광경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

盤山普積禪師 因見人買肉 語屠者曰 精底割一片來 屠者放下屠刀 叉手云 長史那个不精底 師於此有省

---

123 수좌首座. 선원의 수석 선승. 제1위位.

124 생몰연대 미상.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南嶽 문하. 반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 마조도일의 법을 이어 받았다. 유주幽州 반산盤山에서 종풍을 선양하였다.

반산 보적 선사가 어느 날 산문을 나섰다가 상여꾼이 요령을 흔들면서 “해는 틀림없이 서쪽으로 지는데 의지할 데 없는 이 혼령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만가挽歌를 부르자 장막 아래에서 상주가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선사의 몸과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돌아오니 마조 선사가 보적 선사를 인가하였다.

師一日出門 見挽歌 卽振鈴云 紅輪決定沉西去 未委魂靈往那方 幕下孝子哭云 哀哀師  
身心踊悅歸來 馬大師印可

반산 보적 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마음의 달이 홀로 둥그니, 달빛은 만 가지 모습을 머금고 있다. 달빛은 경계를  
비추지 않고 경계 또한 존재하지 않네. 달빛과 경계가 둘 다 없거늘 이 무슨 물건인가?”  
그러자 동산 스님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달빛과 경계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대체 어떤 물건인가?”

師示衆云 心月孤圓 光吞萬相 光非照境 境亦非存 光境俱忘 復是何物 洞山云 光境未  
亡 復是何物

반산 보적 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땅이 산을 받치고 있지만 그 산의 높이와 험준함을 모르고, 돌이 옥을 머금고  
있으나 그 옥에 티가 없음을 모르듯이, 이와 같을 수만 있다면 진실한 출가라 할 수  
있다.”

師示衆云 似地擎山 不知山之高峻 如石含玉 不知玉之無瑕 若能如是 是真出家

반산 보적 선사가 법문하였다.

“삼계에는 법이 없는데 어디에서 마음을 구할 것이며, 사대는 본래부터 공한 것인  
데 부처님은 어디에 머무르시겠는가?”

법진일法真一 선사가 계송으로 말하였다.

삼계는 본래 마음을 인하여 나타난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삼계는 절로 평평해지리라.

師垂語云 三界無法 何處求心 四大本空 佛依何住 法真一頌云  
三界本因心所現 無心三界自平沉

## 45. 귀종 지상歸宗智常

어떤 스님이 귀종歸宗<sup>125</sup> 선사에게 물었다.

“초심자는 어떻게 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사는 부젓가락으로 솔뚜껑을 세 번 두드리고 물었다.

“들리느냐?”

“들립니다.”

선사가 말하였다.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느냐?”

귀종 선사는 다시 부젓가락으로 솔뚜껑을 세 번 두드리고 물었다.

“들리느냐?”

“들리지 않습니다.”

선사가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들리는가?”

그 스님이 아무 말 못하자 귀종 선사가 말하였다.

“관음의 현묘하신 지혜의 힘이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여 주시리라.”

歸宗因僧問 初心如何得个入處 師以火筋敲鼎蓋三下 問還聞麼 僧云聞 師云我何不聞  
又敲鼎蓋三下 問還聞麼 僧云不聞 師云我何以聞 僧無語 師云觀音妙智力 能救世間苦

---

125 귀종 지상歸宗智常, 생몰연대 미상.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南嶽 문하. 귀종은 주석하던 절 이름. 마조 도일의 법을 이어받았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그의 설법과 여러 선승들과의 상량어구商量語句 등이 많이 실려 있다.

## 46. 대매 법상大梅法常

대매大梅<sup>126</sup> 선사가 세상을 떠날 즈음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라.”

그리고 조용히 다람쥐 소리를 듣고 나서 말하였다.

“이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잘 보호하고 지켜라. 나는 이제 떠나겠다.”

大梅臨遷化示徒云 來莫可抑 往莫可追 從容聞鼴鼠聲 乃云卽此物非他物 汝善護持 吾當逝矣

## 47. 대주 혜해大珠惠海

대주 혜해大珠惠海<sup>127</sup> 선사가 처음으로 마조에게 참배하러 가자 마조가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선사가 대답하였다.

“월주越州의 대운사大雲寺에서 왔습니다.”

“무엇 하러 이곳까지 왔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보물 창고는 돌보지 않고 집안을 내팽개쳐 놓고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내가 있는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려 하는가?”

대주 선사가 마조에게 절을 올리고 여쭈었다.

“어떤 것이 제 집에 있는 보물 창고입니까?”

---

126 대매 법상大梅法常. 752~839.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南嶽 문하. 대매는 주석하던 산 이름. 어려서부터 형주荊州 옥천사玉泉寺에서 수학하였다. 경론에 통한 후 선에 뜻을 두고 마조 도일의 회하會下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개성開成 원년(836)에 선원을 짓고 호성사護聖寺라 칭하였는데, 7, 8백 명의 수행자들이 모여서 수학하였다. 동동 4년 입적하였다.

127 생몰연대 미상.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南嶽 문하. 월주越州 대운사大雲寺의 도지道智 화상에게 출가하여 득도하였고, 마조 도일의 법을 이어받았다. 저술로는 『돈오입도요문론頓悟入道要門論』이 있다.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대가 바로 보물 창고이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어찌하여 밖으로만 그것을 구하려 하는가?”

대주 선사는 마조의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달았는데 알음알이로 말미암지 않았으므로 뛸 듯이 기뻐하며 마조에게 절을 올렸다.

大珠惠海禪師 初參馬祖 祖問曰從何處來 曰越州大雲寺來 祖曰來此擬須何事 曰來求佛法 祖曰自家寶藏 不顧拋家散走 作什麼我這裏一物也無 求甚麼佛法 師遂禮拜問曰 阿那个是惠海自家寶藏 祖曰卽今問我者是 汝寶藏一切具足 更無欠少 使用自在 何假向外求覓 師於言下 自識本心 不由知覺 踊躍禮謝

대주 선사는 말하였다.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하면 이것을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다고 하고,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하지 못하면 이것을 부처님이 멸도하셨다고 한다.”

大珠云 身口意清淨 是名佛出世 身口意不清淨 是名佛滅度

## 48. 분주 무업汾州無業

분주汾州<sup>128</sup> 선사가 말하였다.

“털끝만큼이라도 범부와 성인의 정념情念이 남아 있다면 당나귀의 태나 말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 훗날 백운 수단白雲守端<sup>129</sup> 선사가 말하였다.

“설령 털끝만큼의 범부와 성인의 정념마저 깨끗이 없어지더라도 역시 당나귀의

---

128 분주 무업汾州無業. 760~821.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南嶽 문하. 분주는 주석하던 지역 이름. 9세에 개원사開元寺 지본志本에게 수학하고 12세에 삭발, 20세에 호복성 양주 유幽 율사에게 수계하였다. 『사분율』에 뛰어나고 『대반열반경』을 강의하였다. 후에 마조 도일에게 배우고 심인心印을 받았다. 장경長慶 원년 입적하였다.

129 1025~1072. 중국 송대宋代 스님. 임제종 양기파楊岐派. 백운은 주석하던 산 이름. 다름 인우禁陵仁郁에게 득도 후 여러 곳에서 침학하였으며, 양기 방회楊岐方會에게 침구하여 법을 이어받았다. 그 후 여러 선원에서 개당하고, 희녕熙寧 5년에 입적하였다.

태나 말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면할 수 없다.”

汾州云 若一毫頭凡聖情念未盡 未免入驢胎馬腹裏去 白雲端曰 設使一毫頭凡聖情念淨盡 亦未免入驢胎馬腹裏去

## 49. 귀종歸宗 선사

어떤 스님이 귀종歸宗 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주기란 어렵지 않지만 혹시 그대가 믿지 않을까 염려스럽소.”

“스님의 진실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바로 부처다.”

스님이 되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임保任<sup>130</sup>해야 하겠습니까?”

“눈에 티끌 하나만 끼어도 허공의 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그 스님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歸宗因僧問 如何是佛 師云我今不辭向汝道 恐汝不信 僧云和尚誠言 焉敢不信 師云卽汝是 僧云如何保任 師曰一翳在眼 空花亂墜 僧於此大悟

## 50. 서산 양西山亮 좌주座主

서산 양西山亮 좌주座主<sup>131</sup>가 24본本의 경론을 강설하다가 어느 날 마조를 뵈러 갔다.

그러자 마조가 물었다.

---

130 온전하게 간직하여 잊어버리지 않음. 자기 것으로 함. 보호임자保護任持의 준말.

131 선가에서 주로 경과 논을 강하는 스님.

“듣자 하니, 대덕께서는 경론을 아주 잘 강설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좌주가 대답하였다.

“변변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강설을 합니까?”

“마음으로 강설합니다.”

마조가 물었다.

“마음은 어렷광대와 같고, 뜻은 장단꾼과도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경론을 강설합니까?”

“마음으로 강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 허공으로 강설해야 하는 것입니까?”

“허공으로 경론을 강설하는 것이 나을 것이오.”

이에 좌주가 소매를 뿌리치고 나가자 마조가 좌주를 불렀다.

좌주가 고개를 돌리자 마조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좌주는 마조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서 곧바로 절을 올렸다. 마조가 말하였다.

“이 둔한 사람아, 무엇하러 절을 하느냐?”

좌주는 곧장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절에 돌아와서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평생 동안 해온 공부에 대해서 아무도 나를 능가할 이가 없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마조 스님의 질문 하나를 받고서는 내 평생의 공부가 얼음 녹듯 녹아버렸다.”

그 후에 선사는 강설을 그만두고 곧장 서산으로 들어가더니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西山亮座主 講得二十四本經論 一日去訪馬祖 祖問曰聞說大德甚講得經論是否 主云不敢 祖曰將甚麼講 主云將心講 祖曰心如工伎兒 意如和伎者 爭解講他經論 主云心既講不得 莫是虛空講得麼 祖曰却是虛空講得 主拂袖而出 祖召座主 主回首 祖曰是什麼主於是大悟 便伸禮謝 祖曰者鈍根阿師禮拜作甚麼 主直得遍體通身汗流 歸寺謂衆曰我一生功夫 將謂無人過得 今日被馬祖一問 平生功夫冰釋而已 後乃罷講 直入西山 杏無消息

## 51. 영목靈默 선사

영목靈默<sup>132</sup> 선사가 석두石頭<sup>133</sup>에게 가서 말하였다.

“한 마디 말이 서로 잘 계합되면 머무를 것이나, 계합되지 않으면 떠나겠습니다.”

석두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영목 선사가 소매를 뿐리치고 나가려 하였다.

석두가 “상좌여!” 하고 불렀다.

영목 선사가 고개를 돌리자 석두가 말하였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저 이런 사람일 뿐인데 머리를 돌리고 뇌를 굴려서 무엇 하느냐?”

영목 선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靈默禪師 到石頭云 一言相契卽住 一言不相契卽行 頭據坐 師拂袖出去 頭呼云上座  
師廻首 頭云從生至死 只是者漢 回頭轉腦 作甚麼 師於言下大悟

## 52. 석공 혜장石葦慧藏

옛날에 석공石葦<sup>134</sup> 화상이 사냥꾼이었을 때 사슴을 뒤쫓다가 마조의 암자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가 마조에게 물었다.

“사슴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마조가 물었다.

“그대는 무엇 하는 사람이오?”

“저는 사냥꾼입니다.”

---

132 오설 영목五洩靈默. 747~818. 청원 행사清源行思의 수제자이다.

133 석두 희천石頭希遷. 700~790. 청원青原 문하. 6조 혜능에게 득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혜능이 입적하자, 청원 행사清源行思에게 침학하였다. 형산衡山의 남사南寺 동쪽의 돌 위에 암자를 짓고 항상 좌선하였으므로 석두 화상이라고 한다. 정원貞元 6년 12월 6일 입적하였다.

134 석공 혜장石葦慧藏. 생몰연대 미상. 석공은 주석하던 산 이름. 본래 사냥꾼이었는데 우연히 마조 도일을 만나 설법을 듣고 출가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무주 석공산에 머물면서 그의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다.

“그대는 화살 한 대로 몇 마리씩 잡는가?”

“화살 하나로 한 마리씩 잡습니다.”

마조가 말하였다.

“그대는 활을 잘 쏘지 못하는구나.”

“화상께서도 활을 쏘실 줄 아십니까?”

“활을 쏠 줄 안다.”

“화상께서는 화살 한 대로 몇 마리씩 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화살 한 대로 한 무리씩 잡소.”

“피차가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 무리씩이나 잡습니까?”

마조가 말하였다.

“그대는 그런 줄 잘 알면서 어째서 스스로에게는 쏘지 않는가?”

“만약 제 스스로 쏘게 하시면 곧바로 손쓸 곳이 없습니다.”

“오랜 겁 동안 쌓였던 이 놈의 무명이 오늘에야 문득 쉬게 되었구나.”

석공이 곧장 활과 화살을 벗어 던지고 마조에게 출가하였다.

石葦和尚 昔爲獵人趁鹿 從馬祖菴前過 問祖曰還見鹿過不 祖曰汝是何人 曰射獵人 祖曰汝一箭射幾箇 曰一箭射一箇 祖曰汝不善射 云和尚解射不 祖曰解射 曰和尚一箭射幾箇 祖云我一箭射一羣 曰彼此生命 何得射一羣 祖曰汝知如此 何不自射 曰若教某甲自射 直是無下手處 祖曰這漢廣劫無明 今日頓息 石葦當時擲下弓箭 投祖出家

후에 석공이 암두巖頭<sup>135</sup>의 회하會下에 있을 때 어느 날 암두가 석공에게 물었다.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곳에서 소를 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소를 먹이는가?”

“풀에서 한번 자빠지면 재빨리 코를 끌어서 끌고 돌아옵니다.”

“소를 잘 먹이는구나.”

---

135 암두 전활巖頭全豁, 828~887. 중국 당대唐代 스님. 암두는 주석하던 절 이름. 청원 의공清原諱公을 만나서 사별하였고, 덕산 선감德山宣鑑의 법을 이어받았다. 그 후 동정호 주변의 와룡산에서 은거했지만 학인들이 그에게 침학하고자 운집하였다.

後在岳頭會下 一日頭問曰 汝在者裏作甚麼 答云我在者裏牧牛 頭曰汝作麼生牧 曰一  
廻落草去 驚鼻曳將回 頭曰善牧□<sup>136</sup>牧

## 53. 약산 유엄藥山惟儼

어느 날 약산藥山<sup>137</sup> 선사가 앓아 있는데 석두가 그를 보고 물었다.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약산이 답하였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롭게 앓아 있구나.”

“한가하게 앓아 있다고 한다면 하는 것이 됩니다.”

석두가 물었다.

“그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천 명의 성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석두는 계송으로 약산을 칭찬하였다.

예로부터 같이 살아도 이름을 몰랐거늘  
걸림 없이 간직하여 이렇게 수행하는구나.  
옛 성현들도 알지 못하신 것을  
하찮은 범부가 어찌 쉽게 밝히랴.

藥山一日坐次 石頭見之 問曰汝在者裏作甚麼 師曰一切不爲 頭曰伊麼則閑坐也 師曰  
若閑坐則爲也 頭曰汝道不爲 且不爲个甚麼 師曰千聖亦不識 頭以偈讚曰  
從來共住不知名 任運相將只麼行  
自古聖賢猶不識 造次凡流豈易明

136 『한국불교전서』에서는 “□疑‘善’也”라고 주가 달려 있다(6. p.617). 즉 ‘善牧善牧(참으로 소를 잘 치는 구나)’의 구절인 듯하다.

137 약산 유엄藥山惟儼, 745~828. 중국 당대唐代 스님. 약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 17세에 광동성 조양 서산西山의 혜조慧照에게 출가하여 29세 때 형악사 희조希凍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석두 희천 문하에서 대오大悟하고, 그의 법을 이어받은 뒤 13년간 석두를 시봉하였다. 태화太和 2년 12월 6일 입적하였다.

## 54. 위산 영우鴻山靈祐

위산鴻山<sup>138</sup> 선사가 백장의 문하에서 전좌典座<sup>139</sup>로 있을 때의 일이다. 백장이 대위산大鴻山의 주지를 선발하기 위하여 수좌를 청하여 대중에게 말하게 하였다.

“뛰어난 이가 있으면 주지를 줄 것이다.”

그런 뒤에 깨끗한 물병(淨瓶)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것을 깨끗한 병이라고 할 수 없다면 그대는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수좌가 말하였다.

“그렇다고 나무 뭉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백장은 수좌의 이 말을 수긍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백장이 다시 위산 선사에게 이렇게 묻자 위산 선사는 그 병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에 백장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수좌가 위산에게 지고 말았다.”

鴻山在百丈爲典坐 百丈將選大鴻主人 乃請首座對衆下語 出格者當與住持 卽指淨瓶云 不得喚作淨瓶 汝喚作什麼 首座曰不可喚作木樸也 丈不肯 乃問師 師踢倒淨瓶 丈笑曰第一座輸却山子了也

양산仰山<sup>140</sup>이 위산 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참 부처님이 머무는 곳입니까?”

위산 선사가 대답하였다.

“생각이 생각 없는 현묘함으로써 신령스런 빛의 무궁함을 돌이켜 생각하라. 생각이 다하여 근원으로 돌아가면 성품(性)과 모습(相)이 항상 머무르며 이치(理)와 일

---

138 위산 영우鴻山靈祐. 771~853. 중국 당대唐代 스님. 위양종의 종사. 남악南嶽 문하. 위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 제자 양산 혜적仰山慧寂과 함께 선풍을 크게 거양하여 그 법계를 위양종이라고 한다. 15세에 출가하여 절강성 항주 용홍사龍興寺에서 경과 읊을 배우고, 강서성 진주의 백장 회해 문하로 들어가 법을 이어받았다. 호남성 담주 대위산大鴻山에 머물며 종풍을 거양하였다. 대중大中 7년 정월 입적하였다.

139 후원에서 손님 접대하고 음식 공양하는 일을 총감독하는 직책.

140 양산 혜적仰山慧寂. 803~887. 중국 당대唐代 스님. 양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 17세에 출가하여 손가락 두 개를 잘라서 서원을 세우고 삽발하였다. 위산 영우의 법을 이어받았다.

(事)이 둘이 아니고 참 부처님이 여여하실 것이다.”

양산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鴻山因仰山問 如何是眞佛住處 師云以思無思之妙 返思靈焰之無窮 思盡還源 性相當  
住 理事不二 眞佛如如 仰山言下頓悟

위산 선사가 양산에게 물었다.

“현묘하고 맑고도 밝은 마음을 그대는 어떻게 아는가?”

양산이 대답하였다.

“산과 강과 대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대는 그 일만 얻었을 뿐이다.”

“조금 전에 화상께서 저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현묘하고 맑고도 밝은 마음을 물었다.”

“그것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하다. 그러하다.”

鴻山問仰山 妙淨明心汝作麼生會 仰山云 山河大地日月星辰 師云汝只得其事 仰云和  
尙適來問甚麼 師云妙淨明心 仰云喚作事得麼 師云如是如是

## 55. 조주 종심趙州從諗

조주趙州<sup>141</sup> 선사가 남전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남전은 대답하였다.

“평상심이 도이다.”

---

141 조주 종심趙州從諗, 778~897.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南嶽 문하. 조주는 주석하던 지역 이름. 어린 시절에 출가하여 남전 보원南泉普願에게 참학하여 개오한 다음, 계를 받고 남전에게 귀의하였다. 여러 곳을 유력하다가 80세가 되어서야 조주성 동쪽 관음원에 머물면서 40년 동안 고답착실枯淡着實한 선풍을 드날렸다. 그의 어록 『조주록趙州錄』은 선가에서 널리 참구되고 있다.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향하고자 하면 어긋날 것이다.”

“향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는 안다거나 모른다거나 하는 데에 속해 있지 않다. 안다면 허망한 깨달음이요, 모른다면 무기無記일 뿐이다. 만약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도에 진실로 통달한다면 허공과 같이 탁 트이고 훤히 통할 것이니 어찌 억지로 시비할 수 있겠는가?”

선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趙州問南泉 如何是道 泉云平常心是道 師云還假趣向不 泉云擬向卽乖師云不擬如何知是道 泉云道不屬知不知 知是妄覺 不知是無記 若是真達不擬之道 猶如大虛 廓然虛豁 豈可强是非耶 師於言下大悟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뜰 앞의 잣나무니라.”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지고 저에게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경계를 가지고 그대에게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뜰 앞의 잣나무니라.”

趙州因僧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庭前柏樹子 僧云和尚莫將境示人 師云我不將境示人 僧云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庭前柏樹子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청하였다.

“제가 총림叢林<sup>142</sup>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

---

142 여러 승려들이 화합하여 함께 배우며 안거하는 곳. 승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절을 숲에 비유한 것이다. 지금은 선원禪院·강원講院·율원律院이 한 곳에 설치되어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을 가리킨다.

기 바랍니다.”

조주 선사가 물었다.

“죽은 먹었느냐? 아직 먹지 못했느냐?”

“먹었습니다.”

조주 선사는 말하였다.

“그러면 밭우를 씻거라.”

그 스님은 크게 깨달았다.

趙州因僧問 學人乍入叢林 乞師指示 師曰喫粥了也未 僧云喫粥了 師云洗鉢盂去 其僧大悟

엄양嚴陽<sup>143</sup> 존자가 조주 선사께 여쭈었다.

“한 가지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 선사가 답하였다.

“놓아 버려라.”

“한 가지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아 버리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짊어지고 가거라.”

엄양 존자는 크게 깨달았다.

趙州因嚴陽尊者 問一物不將來時如何 師云放下着 尊者曰一物不將來放下个什麼 師云伊麼則擔取去 尊者大悟

어떤 노파가 조주 선사에게 재물을 시주하고 대장경 독송을 청하였다. 선사가 선상禪床에서 내려와 선상을 한 바퀴 돈 뒤에 말하였다.

“대장경을 다 읽었소.”

어떤 사람이 돌아가서 노파에게 선사의 말을 전하니 노파가 말하였다.

“지금 대장경을 독송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어찌하여 선사께서는 반만 읽어주셨을까?”

---

143 조주 스님의 제자이다.

趙州因有一婆子施財請轉大藏經 師下禪床 繞一帀云 轉藏已了 人回舉似婆子 婆云比來請轉大藏 如何和尚只轉半藏

어떤 속인俗人 행자가 스님들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나에게 10관의 돈이 있다. 만약 누구든지 한 마디 말씀으로 깨닫게만 해준다면 이 돈을 다 주겠다.”

조주 선사는 삿갓을 쓰고 떠나버렸다.

이것을 들어 “무제는 신선이 되고 싶어했지만 신선이 되지 못하였고 王喬는 단정히 앉은 채로 하늘로 올라갔도다”라고 말한다.

趙州聞俗行者勘僧云 我有十貫錢 若有人下得一轉語 卽捨此錢 師戴笠子便行 拄云武帝求仙不得仙 王喬端坐却升天

조주 선사가 수유茱萸 화상 계신 곳에 이르러 법당에서 주장자를 짚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갔다하였다. 그러자 수유 화상이 물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조주 선사가 대답하였다.

“물의 깊이를 가늠하고 있소.”

“이곳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무슨 깊이를 가늠한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조주 선사는 주장자를 짚고 나가버렸다.

師到茱萸和尚處 執杖子於法堂上 從東邊過西邊 茱萸便問作甚麼 州云探水 茱萸云我者裏一滴也無 探个甚麼 州靠却杖子便出

## 56. 혜충慧忠 국사

서천의 대이大耳 삼장이 서울에 와서 “나는 타심통他心通<sup>144</sup>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숙종 황제가 혜충 국사에게 대이 삼장을 시험해 볼 것을 청하였다. 국사가

---

144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신통력. 6신통 가운데 하나.

대이 삼장에게 물었다.

“그대는 타심통을 얻었소?”

대이 삼장은 답하였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렇습니다.”

“그대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 보시오.”

“화상께서는 한 나라의 스승이신데 어찌하여 서천으로 가셔서 뱃놀이를 구경하고 계십니까?”

국사는 한참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 보시오.”

“화상께서는 한 나라의 스승이신데 어찌하여 천진교天津橋로 나가시어 원승이 희롱하는 것을 구경하고 계십니까?”

국사가 세 번째로 질문을 하자 삼장은 거처를 알지 못하였다. 국사가 대이 삼장을 꾸짖었다.

“이 들여우의 혼령아! 타심통이 어디에 있는가?”

대이 삼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스스로 거처할 때(본래의 마음자리에 있을 때)는 마음의 자취가 드러나지 않아서 모든 하늘이 꽂 공양을 할 길이 없고, 마군과 외도가 몰래 엿보려 해도 볼 수가 없으며, 심지어 부처님의 눈으로 살펴보아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또한 세존의 삼매를 가섭이 알지 못하였고 가섭의 삼매를 세존께서 알지 못하셨으며 세존의 삼매를 세존께서도 알지 못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忠國師因西天大耳三藏到京云我得他心通 肅宗帝請國師試驗 師問汝得他心通耶 曰不敢 師云汝道老僧卽今在甚麼處 曰和尚是一國之師 何得去西天看競渡船 師良久又問汝道老僧卽今在甚麼處 曰和尚是一國之師 何得向天津橋上 看弄猢猻 師第三問 三藏罔知去處 師叱之云 這野狐精 他心通在什麼處 三藏無對

[如云自處之際 不露心跡 諸天捧花無路 魔外潛觀不見 乃至佛眼也覩不見 又世尊三昧 迦葉不知迦葉三昧 世尊不知 世尊三昧 世尊亦不知也]

어떤 스님이 혜충 국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옛 부처님의 마음입니까?”

혜충 국사가 답하였다.

“담벼락과 기왓장과 자갈이다.”

[“담벼락과 기왓장과 자갈에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忠國師因僧問 如何是古佛心 師曰牆壁瓦礫  
〔如云牆壁瓦礫 皆有佛性〕

## 57. 몽산 도명 蒙山道明

도명道明<sup>145</sup> 화상이 황매에서부터 노盧 행자<sup>146</sup>의 뒤를 쫓아서 대유령大庾嶺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행자는 바위 위에 가사와 발우를 던져 놓으면서 말하였다.

“이 가사는 믿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어찌 힘으로 빼앗을 수 있겠소? 공에게 맡길 테니 어디 가져가 보시오.”

도명 화상이 그것들을 들어 올리려 하였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자 말하였다.

“저는 법을 구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가사와 발우를 가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님은 부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에 행자가 그를 돌 위에 좌정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한 뒤에 말하였다.

“그대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런 때는 도대체 어떤 것이 도명 상좌의 본래면목인가?”

도명 화상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아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울면서 절을 올린 뒤에 떠나갔다.

道明和尚 自黃梅趁逐盧行者 至大庾嶺 及行者擲衣鉢於石上曰 此衣表信可力爭耶 任公將去 明舉之不動 乃曰我爲法來 非爲衣鉢 願行者開示 行者乃令坐石上冥心 因語之 曰 汝不思善不思惡 正當伊麼時 那个是明上座本來面目 明於言下大悟 通身汗流 泣禮而去

---

145 몽산 도명 蒙山道明. 생몰연대 미상. 중국 진대陳代 스님. 몽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 원래의 법호는 혜명慧明. 어려서 영창사에서 출가하고 황매산의 5조 홍인에게 침학하였다. 보리 달마의 가사가 6조 혜능에게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혜능을 쫓아갔다가 대유령에서 혜능의 가르침으로 개오하였다. 혜능의 ‘혜’자를 피하여 도명道明이라고 개명하였다. 『전등록』에서는 홍인의 제자라고 하지만 분명하지 않다.

146 6조 혜능을 말한다. 홍인 스님에게서 의발과 법을 받아 남쪽으로 가던 중에 장군 출신인 도명 화상이 쫓아왔다. 도명이 혜능에게 법을 전해 듣고 돌아가서 뒤쫓아 오던 무리들을 다른 길로 안내하여 혜능 스님은 화를 면했다고 한다.

## 58. 흥선 유관興善惟寬

백거이白居易<sup>147</sup>가 유관惟寬<sup>148</sup> 화상에게 물었다.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을 닦습니까?”

유관 화상이 대답하였다.

“마음은 본래부터 손상된 바가 없는데 닦을 필요가 어디 있겠소? 더럽다, 깨끗하다 따지지 말고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마시오.”

“더러움이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깨끗함을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동자에는 한 가지 물건도 머물 수 없으니 아무리 귀한 금가루라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생기게 되는 것과 같소.”

백거이가 다시 물었다.

“닦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이 또한 범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범부는 무명이고, 이승二乘은 집착이니, 이 두 가지 병을 떠나야만 참된 닦음이 된다오. 참된 닦음이란 부지런히 하지도 말고 잊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니, 부지런하면 집착에 가까워지고, 잊으면 무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오. 이것이 심요心要라오.”

惟寬和尚 因白居易問 既無分別 何以修心 師云心本無損傷 云何要修理 無論垢與淨  
一切勿起念 又問垢則不可念淨無念可乎 師曰如人眼睛上 一物不可住 金屑雖珍寶 在  
眼亦爲病 又問無修無念 又何異凡夫 師曰凡夫無明 二乘執着 離此二病 是爲真修 真  
修者 不得勤不得忘 勤則近執着 忘則落於無明 此爲心要

---

147 백낙천白居易. 772~846. 당唐 중기의 대표적 시인. 향산香山 거사라고도 불린다. 5, 6세에 이미 시를 지었으며 벼슬에 나아갔다가 회창會昌 2년(842)에 물러나 타계할 때까지 낙양 교외에서 은거하였다. 많은 선승과 교류하였으며 마조 도일의 제자인 불광 여만佛光如滿에게 참학하고 그 심요를 받았다. 흥선 관, 귀종 지상, 조과 도림에게 각각 배웠고 뒤에 용문 향산사에 들어갔다. 또 유관이나 동경 신조의 탑명 등 많은 비문을 짓기도 하였다.

148 흥선 유관興善惟寬. 755~817.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南嶽 문하. 흥선은 주석하던 절의 이름. 13세에 출가하여 승승僧崇에게 구족계를 받았고, 승여僧如로부터 율을 배우고 지관止觀을 닦았다. 마조 도일에게 참학하여 도를 이루었다. 원화元和 12년 12월 입적하였다.

## 59. 염관鹽官 화상의 회하승會下僧

염관鹽官<sup>149</sup> 화상의 회하會下에 있던 어떤 주사主事<sup>150</sup> 스님이 임종을 하려 할 때 저승사자가 그를 데려가려고 왔다.

그 스님이 말하였다.

“내가 주사 노릇하느라 수행할 짬이 없었으니 7일 만 기다려 줄 수 있겠는가?” 저승사자가 말하였다.

“기다리시오. 저승의 왕에게 여쭈어보겠소.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7일 후에 다시 올 것이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금방 다시 오겠소.”

이렇게 말한 뒤에 돌아갔다. 7일 후에 저승사자가 와서 그 스님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우두 선사가 4조 도신 스님을 참문한 뒤에 온갖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鹽官和尚會下 有一主事僧將死 鬼使來取 僧告云 某甲身爲主事 未暇修行 乞容七日得不 鬼使曰 待爲白王 王若許之 則七日後來 不許則須臾便來 言訖去至七日後 方來覓其僧 不得見

[如云牛頭見四祖後 百鳥含花覓不得一般]

## 60. 형인 혜사衡岳惠思

형악 혜사衡岳惠思<sup>151</sup> 선사는 항상 좌선을 익히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법화경』과

---

149 염관 齊安, ?~842.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南嶽 문하. 염관은 주석하던 지역 이름. 향리의 운종雲踪에게로 출가하여 남악 지역에게 구족계를 받고 마조 도일에게 참구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회창會昌 2년 12월 22일 입적하였다.

150 선원에서 사무를 감독하는 감사監事, 규율과 질서를 담당하는 유나維那, 식사·의복·이부자리 등을 담당하는 전좌典座·잡무를 담당하는 직세直歲를 말한다.

151 517~577. 중국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스님. 천태종의 창시자인 지의智顥의 스승. 혜사는 주석하던 산 이름. 554년 북제北齊 혜문慧文 선사에게서 법화삼昧法華三昧를 깨닫고 천보天寶 연간(550~559)에는 광주 대소산大蘇山에 머물렀다. 진陳 태건太建 2년 남악에 머물다가 태건 9년에 입적하였다. 남악

같은 경전을 읽다가 마침내 지혜의 마음이 일어났다. 이에 혜문惠聞 선사 있는 곳으로 가서 법을 전수 받고 밤낮으로 마음을 거두다가 하안거를 시작한 지 21일 만에 숙지통宿智通<sup>152</sup>을 얻었다. 그리하여 더욱더 정진하였는데 갑자기 탈이 나서 사지가 축 늘어져 걸어 다니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생각하였다.

‘병은 업業에서 나며 업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의 근원은 일어나는 일이 없거늘 바깥 경계가 어떻게 존재하리. 병과 업과 몸은 마치 구름이나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니 뒤바뀐 생각이 사라져 예전처럼 개운해졌다. 그러나 하안거를 다 지내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몹시 부끄러웠다. 그러나 선사가 몸을 벽에 기대려 할 때 등이 벽에 채 닿기도 전에 법화삼매法華三昧<sup>153</sup> 최상승선最上乘禪을 활연히 크게 깨달아서 한 가지 생각으로 밝게 사무쳤다.

衡岳惠思禪師 常習坐 日唯一食 誦法華等經 遂發道心 乃往惠聞禪師處受法 畫夜攝心  
坐夏經三七日 獲宿智通 倍加精進 尋有障起 四支緩弱 不能行步 自念曰病從業生 業  
由心起 心源無起 外境何狀 病業與身 都如雲影 如是觀已 頽倒想滅 輕安如古 夏滿猶  
無所得 深心慚愧 放身倚壁 背未至間 豫爾大悟法華三昧 最上乘禪 一念明達

## 61. 조과 도림鳥窠道林

시자 회통會通이 어느 날 떠나려고 하자 조과鳥窠<sup>154</sup> 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어디로 가려는가?”

시자가 대답하였다.

“저는 불법을 구하려고 출가하였는데 스승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의 은혜를 입지

---

혜사南嶽惠思라고도 불린다.

152 과거 전생의 일을 환히 아는 숙명통宿命通을 말한다.

153 『법화경』에 근거한 삼매. 『법화경』을 통해 진리의 경지에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 천태종에서 『법화경』, 『관보현경』에 의해 실상중도實相中道의 진리를 관하는 것을 말한다.

154 조과 도림鳥窠道林, 741~824. 중국 당대唐代 스님. 우두종. 진망산秦望山에 살면서 늘 소나무 가지에서 좌선을 하였으므로 ‘조과’라는 이름이 붙었다. 높은 나무에서 졸다가 떨어지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경長慶 4년 2월 10일 입적하였다.

못하였기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불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불법이라면 내게도 조금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스승님의 불법입니까?”

선사가 몸에서 실오라기 하나를 집어 들고서 입으로 불자 시자가 이로 인해 크게 깨달았다.

鳥窠和尚因侍者會通 一日辭去 師乃問汝今何往 曰某甲爲法出家 不蒙和尚垂慈示誨 今往諸方 學佛法去 師云若是佛法 吾此間亦有小許 云如何是和尚此間佛法 師於身上 拈起布毛吹之 侍者因此大悟

## 62. 대위 회수大鴻懷秀

대위大鴻<sup>155</sup> 선사는 말하였다.

“애석하도다. 이 스님은 저 구두口頭<sup>156</sup>의 소리와 형상만을 인식하였으니 그로써 평생토록 자기의 광명이 하늘과 땅을 덮어서 닿는 곳마다 나타나는 줄은 전혀 모르는구나.”

大鴻云 可惜 者僧認他口頭聲色 以當平生 不知自己光明 盖天蓋地 觸處現成

## 63. 나안懶安 화상

나안懶安<sup>157</sup> 화상이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그대들은 모두 나에게 와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부처님이 되려 하면서 그대

---

155 대위 회수大鴻懷秀. 생몰연대 미상. 중국 송대宋代 스님. 임제종. 대위는 주석하던 산 이름. 황룡 혜남 黃龍慧南(1002~1069)의 법사. 위산 영우鴻山靈祐와는 다른 인물이다.

156 진실한 경지를 온전하게 체험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다만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입으로만 불법을 말하는 것이다.

157 복주 대안福州大安. 793~883. 중국 당대唐代 스님. 복주는 주석하던 지역 이름. 백장 회해의 제자로, 훗날 위산 영우鴻山靈祐 선사를 계승하였다.

들 자신이 바로 부처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옆집의 문으로 바삐 달아나기만 하는구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찾아서 달려가는 것과도 같으니, 언제쯤에나 상응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 싶다면 그저 뒤바뀐 반연과 망상과 그릇된 생각과 때 문은 욕망과 더러움만 없애면 된다. 중생의 마음, 즉 그대들이 바로 초심初心 정각불正覺佛인데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따로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가?

그대들 각자가 갑을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물을 지니고 있다. 눈으로 광채를 놓아 산하대지를 밝게 비추고 귀로도 광채를 놓아 모든 좋고 나쁜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門)에서 밤낮 없이 항상 광명을 놓으니 이것을 방광삼매<sup>158</sup>라고 한다.

그런데 그대들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그림자만을 취하고 있구나. 사대四大의 몸뚱이 속에 있으면서 안팎을 부지하여 기울어지지 않게 하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외나무다리를 지나가면서 헛디디지 않으려 애쓰는 것과 같다. 자, 말해 보아라. 이것이 무슨 물건이기에 그와 같이 부지하여 그토록 기울어지거나 쓸리지 않게 하려 하느냐? 그대들이 만약 찾아내려 한다면 텔끝만큼이라도 볼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지공誌公<sup>159</sup>은 ‘경계에서 베풀게 되면 혼연히 크게 있으나, 안과 밖 그리고 중간에서 찾아도 결코 찾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다.”

懶安和尚示衆云 汝等諸人 總來者裏 就安求覓个什麼 若欲作佛 汝自是佛而却傍家門走忽忽 如渴鹿趁陽焰 何時得相應去 阿你欲作佛 但無如許顛倒攀緣 妄想惡覺 塉欲不淨 衆生之心 卽汝便是初心正覺佛 更向何處別討 汝等諸人 各自有無價大寶 從眼門放光 照山河大地 耳門放光 領采一切善惡音聲 六門晝夜常放光明 亦名放光三昧 汝自不識 取影在 四大身中內外扶持 不教傾側 如人負重擔 從獨木橋上過 亦不教失脚 且道是什麼物 慈麼扶持 便得如是不傾不側 汝若覓見 毫髮卽不見 故志公云 境上施爲渾大有 內外中間覓總無

158 백팔삼매의 하나로, 여러 가지 빛깔의 광명을 방출한다는 뜻에서 얻어진 이름이다. 중생들이 욕락欲樂 을 따라 혹은 더운 빛 혹은 찬 빛 혹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광명을 내는 선정을 의미한다.

159 지공 스님은 양 무제 때에 인물로, 도가 높아서 관세음보살의 후신으로 일컬어졌다.

## 64. 양산 연관梁山緣觀

대양연大陽延이 양산 연관梁山緣觀<sup>160</sup>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무상도량입니까?”

연관 선사가 관음상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는 오吳 쳐사<sup>161</sup>가 그린 것이다.”

대양연이 대답을 하려고 하자 선사가 급히 다그치면서 물었다.

“이것은 형상이 있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것이 형상이 없다는 것이냐?”

대양연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닫고 절을 올린 뒤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선사가 물었다.

“어찌하여 한 마디도 하지 않는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양하지 않겠지만 종이에 먹으로 기록될까 두렵습니다.”

이에 선사가 깔깔 웃으면서 말하였다.

“그 말이 돌 위에 올라갔도다.”

후세에 과연 이 말이 비석에 새겨지게 되었다.

梁山緣觀禪師 因大陽延問 如何是無相道場 師指觀音像云 此是吳處士 畫 延擬進語  
師急索云 這個是有相底 如何是無相底 延於言下有省禮拜 乃歸本位立 師云何不道取  
一句子 延云道則不辭 恐上紙墨 師呵呵云 此語上石去 在後果上碑

## 65. 무업無業 국사

무업無業 국사가 혜음惠憎 등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성품은 허공과 수명이 같아서 생멸하지 않는다.  
모든 경계는 본래부터 공하고 고요하여 한 가지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경계에 훌리며, 한번 경계에 훌리면 끝없이

---

160 생몰연대 미상. 중국 송대宋代 스님. 조동종. 양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이다.

161 오도자吳道子라는 유명한 화가를 말한다.(각성, 앞의 책, p.403)

생사를 둔다. 그대들은 심성은 본래부터 있었고 조작에서 생기지 않았으며, 금강과 같아서 깨뜨릴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법은 그림자나 꿈과도 같아서 정실貞實함이 없다. 그러므로 경<sup>162</sup>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이 진실할 뿐,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일체가 항상 공하므로 한 가지 법도 정情에 해당하는 법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마음을 쓰는 곳이니, 그대들은 아무쪼록 부지런히 수행하라.”

국사는 말을 마친 후 열반에 들었다.

無業國師謂弟子惠憎等曰 汝等見聞覺知之性 與大虛同壽 不生不滅 一切境界本自空寂 無一法可得 迷者不了 卽爲境惑 一爲境惑 流轉無窮 汝等當知 心性本自有之 非因造作 猶如金剛 不可沮壞 一切諸法 如影如夢無有貞實 故經云 唯有一事實 餘二即非真常 了一切空 無一法當情 是諸佛用心處 汝等勤而行之 言訖歸寂

## 66. 대원부大原孚 상좌

대원부大原孚<sup>163</sup> 상좌가 양주楊州 광효사光孝寺에서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을 때이다. 어떤 선객이 눈으로 길이 막혀 그 절에 묵으면서 부 상좌의 『열반경』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법신法身<sup>164</sup>의 현묘한 이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에 이르자 선객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부 상좌가 강의를 마친 뒤에 선객을 청하여 차를 마시며 말하였다.

“평소 저의 뜻이 좁고 용렬해서 글에 의지해서만 뜻을 이해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비웃음을 사게 되었습니다. 부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객이 말하였다.

“좌주께서 법신을 진실로 잘 모르고 계셔서 비웃었습니다.”

---

162 『법화경』에서 오직 일불승一佛乘만이 진실할 뿐, 그 밖의 승승들은 진실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163 『한국불교전서』에는 대원부大原孚로 되어 있고(6, p.619上), 각성 스님의 앞의 책(p.407)에서는 태원부太原孚로 되어 있다.

164 dharma-kāya. ① 절대 이법을 체體로 하고 있는 부처. 절대의 이법을 부처 그 자체의 몸으로 본 표현. ② 절대의 이법. 부처의 본체. ③ 여래장. ④ 법의 본질, 또는 법 그 자체.

“어떤 곳이 옳지 않았습니까?”

“좌주께서 하신 말씀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신의 걸모습만을 말씀하셨을 뿐, 진실로 법신을 중득하지는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객께서는 저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양하지 않겠으나 믿어 주시겠습니까?”

“어찌 감히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좌주께서는 강의를 잠시 멈추시고 열흘 동안 방에 고요히 앉아서 생각을 고요하게 하여 마음과 생각을 거두고 선과 악의 모든 인연을 한꺼번에 버리십시오.”

부 상좌는 가르침에 따라 초저녁부터 새벽에 이르렀는데 북 치는 소리를 듣고는 훌연히 크게 깨달았다.

[내가 말한다면 “이것은 원오 극근 선사가 닦아 난간에 날아올라 화를 치면서 우는 것을 보고 문득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리라.]

大原孚上座 在楊州光孝寺 講涅槃經 有一禪客 阻雪在寺 因往聽講 至廣談法身妙理  
禪客不覺失笑 孚講罷請禪客喫茶次白曰 某甲素志狹劣 但依文解義 適蒙見笑 且望見  
教 禪客曰實笑座主不識法身 孚曰何處不是 禪客曰不道座主說不是 只是个說得法身  
量邊事 實未證法身在 孚曰既然如是 禪客當爲我說 禪客曰我不辭說 還信不 孚曰焉敢  
不信 曰若如是 座主暫輟講 旬日於室中 端坐靜慮 收心攝念 善惡諸緣 一時放下 孚一  
依所教 從初夜至五更 聞鼓角聲 忽然大悟

[私曰此與圓悟勤和尚 見雞飛上欄干鼓翼而鳴 忽然大悟一般]

## 67. 섭현 귀성葉縣歸省

어느 날 염念<sup>165</sup> 화상이 섭현 성<sup>166</sup> 선사에게 물었다.

---

165 수산 성념首山省念, 926~993. 중국 오대말五代末 송초宋初의 스님. 임제종. 수산은 주석하던 절 이름. 풍혈 연소風穴延沼에게 침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은 후 임제 종풍을 널리 선양하여 임제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문하로는 분양 선소, 섭현 귀성이 있다. 순화淳化 4년 12월 4일 입적하였다.

166 섭현 귀성葉縣歸省. 생몰연대 미상. 중국 송대宋代 스님. 남악南嶽 문하. 20세에 역주 보수사에서 득도, 그 후 제방을 편력하다가 수산 성념을 만나 그에게 침학하여 땅 위에 세워 놓은 죽비를 보고 대오하였다.

“이것을 죽비竹簾라 부르면 저축되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위배될 것이다. 자, 말해 보아라. 그렇다면 이 물건을 무엇이라 불러야겠는가?”

귀성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아 손으로 죽비를 만들어 그것을 부러뜨려 섬돌 아래로 던지면서 반문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葉縣省和尚 一日念和尚問曰 喚作竹簾子則觸 不喚作竹簾子則背 且道合喚作甚麼物  
卽得 省於此大悟 遂於手中製得竹簾子 拗折擲于階下 却云是甚麼

어떤 스님이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에 관한 화두를 들어서 가르침을 청하자 귀성은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양하지 않겠으나 그대가 과연 믿어주겠소?”

그 스님이 말하였다.

“스님의 소중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이 말에 그 스님은 활연히 크게 깨닫고 절을 올렸다. 이에 귀성이 물었다.

“그대는 어떠한 도리를 보았기에 나에게 절을 하오?”

그 스님이 계송으로 답하였다.

처마 끝의 빗방울이 분명하고 역력하니  
온 천지를 쳐부수니 당장 마음이 쉬어버렸네.

귀성이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조사선의 이치를 깨달았다.”

省和尚因僧請益 舉趙州庭前柏樹子話 省云我不辭與汝說 汝還信不 僧云和尚重言爭  
敢不信 省曰汝還聞簷頭雨滴聲麼 其僧豁然大悟 禮拜 省曰汝見个甚麼道理禮拜 其僧  
便以頌對曰 簷頭雨滴分明歷歷 打破乾坤當下心息 省大忻然曰 汝會得祖師禪也

## 68. 양수良遂 좌주

양수良遂 좌주가 마곡麻谷<sup>167</sup>에게 처음으로 참배하러 갔다. 마곡은 그가 오는 것을 보자 얼른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가 풀을 매었다. 양수가 마곡이 풀을 매고 있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마곡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방장으로 돌아가더니 오히려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양수가 다음 날 다시 마곡에게 갔으나 또 문을 걸어 잠갔다. 이에 양수가 문을 두드리니 마곡이 물었다.

“누구요?”

“양수입니다.”

겨우 자기 이름을 대답하는 순간 홀연히 크게 깨닫고 말하였다.

“스님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양수가 만일 마곡 화상에게 참배하러 오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 자칫하면 경론에 빠져 일생 동안 속고만 살았을 것이다.

良遂座主 初叅麻谷 谷見來 便將鉗頭去鉗草 良遂到鉗草處 谷殊不顧便歸方丈閉却門  
遂次日復去谷 又閉却門 遂乃敲門 谷問阿誰 云良遂 才稱名 忽然大悟云 和尙莫謾良  
遂 良遂若不來禮拜和尚 何有今日事 泊被經論 賺過一生

## 69. 자명慈明 화상

자명慈明<sup>168</sup> 화상은 전대도泉大道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조각구름이 골짜기 어귀에 걸려 있는데, 나그네는 어디에서 왔소?”

전대도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

167 마곡 보철麻谷寶徹, 생몰연대 미상.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 문하. 마곡은 주석하던 산 이름. 출가하여 마조 도일에게 참학하고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포주 마곡산에 머물면서 선풍을 고취시켰다.

168 석상 초원石霜楚圓, 986~1040. 중국 송대宋代 스님. 임제종. 석상은 주석하던 산 이름. 자명慈明은 사호. 수계 이후 총림을 편력하다가 분양 선소에게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석상의 선풍은 엄한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문중이 번창하여 황룡 혜남과 양기 방회를 배출하였다.

“밤에 어느 곳에 불이 나서 옛 사람의 무덤을 불살랐습니다.”

“아니야, 다시 말해 보아라.”

그러자 전대도가 호랑이 울음소리를 냈다. 자명 화상이 방석을 치니 전대도는 자명 화상을 밀고 그 자리에 나아가 앉았다. 이번에는 자명 화상이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니 전대도가 말하였다.

“제가 70여 분의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녔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제대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慈明和尚 見泉大道來 乃曰片雲橫谷口 遊人何處來 泉顧示左右云 夜來何處火 燒出古人墳 師曰未在更道 泉作虎聲 師打一坐具 泉推師就座 師却作虎聲 泉曰我歷參七十餘員善知識 今日始遇作家

## 70. 경조 현자 京兆覲子

현자覲子<sup>169</sup> 화상은 일정한 거처가 없었는데 동산 양개 화상에게서 마음의 인가를 받고 난 후로는 민천閩川 지방에서 속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매일 강가에서 새우와 조개를 잡아서 끼니를 때우고, 밤이면 동산東山 백마묘白馬廟의 지전紙錢<sup>170</sup> 더미 속에서 잠을 자니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를 현자 화상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화엄 휴정華嚴休靜<sup>171</sup> 선사가 이런 소문을 듣고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하루는 백마묘의 지전 더미 속에 먼저 숨어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현자 화상이 그 곳으로 돌아왔다. 휴정이 갑자기 나와서 선사를 불잡고 물었다.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인가?”

---

169 경조 현자 京兆覲子. 생몰연대 미상. 중국 당말唐末 스님. 경조는 주석하던 지역 이름. 동산 양개의 법을 이어받았다.

170 종이로 만든 돈. 굿이나 푸닥거리를 할 때 가짜로 돈을 많이 만들어서 바친다.

171 생몰연대 미상. 중국 당대唐代 스님. 조동종, 동산 양개의 법사. 처음에는 낙보 원안樂普元安 문하에서 유나를 역임하다가 동산을 만나서 친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그 후 복주 동산에 머물면서 그의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다.

현자 화상은 곧바로 대답하였다.

“신 앞에 있는 술잔 담는 그릇이오.”

휴정은 매우 기이하게 여기면서 참회하고 물러갔다.

[내가 말한다면 “이것은 ‘뜰 앞의 잣나무’라는 화두와 ‘마麻 3근’과 ‘마른 뚉막대기’ 화두와 같은 것이요, 본분 종사가 대답한 말이 격식과 언어를 갖추었으니 이것이 바로 조사선이다”라고 하리라.]

蜋子和尚 居無定所 自印心於洞山 混俗閩川 常日沿江岸 採掇蝦蜋 以充朝夕 暮則臥東山白馬廟紙錢中 居民目爲蜋子和尚 華嚴休靜禪師聞之 欲決眞僞 一日先潛入紙錢叢中 深夜蜋子歸來 休靜忽出把住問曰 如何是祖師西來意 蜋子卽答曰 神前酒臺盤 靜奇之懺謝而退

[私曰此與庭前柏樹子麻三斤乾屎橛一般 本分宗師答話 具色聲言語 正是祖師禪]

## 71. 무주無住 화상

두杜 상공이 무주無住<sup>172</sup> 화상에게 물었다.

“저는 화상께서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망상하지 말라’라는 세 구절의 법문을 강설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무주 화상이 답하였다.

“그렇소.”

“이 세 구절은 하나입니까, 셋입니까?”

“기억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계를 말하는 것이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선정을 말하는 것이고, 망상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오. 한 마음도 생겨나지 않고서 계와 선정과 지혜를 갖추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도 셋도 아닌 것이오.”

상공이 물었다.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법구경』에서 ‘정진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망상이요, 정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망상을 품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끝없이 정진하는 것이다’라고 하

---

172 익주益州 보당사保唐寺 무주無住 선사를 가리킨다. 마조馬祖의 스승인 신라 무상無相 대사의 제자이다.

였소.”

상공이 이 말을 듣고서 의심이 확 풀리었다.

無往和尚 因杜相公問 弟子聞和尚說無憶無念莫妄想三句法門是不 曰然 公曰此三句  
是一是三 曰無憶名戒 無念名定 莫妄想名慧 一心不生 具戒定慧 非一非三也 公曰有  
據不 曰法句經云 若起精進心 是妄非精進 若能心不妄 精進無有涯 公聞之疑情頓釋

## 72. 월산越山 화상

월산越山 화상은 설봉雪峯<sup>173</sup>에게 처음으로 참배를 갔을 때는 아직 현묘한 종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후에 민왕閔王의 초대를 받아 청풍루清風樓의 공양에 나아갔다. 화상은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문득 햇빛을 보게 되었다. 이에 활연히 크게 깨닫고 계송으로 말하였다.

청풍루에서 와서 왕의 공양을 받으니  
오늘에야 평생의 눈이 활짝 열렸네.  
보통普通<sup>174</sup> 연간의 아득한 일<sup>175</sup>이  
총령葱嶺에서 부쳐 온 것 아님이 지금 믿어지네.

[현사玄沙 화상이 “저곳도 허공이고 이곳도 허공이다. 나의 몸이 없는데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허허, 달마는 동쪽 땅으로 오지 않으셨고, 2조께서도 서천으로 가지 않으셨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173 설봉 의존雪峰義存, 822~908. 중국 당대唐代 스님. 청원 문하. 설봉은 주석하던 절 이름. 17세에 삭발하고 법휘를 의존義存이라 하였다. 동산 양개의 회하에서 반두飯頭의 일을 맡아보았는데 이때 양개와는 특별한 계기를 맺지 못하였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덕산 선감德山宣鑑에게서 침구하였다. 그의 문하에는 현사 사비, 장경 혜릉, 고산 신안, 운문 문언, 보복 종전 등과 같은 빼어난 선승들이 많이 나왔고,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독특한 종풍을 고취시켰다. 개평開平 2년 5월 2일 입적하였다.

174 양 무제 연간(520~527)의 연호로, 달마 대사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이다.

175 달마 대사의 최후에 관해서 전해지는 일화 중 하나이다. 달마 대사가 양 무제 보통 연간에 중국에 왔다가 제2조 혜가에게 법을 전한 후에 모함을 받아 나라에서 내린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3년 뒤 송운宋雲이 인도에 갔다가 오는 길에 총령고개에서 달마 대사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음 구절의 총령은 바로 이 일을 말하는 것이다.

越山和尚 初參雪峰 未染玄旨 後因閩王 請於清風樓上赴齋 坐久舉目 忽覩日光 豁然大悟而有頌曰 清風樓上赴官齋 此日平生眼豁開 方信普通年遠事 不從葱嶺付將來  
〔如玄沙禾<sup>176</sup>上云 彼處虛空 此處虛空 我身無有 痛自何來 休休 達麻<sup>177</sup>不來東土 二祖不往西天〕

## 73. 장사 경잠長沙景岑

축쓰 상서<sup>178</sup>가 장사 경잠長沙景岑<sup>179</sup> 선사를 뵈러 갔다. 선사가 상서를 부르자 상서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선사가 말하였다.

“이것은 상서의 본명本命이 아니다.”

상서가 대답하였다.

“지금 공손히 대답하는 저를 떠나 다른 주인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서를 지존이라 부를 수는 있겠는가?”

“그렇다면 모두 대답할 수 없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대답을 하거나 대답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시작 없는 겁 아래로 이것이 바로 생사의 근본이다.”

이에 선사가 계송으로 가르쳤다.

도를 배우려는 사람이 참을 모르는 것은  
종래로 분별심을 인식하기 때문이네.  
한량없는 겁 아래로 생사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자는 본래 사람이라 말하네.

---

176 ‘禾’疑‘和’.(『韓國佛教全書』6, p.619의 注)

177 ‘麻’疑‘磨’.(『韓國佛教全書』6, p.619의 注)

178 상서는 국방을 맡은 병부상서나 내무를 맡은 내무상서로 장관에 해당한다.

179 장사 경잠長沙景岑(?~868). 중국 당대唐代 스님. 장사는 주석하던 지역 이름. 남악 문하. 남전 보원에게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처음에는 녹원鹿苑에 머물렀지만 이후에는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유랑하면서 생을 마쳤다. 양산 해적과의 문답에서 양산을 차서 넘어뜨릴 정도의 기용機用을 지니고 있어 대호大虎 또는 초현招賢 대사, 잠대충岑大蟲이라고도 불린다.

長沙岑禪師 因見竺尚書 師喚尚書 書應喏 沙云不是尚書本命 書云不可離却 卽今祇對  
別有个第二主人公也 沙云喚尚書作至尊得麼 書云恁麼則總不祇對 和尚莫是弟子主人  
公不 師云非但支對與不支對時 從無始劫來 是个生死根本 乃示偈曰  
學道之人不識真 只爲從來認識神  
無量劫來生死本 癡人喚作本來人

## 74. 송악 혜안嵩嶽惠安

혜안惠安<sup>180</sup> 국사는 북종北宗의 신수<sup>181</sup> 선사와 함께 무후의 초청을 받아서 궁에서 공  
양을 받게 되었다. 이어서 목욕할 때 궁중의 미녀들이 그 시중을 들게 되었는데 오직  
국사만은 태연하여 다른 변화가 없었다. 무후가 찬탄을 하면서 말하였다.

“목욕물에 드셔야 비로소 높으신 분인 줄 알겠습니다.”

국사는 계송으로 말하였다.

백옥 같은 뺨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들이  
장미 꽃잎 같은 손으로 물을 떠서 식은 재에 뿌리네.  
사립짝의 거적문에는 자물쇠가 없건만  
벼락 같은 쇠망치로 두드려도 열리지 않네.

惠安國師 與北宗神秀 被武后召入禁中供養 因澡浴以宮姬給侍 唯師怡然無他 后歎曰  
入水始知有長人 頌云  
秦苑仙娃白玉腮 薔薇行水酒寒灰  
柴門草戶無關鑰 磬落金鎧擊不開

무후가 국사의 나이를 묻자 혜안 국사가 대답하였다.

---

180 송악 혜안嵩嶽惠安. 642~709. 중국 당대唐代 스님. 송악은 주석하던 산 이름. 5조 홍인을 만나서 심요  
를 얻었다.

181 대통 신수大通神秀. 606~706. 중국 당대唐代 스님. 북종선의 개조. 5조 홍인 문하에 들어가 사사하였  
다. 홍인은 그의 기량을 아껴서 홍인 화상의 7백여 명의 제자 중 상좌가 되었다. 이념離念을 설하는  
5방편을 중시한 신수의 선은 하택 신회의 비판 이후 6조 혜능의 남종선에 대하여 북종선이라고 불렸  
다. 이후 신수의 북종선은 장안, 낙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신룡神龍 2년 2월 28일 입적하였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후가 물었다.

“어찌하여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생사의 몸을 돌고 도니 그 윤회는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인데, 기억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마음은 흐르고 흘러 중간에 쉴 사이가 없으니 거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곧 망상일 뿐입니다. 처음의 식識에서 요동하는 모양(動相)이 사라질 때까지도 이러할 뿐인데, 어찌 나이를 기억하겠습니까?”

이에 무후가 머리를 조아리고 신봉하였다.

安國師 因武后問師甲子 師對曰不記 后曰何不記耶 師云生死之身 其若循環 環無起盡  
焉用記爲 況此心流注 中間無間 見漚起滅者 乃妄想耳 從初識至動相滅時 亦只如此  
何年月而可記乎 於是武后稽首信受

## 75. 아호 대의鵝湖大義 화상의 좌선명坐禪銘

아호 대의鵝湖大義<sup>182</sup> 화상의 좌선에 대한 글이다.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것이 몇 가지나 되던가.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이가 선택하는 것이다.

몸을 잊거나 마음을 죽이려 하지 말아야 하니

이는 치료하기 힘든 가장 깊은 병이네.

앉아서 깊은 근원을 참구하라.

이러한 도는 예로부터 세상에 전해져 온 것이다.

태산처럼 단정하고 반듯하게 앉되

늠름하게 공한을 지킬 필요 없다.

당장에 취모검吹毛劔<sup>183</sup>을 들어서

---

182 746~818.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南嶽 문하. 아호는 주석하던 산 이름. 마조 도일에게 참구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원화元和 13년 입적하였다.

서래제일의西來第一義<sup>184</sup>를 밝혀내야 하리라.

두 눈을 크게 뜨고 눈썹도 치켜세워서  
저것이 무엇인지 거듭 바라보아라.

도적을 잡으면 장물藏物까지도 찾아내야 하되  
도적이 깊이 숨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혜가 있으면 찰나에도 찾아내지만  
지혜가 없으면 일 년이 지나도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다.

애달프구나, 항상 죽은 듯이 우두커니 앉아서  
천 년 만 년 그렇게만 지내는가.  
그렇게 하여 선문의 종지에 이르게 된다면  
염화미소拈花微笑<sup>185</sup>의 가풍이 쇠퇴하고 말리라.

흑산黑山<sup>186</sup> 아래에 앉으면 사수死水<sup>187</sup>가 침입하니  
대지에 만연히 퍼지는 것을 어찌 막으리.  
철안鐵眼과 동정銅睛을 가진 이<sup>188</sup>라면  
마음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깨닫고야 말리라고 굳게 다짐하니  
크게 한번 울부짖을 수 있는 사자로다.  
그대는 보지 못했던가.  
벽돌을 갈아 거울 만든다는 비유에도 이유가 있으니,  
수레가 멈추면 소에게 채찍질하는 이치이다.

---

183 유명한 칼의 이름. 칼날이 매우 예리해서 텔을 불면 텔이 잘라진다고 한다. 여기서는 밝은 지혜를 비유한다.

184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본래의 뜻을 물어보는 선종의 상용구. 불법의 근본 뜻.

185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말없이 꽃을 들고 대중에게 보이니, 아무도 그 뜻을 몰랐으나 가섭 존자민이 미소를 지었다. 이심전심으로 불법을 깨달아서 얻게 되는 일을 보여주는 선의 고사故事이다.

186 대철위산과 소철위산 중간에 있는 암흑세계.

187 흐르거나 새로 샘솟지도 않는 고인 물.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자리에 앉아서 참구하는 것을 비유한다.

188 철안鐵眼과 동정銅睛은 쇠로 된 눈과 동으로 된 눈동자를 뜻한다. 즉 끝없이 정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대는 보지 못했던가.

바위 앞에 고인 물이 만 길이나 맑아서  
깊고 고요하여 아무런 소리가 없다가  
하루아침에 어룡魚龍이 와서 휘저어버리면  
출렁이는 파도가 더욱 심해진다.

고요히 앉기만 할 뿐 공부하지 않으면  
어느 시절에 심공心空<sup>189</sup>을 깨달아 급제하리.

빨리 공부를 시작하여 높은 곳을 올려다보아  
금생에서 판단을 끝내야 하리라.  
오히려 묵묵히 어리석은 척하면  
공부할 줄 모르는 이라 여길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의해서 살펴보아라.  
형체도 그림자도 없지만 깨닫기 어렵지 않도다.  
이것이 충분히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니  
용맹한 장부라면 기억해야만 하리라.

도를 참구할 필요 없다는 말 듣지 말고  
옛 성인을 부지런히 지침으로 삼아라.  
비록 옛날 집의 놀리는 논밭이라 해도  
한번쯤은 풍년이 오지 않으랴.

좌선의 극치(不動尊)를 알고자 한다면  
바람이 불면 풀도 쓰러짐을 모두 논하리라.  
지금은 사해四海가 거울처럼 맑으니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들려온다.

길고 짧음과 모나고 등근 것은 다만 저절로 아니니

---

189 심성이 끝없이 넓고 커서 온갖 것을 다 포함한 것을 허공에 비유하거나, 온갖 장애가 다 없어진 공공  
적적空空寂寂한 심경心境을 의미한다.

본래부터 털끝만큼도 제자리를 옮기지 않았네.  
좌선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고 묻는다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밤에는 서쪽으로 진다 말하리라.

鵝湖大義和尚坐禪銘

叅禪學道幾般樣 要在當人能擇上  
莫只忘形與死心 此个難醫病最深  
直須坐究探淵源 此道古今天下傳  
正坐端然如泰山 巍巍不要守空閑  
直須提起吹毛利 要剖西來第一義  
瞳却眼兮剔起眉 反復看渠渠是誰  
還如捉賊須見贓 不怕賊埋深處藏  
有智捉獲剎那頃 無智經年不見影  
深嗟兀坐常如死 千年萬歲只如此  
若將此等當禪宗 拈花微笑喪家風  
黑山下坐死水浸 大地漫漫如何禁  
若是鐵眼銅睛漢 着手心頭能自判  
直須着到悟爲期 哮吼一聲師子兒  
君不見  
磨顰作鏡喻有由 車不行兮在打牛  
又不見  
嵒前湛水萬丈清 沈沈寂寂杳無聲  
一朝魚龍來攪動 波翻浪湧真堪重  
比如靜坐不用功 何年及第悟心空  
急下手兮高着眼 管取今生教了辦  
若還默默恣如愚 知君未解做功夫  
抖擗精神着意看 無形無影悟不難  
此是十分真用意 勇猛丈夫却須記  
切莫聽道不須叅 古聖孜孜爲指南  
雖然舊閑閑田地 一度贏來得也未  
要識坐禪不動尊 風行草偃悉皆論  
而今四海清如鏡 頭頭物物皆吾聽  
長短方圓只自知 從來絲髮不會移  
若問坐禪成底事 日出東方夜落西

## 76. 대주 혜해大珠慧海

어떤 스님이 대주大珠<sup>190</sup> 선사에게 물었다.

“모든 중생들에게는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부처의 작용(用)을 하면 부처의 성품이고, 도적의 작용을 하면 도적의 성품이며, 중생의 작용을 하면 중생의 성품이다. 성품에는 형상이 없으므로 그 작용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모든 성현들은 전부 무위법無爲法에 의하여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말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을 설법이라 한다는데, 그렇다면 스님은 어떻게 체득하셨습니까?”

“반야의 체體는 끝까지 청정해서 한 가지 물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말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을 설법이라 이름한다고 하는 것이다.”

大珠禪師因僧問 一切衆生皆有佛性如何 師云作佛用是佛性 作賊用是賊性 作衆生用  
是衆生性 性無形相 隨用立名 故經云 一切賢聖 皆以無爲法 而有差別 又僧問無法可說  
是名說法 禪師如何體會 師曰爲般若體畢竟清淨 無有一物可得 是名無法可說 是名  
說法

## 77. 불감佛鑑 화상

불감佛鑑<sup>191</sup> 화상이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어떤 스님이 조주<sup>192</sup>께 ‘무엇이 옮기지 않는 도리입니까?’ 하고 물으니, 조주께서

---

190 생몰연대 미상.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 문하. 마조馬祖의 제자. 휘는 혜해慧海(또는 惠海). 월주越州 대운사大雲寺 도지道智 화상에게 출가·수업受業하고 뒤에 마조의 법을 이어받았다.

191 무준 사범無準師範, 1178~1249. 중국 송대南宋代 스님. 불감佛鑑은 시호. 와룡 조선臥龍祖先 선사의 법을 이었다. 9세에 출가하여 도흡道欽을 따라 출가하였으며, 성도成都 정법사正法寺 익요益堯 스님에게 참선을 배웠다. 남송의 영종寧宗과 이종理宗의 두터운 귀의를 받았다. 순우淳祐 9년 3월 18일 입적하였다.

192 조주 종심趙州從諗. 778~897. 중국 당대唐代 스님. 어려서 조주趙州의 호통원扈通院으로 출가하였고,

손짓으로 흐르는 물을 흉내 내자 그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또 다른 어떤 스님이 법안法眼<sup>193</sup>께 ‘상相을 취하지 않아 여여如如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 이 상을 취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법안께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밤이면 서쪽으로 지는 것이오’라고 대답하시니, 그 스님도 크게 깨달았다. 만약 이 두 화상의 말씀에서 얻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오리바람이 큰 산을 무너뜨리나 본래는 항상 고요한 것이며, 강과 시내가 앞 다투어 흐르지만 원래는 스스로 흐르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 도리이다.”

佛鑑和尚示衆 舉僧問趙州 如何是不遷義 州以手作流水勢 其僧有省 又僧問法眼 不取於相 如如不動 如何不取於相 見不動去 法眼云日出東方夜落西 其僧亦有省 若也於此 二和尚言句見得 方知道旋嵐偃岳 本來常靜 江河競注 元自不流 此是如如不動之義

## 78. 나산羅山 화상

나산羅山<sup>194</sup> 화상이 석상石霜<sup>195</sup>에게 물은 적이 있다.

“쉬지 않고 생기고 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석상이 대답하였다.

“식은 재나 마른 나무와 같아야 하고, 한 생각은 만년의 세월을 가며, 조그만 티끌 하나 없이 온전히 맑아야 한다.”

---

남전 보원南泉普願에게 참학하여 개오하였다. 여러 곳을 유력하다가 대중의 청에 의해 조주趙州 관음원觀音院에 머물며 40여 년을 독자적인 선풍을 드날렸다. 그는 학인을 제접하는 방편이 뛰어나 많은 공안이 있다. 당唐 건영建寧 4년 11월 입적하였다.

193 법안 문익法眼文益, 885~958. 중국 당밀唐末 오대五大 스님. 법안종法眼宗 개조開祖. 7세에 전위全偉 선사를 따라 출가하였으며, 뒤에 장경 혜릉長慶慧稜에게 참예였다. 다시 나한 계침羅漢桂琛에게 참학하여 법을 이어받았다. 후주後周 현덕顯德 5년 대중에게 고한 뒤 결가부좌한 채 입적하였다.

194 나산 도한羅山道閑. 생몰연대 미상. 중국 오대五代 스님. 청원青原 문하. 구산龜山에서 출가하여 수계한 후 각지를 유행하였다. 석상 경저石霜慶諸에게 법을 묻고 후에 암두를 찾아뵙고 개오하였다.

195 석상 경저石霜慶諸. 807~888. 중국 당대唐代 스님. 청원青原 문하, 석상은 주석하던 산 이름. 13세에 출가하였으며 뒤에 도오 원지道吾圓智에게 참학하고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석상산石霜山에서 20여 년간 좌선에 몰두하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정도목丁度木의 꺾인 그루터기 같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고목상枯木象이라 불렀다. 광계光啓 4년 2월 입적하였다.

나산 화상은 석상의 이런 말을 들었지만 계합하지 못하고 다시 암두巖頭 스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으로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암두께서 크게 소리쳤다.

“무엇이 생기고 멸하는 것이냐?”

나산 화상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羅山和尚 曾問石霜 起滅不停時如何 霜云直須寒灰枯木去 一念萬年去 全清絕點去 山不契 却往巖頭處 如前問 頭喝云 是誰起滅 山於言下大悟

## 79. 보은 현칙報恩玄則

법안이 보은 칙報恩則<sup>196</sup> 화상에게 물었다.

“누군가 만난 적이 있는가?”

보은 화상이 답하였다.

“청봉青峯<sup>197</sup> 화상을 뵙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어떤 것이 학인(자)의 자기自己입니까’라고 여쭈니, 청봉께서는 ‘병정동자丙丁童子가 불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안이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보은 화상이 답하였다.

“병정은 불에 속하니, 불을 가지고서 불을 구하려는 것은 바로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느낌으로 안 것일 뿐이다. 그대는 불법을 알지 못한 것이다.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조급한 번민이 문득 일어났을 것이다.”

---

<sup>196</sup> 보은 현칙報恩玄則. 생몰연대 미상. 중국 오대五代 송초宋初 스님. 법안종法眼宗. 보은은 주석하던 절 이름. 법안 문의法眼文益의 법을 이어받았다. 금릉金陵 보은원報恩院에 머물렀다.

<sup>197</sup> 청립 사진青林師虔. 중국 당대唐代 스님. 조동종曹洞宗. 청립은 주석하던 지역 이름. 동산 양개洞山良价의 법을 이어받아 동산의 3조조가 되었다. 수주隨州 청립 난야青林蘭若와 동산洞山 보리원普利院에 머물렀다.

보은 화상이 그 곳을 떠나 돌아가던 도중에 생각하였다.  
‘저분은 5백 명의 선지식인데, 나에게 틀렸다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보은은 돌아가서 절을 하고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저)의 자기입니까?”

법안이 말하였다.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온 것이다.”

보은 화상은 이 말을 듣고 활연히 크게 깨달았다.

報恩則和尚 因法眼問會見什麼人來 曰見青峯和尚來 眼曰有什麼言句 曰某甲會問如何是學人自己 峯曰丙丁童子來求火 眼曰上座作麼生會 曰丙丁屬火 將火求火 將自己求自己 師云情知 你不會佛法 若如此不到今日則躁悶便起 至中路 却云他是五百人善知識 道我不是 必有長處 却回懺謝 便問如何是學人自己 師云丙丁童子來求火 則於言下豁然大悟

## 80. 양기 방회楊岐方會

옛적에 양기 회楊岐會<sup>198</sup> 선사가 자명<sup>199</sup> 화상을 뵙고 늘 방장으로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러자 자명 화상은 말하였다.

“그대 스스로 깨달아라. 나는 그대보다 못하다.”

이에 양기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 갔다.

큰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양기가 자명 화상을 모시고 가다가 좁은 길에서 자명 화상을 붙잡고 말하였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스님을 때리겠습니다.”

---

198 양기 방회楊岐方會. 996~1046. 중국 송대宋代 스님. 임제종臨濟宗 양기파楊岐派의 개조開祖. 양기는 주석하던 산 이름. 어려서 출가한 후 여러 지방을 편력하다가 석상 초원石霜楚圓의 법을 이어받았다. 원주 양기산, 담주潭州 운개산雲蓋山에 머물면서 선풍을 크게 드날렸다.

199 석상 초원石霜楚圓. 986~1040. 중국 송대宋代 스님. 임제종臨濟宗. 석상은 주석하던 산 이름. 수계 이후 총림을 편력하다가 분양 선소汾陽善昭에게 친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황룡 혜남黃龍慧南과 양기 방회楊岐方會를 배출하였다.

자명 화상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였다.

“그대 스스로 깨달아라. 그대 스스로 깨달아라. 나는 그대보다 못하다.”

양기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활연히 크게 깨달았다.

昔楊歧會禪師 見慈明和尚 每到方丈請益 明云你自會去 我不如汝 楊歧切心切心一日  
伺候于狹路 兼值大雨 楊歧扭住慈明云 今日不與我說 打和尚去 慈明勵聲曰你自會去  
你自會去 我不如汝 楊歧於言下 豁然大悟

## 81. 용담 송신龍潭崇信

용담龍潭<sup>200</sup> 화상이 천황天皇<sup>201</sup> 스님에게 여쭈었다.

“제가 여기에 온 아래로 아직 화상께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천황이 말하였다.

“그대가 여기에 온 아래로 나는 그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 않은 적이 없다.”

“어느 부분이 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까?”

“그대가 나에게 차를 대접하면 나는 그대를 위하여 접대를 받았고, 그대가 식사를 가져오면 나는 그대를 위하여 그것을 먹었다. 그대가 나에게 합장을 하고 인사할 때<sup>202</sup> 나도 곧 머리를 숙였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는 말인가?”

용담이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에 천황이 말하였다.

“보려면 지금 당장 보아야지, 망설이면 이미 어긋나 버린다.”

용담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이에 다시 여쭈었다.

---

200 용담 송신龍潭崇信. 782~865. 당대唐代 스님. 청원青原 문하. 가업이 떡장수인 그는 천황 도오天皇道悟에게 떡을 보낸 것이 인연이 되어 그에게 귀의하여 출가하였다. 용담선원龍潭禪院에 머물렀다. 제자로 덕산 선감德山宣鑒이 있다.

201 천황 도오天皇道悟. 748~807. 중국 당대唐代 스님. 천황은 주석하던 절 이름. 14세에 절강성 명주의 대덕大德에게 출가하였다. 경산 도흡徑山道欽과 마조 도일馬祖道一에게 참학하고 석두 희천石頭希遷의 법을 이어받았다. 원화元和 2년 4월 30일 입적하였다.

202 和南. vandana. 敬禮 · 恭敬이라고 번역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함. 합장하고 머리 숙여 안부를 물음.

“어떻게 보임保任해야 합니까?”

천황이 대답하였다.

“성품대로 노닐고 인연에 따라서 비워 두어라. 범부의 마음을 다하기만 한다면 따로 성현의 견해는 필요 없다.”

[낙포洛浦가 “만약 보임하고자 한다면 여러 견해를 잊으면 될 것이니, 여러 견해가 사라진다면 혼무昏霧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지혜가 통명하게 비쳐 다시 나머지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龍潭和尚問天皇 某甲自到來 不蒙和尚指示心要 皇曰自汝到來 吾未嘗不指示汝心要  
曰何處是指示我心要 曰汝擎茶來 我爲汝接 汝行食來 吾爲汝受 汝和南時 吾便低首  
何處不指示汝心要 龍潭佇思之間 皇曰見則直下便見 擬思卽差 潭當下大悟 乃復問如  
何保任 皇曰任性逍遙 隨緣放曠 但盡凡心 別無聖解

[如洛浦云 若欲保任 但忘諸見 諸見若盡 昏霧不生 智照洞明 更無餘事]

## 82. 관계 지한灌溪志閑

한閑<sup>203</sup> 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상념을 내지 말라. 본래부터 체體가 없는 것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이가 앞에 나타나면 시절을 말하지 않는다.”

그 후 임종할 무렵에 시자에게 물었다.

“앉아서 입적한 자가 누구인가?”

시자는 대답하였다.

“승가僧加 스님입니다.”

“서서 입적한 자는 누구인가?”

“승회僧會 스님입니다.”

이에 선사는 사방으로 일곱 걸음씩 걸은 뒤 손을 드리운 채 열반에 들었다.

---

203 관계 지한灌溪志閑. ?~895. 중국 당대唐代 스님. 임제종. 관계는 주석하던 지역 이름. 어려서 백암柏巖을 따라 출가한 후, 뒤에 임제 의현의 법을 이어받았다. 당唐 소종昭宗 건녕乾寧 2년 5월 29일 입적하였다.

閑禪師示衆云 不生想念 本來無體 大用現前 不說時節 後臨遷化時 問侍者云 坐去者  
誰 侍者曰僧加 又云立去者誰 侍者曰僧會 師乃周行七步 垂手而終

## 83. 위산 영우 滬山靈祐

하루는 위산이 백장을 곁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백장이 물었다.

“누구냐?”

위산이 답하였다.

“영우靈祐입니다.”

“화로에 불이 있는지 해쳐 보았는가?”

위산이 화로를 해쳐 보고 대답하였다.

“불이 없습니다.”

백장이 몸소 일어나 화로를 깊이 파헤쳐서 작은 불씨를 찾아내더니 그것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불이 아닌가?”

이에 위산은 크게 깨달았다.

滬山一日侍立百丈 丈問誰 師云靈祐 丈云汝撥爐中有火不 師撥云無火 丈躬起深撥得  
小火 舉以示之云 此不是火 師大悟

## 84. 남대 수안 南臺守安

어떤 스님이 남대 수안 南臺守安 화상에게 물었다.

“적적하여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선사가 답하였다.

“적적하다!”

그러고 나서 “적齋!” 하고 외친 뒤에 계송으로 말하였다.

남대 南臺의 향로 가에 고요히 앉아서

종일토록 물끄러미 응시하며 만 가지 생각 잊었네.  
이것은 마음을 쉬거나 망상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은 생각할 것도 해아릴 것도 없기 때문이네.

南臺守安和尚 因僧問寂寂無依時如何 師云寂寂底 齋 乃有頌曰  
南臺靜坐一爐香 終日凝然萬慮忘  
不是息心除妄想 都緣無事可思量

## 85. 현사 사비玄沙師備

경청鏡清<sup>204</sup>이 현사<sup>205</sup>에게 물었다.

“제가 총림叢林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현사가 말하였다.

“언계偃溪의 물소리를 들었는가?”

“들었습니다.”

“그 속으로 따라 들어가시오.”

경청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들어가야 할 곳을 깨닫게 되었다.

玄沙因鏡清問 學人乍入叢林 乞師指个入路 師云還聞偃溪水聲麼 清云聞 師云從這裏入 清於言下得个入處

현사가 법당에 올라가서 법문하였다.

“나는 석가모니와 함께 참문參問하였다. 말해 보아라. 참문하여 누구를 보았는가?”

---

204 경청 도부鏡清道忠, 864~937. 중국 당말唐末 오대五代 스님. 경청은 주석하던 절 이름. 6세에 출가하였고, 후에 설봉 의존雪峰義存의 법을 이어받았다. 월주 경청사에 머물면서 설봉의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다.

205 현사 사비玄沙師備, 835~908. 중국 당대唐代 스님. 청원 문하. 현사는 주석하던 절 이름. 함동咸通 초년의 어느 날 갑자기 발심하여 부용산의 영훈靈訓을 찾아가 출가하였으며, 함동 7년에 설봉 의존에게 참구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설봉의 회하에 있으면서 그 지계가 엄격하여 비두타備頭陀라 불렸다. 개평開平 2년 2월 27일 입적하였다.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절을 올린 뒤에 질문을 하려고 머뭇거리자 현사가 말하였다.

“틀렸다, 틀렸다!”

그리고 곧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玄沙上堂云 我與釋迦老子同叅 且道叅見阿誰 時有僧出禮拜 擬伸問 師云錯錯 便下座

현사가 법당에 올라갔다가 제비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실상을 깊이 말하고 있구나. 법의 요지를 잘 말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玄沙上堂 聞鶯子聲 乃云深談實相 善說法要 便下座

설봉이 현사에게 말하였다.

“그대 사비 두타<sup>206</sup>는 어찌하여 고개를 벗어나 행각行脚<sup>207</sup>을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현사는 막 고개를 넘다가 그만 발가락이 돌에 부딪쳐 다치고 말았다. 그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저곳도 허공이고 이곳도 허공이다. 나의 몸이 없는데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허허, 달마께서는 동쪽 땅에 오지 않았고, 2조께서는 서천축으로 가지도 않으셨다.”

그리고서 현사는 설봉으로 되돌아와 다시는 고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玄沙因雪峯云 備頭陀何不出嶺遊方 師才出嶺 踏着脚指頭 不覺作忍痛聲云 彼處虛空  
此處虛空 我身無有 痛自何來 休休 達磨不來東土 二祖不往西天 回雪峯更不出嶺

---

<sup>206</sup> dhūta. 번뇌의 면지를 털어 없앤다는 의미로, 의식주와 관련하여 탐욕을 없애는 수행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12종류가 있어서 12두타라고 부른다. 여기서 ‘사비 두타’란 ‘수행자 사비’라는 뜻이다.

<sup>207</sup> 선승이 선의 정지를 배우고 법을 여쭙기 위해 방방곡곡 선지식을 찾아 여행하는 것을 뜻한다. 선승의 행각에는 일정한 규범이 있으며, 선의 중요한 기연機緣은 모두 행각 중에 이루어진다.

## 86. 문의 법안文益法眼

지장地藏<sup>208</sup> 선사가 문의 법안文益法眼 선사에게 물었다.

“상좌는 어디로 가려는가?”

법안 선사가 답하였다.

“이리저리 행각을 할까 합니다.”

“행각이란 무엇이오?”

“잘 모르겠습니다.”

지장 선사가 말하였다.

“모른다는 것이 가장 친절한 것이오.”

법안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文益法眼禪師 因地藏問上座何往 師云迦遷行脚 藏曰行脚事作麼生 師曰不知 藏曰不知最親切 師豁然大悟

법안 선사가 오공悟空과 함께 불을 쬐다가 향시香匙(부젓가락)를 집어들고 물었다.

“이것을 향시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사형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오공이 대답하였다.

“향시라 부르겠소.”

법안은 오공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20일이 지나서야 오공은 법안이 인정하지 않은 그 뜻을 밝게 알았다.

法眼與悟空向次 拈起香匙 問悟空曰 不得喚作香匙 師兄喚作甚麼 悟空曰香匙 法眼不肯 却後二十日 空方明其義

법안과 도반 세 사람<sup>209</sup>이 승조僧肇<sup>210</sup> 법사의 “천지는 나와 같은 뿌리이고, 만물

---

208 나한 雷顥羅漢桂琛, 867~928, 중국 당말唐末 오대五代 스님. 청원 문하. 나한은 주석하던 절 이름. 설봉 의존과 설봉의 법사 현사 사비에게 참학하고 그 법을 이어받았다. 뒤에 복건성 지장원地藏院에 머물다가, 장주 나한원羅漢院으로 옮겨 종요宗要를 설하였다. 천성天成 3년 가을에 입적하였다.

209 법안法眼 · 소수紹修 · 흥진洪進 세 사람을 말한다. (각성, 앞의 책, p.473)

210 384~413 또는 374~414, 중국 동진東晉 스님. 나집羅什 문하 4철哲 중의 한 사람. 18세에 고장에 머물

은 나와 한 몸이다”<sup>211</sup>라는 법어를 예로 들며 말하였다.

“참으로 기괴하기도 하다. 정말 기괴하기도 하다.”

계침桂琛 선사가 법안에게 물었다.

“상좌는 산하대지가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법안이 대답하였다.

“같은 것입니다.”

계침 선사는 손가락 두 개를 세우고 한참을 들여다보다 말하였다.

“두 개로구나!”

법안이 크게 깨달았다.

法眼同行三人 舉法師僧肇語 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 曰也甚奇怪也甚奇怪 桂琛  
禪師問曰 上座山河大地與自己 是同是別 法眼云同 琛豎兩指熟視曰 兩個 法眼大驚

## 87. 계침桂琛 선사

계침桂琛 선사가 법안과 도반 세 사람을 산문 밖에서 송별하다가 법안에게 말하였다.

“상좌는 평소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뜰에 있는 돌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돌은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법안이 대답하였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계침 선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행각을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까닭에 마음에 돌덩이를 가지고 다니는가?”

법안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琛禪師 門外送法眼三人次 琛問曰上座 你尋常道 三界唯心 乃指庭下石曰 此石在心內

---

던 구마라집鳩摩羅什 문하에 들어간 후 장안으로 와서 스승의 불전 한역을 도왔다. 그의 『주유마경註維摩經』은 『유마경維摩經』 연구의 필독 명저로 알려져 있다.

211 『조론肇論』의 구절이다.

在心外 法眼曰在心內 璣笑曰行脚人着甚來由 安塊石在心頭耶 法眼於此大悟

## 88. 문의 법안文益法眼

법안이 강남의 이왕李王의 청으로 개당開堂<sup>212</sup>을 하게 되었다. 이에 승록僧錄<sup>213</sup>이 말하였다.

“사부대중들이 모두 모여들어 일시에 우러러보려고 하기에 우선 법좌法座 지키는 것만 마쳤습니다.”

법안이 말하였다.

“저 대중들이 진정한 선지식을 참견하였느냐?”

승록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法眼因江南李王請開堂 僧錄云 四衆盡輻湊 觀瞻一時 先擁却法座了也 師云他衆人却叅見眞善知識 僧錄於言下大悟

어떤 스님이 법안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의 한 권 경전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제목이 매우 분명하구나!”

法眼因僧問 如何是學人一卷經 師云題目甚分明

어떤 스님이 법안에게 물었다.

“소리와 형상이라는 두 글자를 어떻게 하면 깨뚫을 수 있겠습니까?”

법안이 말하였다.

“대중이 저 스님의 묻고 있는 뜻을 안다면 소리와 형상을 깨뚫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

212 선승이 법당을 열고 공식적인 설법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13 당대唐代에 설치한 중앙 승관僧官으로서, 승려를 총괄하는 소임이다.

法眼因僧問 聲色二字如何透得 師云大眾 若會者僧問處 透色聲也不難

어떤 스님이 법안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원曹源의 물 한 방울<sup>214</sup>입니까?”

법안이 말하였다.

“조원의 물 한 방울이 바로 그것이오.”

그때 천태 덕소天台德韶 국사가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활연히 크게 깨달았다.

法眼因僧問 如何是曹源一滴水 師云是曹源一滴水 時天台韶國師侍側 豁然大悟

어떤 스님이 법안에게 물었다.

“경전을 보니 ‘머뚫이 없는 근본에서 일체 법이 세워진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것  
이 머뚫이 없는 근본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형상은 그 바탕이 갖추어지기 전에 일어났고, 이름은 불리기 전에 생겼다.”

法眼因僧問 承教有言從無住本 立一切法 如何是無住本 師云形興未質名起未名

어떤 세속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법안 선사를 찾아왔다. 그런데 법안 선사가 물어도 아이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선사는 계송으로 말하였다.

저 아이는 여덟 살이 되었지만

물어도 말을 하지 않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큰 법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리라.

백운 단白雲端<sup>215</sup>이 말하였다.

214 6조 스님이 머물던 조계曹溪의 근원을 가리키는 말로, 6조의 법을 ‘조원일적수曹源一滴水(조계의 물 한 방울)’이라고 표현한다. 결국 이것은 조계의 진면목이 어떤 것인가는 질문이다.

215 백운 수단白雲守端, 1025~1072, 중국 송대宋代 스님. 임제종 양기파. 백운은 주석하던 산 이름. 다름 인육茶陵仁郁에게 득도한 후, 여러 곳에서 침학하다가 양기 방회의 법을 이어받았다. 희녕熙寧 5년에 입적하였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큰 법을 온전히 말한 것이다.”

法眼因見俗人携兒到 間之不語 乃有頌云

兒年八歲 間不解語

不是不語 大法難舉

白雲端云 不是不語大法全舉

## 89. 소수 산주紹修山主

소수 산주紹修山主<sup>216</sup>가 세 번째로 설령雪嶺<sup>217</sup>에 들어가서 지장 선사를 참배하고 여쭈었다.

“제가 화상을 참배하기 위해 정주汀洲에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모진 고초를 다 겪고 온갖 산령을 다 지나왔는데 다시 어느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지장 화상이 대답하였다.

“온갖 산령을 다 지나왔다니 나쁘지는 않구나.”

소수 산주는 여전히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밤이 되어 지장의 침상 앞에서 시봉을 하다가 말하였다.

“제가 백겁 천생 동안 화상과 어긋났었는데 이제 와서 또 화상을 뵈었으나 편치 않습니다.”

지장이 일어나 주장자를 들고 얼굴 앞에 세우고 말하였다.

“이것만은 어긋나지 않는다.”

소수 선사는 이에 크게 깨달았다.

紹修山主 第三度入嶺叅地藏 乃曰此者特爲和尚從汀洲恁麼來 噎盡艱辛 涉歷許多山嶺 有什麼向處 地藏云涉歷許多山嶺 也不惡 師不薦 至夜床前侍次云 某甲百劫千生曾與和尚違背 此來又值和尚不安 地藏起身將拄杖卓向面前云 只者个也不背 師從此省悟

---

216 용제 소수龍濟紹修. 생몰연대 미상. 중국 당말唐末 오대五代 스님. 청원 문하. 용제는 주석하던 산이름. 법안 문익과 함께 지장에게 참학하여 깨달음을 얻은 뒤에 무주 용제산에 머물렀다.

217 설봉雪峰에 있는 설령雪嶺을 말한다. 설봉에는 설봉 의존이 개창한 송성사崇聖寺가 있다.

소수 산주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소?”

그 스님이 대답하였다.

“취암<sup>218</sup>에서 왔습니다.”

“취암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대중들을 가르치는가?”

“취암께서는 평소에 항상 ‘문 밖으로 나서면 미륵을 만나고, 문 안으로 들어서면 석가모니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수 산주가 물었다.

“그렇게 말하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화상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 밖으로 나서면 누구를 만나고, 문 안으로 들어서면 무엇을 보겠는가?”

그 스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修山主問僧 甚麼處來 僧云翠嵒來 師云翠嵒有何言句示徒 僧云和尚尋常道 出門逢彌勒 入門見釋迦 師云與麼道又爭得 僧便問和尚 又如何 師云出門逢阿誰 入門見甚麼 僧於言下有省

## 90. 자방<sup>子方</sup> 스님

자방<sup>子方</sup> 스님이 법안에게 여쭈었다.

“선사께서는 오래도록 장경<sup>長慶</sup><sup>219</sup> 스님을 모시다가 나중에는 지장 스님의 법을 이으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소?”

법안이 대답하였다.

---

218 취암 영참<sup>翠巒令參</sup>. 생몰연대 미상. 중국 당대<sup>唐代</sup> 스님. 취암은 주석하던 산 이름. 설봉 의존의 법사로서 명주<sup>明州</sup> 취암산에 머물렀다.

219 장경 혜릉<sup>長慶慧稜</sup>. 854~932. 당말<sup>唐末</sup> 오대<sup>五代</sup> 스님. 설봉 문하. 장경은 주석하던 절 이름. 13세에 출가하여 영운<sup>靈雲</sup>·지근<sup>志勤</sup>·설봉<sup>雪峰</sup>·의존<sup>義存</sup>·현사<sup>玄沙</sup>·사비<sup>師備</sup> 등을 친학하고, 설봉의 법을 이어받았다. 장흥<sup>長興</sup> 3년 5월 17일 입적하였다.

“만 가지 형상 중에 제 한 몸이 드러났다’라고 하신 장경 스님의 설법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오.”

자방이 불자拂子를 들어 보이니 법안이 물었다.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는 것이오, 없애지 못하였다는 것이오?”

“만 가지 형상을 없애지 못하였소.”

“제 한 몸이 드러났구려. 허허.”

자방이 말하였다.

“만 가지 형상을 없애었소.”

법안이 말하였다.

“만 가지 형상 속이오. 허허.”

자방은 이 말을 듣고 종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하마터면 이번 생을 헛되게 보낼 뻔했구나.”

僧子方問法眼曰 公久親長慶 乃嗣地藏何意耶 法眼曰以不解長慶說萬相之中獨露身故  
子方舉拂子示之 法眼曰撥萬相不撥萬相 子方云不撥萬相 法眼云獨露身 吻 子方又云  
撥萬相 法眼曰萬相之中 吻 子方於是悟旨 嘆曰 我幾枉度此生

## 91. 소수 산주紹修山主

소수 산주紹修山主가 법안法眼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법안이 물었다.

“옛 사람들이 ‘만 가지 형상 중에 제 한 몸이 드러났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는 것입니까, 없애지 못하였다는 것입니까?”

소수 산주가 말하였다.

“만 가지 형상을 없애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애었다, 없애지 못하였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소수 산주가 헛갈려서 지장 선사에게 찾아갔다. 지장 선사가 소수 산주에게 물었다.

“그대는 떠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왜 다시 찾아왔는가?”

소수 산주가 말하였다.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어찌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그대가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녔다니 그것도 나쁘지는 않구나.”

소수 산주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물었다.

“옛 사람들이 ‘만 가지 형상 중에 제 한 몸이 드러났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장이 말하였다.

“그대라면 옛 사람이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고 말하겠는가, 없애지 못했다고 말하겠는가?”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두 가지 다다.”

소수 산주가 혼란스러워 생각에 잠겼다가 말하였다.

“옛 사람이 만 가지 형상을 없앴다는 말인지, 없애지 못하였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안이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을 만 가지 형상이라고 하는가?”

소수 산주가 그제야 크게 깨달아 지장에게 절을 올리고 나서 법안을 찾아뵈었다. 법안께서 말씀하신 뜻이 지장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과 한결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修山主與法眼談次 法眼問曰 古人道萬相之中獨露身 是撥萬相 不撥萬相 山主云不撥萬相 法眼云說甚麼撥不撥 山主懵然却回地藏 藏問曰子去未久 何以却來 山主云有事未決 豈憚跋涉山川 藏曰汝跋涉許多山川也不惡 山主不諭其旨 乃問曰 古人云萬相之中獨露身意旨如何 藏曰汝道古人撥萬相不撥萬相 山主云不撥 藏曰兩個 山主駭然沉思而却問曰未審古人撥萬相 不撥萬相 藏云汝喚甚麼作萬相 山主方大悟 拜辭地藏 觀于法眼 法眼語義與地藏開示前後一如

## 92. 용아 거둔龍牙居遜

거둔居遜<sup>220</sup> 선사가 영남嶺南에서 오자 암두峩頭가 물었다.

---

220 용아 거둔龍牙居遜, 835~923. 중국 당말唐末 오대五代 스님. 청원 문하. 용아는 주석하던 산 이름. 14세에 출가하여 송악에게 수계한 다음 제방을 편력하다가 동산 양개에게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

“영남의 한 어른(거둔 선사)께서는 공덕을 성취하셨소?”

거둔 선사가 대답하였다.

“성취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점안點眼<sup>221</sup>이 부족합니다.”

“점안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암두가 다리 하나를 아래로 내려뜨리니 거둔 선사가 절을 올렸다. 암두가 물었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소?”

거둔 선사가 대답하였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큰 화로 위에 남아 있는 한 송이 눈과도 같았습니다.”

“사자가 잘도 포효하는구나.”

거둔 선사가 계송으로 말하였다.

이번 생에서 쉬지 못하면 그 언제 쉴까.

쉬는 것은 금생의 일임을 모두 알아야 하리.

마음이 쉬는 것은 망상이 없어짐을 인연할 뿐이니

망상이 끊어져 마음이 쉬면 그게 바로 쉬는 때이네.

居遜禪師自嶺南來 嵐頭問曰 嶺南一尊功德 還成就也未 遁曰成就久矣 只欠點眼在 頭  
曰要點眼麼 遁曰要頭垂下一足 遁禮拜 頭云汝見个甚麼道理 遁曰據吾所見 如洪爐上  
一點殘雪 頭曰師子兒善能哮吼 師頌云

此生不息息何時 息在今生共要知

心息只緣無妄想 妄除心息是休時

또 계송으로 말하였다.

소를 찾으려면 발자국을 찾아야만 하고

도를 배우려면 무심無心을 찾아야 하리라.

발자국만 있으면 소가 있는 법이고,

---

고서 담주 용아산에 머물렀다. 후량後梁 용덕龍德 3년 9월 13일 입적하였다.

221 새로 조성한 불상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 것. 개안開眼 · 개광開光이라고도 한다. 어떤 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마지막 일을 뜻한다.

무심하기만 하면 도를 찾기가 쉽네.

又云

尋牛須訪跡 學道訪無心

跡在牛還在 無心道易尋

또 계송으로 말하였다.

생각건대 문 앞의 나무는

새가 깃들거나 날아가는 것을 잘도 포용하고 있구나.

오는 자에게도 무심하고

날아가는 자도 사모하지 않네.

사람의 마음이 나무와 같다면

도와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又云

惟念門前樹 能容鳥泊飛

來者無心喚 騰身不慕歸

若人心似樹 輿道不相違

## 93. 분양 무덕汾陽無德

분양 무덕汾陽無德<sup>222</sup> 화상이 어느 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술과 고기와 지전紙錢을 찾으시며 속세를 벗어나지 못하니 그것들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야겠다.”

그리고 나서 고당庫堂에서 차비를 차리게 하고 위패를 설치하고 세속의 예를 따라서 술을 올리고 고기를 쌓아 놓고 지전을 만들었다. 지사知事<sup>223</sup>와 두수頭首<sup>224</sup>를

---

<sup>222</sup> 분양 선소汾陽善昭, 947~1024, 중국 오대말五代末 송대宋代 스님. 임제종. 분양은 주석하던 지역 이름. 제방 선사들에게 역참한 후 수산 성념 회하에서 깨달음을 얻고 법을 이어받았다. 분양 태자원太子院에 머물면서 종묘를 설하였다. 무덕無德은 시호이다.

<sup>223</sup> 선원 사무 · 규율 등을 담당하는 직책. 송초宋初 무렵까지는 4지사知事(監院 · 維那 · 典座 · 直歲)였다가

모두 모이게 하여 그 남은 음식들을 흘러 놓게 하니 지사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무덕 화상이 혼자 그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먹고 마셨다. 이에 대중들이 모두 말하였다.

“술 마시고 고기 먹은 스님을 어찌 스승으로 모실 수 있겠는가?”

비웃으면서 모두 가버리고 자명慈明, 대우大愚, 전대도泉大道 등 예닐곱 명만 남았다.

무덕 화상이 그 다음 날 법당에 올라 말하였다.

“많은 쓸모없고 천박한 귀신들이 한 상의 술과 고기를 먹어 치우고 두 둉이의 지전을 없애기에 쫓아버렸다. 『법화경』에서 ‘이 대중들 중에는 가지와 잎사귀는 없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곧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汾陽無德和尚 一日謂衆曰 夜來夢中 亡父母 觓酒肉紙錢 未免徇俗 置以祀之 事辦於庫堂 設位如俗 閒禮酌酒行肉 化紙錢訖 令集知事 頭首散其餘盤 知事輩却之 無德獨坐筵中 飲啖自若 大衆皆曰酒肉僧豈堪爲師法耶 腰包盡去 唯慈明大愚泉大道等六七人在焉 無德翌日上堂云 許多閑鬼野神 只消一盤酒肉兩陌紙錢 斷送去了 法華經云 此衆無枝葉 唯有一眞實 便下座

## 94. 동사 여회東寺如會

동사東寺<sup>225</sup> 화상이 양산仰山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양산이 대답하였다.

---

부사副寺(副院)가 추가되어 5지사, 도사都寺가 첨가되어 6지사가 되었다.

224 선원에서는 감원監院 · 유나維那 · 전좌典座 등을 지사知事라고 부르고, 수좌首座 · 서기書記 · 장주藏主 · 지객知客 · 육주浴主 등을 두수頭首라고 불렀다. 중국의 선림에서 조정의 문무 양반제를 본떠 지사와 두수의 양반제를 설치한 것이다.

225 동사 여회東寺如會. 744~823.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 문하. 동사는 주석하던 절 이름. 어려서 출가하여 경산 국일徑山國一에게 침학한 후, 마조 도일에게 침학하여 법을 이어받았다. 호남湖南 동사東寺에 머물면서 마조의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다.

“광남廣南 사람입니다.”

“나는 광남에 진해명주鎮海明珠<sup>226</sup>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적 있는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구슬은 어떤 색깔인가?”

“보름에는 나타나고 그믐에는 숨어버립니다.”

동사 화상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노승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양산이 두 손을 마주잡고 앞으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제가 어제 위산에 도착했을 때 위산께서도 역시 제게 그 구슬에 대해 물으셨으나 말로도 바로 대답해 드릴 수가 없었고, 그 이치를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東寺和尚問仰山 汝是什麼人 山曰廣南人 寺曰我聞廣南有鎮海明珠 曾收得不 山曰收得來 寺曰珠作何色 山曰白月卽現 黑月卽隱 寺曰何不呈似老僧看 山叉手近前云 惠寂昨到鴻山 被索此珠 直得無言可造 無理可伸

## 95. 원오 극근圓悟克勤

원오 극근圓悟克勤<sup>227</sup> 화상이 불감佛鑑 선사에게 물었다.

“이 이치는 어떠한가?”

불감이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문득 원오에게 말하였다.

“양산이 동사 화상을 만났던 인연을 내가 말하리라. 동사께서 당시에 명주 한 알만을 찾았기 때문에 양산이 당장에 하나의 그릇을 내놓았던 것이다.”

원오는 그 말에 깊이 수긍하였다.

226 보주의 빛이 밝은 달과 같아 명월주明月珠 또는 명월마니明月摩尼라고도 한다. 이 구슬은 흐린 물을 맑게 하는 덕과 바다를 진압하는 위력을 가졌다.

227 원오 극근圓悟克勤, 1063~1125. 중국 송대宋代 스님. 임제종 양기파. 어려서 출가하여 여러 곳의 고승에게 참학한 뒤 오조 법연의 제자가 되었다. 후에 금산에 갔다가 병을 얻어 다시 법연 문하에 돌아와 법을 이어받았다. 소각사, 협산사, 도림사에 머물면서 설두 송고를 문인에게 제창하고 수시垂示, 착어著語, 평창評唱하였는데, 문인들이 이것을 모아 『벽암록』을 엮었다. 소홍紹興 5년 8월 입적하였다. 문하에 대혜 종고, 호구 소룡 등 100여 명이 있다.

圓悟勤和尚謂佛鑑禪師曰 此理如何 佛鑑其時無語 忽一日謂圓悟曰 仰山見東寺因緣  
我有語也 東寺當時只索一顆明珠 仰山當下 傾出一栲栳 圓悟深肯之

## 96. 천태 德 소 天 台 德 詔

천태 德 소 天 台 德 詔<sup>228</sup> 국사는 지자<sup>229</sup> 대사의 후신이다. 15살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인도 스님이 그를 보고 출가시켰다. 당나라 동광同光<sup>230</sup> 연간에 서주舒州로 가서 투자산의 암주菴主를 친견한 뒤에 용아龍牙와 소산疎山을 차례로 친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무려 54인의 선지식을 두루 참학하였지만 모두 다 법의 인연을 맺지 못하였다. 임천臨川으로 가서 정혜淨惠를 알현하였는데 거기에서는 그저 대중들과 함께 지낼 뿐 따로 나아가서 법을 여쭙지는 않았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법안 화상에게 물었다.

“온종일 어떻게 하면 모든 인연을 쉴 수 있겠습니까?”

법안 화상이 말하였다.

“공空이 그대와 인연이 되던가, 색色이 그대와 인연이 되던가? 공이 인연이 된다고 하면 공은 본래 인연이 없는 것이며, 색이 인연이 된다고 하면 색과 마음은 둘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날마다 쓰는 것 중에 어떤 물건이 그대와 인연이 되겠는가?”

덕소 국사는 이 대화를 듣고 전율이 일 만큼 기이하게 느꼈다.

天台德詔國師者 智者大師後身 年十五有梵僧見之 勉令出家 唐同光中詣舒州 見投子  
菴主 次謁龍牙疎山 如是歷叅凡五十四人 皆法緣不契 至臨川謁淨惠 但隨衆而已 無所

---

228 891~972. 당말唐末 송초宋初 스님. 법안종. 천태는 주석하던 산 이름. 17세에 출가하여 50여 명의 선사들에게 역참한 뒤에 법안 문의의 법을 이어받았다. 천태산에 들어가서 지자智者 대사의 도량 수십 곳을 부흥하였다. 북송北宋 개보開寶 5년 6월 28일 입적하였다.

229 천태 지의天台智顥, 538~597. 위진남북조魏晋南北朝 스님. 천태종의 개조. 천태는 주석하던 산 이름. 지자智者 대사라고도 한다. 18세에 출가하여 『열반경』·『법화경』을 배우고, 광주光州 남악 해사南嶽慧思에게 사사하여 법화삼매의 체득에 전념하였다. 569년 와관사瓦官寺에 머물면서 『법화경』·『대지도론』 등을 강의하며 선을 가르쳤다. 후세에 이 해를 천태 개종의 원년으로 삼았다.

230 후당後唐 장종莊宗 연간(923~926)의 연호이다.

咨叅 有僧問法眼曰 十二時中 如何得頓息萬緣去 眼曰空與汝爲緣耶 色與汝爲緣耶 言空爲緣 則空本無緣 言色爲緣 則色心不二 日用果何物爲汝緣乎 詔聞悚然異之

또 다른 어느 날 한 스님이 법안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원曹源의 물 한 방울입니까?”

법안이 말하였다.

“조원의 물 한 방울이 바로 그것이다.”

그 스님은 어리둥절해 하였지만 덕소 국사는 법안 화상을 곁에 있다가 활연히 크게 깨달았고 평생 동안에 영기고 막혀 있던 것이 얼음 녹듯 풀어졌다. 그리하여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법안에게 말씀드리니, 법안이 말하였다.

“그대는 나중에 국왕의 스승이 될 것이요, 나아가 조사祖師<sup>231</sup>가 되어 그 도의 빛이 광대하여 나는 그보다 못하리라.”

이로부터 온 세상의 제각기 다른 주장과 고금의 현묘한 관건을 모두 해결하였고 미미한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았다.

又一日有僧問如何是曹源一滴水 眼云是曹源一滴水 其僧惱然 師於座側 豁然大悟 平生凝滯渙然冰釋 遂以所悟聞于法眼 眼曰汝向後當爲國王所師 致祖道光大 吾不如也 自此諸方 異唱古今玄捷 與之決擇 不留微跡

어느 날 덕소 국사가 법당에 올라 법문하였다.

“영산靈山(부처님)의 부축은 분명한 것이었으니, 여러 상좌들은 일시에 체득하라. 만약 체득하면 다시 별다른 이치가 없을 것이니 그저 지금과 같을 뿐이리라. 마치 허공에 떠있는 밝은 해와 어둔 구름, 산하대지와 일체 유위 세계가 모두 다 밝게 나타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나아가 무위의 법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세존께서 가섭에게 부축하신 아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한 텔끝만큼이라도 차별이 없었고,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법을 부축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마음은 본래부터 마음이며, 본래의 마음은 법이 없다. 법이 있고 본래 마음이 있다면, 마음도 아니요 본래의 법도 아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영산에서 부축하신 방

---

231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 면면히 전해져 오는 불심을 체득하여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는 수행과 지견을 갖춘 선승.

법이다.

상좌들이여!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국왕의 은혜는 보답하기 어렵고 여러 부처님들의 은혜도 보답하기 어려우며, 부모와 스승의 은혜도 보답하기 어렵고 시주의 은혜도 보답하기 어렵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도안道眼<sup>232</sup>을 밝게 끼뚫어 바다같은 반야의 성품에 들어야만 할 것이다. 오랫동안 서 있느라 애썼다. 잘들 있어라.”

一日上堂曰 靈山付囑分明 諸上座一時驗取 若驗取得 更無別理 只是如今 比如大虛日明雲暗 山河大地一切有爲世界 悉皆明現 乃至無爲法 亦復如是 自世尊付囑迦葉 迄至于今 並無絲毫差別 更付阿誰 所以祖師云 心自本來心 本心非有法 有法有本心 非心非本法 此是靈山付囑榜樣 諸上座徹底會取好 國王恩難報 諸佛恩難報 父母師長恩難報 施主恩難報 若要報恩 應須明徹道眼 入般若性海始得 久立珍重

## 97. 설봉 의존雪峯義存

설봉雪峯 선사가 암두와 함께 예주澧州 오산진鼈山鎮에 가셨다가 폭설로 길이 막혔다. 암두는 매일 잠만 잤고 설봉은 언제나 좌선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설봉이 암두를 깨웠다.

“사형, 사형! 일어나십시오.”

암두가 말하였다.

“무슨 일인가?”

“금생에 너무 편히 지내지 마십시오. 문수文邃<sup>233</sup>란 놈과 행각하는 곳마다 다른 이들에게 폐만 끼쳤는데 이번에는 사형님과 이곳에 도착했는데 또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구려.”

암두가 꾸짖으며 말하였다.

“잠이나 자라. 잠이나 자라. 일곱 집 마을의 토지신土地神처럼 매일 평상 위에 앉

---

232 불도에의 견식見識. 도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

233 흠산 문수欽山文邃를 말한다.

아 있더니 다른 날 다른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 남녀들을 훌리겠구나.”

설봉 선사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말하였다.

“저는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하고 감히 저 자신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암두가 말하였다.

“나는 그대가 나중에 높은 산봉우리에 암자를 짓고 진리를 크게 펼칠 것으로 여겼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저는 마음이 매우 편하지 않습니다.”

암두가 말하였다.

“정말 그러하다면 그대가 깨달은 것을 날낱이 말해 보라. 내가 그대에게 옳은 곳은 증명해 보이고, 옳지 않은 곳은 다듬어 주겠노라.”

雪峯與嵒頭 同至澧州鼈山鎮阻雪 頭每日打睡 師一向坐禪 一日喚云 師兄師兄且起來  
頭云作什麼 師云今生不着便 共文邃个漢 行脚到處 彼他滯累 今日與師兄到此 又只管  
打睡 頭喝云 噌眠去噠眠去 每日床上坐 恰似七村裏土地相似 他時後日魔魅人家男女  
去在 師自點胸云 某甲這裏未穩在 不敢自謾 頭曰我將謂你他後向孤峯頂上 盤結草菴  
播揚大教 猶作者个語話 師云某甲實未穩在 頭云若實如此 據你見處 一一通來 是處我  
與你證明 不是處與你劃却

설봉 선사가 말하였다.

“제가 처음 염관<sup>234</sup> 스님이 계신 곳에 당도하였을 때에 염관 스님이 법당에 오르셔서 색과 공空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암두가 말하였다.

“이로부터 30년 후에라도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오.”

또 설봉이 동산의 계송을 인용하였다.

절대 남을 따라서 찾지 말아야 하니

나와는 아득하게 멀기 때문이네.

나 이제 홀로 가려 하니

---

234 염관 제안鹽官齊安. ?~842.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 문하. 염관은 주석하던 지역 이름. 향리의 운종雲琮에게로 출가하여 남악 지역에 구족계를 받고, 마조 도일에게 침구하여 그 법을 이어받았다. 회창會昌 2년 12월 22일 입적하였다.

곳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리라.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아니고  
나는 지금 바로 그 사람이네.  
이렇게 알아야만  
여여함에 계합하리라.

암두가 말하였다.

“그와 같이만 알고 있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오.”

師云某甲初到鹽官 見鹽官上堂舉色空義 得个入處 頭云此去三十年 切忌舉着 又因洞  
山偈云

切忌從他覓 迢迢與我踈  
我今獨自往 處處得逢渠  
渠今不是我 我今正是渠  
應須恁麼會 方得契如意  
頭云若恁麼自救 也不徹在

설봉 선사가 말하였다.

“제가 훗날에 덕산德山 스님에게 ‘대대로 이어 내려온 종승의 일에 관해서 저에게  
도 배울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고 여주니, 덕산께서 방망이로 한 대 때리시면서 ‘뭐  
라 하였는가’ 하고 대답하셨는데, 그때 활연히 통 밑이 쑥 빠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암두가 큰소리로 꾸짖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집안의 보물이 아니다’<sup>235</sup>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도 못하였소?”

설봉 선사가 물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암두가 대답하였다.

“참으로 잘 물었소. 그 후에 위대한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자 한다면 하나같이

---

235 외부에서 구하는 것은 본래 소장되어 있는 가보家寶가 아니라는 뜻이다. 진짜 중요하고 귀한 것은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자기 성품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것을 가지고서야 나와 더불어 천지를 덮을 수 있을 것 이오.”

설봉 선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닫고 일어나 절을 올린 뒤에 연달아서 말하였다.

“오늘에야 오산鼈山에서 도를 성취하였습니다.”

師又曰後問德山 從上宗乘中事 學人還有分也無 德山打一棒云 道甚麼 當時豁然 如桶底脫相似 頭喝云你不聞 從門入者 不是家珍 師云他後如何卽是 頭云解問解問 他後若欲播揚大教 一一從自己胸襟流出 將來與我蓋天蓋地去 師於言下大悟 便作禮起連聲 云 今日始是鼈山成道也

설봉과 암두, 흠산 세 사람이 소상강에서 강남으로 들어가 신오산新吳山 아래에 이르렀다. 흠산이 시냇가에서 발을 씻다가 채소 잎 하나를 발견하고서 기뻐하며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산에는 반드시 도인이 살고 있을 것이오. 물을 따라 내려가서 그분을 만나 뵈어야겠소.”

이에 설봉이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지혜의 눈이 그토록 흐리니 훗날 어떻게 사람을 판별할 수 있겠소? 그대가 이처럼 복을 아끼지 않으니 산 속에 머무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소?”

雪峯嵒頭欽山三人 自湘中入江南 至新吳山之下 欽山濯足磯邊 見一菜葉而喜指 以謂二人曰 此山必有道人 可沿流尋之 雪峯惠云 汝智眼大濁 他日如何辨人 彼不惜福 如此住山何益也

어떤 스님이 산 속에 암자를 짓고 여러 해 동안 머리도 깨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그가 직접 나무 표주박 하나를 만들어 개울가에서 물을 떠 마시고 있을 때 다른 어떤 스님이 그를 보고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오?”

암주가 표주박 자루를 세우면서 대답하였다.

“개울이 깊으면 표주박 자루도 길다오.”

이에 질문을 한 스님이 그 내용을 설봉 선사에게 돌아와서 전하자 선사가 대답하였다.

“참으로 기이하다. 참으로 기이하다.”

雪峯因一僧 在山中卓菴 多年不剃頭 自作一柄木杓 溪邊舀水喫時 有僧見問 如何是祖  
師西來意 主豎起杓子云 溪深杓柄長 僧歸舉似師 師云也甚奇怪 也甚奇怪

어느 날 설봉 선사가 시자에게 머리 깎는 칼을 들려서 가다가 문득 그 스님을 만나 말하였다.

“말을 잘 하면 그대의 머리를 깎지 않으리라.”

그러자 암주인 그 스님이 얼른 머리를 감고 선사 앞에 끓어앉았다. 이에 설봉 스님은 그의 머리를 깎아 주었다.

師一日與侍者 將剃刀去 才相見 便問道得則不剃汝頭 主便洗頭 胡跪師前 師便與他剃  
却之

## 98. 장로長蘆 화상

장로長蘆 화상이 이 이야기와 더불어 동산 스님이 행각했을 때의 일을 예로 들어서 말하였다.

“동산 스님이 한 암주에게 ‘어떤 도리를 보아서 이 산에서 머무는 것인가’ 하고 묻자 그 암주는 ‘저는 두 마리 진흙 소가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장로 화상은 말하였다.

“여러분, 가문을 잘 만들어내는 것은 저 동산 스님의 말씀이고, 예부터 이어온 참 가풍은 모름지기 설봉의 암주로다.”

長蘆和尚舉此話 幷舉洞山行脚時 問一菴主曰 見个什麼道理 便住此山 菴主云 我見兩  
箇泥牛闖入海 直至今無消息 師曰諸仁者 門庭施設 還他洞山之言 大古真風 須是雪  
峯菴主

## 99. 설봉雪峯 화상

어떤 스님이 설봉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촉목보리觸目菩提<sup>236</sup>입니까?”

설봉 스님이 말하였다.

“그럼 등롱燈籠<sup>237</sup>은 보았소?”

雪峯因僧問 如何是觸目菩提 師云還見燈籠麼

## 100. 대수 법진大隨法眞

어떤 스님이 대수 법진大隨法眞<sup>238</sup> 선사에게 물었다.

“겁화劫火<sup>239</sup>가 활활 타올라서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 하였는데, 이 것도 무너집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저것을 따라야겠습니다.”

“저것을 따라가라.”

그 스님이 다시 수 산주修山主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자 수 산주가 대답하였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

236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리라는 말이다.

237 등롱이란 법당 앞에 놓인 석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선어록에서 노주露柱와 짹이 되어 무정물을 지칭 하나, 이것이 무슨 의미로 선어록에 등장하는지는 불분명하다.

238 834~919. 중국 당말唐末 오대五代 스님. 남악 문하. 혜의사慧義寺에서 출가하여 위산 영우 회하에서 득도하였다. 복주 대안福州大安의 법을 이어받고 사천성으로 돌아가 덕실심후德實深厚한 성풍으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239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간은 성주과공成住壞空의 4주기를 반복하는데 괴겁 때에 온 세상에 불이 가득 타올라 온통 태워 버린다. 이 불을 겁화라 한다.

“어찌하여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삼천대천과 같기 때문이다.”

大隨法眞禪師因僧問 劫火洞然 大千俱壞 未審者個還壞也無 師云壞 僧云恁麼則隨他去也 師云隨他去也 又問修山主如前 修云不壞 云爲甚麼不壞 修云爲同大千

어떤 스님이 대수 법진 선사에게 물었다.

“대수산大隨山 속에도 부처님 법이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있소.”

“어떤 것이 대수산 속에 있는 부처님 법입니까?”

“큰 돌은 크고, 작은 돌은 작으니라.”

〔“긴 것은 긴 법신法身이고 짧은 것은 짧은 법신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한 “가파른 절벽을 무너뜨리면 본래의 참됨을 잃게 되고 나머지는 나그네의 눈앞의 터끌에 지나지 않는다. 바라건대 그대들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여겨서 스스로의 법신만을 공부하는 데에 허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大隨因僧問 大隨山裏還有佛法也無 師云有 云如何是大隨山裏佛法 師云石頭大底大小底小  
〔如云長者長法身 短者短法身 又如鑿破蒼崖喪本眞 剩爲行客眼前塵 請君試見他山石 不費功夫自法身〕

## 101. 지통智通 선사

지통智通<sup>240</sup> 선사가 귀종歸宗 선사 아래에 있었을 때이다. 어느 날 밤 숭당을 돌면서 갑자기 외쳤다.

“나는 크게 깨달았다!”

이 소리를 듣고 대중들이 모두 놀랐다.

---

240 마조의 제자인 지상智常 선사.

다음 날, 귀종 선사가 법당에 올라 대중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크게 깨달았다고 말한 스님은 나오너라.”

지통 선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입니다.”

귀종 선사가 물었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기에 크게 깨달았다고 하였는가?”

“비구니 스님은 원래 여인이 그리 된 것입니다.”

智通禪師 在歸宗會下 忽一夜巡堂叫云 我已大悟也 大衆駭之 明日宗上堂集衆問 昨日大悟底僧出來 師出云智通 宗云汝見个甚麼道理 言大悟試說似看 對曰師姑元是女人造

## 102. 현정玄挺 선사

어느 날 현정玄挺 선사가 5조 스님<sup>241</sup>을 모시고 있었는데 『화엄경』을 공부하는 어떤 스님이 5조 스님께 와서 여쭈었다.

“참된 성품 중에 연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5조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으니 현정 선사가 말하였다.

“대덕(화엄승)께서 바로 한 가지 생각을 일으켜서 여쭈러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성품 중에 연기한다는 것이오.”

그 스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玄挺禪師 一日侍立五祖次 有華嚴僧來問 五祖真性中緣起 其意云何 祖默然 師乃謂曰 大德正興一念問來時 是真性中緣起 其僧言下大悟

---

241 우두 지위牛頭智威, 646~722, 중국 당대唐代 스님. 우두종의 제5조. 우두는 주석하던 산 이름. 우두 법지牛頭法持에게 참학하고 법을 이어받았다. 우두산에 머물면서 법지의 종풍을 선양하자, 많은 운衲이 모여 그의 법을 참학하였다.

## 103. 보수寶壽 화상

보수寶壽 화상이 어느 날 시장에서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방 갈기자 맞은 사람이 소리 질렀다.

“그렇게도 면목이 없느냐?”

선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이 말은 ‘면목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천자天子의 옷소매가 벗겨지면 온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寶壽和尚 一日在市裏 見二人相諍 一人把住劈面打一拳 彼云得恁麼無面目 師於此大悟 〔拈云還知他伊麼道無面目麼 龍袖拂開全體現〕

## 104. 신안神晏 국사

신안神晏<sup>242</sup> 국사가 어느 날 설봉을 친견하러 갔는데, 설봉은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알고서 느닷없이 일어나 멱살을 잡고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인가?”

국사는 그 말에 시원스레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은 마음마저 잊어버리고 그저 손을 들어 흔들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설봉이 물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얻었소?”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설봉이 이에 국사를 어루만지며 인가하였다.

神晏國師 一日參雪峯 峯知其緣熟 忽起扭住云 是甚麼 師釋然了悟 亦忘其了心 唯舉手搖拽而已 峯曰汝作道理耶 師云何道理之有 峯乃撫而印之

---

242 고산 신안鼓山神晏, ?~943. 중국 당말唐末 오대五代 스님. 남악 문하. 고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 설봉의준의 법을 이어받았다. 복주 고산에 용친선원湧遷禪院을 창건하여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으며, 천복天福 8년 입적하였다.

## 105. 영운 지근靈雲志勤

영운 지근靈雲志勤<sup>243</sup> 선사가 위산의 회하에 있을 때 복숭아꽃을 보고 도를 깨닫고서 계송으로 말하였다.

검<sup>244</sup>을 찾아 30년을 떠돌던 나그네여.  
몇 차례나 낙엽 지고 가지가 돌았던가.  
한번 복숭아꽃을 보고 난 후로는  
지금까지 다시는 의심하지 않네.

이를 위산에게 말씀드리니, 위산은 말하였다.

“인연을 따라서 깨달아 통달하게 되었으니 영원히 잊지 말아라. 스스로를 잘 지키고 간직하라.”

靈雲志勤禪師 在鴻山會下 因見桃花悟道 有偈曰  
三十年來尋劍客 幾廻落葉又抽枝  
自從一見桃花後 直至如今更不疑  
舉似鴻山 山云從緣悟達 永無退失 善自護持

## 106. 양산 혜적仰山慧寂

어느 날 양산仰山 선사가 향엄香嚴<sup>245</sup> 스님을 만나 이렇게 물었다.

“요즈음 사형께서 깨달으신 경지는 어떻소?”

향엄이 대답하였다.

---

243 생몰연대 미상. 중국 당대唐代 스님. 위산 영우의 법을 이었다. 복주 대안·설봉·의존·현사·사비에게 역참하다가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일화가 전한다.

244 검은 번뇌를 끊는 지혜를 상징한다.

245 향엄 지한香嚴智閑. ?~898. 중국 당대唐代 스님. 남악 문하. 향엄은 주석하던 산 이름. 어린 시절 백장 회해 선사에게 출가하고 위산 영우에게 참학하였다. 남양 해충南陽慧忠의 도량에서 은거하던 어느 날 뜰을 청소하다가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홀연히 깨달아 위산의 법을 이어받게 된다. 그 후 향엄산에 머물면서 위산의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다.

“내가 깨달은 경지는 ‘인식의 대상이 될 법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오.”

“그대의 견해는 아직 경계에 머물러 있구려.”

향엄이 말하였다.

“나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사형께서는 어떻소?”

양산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 인식의 대상이 될 법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르오?”

仰山一日見香嚴 乃問近日師兄見處如何 嚴云據我見處 無一物可當情 師云你解猶在境 嚴云某甲只如是 師兄又作麼生 師云你豈無能知無一法可當情者

## 107. 경조 미호 京兆米胡

경조 미호 京兆米胡<sup>246</sup> 화상이 王王 상시 常侍<sup>247</sup>를 만나러 갔는데 상시가 집무를 보다가 봉을 들어 보였다. 미호 화상이 물었다.

“허공도 판결하시오?”

상시는 봉을 던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선사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미호 화상이 매우 의아해 하였는데 다음 날 빙화암 憑花嚴 화상이 상시와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물었다.

“어제 미호 화상이 무슨 말을 하셨기에 만나려 하지 않았소?”

상시가 대답하였다.

“사자는 사람을 물고, 한韓나라의 개는 흙덩이를 쫓아다니는구려.<sup>248</sup>”

미호 화상이 이 말을 듣고 얼른 나가서 쾌활하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이제 알겠구나. 내가 이제 알겠구나.”

“깨달으신 바가 없지는 않을 것이니,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오.”

---

246 생몰연대 미상. 중국 당대 唐代 스님. 경조는 출신지 이름. 미 米 화상 또는 미칠사 米七師라고도 한다. 위산 영우의 법을 이어받았다.

247 관직 이름. 천자 天子나 높은 벼슬아치 곁에서 사무를 보는 비서관에 해당하는 벼슬.

248 한로축과 韓爐逐塊.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정작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로는 중국 한韓나라 때의 텔이 검은 명견名犬을 말한다.

“상시께서 먼저 말해 보시오.”

상시가 이에 젓가락 한 짹을 세우자 미호 화상이 말하였다.

“이 여우 같은 사람아!”

상시가 말하였다.

“이 사람이 이제야 알았구나.”

京兆米胡和尚訪王常侍 常侍視事次 乃舉筆示之 師曰還判得虛空麼 侍乃擲下筆入宅  
更不復見師 致疑明日憑花嚴 置茶筵次 設問昨日米胡和尚有何言句 便不得相見 侍云  
師子咬人 韓獮趁塊 師才聞 乃遽出朗笑曰 我會也我會也 侍云會卽不無 你試道看 師  
云請常侍舉 侍乃豎起一隻箸 師云者野狐精 侍云者漢徹也

미호 화상이 어떤 스님을 시켜서 양산 스님에게 여쭈었다.

“요즘 사람도 짐짓 깨닫는 바가 있습니까?”

양산이 대답하였다.

“깨닫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제이두第二頭<sup>249</sup>에만 빠져드는 것을 어찌하겠소.”

미호 화상이 이 말에 깊이 수긍하였다.

米胡和尚 令僧問仰山云 今時人還假悟也未 山云悟則不無 爭乃落在第二頭何 師深  
肯之

## 108. 경산 법흥徑山法欽

경산徑山<sup>250</sup> 선사가 대종代宗<sup>251</sup>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도착하니 황제가 친히 예를 올렸다. 하루는 경산 선사가 궁 안에 있다가 황제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황제가 물었다.

“스님께서 어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까?”

---

249 한 발 늦어짐, 또는 지극하고 완전한 이치가 아닌 두 번째 이치.

250 경산 법흥徑山法欽(일명 道欽, 714~792). 중국 당대唐代 스님. 경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 처음에는 유교를 공부했지만 28세에 우연히 학림 현소鶴林玄素를 만나서 출가하였다.

251 당나라 황제(재위 기간 763~799). 경산 도흥의 도풍道風을 흡모하여 귀의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경산 선사가 대답하였다.

“단월檀越<sup>252</sup>께서는 어째서 네 가지 위의<sup>253</sup> 중에서 저를 보려 하십니까?”

대종이 크게 기뻐하였다.

徑山因代宗詔 至闕下 親加瞻禮 一日師在內 見帝起立 帝曰師何以起 師云檀越何得向  
四威儀中見貧道 帝大悅

## 109. 덕산 선감德山宣鑑

덕산 선감德山宣鑑<sup>254</sup> 선사가 처음으로 용담龍潭에 와서 말하였다.

“오래도록 용담을 동경해 왔었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 연못도 보이지 않고 용도 나타나지 않소이다.”

용담龍潭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친히 용담에 도착하였구려.”

덕산 선사는 절을 하고 물러갔다.

德山宣鑑禪師 初到龍潭 問久嚮龍潭及乎到來 潭又不見 龍又不顯 潭云子親到龍潭 師作禮而退

덕산이 용담의 방에서 늦게까지 입실하고 있으니 용담이 말하였다.

“그대는 이제 돌아가거라.”

덕산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어 올리고 나오다가 밖을 바라보니 너무 어두웠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말하였다.

---

252 dāna-pati. 시주. 수행자나 절에 필요한 물건을 베푸는 신자. 단檀은 보시를 뜻하는 단나檀那(dāna)에 서 온 말이다.

253 행주좌와行住坐臥의 행동거지.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모습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다.

254 782~865. 중국 당대唐代 스님. 청원 문하. 덕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 20세에 출가하여 처음에는 경과 을 공부, 『금강반야경』에 정통하여 주금강周金剛이라고도 불렸다. 용담 승신을 만나 30여 년 동안 침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고, 덕산에 머물면서 분방 호쾌한 선풍을 널리 선양하였다. 그 당시 중국의 두 가지 대표적 선풍을 ‘덕산방德山棒 임제할臨濟喝’이라는 어구로 표현하고 있다.

“화상이시여, 밖이 너무 어둡습니다.”

용담이 지축紙燭에 불을 켜서 덕산에게 건네주었는데 덕산이 막 받아든 순간에 용담이 불어서 불을 꺼버렸다.

그러자 덕산은 자기도 모르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저는 천하 노화상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덕산은 『금강경소초金剛經疏鈔』를 꺼내들고 법당 앞으로 가더니 햇 불 한 자루를 들고 말하였다.

“온갖 현란한 말씀씨를 다 부리더라도 텔 하나를 큰 허공에 두는 것과 같으며, 세상의 온갖 중요한 일들을 다 이루더라도 물 한 방울이 넓은 바다에 던진 것과도 같다.”

그리고 다시 『금강경소초』를 가지고 말하였다.

“그림의 떡으로는 주린 배를 채울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내 『금강경소초』에 불을 지른 뒤에 용담 화상에게 절을 하고 떠났다.

德山在龍潭 入室夜深 潭曰子且下去 師珍重揭簾而出 見外面黑 却廻曰和尚外面黑 潭點紙燭度與 師才接 潭便吹滅 師不覺失聲云 我自今已後 更不疑天下老和尚舌頭 遂取疏鈔 於法堂前 將一炬火提起云 窮諸玄辯 若一毫置於大虛 竭世樞機 似一滴投於巨壑 將疏鈔云 畫餅不可充飢 便燒 於是禮辭師

## 110. 동산 양개洞山良价

동산 양개洞山良价<sup>255</sup> 선사가 운암雲巖<sup>256</sup> 화상에게 물었다.

255 807~869. 중국 당대唐代 스님. 조동종. 동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 어려서 출가하여 영묵에게 사사한 다음, 20세에 승산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남전 보원, 위산 영우에게 참학하고 다시 운암 담성에게 참학하여 대오,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광동 신풍산 및 강서 동산 보리원에 머물면서 세밀한 선품을 고취하였다. 문하에 운거 도응, 조산 본적, 소산 광인 등 27인이 있으며, 후에 조산과 이름을 합하여 5가家の 한 파인 조동종曹洞宗의 고조高祖로 추앙되었다.

256 운암 담성雲巖彙晟. 782~841. 중국 당대唐代 스님. 청원青原 문하. 운암은 주석하던 산 이름. 어려서 출가하여 수년 동안 백장 회해에게 참학하고 그 후 약산 유엄의 법을 이어받은 후, 담주 운암산에 머물면서 종풍을 크게 날렸다. 제자로는 조동종의 개조인 동산 양개가 있다. 회창會昌 원년 10월에 입적하였다.

“백년 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대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겠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운암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하였다.

“그저 이것일 뿐이다.”

동산이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니 운암이 말하였다.

“이 일을 이해하려면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오.”

동산은 여전히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그 후 동산이 개울을 건너다가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본 순간 앞서 운암의 말씀을 떠올리며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이에 동산 화상이 계송으로 말하였다.

애타게 다른 곳에서 찾지 말 것이니

그러면 나와는 더욱더 멀어지리라.

나 홀로 이제 스스로 가려 하니

곳곳에서 그것을 만날 수 있으리라.

저것이 지금 바로 나이고

나는 지금 저것이 아니네.

이렇게 알아야만

여여한 이치와 하나가 되리라.

洞山良价禪師 問雲嵒和尚 百年後忽有人 問還邈得師眞不 如何祇對 嵩良久云只這是  
師佇思 嵩云承當者个事 大須審細 師猶涉疑 後因過水觀影 大悟前旨 乃有偈曰  
切忌從他覓 遙遙與我踈  
我今獨自往 處處得逢渠  
渠今正是我 我今不是渠  
應須恁麼會 方得契如意

동산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겠소?”

그 스님은 대답하였다.

“지옥이 가장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소. 이렇게 가사를 입고 있으면서도 큰 일을 밟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오.”

洞山問僧 世間是甚麼物最苦 僧云地獄最苦 師云不然 向此衣線下 不明大事始是苦

## 111. 청평 영준清平令遵

영준 승<sup>257</sup> 선사가 취미翠微<sup>258</sup> 화상에게 물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정화한 뜻이 무엇입니까?”

취미 화상이 대답하였다.

“아무도 없을 때에 그대에게 말해 주겠소.”

잠시 후 영준 선사가 말하였다.

“아무도 없으니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취미 선사가 선상禪床에서 내려오더니 영준 선사를 대나무 숲으로 데리고 갔다.

영준 선사가 다시 청하였다.

“아무도 없으니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취미 선사가 대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이 대나무는 이만큼 길게 자랐고, 저 대나무는 저만큼 짧게 자랐구나!”

영준 선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令遵禪師問翠微 如何是西來的的意 微云待無人時向汝道 師良久曰無人也 請師說 微  
下禪床 引師入竹林 師又云無人也 請師說 微指竹云 者一竿得恁麼長 那一竿得恁麼短  
師於言下大悟

257 청평 영준清平令遵. 845~919. 중국 당대唐代 스님. 청원 문하. 어린 시절에 보리사에서 출가하여 개원사에서 수계하고 율학을 배웠다. 취미 무학에게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대통선원을 창건하여 그 곳에 머물면서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다.

258 취미 무학翠微無學. 생몰연대 미상. 중국 당대唐代 스님. 청원 문하. 취미는 주석하던 산 이름. 어려서 출가하여 단하 친연丹霞天然에게 참학한 후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취미산에 머물면서 종풍을 널리 선양하는 한편, 인도에서 건너온 운수납자들에게 법을 설하였다.

## 112. 고정 간高停簡 선사

고정 간高停簡 선사가 처음에 강 건너에 있는 덕산을 보고 멀리서 합장하고 큰소리로 인사를 건네었다.

“안녕하십니까?”

덕산이 손에 쥐고 있던 부채로 선사를 부르자 고정 간 선사는 홀연히 크게 깨닫고서 강을 따라 가던 길을 그냥 가며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高亭簡禪師 初隔江見德山 邙合掌呼云 不審 山以手中扇子招之 師忽開悟 乃橫趨而去  
更不廻顧

## 113. 운암 담성雲嵒曇晟

운암雲嵒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가 외고 있는 것이 무슨 경이오?”

스님이 대답하였다.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을 물은 것이 아니라 외우고 있는 것이 무슨 경인지를 물었던 것이오.”

그 스님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雲嵒問僧 閻梨念底是甚麼經 對曰維摩經 師云不問維摩經 念底是甚麼經 其僧從此得入

## 114. 운거 도옹雲居道膺

운거雲居<sup>259</sup> 선사가 동산의 삼봉三峯에 있으면서 암자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 날 동

---

259 운거 도옹雲居道膺. ?~902. 조동종. 운거는 주석하던 산 이름. 어려서 출가하여 여러 곳을 편력한

안 승당으로 나가서 공양을 받지 않았다. 동산이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승당에 나와서 공양을 하지 않는가?”

운거가 답하였다.

“매일 천신天神이 식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대가 될성부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견해를 품는 것인가? 이따 저녁이 되거든 나에게 오너라.”

운거가 늦게 동산을 찾아오자 동산이 그를 불렀다.

“도옹道膺 사리闍梨<sup>260</sup>여!”

운거가 “예” 하고 대답하니 동산이 물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겠는가?”

운거는 곧장 암자로 돌아와서 가부좌를 맷고 앉아 선정에 들었다. 천신이 여려 날 동안을 왔어도 운거를 보지 못하여 울면서 돌아갔다.

雲居在洞山三峯 住菴時 多日不赴堂齋 山問汝因何不赴堂齋 師云每日有天神送食來  
山云將謂汝是箇人猶作者个見解 在晚間上來 師晚至 山召云膺闍梨 師應喏 山云不思  
善不思惡 是甚麼 師便歸菴中宴坐 天神累日來不見 乃哭泣而去

## 115. 천복 승고薦福承古

천복 고薦福古<sup>261</sup> 선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였다.

“상좌들이여, 저 옛 어른들께서는 몸과 마음의 경지가 그러하였는데도 귀신에게 들기셨거늘 하물며 그대들이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하루가 다가고 밤이 지새도록 스

---

뒤에 3년 동안 춰미 무학에게 참학하고, 다시 동산 양개에게 수학하여 대오하였다. 운거산에 머물면서 동산의 법도를 선양하여 비로소 운거파가 조동종 조산 본적曹山本寂의 문류가 되었다. 천복天復 2년 1월 3일 입적하였다.

260 아사리阿闍梨의 준말. 궤법사軌範師·정행正行이라고 번역한다. 스승이 되어 제자를 가르칠 만한 덕을 갖춘 고승을 말하며, 선가에서는 승려의 대명사로 쓰인다.

261 천복 승고薦福承古. ?~1045. 중국 송대宋代 스님. 천복은 주석하던 절 이름. 총림고탑주叢林古塔主라고도 한다. 남악 양야南嶽良雅에게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고 운거 도옹의 탑지기를 하였다. 그 후 천복사에 머물면서 선풍이 퇴색해 가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스로를 속이고 있으니 천신과 토지신이 그대들의 일거수일투족, 좋고 나쁨을 낱낱이 들키고 있는 것이오. 저들에게 들킨 것은 그대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내 말의 큰 뜻은, 모든 수행자들이 참구하고 배우려는 마음도 쉬고 수행하는 마음도 쉬어서 마치 하나의 딱딱한 돌멩이와도 같아져야 하고, 불이 꺼져 싸늘하게 식은 재와도 같아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설령 그대들이 육도만행六度萬行<sup>262</sup>을 미래가 다하도록 닦는다 하더라도 겨우 보신불報身佛<sup>263</sup>이나 화신불化身佛<sup>264</sup> 밖에는 되지 못할 것이다. 보신이나 화신은 진짜가 아니고, 부처 또한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薦福古舉此話云 諸上座 他古人直得身心如是 尚被鬼神見 豈況你今時人終日竟夜自謾 天神土地 一一見得你手脚 好之與惡 伊總識得 爲你這一念心不忘 如今大意 只要諸人息 却叅學底心 息却修行底心 如一塊頑石頭去 如寒灰死火去 若能如是 却得相應分 若不如此 縱你修行六度萬行 乃至盡未來際修 只得个報化佛 不見云報化非真 佛亦非說法者

## 116. 운거雲居 선사

어떤 스님이 운거雲居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한 가지 법입니까?"

선사가 반문하였다.

"어떤 것이 여러 가지 법이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

262 육도六度는 육바라밀이고, 만행萬行은 모든 선행이다. 육바라밀은 모든 선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면 일체一切 만행이 되고, 일체 만행을 섭렵하면 육바라밀로 귀설된다.

263 수행을 완성한 과보로서 모든 이상적인 덕을 갖춘 불신佛身. 과거세에 행한 선근공덕의 과보로서 출현한 몸. 예를 들면, 아미타불은 법장 비구의 후신後身이라는 의미에서 보신이다. 3신身의 하나.

264 부처님이 변화하여 나타낸 몸. 중생을 교화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이 스스로 중생의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것. 응신應身이라고도 한다. 3신身의 하나이다.

선사가 말하였다.

“한 가지 법은 그대의 본래 마음이요, 여러 가지 법은 그대의 본래 성품이다. 그렇다면 말해 보아라. 마음과 성품은 하나인가, 둘인가?”

그 스님이 절을 올리자 운거 선사가 계송으로 말하였다.

한 가지 법은 모든 법의 근본이고  
만법은 한 마음에 통하는 것이네.  
마음만이 오직 그대의 성품이니  
다르다거나 같다고 말하지 말라.

雲居因僧問 如何是一法 師云如何是諸法 僧云未審如何領會 師云一法是汝本心 諸法是汝本性 且道 心之與性 是一不是二 僧禮拜 師乃有頌云  
一法諸法宗 萬法一心通  
唯心唯汝性 不說異兼同

## 117. 조산 본적曹山本寂

경청鏡清 스님이 조산 본적曹山本寂<sup>265</sup> 선사에게 물었다.

“맑고 깨끗한 이치는 결국 몸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산이 반문하였다.

“이치(理)는 그렇다 치고, 일(事)은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

“이치도 그러하고 일도 그렇습니다.”

曹山本寂禪師 因鏡清問清虛之理 畢竟無身時如何 師曰理則如此 事又作麼生 曰如理如事

---

265 840~901. 중국 당대唐代 스님. 조동종. 조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 19세에 출가하여 25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동산 양개에게 참학하여 그의 종지를 이어받고, 길수로 돌아가 개당한 뒤에 조계 6조 혜능을 흡모하여 산 이름을 조산曹山으로 바꾸었다. 조동종이라는 종명은 동산 양개의 '동동'과 조산 본적의 '조曹'에서 따와 명명했다고 한다.

조산이 덕德 상좌에게 물었다.

“부처님의 진실한 법신은 허공과 같으며, 물속의 달처럼 어떤 사물에라도 응하여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그 응하는 도리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덕 상좌가 대답하였다.

“나귀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답은 매우 빨리 하였으나 8할割만 터득했구나.”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물이 나귀를 보는 것과 같다.”

曹山問德上座 佛眞法身 猶若虛空 應物現形 如水中月 作麼生說个應底道理 德云如驢  
覲井 師云道則大殺道 只道得八成 德云和尚又如何 師曰如井覲驢

## 118. 경청鏡清 선사

경청鏡清 선사가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문 밖에 무슨 소리냐?”

스님이 대답하였다.

“벗방을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 대상을 쫓는구나.”

다시 경청 선사가 그 스님에게 물었다.

“문 밖에 무슨 소리냐?”

스님이 대답하였다.

“뱀이 개구리를 무는 소리입니다.”

“장차 중생의 괴로움을 말하려 하였더니 벌써 괴로워하는 중생이 있구나.”

鏡清問僧 門外是甚麼聲 僧云雨滴聲 師曰衆生顛倒 迷已逐物 又問僧 門外是甚麼聲  
云蛇咬蝦蟆聲 師云將謂衆生苦 更有苦衆生

## 119. 처진處眞 선사

처진處眞<sup>266</sup> 선사가 대중들을 가르쳤다.

한 조각 고요한 빛이 찬란히 빛나는데  
망설이고 따지려다 보면 결국 보지 못하리라.  
밝게 던져 사람의 감정이 툭 터지니  
큰 일은 분명하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네.  
쾌활하여 얹매임이 전혀 없으니  
황금 만냥으로도 바꿀 수 없네.  
천 명의 성인이 나신다 해도  
모두가 저 그림자에서 나타난 것이네.

處眞禪師示衆云 一片凝然光燦爛 擬議追尋卒難見 炳然擲着豁人情 大事分明皆總辦  
是快活無繫絆 萬兩黃金終不換 任他千聖出頭來 總是向渠影中現

## 120. 신라新羅 대령大領 선사

어떤 스님이 신라新羅 대령大領<sup>267</sup> 선사에게 물었다.

“모든 곳이 청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옥의 가지를 자르면 마디마다가 보석이고, 전단 나무를 쪼개면 조각마다 모두 향이다.”

대령 선사가 계송으로 말하였다.

온 세상이 모두 황금의 나라요,  
모든 생명이 그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을 나타내네.

---

266 조산 본적 선사의 제자이다.

267 대령大領은 곡산 장공谷山藏公의 제자이다.(각성, 앞의 책, p.549의 각주)

新羅大嶺禪師 因僧問 如何是一切處清淨 師云截瓊枝寸寸是寶 析梅檀片片皆香 頌云  
乾坤盡是黃金國 萬有全彰淨妙身

## 121. 지장 계침地藏桂琛

계침桂琛 선사가 수 산주修山主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수산주가 대답하였다.

“남방에서 왔습니다.”

“요즘 남방의 불법은 어떠한가?”

“분별이 끝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밥을 먹는 것과 같겠는가?”

“삼계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계침 선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을 삼계라고 하는가?”

수 산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계송으로 말하였다.

밭에 씨 뿌려 거두어 밥 먹는 일은 집안의 일상사이나

충분히 깨달아 아는 이 아니면 알지 못하리.

桂琛禪師 間修山主 甚麼處來 主云南方來 師云南方近日佛法如何 主云商量浩浩 師云  
爭如我這裏搏飯喫 主云爭乃三界何 師云你喚甚麼作三界 主言下有省 頌曰  
種田搏飯家常事 不是飽衆人不知

지장 선사가 보복사保福寺의 스님에게 물었다.

“그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어떻게 가르치오?”

스님이 대답하였다.

“보복保福 선사께서 어느 때인가 ‘그대들의 눈을 가릴 터이니 그대들로 하여금 보여도 보지 못하게 함이고, 그대들의 귀를 막으리니 그대들로 하여금 들려도 듣지 못하게 함이며, 그대들의 뜻을 주저앉히리니<sup>268</sup> 그대들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나는 그대의 눈을 가리지 않았으니 그대는 무엇을 보며, 나는 그대의 귀를 막지 않았으니 그대는 무엇을 들으며, 나는 그대의 뜻을 주저앉히지 않았으니 그대는 무엇을 분별하겠는가?”

이에 그 스님은 이 말을 듣자 크게 깨달았다.

地藏問保福僧 彼中佛法如何示人 僧云保福有時 云塞却汝眼 教汝覷不見 塞却汝耳 教汝聽不聞 坐却汝意 教汝分別不得 師云吾問你 我不塞汝眼 汝見个甚麼 不塞汝耳 聞个甚麼 不坐汝意 作麼生分別 則僧於言下大悟

## 122. 혜구惠球 선사

혜구惠球 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내가 여기서 죽과 밥을 먹은 힘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덧없는 것이다. 만약 요긴한 도에 관하여 알고자 한다면 차라리 산하대지가 그대들에게 일깨움을 줄 것이니 그러한 도가 바로 항상하고 궁극적인 도인 것이다. 문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일체 유위인 토목이나 기와장과 자갈들이 그대들의 깨달을 기연을 도와줄 것이고, 관음의 문으로 들어가면 일체 선악의 소리와 메아리, 두꺼비와 지렁이에 이르기 까지 모두 그대들을 도와 법문을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보현의 문으로 들어가면 굳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도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이 세 가지 문의 방편으로 그대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러진 것가락 하나로 큰 바다를 휘저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물이 바로 생명임을 알게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알겠느냐? 지혜의 눈으로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다면 백 가지 뛰어난 방편을 마음대로 쓰더라도 궁극에 도달하지는 못하리라.”

惠球禪師示衆云 我此間粥飯氣力 爲兄弟舉唱 終是不常 若得省要 却是山河大地 與汝發明 其道是常 亦能究竟 若從文殊門入者 一切有爲土木瓦礫 助汝發機 若從觀音門入者 一切善惡音響 乃至蝦蟆蚯蚓 爲你舉揚 若從普賢門入者 不動步而到 我今以此三門

---

268 뜻을 주저앉힌다는 말은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마음이 떨떠서 다른 데를 헤매지 못하도록 가라앉힌다는 것을 뜻한다.

方便示汝 如將一隻折箸攬大海水 令彼魚龍知水爲命 還會麼 若無智眼 而審諦之 任你百般善巧 不爲究竟

## 123. 파릉바陵 선사

어떤 스님이 파릉바陵<sup>269</sup> 선사에게 물었다.

“조사의 뜻과 교敎의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파릉이 대답하였다.

“닭은 추우면 햇대 위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 속으로 들어가니 근원은 같으나 가지(派)만 다르다.”

〔“입에 오르면 교敎라 하고, 마음에 전해지면 선禪이라 한다. 그 근원에 통달한 사람은 선도 교도 없는 것이나, 그 가지를 벌려 놓은 자는 선과 교에 각기 고집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巴陵因僧問 祖意敎意 是同是別 師云鷄寒上樹 鴨寒下水 源同派別

〔如云登之於口謂之敎 傳之於心謂之禪 達其源者 無禪無敎 列其派者 禪敎各執〕

## 124. 동산 수초洞山守初

운문이 동산 수초洞山守初<sup>270</sup> 선사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떠나왔는가?”

수초가 대답하였다.

“사도查渡에서 왔습니다.”

“여름에는 어느 곳에 있었는가?”

“호남湖南의 보자普慈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

269 파릉 호감巴陵顚鑾. 생몰연대 미상. 파릉은 주석하던 지역 이름. 운문 문언의 제자.

270 910~990. 중국 오대五代 송초宋初 스님. 운문종. 동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 처음에 읊을 배우고, 뒤에 운문 문언에게 침학하였다. 운문의 3돈방頓棒에 의해서 기연이 계합하고 그의 법을 이었다. 순화淳化 원년 7월 입적하였다. 수행자들과의 문답에서 ‘마삼근麻三斤’이라 답한 공안이 유명하다.

운문이 물었다.

“언제 그 곳을 떠났는가?”

수초가 대답하였다.

“8월 25일에 떠나왔습니다.”

“그대를 봉등이로 석 대 때리겠다.”

다음 날 수초가 다시 운문에게 물었다.

“어제 화상께서 저를 봉등이로 석 대 치셨는데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운문이 꾸짖었다.

“이 밥벼러지야! 강서와 호남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다녔는가!”

수초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洞山守初禪師 因雲門間 近離甚麼處 師云查渡 門云夏在甚麼處 云湖南普慈 門云幾時離彼中 云八月二十五 門云放汝三頓棒 次日師却問云 昨蒙和尚放某甲三頓棒 未審過在甚麼處 門云飯袋子江西湖南 又恁麼去也 師於言下大悟

## 125. 천복薦福 선사

천복薦福 선사가 대중들을 가르쳤다.

“공겁空劫 이전<sup>271</sup>에 자기의 포태胞胎가 갖추어지기 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무엇이 공겁 이전의 자기 자신인가? 본래 이름이 없었으나 방편으로 여래정법안장如來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이라 부르는 것이다.”

薦福示衆云 直須向空劫時 了取自己未具胞胎已前認取 何者 是空劫時自己 本無名字 方便呼爲如來正法眼藏涅槃妙心

---

271 천지가 열리기 전,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영원한 과거. 공겁空劫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세계의 변천을 성겁成劫, 주겁住劫, 괴겁壞劫, 공겁空劫으로 나눌 때의 공겁. 아무것도 없는 시기 또는 아직 성립기(成劫)에 이르지 못한 때이다.

## 126. 청활清豁 선사

청활清豁<sup>272</sup> 선사가 먼저 계여契如 암주를 찾아뵌 뒤에 수룡睡龍 화상을 친견하였다. 어느 날 수룡이 청활에게 물었다.

“어떤 훌륭한 스님을 뵙고 왔는가? 그리고 깨닫기는 하였는가?”

청활이 대답하였다.

“제가 대장大章(계여 암주)님을 친견하고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수룡 스님이 법당에 올라가서 대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였다.

“청활 사리는 나오시오. 대중들 앞에서 향을 피우고 깨달은 경지를 말해 보아라. 내가 그대를 증명해 주리라.”

청활 선사가 대중들 앞으로 나가서 향을 집어 들고 말하였다.

“향은 이미 다 탔으나 깨달음은 아직 깨치지 못하였습니다.”

수룡은 매우 기뻐하며 청활을 인가하였다.

清豁禪師 初叅契如菴主 後見睡龍 龍一日問師 見何尊宿來 還悟也未 師云豁嘗訪大章 得个入處 龍於是上堂集衆召 清豁闡梨出 對衆燒香說悟處 看老僧 與你證明 師便出拈香 乃云香則已燒 悟則不悟 龍大悅而許之

## 127. 현각玄覺 도사

현각玄覺 도사가 비둘기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슨 소리요?”

그 스님이 대답하였다.

“비둘기 울음소리입니다.”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고 싶지 않다면 여래의 정법륜을 비방하지 말라.”

---

272 설봉雪峰의 문하.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고산 신안鼓山神晏에게 출가하였다. 처음에는 대장산大章山의 계여 암주에게 나아가 법을 배웠고 후에 수룡 도부에게 나아가 그 법을 이었다. 장주漳州의 보복원保福院에 머물면서 선풍을 고취하였다.

玄覺道師 開鳩子鳴 乃問僧 是甚麼聲 云鳩鳩聲 師云欲得不招無間業 莫謗如來正法輪

## 128. 천태 덕소天台德韶

어떤 스님이 천태 덕소天台德韶 국사에게 물었다.

“나타那吒 태자는 뼈를 깎아서 아버님께 돌려 드리고 살을 저며서 어머님께 돌려 드린 뒤에 연화대 위에 본래의 몸을 나타내고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했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이 태자의 본래 몸입니까?”

국사가 대답하였다.

“여러분, 상좌의 물음을 들었는가?”

그 스님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똑같은 진여의 성품이겠습니다.”

국사가 대답하였다.

“어렴풋이나마 곡조가 비슷하여 들을 만했는데 그만 바람에 날려 다른 곡조가 되고 말았구나!”

韶國師因僧問 那吒太子 折骨還父 析肉還母然後 於蓮華臺上現本身 爲母說法 未審如何是太子本來身 師曰大家見上座 問僧云 怎麼則大千同一真如性 師曰依俙似曲才堪聽 又被風吹別調中

## 129. 목암 법총牧菴法忠

목암牧菴 충충<sup>273</sup> 선사가 이것을 들어서 말하였다.

“대중이여, 알고 싶은가? 뼈와 살을 모두 부모님께 돌려 드렸으니 분명히 본래의

---

273 목암 법총牧菴法忠, 1084~1149. 중국 송대宋代 스님. 임제종. 19세에 출가하여 천태학의 일심삼관一心三觀을 체득하였다. 용문에서 청원清遠을 만나 침학하는 동안 소용돌이치는 물줄기를 보고 심요를 깨달았다고 한다.

몸을 볼 수 있었으리라. 그러므로 ‘부모는 나의 친함이 아니니, 그럼 누가 가장 친한 자이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울력을 하면서 흙을 나르고 나무를 짚어진다.

말해 보아라. 이것은 본래의 몸인가, 부모의 몸인가. 부모의 몸이라고 한다면 본래의 몸을 저버리게 될 것이고, 본래의 몸이라고 한다면 또한 부모의 몸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말해 보아라. 결국 어떤 것이겠는가? 어떤 이가 나와서 ‘그 두 가지 다이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대들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牧菴忠拈 大衆要會麼 骨肉盡將還父母 分明方見本來身 所以道父母非我親 誰是最親者 只如諸人 每日普請般土負木 且道是本來身 是父母身 若道是父母身 則辜負本來身 若道是本來身 又辜負父母身 且道畢竟如何 忽有人出來道兩箇 你如何對他

## 130. 낭야<sup>瑠璃</sup> 선사

장수<sup>長水</sup><sup>274</sup> 좌주가 낭야<sup>瑠璃</sup><sup>275</sup> 선사에게 물었다.

“청정본연한데 어떻게 훌연히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sup>276</sup>

낭야가 목소리를 높여 대답하였다.

“청정본연한데 어떻게 훌연히 산하대지가 생겼겠는가!”

좌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瑠璃因長水座主問 清淨本然 云何忽生山河大地 師抗聲曰 清淨本然 云何忽生山河大地 主於言下大悟

274 장수<sup>長水</sup>子璿, 964~1038, 중국 송대宋代 스님. 화엄종. 장수는 주석하던 지역 이름. 처음에는 수주<sup>洪敏</sup>에게 『능엄경』을 수학하다가 선의 근본을 추구하고자 낭야<sup>慧覺</sup>에게 참학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장수에 머물면서 화엄종을 널리 펼쳤다.

275 낭야<sup>慧覺</sup>慧覺, 생몰연대 미상. 중국 송대宋代 스님. 낭야는 주석하던 산 이름. 분양 선소의 법을 이어받은 뒤 낭야산에서 학인을 지도하였다. 운문종의 설두 중현<sup>重顯</sup>과 함께 세인들에게 그 당시의 2대 감로<sup>甘露</sup>문이라고 불렸다.

276 『능엄경』 제4권 부루나장에 나오는 대목이다.

## 131. 우적于迪 상공

우적于迪 상공이 약산藥山을 특별히 뵈러 가서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약산이 상공을 불렀다.

“상공!”

상공이 “예” 하고 대답하자 약산이 다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상공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于迪相公 特訪藥山 乃問如何是佛 山召相公 公應喏 山云是甚麼 公於言下悟去

## 132. 수산 성념首山省念

어떤 스님이 수산首山에게 물었다.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경은 무엇입니까?”

수산이 대답하였다.

“소리를 낮추시오. 소리를 낮추시오.”

首山因僧問 一切諸佛 皆從此經出 如何是此經 師曰低聲低聲

## 133. 신조 본여神照本如

신조 본여神照本如 법사가 법지法智<sup>277</sup> 존자에게 물었다.

“어떤 경이 경 중에서 으뜸입니까?”

---

277 법지 존자는 천태종 사명 지례四明知禮이다.

존자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를 위해 3년 동안 창고지기를 살아 준다면 그때 그대에게 말해 주겠다.”

본여가 그 명을 공손히 받들어 창고지기를 살았다. 그렇게 3년 지난 뒤에 법지 존자에게 다시 청하였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법지가 큰소리로 본여를 한번 불렀다.

본여는 법지가 그 소리에 문득 크게 깨달았으며 계송으로 말하였다.

어디를 가도 돌아가는 길을 만나고

어디나 그 곳이 고향이네.

본래부터 일은 이루어져 있었는데

어찌 꼭 생각을 기다려야겠는가.

神照如法師 問法智尊者曰 如何是經王 尊者曰汝爲我主三年庫事 却向汝道 如敬承其命三年畢 如再請曰 今當說之 尊者大喚本 如一聲忽然大悟 作偈曰  
處處逢歸路 頭頭是古鄉  
本來現成事 何必待思量

## 134. 인도의 어진 일곱 여인

인도의 어진 여인 일곱 명이 공동묘지를 거닐다가 시체 한 구를 보았다. 그때 한 여인이 시체를 가리키며 다른 자매들에게 말했다.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중 다른 여인이 말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모든 여인들이 그 시체를 자세히 살펴보다 각각 깨달음을 얻었다.

이 모습에 감동한 제식이 꽃을 뿐려 공양하면서 말하였다.

“어진 여인들이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네 가지 일<sup>278</sup>과 일곱 가지 보물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째, 음양이 없는 땅 한 조각이고, 둘째로는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이고, 셋째로는 소리쳐도 메아리가 없는 산골짜기 한 곳입니다.”

“나는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실로 이 세 가지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런 것도 없으면서 어찌 사람을 구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sup>279</sup>

西天七賢女 同遊屍多林 見一死屍中 有一賢女 指屍謂諸姊曰 屍在這裏 人向甚處去  
中有一賢女云 作麼作麼 諸賢女諦觀 各各契悟 感帝釋散花供養云 惟願諸賢女 有何所  
須 我當終身供給 女云我家四事七珍 悉皆具足 唯要三般物 一要無陰陽地一片 二要無  
根樹子一株 三要叫不響山谷一所 帝釋云 一切所須 我悉有之 若此三般物 我實無 女  
云汝無此物 爭解濟人 帝釋無語

## 135. 광효 안광孝安 선사

광효 안광孝安 선사가 천태산으로 가다가 운봉雲峯에서 떠를 엮어 집을 짓고 산 적이 있었다. 그때 잠을 자지 않고 좌선만 하였고, 매일 한 끼만 먹었으며 비단 옷을 입지도 않고 다 떨어진 장삼 한 벌로만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사가 덕소 국사를 뵈려 갔을 때 덕소가 물었다.

“삼계에 법이 없는데 어느 곳에서 마음을 구하며, 사대는 본래부터 공허한데 부처님은 무엇에 의지하여 머무시며, 그대는 어떤 곳에서 나를 보려 하는가?”

선사가 대답하였다.

“오늘은 스님께서 깨달은 경지를 밝혀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선사는 향대를 뒤집어엎고 나가 버렸다. 이에 덕소가 그를 법기로 여겼다.

---

278 네 가지 보물이란 의복과 음식, 침구, 의약품의 네 가지 사사공양을 말한다.

279 『불설칠녀경佛說七女經』의 이야기이다.

光孝安禪師 往台之雲峯 結茅而居 長坐不臥 一食終日 不衣繒縉 唯一壞衲以度寒暑  
尋謁韶國師 師問曰三界無法 何處求心 四大本空 佛依何住 你向甚麼處見老僧 安曰今  
日捉敗和尚見處 師曰是甚麼 安掀倒香臺而出 師器之

어느 날 광효 안 선사가 『화엄경』을 읽다가 “몸에는 가질 만한 것이 없고 수행에  
는 집착할 것이 없으며 법에는 머물 곳이 없다. 과거는 이미 멀하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공적하다”는 대목에 이르러 그 자리에서 활연히 선정에 들어  
십여 일을 보냈다. 그 후에 선정에서 일어나니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영리해져 순식  
간에 깊은 종지에 계합되었다.

그 후 오직 좌선에만 힘써 다시금 큰 선정(大定)에 들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선정에 들었을 때 두 스님이 나타나서 법당 난간에 기대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그때 어떤 천신이 두 스님을 호위하면서 오랫동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갑자기 악귀가 나타나서는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발자국마저 쓸어버렸다.  
난간에 기대어 있는 두 스님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스님들은 처음에는 불법을 논  
의하다가 점차로 세상일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광효 안 선사는 말하  
였다.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저러할진대 하물며 법을 맡은 자가 북을 치고 법좌에  
오르고서 무익한 일들을 말한다면 어찌되겠는가!”

광효 안 선사는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선사가  
죽어 다비를 거행하였을 때 선사의 혀는 불에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붉은 연꽃처  
럼 부드러웠다.

安一日閱華嚴經 至於身無所取 於修無所着 於法無所住 過去已滅 未來未至 現在空寂  
到者裏 豁然入定經旬餘 方從定起身 心爽利頓 發玄旨後 唯務宴坐 如入大定 一日定  
中見二僧 倚殿檻語話 有天神侍衛 傾聽久之 俄有惡鬼唾罵 復婦足跡 及詢倚檻僧所以  
乃初論佛法 後談世諦 安曰閑論尙爾 況主法者 擊鼓陞座 說無益事耶 安自此終身未嘗  
一日談世諦故 安死閻維舌根不壞 柔軟如紅蓮華

## 136. 화엄華嚴 좌주

화엄華嚴 좌주<sup>280</sup>가 대주 선사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푸른 대나무가 모두 진여이며, 만발한 국화가 모두 반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대주 선사가 답하였다.

“법신은 형상이 없으나 푸른 대나무에 응하여 형체를 이루고, 반야는 알음알이가 없으나 국화를 상대하여 모습을 드러내나니 저 국화와 푸른 대나무에 법신과 반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고, 사물에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물 속의 달과도 같다’고 한 것이다. 국화가 반야라면 반야는 곧 무정물과 같을 것이요, 푸른 대나무가 법신이라면 푸른 대나무가 오히려 사물에 응하여 쓰일 것이리라.”

이에 화엄 좌주가 항복하고서 그 뜻을 깨달았다.

華嚴座主問禪師 何故不許青青翠竹盡是眞如 鬱鬱黃花 無非般若 大珠禪師答曰 法身無相 應翠竹以成形 般若無知 對黃花而現相 非彼黃花翠竹 而有法身般若 故經云 佛眞法身猶若虛空 應物現形 如水中月 黃花若是般若 般若卽同無情 翠竹若是法身 翠竹還能應用 座主降伏 領悟其旨

## 137. 덕산 연밀德山緣密

덕산 밀德山 密<sup>281</sup> 선사의 회하에 어떤 선객이 한 사람 있었는데 매우 예리하게 공부하였다. 그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오랫동안 찹구하였으나 도무지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어디선가 태양처럼 커다란 개 머리 하나가 나타나 입을 크게 벌리고 그 선객을 삼키려고 달려드니 선객은 두려워서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 곁에 있던 사람

---

280 화엄 좌주는 『전등록』에 온광 대덕蘊光大德으로 나왔다.

281 덕산 연밀德山緣密, 생멸 연대 미상. 중국 송대宋代 스님. 운문종. 덕산은 주석하던 산 이름. 운문문언의 법을 이어받아 덕산에서 머물렀다.

들이 그 까닭을 묻자 선객은 그 일을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마침내 덕산에게도 말씀 드리자 덕산이 말하였다.

“두려워할 필요 없소. 그저 정신을 잘 가다듬고서 그 개가 입을 크게 벌리기를 기다렸다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오.”

선객은 덕산의 가르침대로 앉아 있었다. 한밤중이 되자 그 개가 다시 나타났다. 선객은 머리로 있는 힘을 다하여 단번에 치고 들어갔는데 자기 머리가 궤짝 속에 있었다. 이에 선객은 확연히 깨달았다. 그 후 문수사에 출세하여 도법道法을 세상에 크게 펼쳤으니 바로 진眞 선사<sup>282</sup>다.

德山密禪師會下 有一禪客 用功甚銳 看狗子無佛性話 久無所入 一日忽見狗頭 如日輪之大 張口欲食之 禪者畏避席而走 隣人問其故 禪者具陳其事 遂白德山 山曰不必畏矣 但痛加精彩 待渠開口 撞入裏許便了 禪者依教坐至中夜 狗復現前 禪者以頭用極力一撞 則在函櫃中 於是廓然契悟 後出世文殊道法大振 卽眞禪師也

## 138. 규봉 종밀圭峯宗密

규봉 종밀圭峯宗密<sup>283</sup> 선사는 말하였다.

“비고 고요한 것(空寂)으로 자기 몸을 삼을지라도 색身은 인정하지 말 것이며, 신령스럽게 아는 것(靈知)으로 자기 마음을 삼을지라도 허망한 생각만은 인정하지 말라.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목숨을 마칠 때에 저절로 업에 얹매이지 않게 될 것이요, 하늘과 인간 세상에 뜻대로 태어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圭峯宗密禪師云 但可以空寂爲自體 勿認色身 以靈知爲自心 勿認妄念 妄念若起 都不隨之 則臨命終時 自然業不能繫 天上人間 隨意寄托 此是悟理之人朝夕修行要節

---

282 덕산 연밀德山緣密의 제자인 정주鼎主 문수원文殊院 응진應眞 선사이다.

283 780~841. 중국 당대唐代 스님. 하택종. 화엄종 제5조. 규봉은 주석하던 지역 이름. 소년 시절부터 유학과 불교 경론을 공부하였다. 25세에 출가, 원화元和 3년에 증拯 을사에게 구족계를 받은 후 선 수행과 교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장경長慶 원년에는 섬서성 종남산 규봉의 초당사로 되기하여 저작 활동에 전념하며 교선일치教禪一致 사상을 고취하였다. 회창會昌 원년 1월 6일 입적하였다.

## 139. 장졸張拙 상공

장졸張拙 상공이 석상石霜 선사를 뵈러 가자 석상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의 성이 무엇이오?”

상공이 대답하였다.

“이름은 졸拙이고, 성은 장張입니다.”

“교묘함(巧)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인데, 졸렬함(拙)은 어디에서 왔는가?”

상공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이에 계송으로 말하였다.

광명이 고요히 온 세상에 두루 퍼지니  
범부와 성현, 온 생명이 다 한 집이네.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가 나타나니  
육근六根이 잠깐 움직여도 구름에 가려지리라.  
번뇌를 단절하고자 하면 병만 더욱 무거워지고  
보리로 나아가려 하면 이 또한 그릇되었다.  
수많은 인연을 따르되 걸림이 없으니  
열반과 생사가 허공의 꽃이구나.

張拙相公 參石霜 霜問先輩何姓 曰名拙姓張 師云覓巧了不可得 拙自何來 張於言下有省 乃述頌云  
光明寂照徧河沙 凡聖含靈共一家  
一念不生全體現 六根才動被雲遮  
斷除煩惱重增病 趣向菩提亦是邪  
隨順衆緣無罣碍 涅槃生死是空花

## 140. 운문 문언雲門文偃

운문雲門<sup>284</sup>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

284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9. 중국 당말唐末 오대五代 스님. 운문종. 운문은 주석하던 산 이름. 어려서

“광명이 고요히 온 세상에 고루 퍼진다는 말씀이 어찌 장졸 상공의 법어가 아니겠는가!”

그 스님이 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미 잘못되었다.”

雲門問僧 光明寂照徧河沙 豈不是張拙相公語 僧云是 師云話墮也

## 141. 향엄 지한香嚴智閑

향엄香嚴 선사가 말하였다.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으니 금년의 가난이 비로소 가난이다. 작년엔 송곳 세울 땅이라도 있었지만 금년에는 세울 송곳조차 없구나.”

양산仰山이 말하였다.

“사형에게 여래선如來禪<sup>285</sup>은 인가하겠지만 조사선祖師禪<sup>286</sup>은 꿈에서도 보지 못하였소.”

향엄 선사가 말하였다.

“나에게 하나의 기미가 있어 눈을 깜박이는 순간에도 그를 보는데, 그가 깨닫지 못하면 따로 사미를 부르리라.”

---

부터 출가에 뜻을 두어 지징志澄 선사에게 수학하고 17세에 출가하였다. 그 후 목주 도명睦州道明에게 서 친구하고 다시 설봉 의존에게 친구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나중에 설봉을 떠나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여러 선자들과 교류하다가 조계의 6조 탑에 예배하고 영수 여민靈樹如敏의 회하로 들어갔다. 영수가 입적하자 광주廣主 유엄劉巒의 청을 받고 그의 법석을 이었다. 운문산에 30여 년을 머문 후 남한 건화乾和 7년 4월 10일에 입적하였다.

285 부처가 수행한 선. 조사선祖師禪의 대對. 『능가경』에서 설하는 4종선 가운데 하나. 여래가 얻은 선정에 들어서 타인을 교화하는 작용을 말한다. 보리 달마가 중국에 전한 선은 여래선이라고들 말해왔는데, 당나라 시대의 양산仰山이 조사선祖師禪을 내세우며 이것이 달마가 전한 심인心印이라고 주장한 후부터는 여래선은 아직 궁극적이지 못한 선(未了禪)이라고 여겨지게 되었다.

286 남종선南宗禪이라고도 한다. 6조 혜능에게서 시작하는 선종의 5가家 7종宗은 전부 이 조사선에 들어간다. 교외별전·불립문자를 주장하면서, 언어나 문자에 의하지 않고 직접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심전심으로 깨달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선이라고 한다. 여래선과 대비하여 쓰이고 있으며, 문자에 얹매일 우려가 있는 여래선보다 조사선이 뛰어나다고 여겨졌다.

이에 양산이 말하였다.

“사형께서 조사선까지도 알게 되어 기쁘오.”

香嚴禪師云 去年貧未是貧 今年貧始是貧 去年有卓錐之地 今年錐也無 仰山云如來禪  
卽許師兄 祖師禪未夢見在 嚴云我有一機 瞬目視伊 若人不會 別喚沙彌 仰山云且喜師  
兄會祖師禪

## 142. 도오道悟 선사

어떤 스님이 도오道悟 선사에게 물었다.

“조사선이 무엇입니까?”

도오가 대답하였다.

“강남의 삼월을 아련하게 떠올려보니 자고새가 우짖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  
구나.”

[내가 말한다면 “이 한 구절에 색과 소리와 언어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이것이 이른바 ‘말을 하려  
할 때 한 구절에 세 구절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마치 ‘뜰 앞의 잣나무’라는 본분의 대답과  
같은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道吾因僧問 如何是祖師禪 吾云遙憶江南三月裏 鶲鵠啼處百花香

[私曰此一句具色聲言語 此所謂凡欲下語 一句具三句 與庭前柏樹子本分答話一般]

## 143. 백운 수단白雲守端

백운 수단白雲守端 화상이 말하였다.

“깨달은 후에는 사람을 만나야 체득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저 꼬  
리 없는 원숭이 한 마리와도 같아서 재롱을 부려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낼 뿐이리라.  
이러한 도리를 깊이 믿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없으니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구나.”

白雲端和尚云悟了須遇人始得 若不遇人 只是一个無尾巴猢猻相似 才弄出人便笑 深  
信此道者 萬中無一 誠可憐憫 誠可憐憫

## 144. 원오 극근圓悟剋勤

원오 극근圓悟剋勤 화상이 오조 범연五祖法演 화상을 모시고 있을 때였다. 진 제형陳提刑<sup>287</sup>이 벼슬을 그만두고 촉蜀으로 돌아가다가 우연히 산사에 들러서 도를 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조가 제형에게 물었다.

“그대는 소염시少炎詩를 읽은 적이 있소? ‘자주 소옥小玉<sup>288</sup>을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낭군이 그 소리를 알아듣기를 바라서였네(頻呼小玉非他事 只要丹郎認得聲)’라는 그 두 구절은 자못 선의 요지에 가까운 것이오.”

제형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오조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자세히 보시게.”

圓悟勤和尚 侍立五祖演和尚 偶陳提刑 解印還蜀 過山中問道 因語話次 祖問曰提刑  
會讀少炎詩否 有兩句頗近禪旨 曰頻呼小玉非他事 只要丹郎認得聲 提刑應諾諾 祖曰  
且子細看

원오가 물었다.

“제형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소염시에 관한 뜻을 알아들었겠습니까?”

오조가 말하였다.

“그 사람은 소리만 알아들었을 뿐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내용은 ‘낭군이 그 소리를 알아듣기를 바라서였네’라고 했고 그 사람은 소리를 알아들었다면 무엇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시는지요?”

“어떤 스님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인지 묻자 ‘뜰 앞의 잣나무’라고 대답하였다. 적!”

원오가 훌연히 크게 깨닫고 갑자기 밖으로 나갔다가 닭이 난간으로 날아올라 날개를 치며 우는 것을 보고서 다시 혼잣말로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 소리가 아니겠는가!”

---

287 제형提刑은 관직 이름. 송나라 때 형별과 관련하여 일의 진상, 죄의 유무를 조사하던 관직.

288 양귀비를 시중들던 하녀의 이름. 양귀비가 하녀인 소옥을 자꾸 불렀는데, 그것은 하녀를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시 정인情人이었던 안녹산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황제가 자기 거처에 있을 때 안녹산이 들어오면 크게 낭패를 볼까봐 미리 정한 약속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향을 소매에 넣고서 오조의 방에 들어가서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자 오조 스님이 말하였다.

“부처님과 조사의 큰일은 작은 근기와 모자라는 지혜로는 이루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는 법이다. 내가 그대의 기쁨을 도와주리라.”

오조는 산중의 큰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말하였다.

“나의 시자가 조사선을 참구하여 얻었소!”

圓悟問曰提刑聞和尚舉少炎詩 會麼 祖云他只認得聲去 悟曰本文云只要丹郎認得聲  
他既認得聲 爲什麼 却不是 祖曰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 答曰庭前柏樹子 罷 悟忽然大  
悟 遽出去 見雞飛上欄干 鼓翼而鳴 復自謂曰此豈不是聲 遂袖香入室通所悟 祖曰佛祖  
大事 非小根劣智所能造詣 吾助汝喜 祖徧請山中耆舊曰 我侍者 参得祖師禪也

## 145. 응암 담화應岩曇華

응암 화應岩華<sup>289</sup> 화상이 말하였다.

“옛날 스님들은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하면 부리나케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그것을 바로잡았고, 하루아침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전생에서부터 품어온 소원의 힘으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고서 20년 혹은 30년의 여러 생의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나서 마음과 의식을 같고 닦아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텔끝만큼이라도 허물이 없게 하여, 경계를 만나고 인연과 마주쳐도 담장이나 기왓장을 대 하듯 그것을 바라보셨고 절대로 한 순간이라도 세속에 대한 생각을 품지 않았으며, 마음이 큰 허공과도 같아서 고요하고 맑았으니 이것을 금강정체金剛正體라 할 것이다. 맑디맑고 이지러짐 없이 원만한 후에야 공용功用 없음으로 행하셨다. 비록 무심히 세상에 응하셨으나 세상에 응하는 마음이 항상하고 빈틈이 없었으며, 무심히 중

---

289 응암 담화應岩曇華, 1103~1163. 천동 담화天童曇華라고도 불린다. 중국 남송대南宋代 스님. 임제종. 천동은 주석하던 산 이름. 17세에 동점사로 출가하여 운거에 이르러 원오 극근을 알현하고 그의 명에 따라 호구 소릉에게 참구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절강성 경원부 천동산에 머물며 종풍을 선양하였다. 대체 종고와 더불어 임제 문하의 2감로문이라 일컬어졌다. 남송 용흥隆興 원년 6월에 입적하였다.

생을 구제하셨으나 구제하는 마음이 넘쳐서 다함이 없었다. 너희들은 알아야만 한다. 옛 스님들이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바로잡으실 때 증득의 미묘함에 계합하니 열 개의 태양이 동시에 빛나는 듯 눈부셨거늘 어찌 선불리 법을 계승하는 자이겠느냐!”

應菴華和尚云 上古老宿 心眼未明火急就有道而正之 一旦心眼洞明 以本願力 晦跡山林 或二三十年 辦累生計 搞磨心識使 及之淨盡 無纖毫過患 至逢境遇緣視之 如牆壁瓦礫 絶無一念世間 心如大虛空 漢然凝寂 謂之金剛正體 淨裸裸圓陀陀地然後 以無功用行 雖無心應世 而應世之心 常而無間 雖無心濟物 而濟物之心 霽然無窮 當知上古老宿 就有道而正之 契證之妙 皎如十日並照 豈造次承荷者哉

## 146. 고령 신찬古靈神贊

고령古靈<sup>290</sup> 선사가 행각을 하다가 백장을 친견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다시 복주福州 대중사大中寺로 돌아와 수업하였다. 은사 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내 곁을 떠나서 바깥세상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얻었는가?”

고령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은사 스님이 그에게 잡일을 시켰다. 어느 날 은사 스님이 목욕을 하다가 고령에게 때를 밀어 달라고 하였다. 고령이 이에 등을 밀어주면서 말하였다.

“좋은 불전佛殿인데 부처님께서는 영협이 있지 않으신 듯합니다.”

은사 스님이 고개를 돌리고 그를 보자 그가 다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영협하지 못하시나 광명은 놓으실 줄 아십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은사 스님이 밝은 창 아래에서 경전을 읽는데, 별이 밖으로 나가려고하였다. 고령이 그 광경을 보고 말하였다.

“세계가 저처럼 광활한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부질없이 옛 종이만 뚫으려고 하는

---

290 고령 신찬古靈神贊. 백장 회해의 법사法嗣. 본문의 일화는 제자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스승의 경지를 뛰어넘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나.”

온사 스님은 보던 경을 덮고서 물었다.

“그대는 행각을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가? 요 며칠 동안 그대를 관찰하니 이상한 말만 하는구나. 그것을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

고령이 법좌에 올라 백장 문하의 가풍을 들면서 말하였다.

“신령한 빛이 홀로 빛나니  
육근과 육진을 멀리 떠났으며  
본체가 드러나니 참되고 항상하며  
문자에 얹매이지 않고 있구나.  
마음의 성품은 물들지 않아  
본래부터 스스로 원만하니  
헛된 인연을 여의기만 하면  
바로 여여하신 부처라네.”

古靈禪師行脚時 遇百丈開悟後 却廻福州大中寺受業 師問曰汝離吾在外得何事業 答曰無 師遂遣執役 一日因澡身 命靈去垢 灵乃拊背曰 好个佛殿 而佛無靈 其師回首見之 灵曰佛雖無靈 亦能放光 其師又一日在明窓下看經 蜂子投窓紙求出 灵見之曰世界與麼廣闊不肯出 鑽他古紙作麼作麼 其師置經問曰 汝行脚時遇何人 前後見汝 發言異常 爲我說 灵陞座舉百丈門風曰  
靈光獨耀 迦脫根塵  
體露真常 不拘文字  
心性無染 本自圓成  
但離妄緣 卽如如佛

## 147. 학림 현소鶴林玄素

어떤 백정이 현소玄素<sup>291</sup> 화상에게 절을 올리면서 자기 집에 와서 공양하시기를 간청

---

291 학림 현소鶴林玄素, 668~752, 중국 당대唐代 스님. 우두종. 학림은 주석하던 절 이름. 강녕 장수사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후 항상 현미玄微를 사념하여 세인들의 존중을 받았다. 만년에 청산 유서사의

하였다. 현소가 흔쾌히 그 집으로 가시니 대중들이 모두 의아해하였다. 현소가 말하였다.

“불성은 평등하므로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꼭 같은 것이다. 그저 제 도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제도하면 그뿐, 다시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玄素和尚 一日因有屠者 禮謁願就所居辦供 師欣然而往 衆皆訝之 師曰佛性平等 賢愚一致 但可度者 吾即度之 復何差別之有

## 148. 대전 보통大顛寶通

대전大顛<sup>292</sup> 화상이 처음으로 석두石頭를 친견하러 가니 석두가 물었다.

“어떤 것이 그대의 마음인가?”

대전이 답하였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석두가 큰소리로 꾸짖으며 대전을 내쫓았다. 그리고 열흘 남짓 지나서 대전이 석두에게 물었다.

“지난번 저의 대답이 옳지 않았다면 그것 외에 어느 것이 제 마음이겠습니까?”

석두가 대답하였다.

“눈썹을 치세우거나 눈을 깜박이는 짓<sup>293</sup>은 그만하고, 그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가져다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가? 마음이 없다는 것도 똑같이 비방하는 것이다.”

---

우두종 5세 우주 지위의 법을 이어받고 군목 위선의 청에 의해 학림사에 머물렀다. 천보天寶 11년 11월 11일 입적하였다.

292 대전 보통大顛寶通, 732~824. 중국 당대唐代 스님. 청원 문하. 석두 희천의 법을 이어받아 조주 영산에서 머물렀다. 원화元和 14년 「논불골표論佛骨表」를 현종憲宗에게 올려 조주潮州에 유배된 배불론자 한유韓愈와의 교섭으로 잘 알려져 있다.

293 일상생활의 동작을 표현하는 말.

대전 화상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大顛和尚 初叅石頭 頭問師曰 那个是汝心 師云言語者是 便被喝出 經旬日 師却問曰  
前者既不是 除此外何者是心 頭曰除却揚眉動目將心來 師云無心可將來 頭云元來有  
心 何言無心 無心盡同謗 師於言下大悟

## 149. 조산 탐장曹山耽章

종이로 만든 옷을 입고 스스로 호를 지의도자紙衣道者라고 하는 스님이 동산에서 오자 조산 탐장曹山耽章<sup>294</sup> 선사가 그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종이옷 아래의 일인가?”

스님이 대답하였다.

“옷 한 벌을 겨우 몸에 걸쳤으니 만사가 모두 다 그러합니다.”

“어떤 것이 종이 옷 아래의 작용(用)인가?”

스님은 앞으로 나와서 합장을 하고 대답하였다.

“예.”

그리고 옷을 벗어 버리자 조산 선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그와 같이 가는 이치는 알고 있으나, 그와 같이 오는 이치는 모르고 있구나.”

스님은 훌연히 눈이 뜨여 물었다.

“하나의 신령스러운 진실한 성품이 어머니의 태를 빌리지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조산이 대답하였다.

“묘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현묘한 이치입니까?”

“빌리지 않으면서 빌리는 것이다.”

그러자 그 스님은 자리에서 물러나 범당으로 가서 가부좌를 틀고 숨을 거두었다.

---

294 조산 본적曹山本寂 스님을 가리킨다.

조산이 계송으로 말하였다.

깨달음의 성품은 원만하고 밝고 형상 없는 몸이니  
지견을 가지고 혗되어 친하거나 멀리하지 말라.  
생각이 달라지면 현묘한 본체도 달라지고  
마음이 어긋나면 도와도 이웃할 수 없다.  
감정으로 만법을 나누면 마주한 경계에 잠기고  
다양한 단서를 살피면 본진本眞도 잃으리라.  
만일 구절 속에서 온전하게 깨우치면  
틀림없이 일이 없는 옛적 사람이라.

조산이 이와 같이 상근기<sup>295</sup>를 일깨우신 적은 일찍이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曹山耽章禪師有僧以紙爲衣 號爲紙衣道者 自洞山來 師問曰如何是紙衣下事 僧曰一  
裘才掛體 萬事悉皆如 又問如何是紙衣下用 其僧前而拱立曰 諸卽脫去 師笑曰汝只解  
伊麼去 不解伊麼來 僧忽開眼曰 一靈眞性不假胞胎時如何 師曰未是妙 僧云如何是妙  
師曰不借借 其僧退坐於堂中而化 師作偈曰  
覺性圓明無相身 莫將知見妄踈親  
念異便於玄體異 心差莫與道爲隣  
情分萬法沉前境 識鑑多端喪本眞  
若向句中全曉會 了然無事昔時人  
師如是啓發上根 會無軌轍可尋也

## 150. 몽산 덕이蒙山德異

몽산蒙山<sup>296</sup> 화상이 말하였다.

295 아주 오래 전부터 수행을 쌓아 와서 깨달을 수 있는 자질이나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296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 임제종 양기파. 고균古筠 비구라 불린다. 승천承天의 고섬 여형孤蟾如瑩에  
게 나아가 법을 묻고, 경산徑山에서 허당 지우虛堂智愚를 친견하였으며, 복주福州 고산 鼓山에서 환산  
정옹皖山正穎에게 나아가 법을 묻고서 깨달음을 얻고 그 법을 이어받았다. 지원至元 27년(1290)에  
『육조단경』을 재편再編하여, 그 유포에 힘썼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덕이본德異本이라 불린다.

“지혜를 얻은 뒤에는 항상 진공삼매眞空三昧<sup>297</sup>에 들어 여러 생을 거치면서 익혀온 번뇌의 습기(塵習)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니, 그 번뇌의 습기가 가벼워지고 맑아질 때 이번 생에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일과 한 번의 전생, 두 번의 전생에서 열번의 전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을 생각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번뇌의 습기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면 여러 전생의 일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을 숙명지신통宿命智神通이라 부른다. 이어서 귀와 눈에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이르기까지 깨끗해져 번뇌를 말끔히 씻어내면 모든 감각기관의 티끌이 청정해질 것이다. 그러면 모든 신통과 모든 삼매와 큰 지혜와 큰 별재와 큰 신통과 큰 기용機用<sup>298</sup>이 모두 다 진공실상眞空實相<sup>299</sup>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蒙山和尚云 發明之後 常當入眞空三昧 洗除多生塵習 嘘習輕清時 能念知今生出母胎時事 及前生一世二世以至十世事 若塵習淨盡者 能知多生事 名宿命智 神通次第得耳根眼根 以至六根清淨 能滌蕩 得一切根塵清淨者 諸通諸三昧 大智慧大辯才大神通大機用 皆自眞空實相中發現

몽산 화상이 대중들을 가르쳤다.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세우는 데에는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거늘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고 범부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 어찌 승속僧俗에 구애되겠는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깨달으면 한 걸음에 집에 도착할 것이나, 의심하고 머뭇거리며 따진다면 흰 구름처럼 아득하리라.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세존께서 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이시자 가섭께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니, 세존께서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이 있으니 마하가섭에게 부축하리라. 佛教 밖에 별도로 전하니 단절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들은 보았는가? 늙으신 구담瞿曇<sup>300</sup>께서 대가섭에게 준 것을 아는 자는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을 밝게 알아 깨달음의 문에 이미 들어갔을 것이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에 오르고 입실入

---

297 공空·유有의 대립 개념을 초월한 궁극의 경지.

298 일상생활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런 일상 동작에 나타나는 미묘한 마음의 작용.

299 진공眞空은 온갖 혓된 집착을 떠나 더 이상 머리끝으로 생각하거나 분별하지 않게 된 불가득不可得의 반야를 말한다. 또 사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관相對觀을 떠난 절대 세계를 뜻하여 묘유妙有라고도 한다. 실상實相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말한다.

300 Gautama, 석가모니의 성姓名. 매우 뛰어난 소(牛)라는 뜻을 지녔다.

室<sup>301</sup>해야 하리라. 그렇지 못하다면 세존께서 꽃을 드신 뜻은 무엇이며, 가섭께서 미소지으신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었는지를 자세히 참구하고 또 살펴라. 그리하면 문득 크게 깨달으리라. 하나하나의 도를 얻고 핵심을 갈파한다면 그대들을 영리한 남아라고 인정해 주리라.”

蒙山示衆云 回心立志 不論尊卑 入聖超凡 豈拘僧俗 當機頓悟 一步到家 擬議思量 白雲萬里 豈不見 世尊拈花示衆迦葉破顏微笑 世尊云吾有正法眼藏涅槃妙心 付屬摩訶迦葉 教外別傳 無令斷絕 諸仁者見麼 識得老瞿曇 與大迦葉者 洞明正法眼藏涅槃妙心 已得入門 更當進步 承堂入室 其或未然 世尊拈花意作麼生迦葉微笑畢竟如何 子細叅究叅究 忽然大悟 一一道得 諦當 許你是个靈利男兒

몽산 선사는 또 말하였다.

“내가 며칠 전 거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장방將坊<sup>302</sup>에 들렀는데 시주금을 모으러 다니던 어떤 여인이 따라와 거리에서 절을 하며 말하였다.

‘제가 10년 동안 사람들을 교화하여 52관의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돈을 상주常住<sup>303</sup>에 희사하여 불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세 번이나 암자를 찾아갔지만 큰스님을 뵙지 못하였는데. 내 인연이 얕고 박복한 때문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 돈을 거두시어 저를 위해 그저 나무 한 그루와 돌 한 덩이와 기와 몇 조각과 벽돌 몇 장을 사셔서 불전을 잘 이루시어 삼보의 연을 맷게 하옵소서.’

내가 물었다.

‘그대가 10년 동안 사람들을 교화하여 돈 모으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으로 옷을 사 입고 밥을 사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미 10년 전에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대의 성은 무엇이고, 어느 곳에 살며, 무엇 때문에 발심을 하였는가?’

---

301 학인이 단독으로 방장이나 조실 등 선사의 방에 들어가서 참선 수행할 때의 문제나 공안 등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점검 받고 혹은 시험을 받는 것을 말한다.

302 “장방將坊은 승방僧坊이 되어야 하는데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혹시 장방이란 골목이 있는지 의문이다.”(각성, 앞의 책, p.611), “물건을 파는 가게를 의미한다.”(박문열 옮김, 『불조직지심체요절』, 범우사, p.195)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다.

303 스님들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재산.

‘제 성과 이름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양로원에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아주 큰 부잣집에 구걸을 가서 대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문지기들이 욕을 하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구정물을 뿐리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 운명이 그토록 좋지 못한 것은 전생에 일찍이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니 고뇌를 견딜 수 없어 통곡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용홍사龍興寺에 와서 어떤 강주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경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이에게 복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반성하고 또 반성하였습니다. 이로부터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 돈을 모으면서 서원하기를, 이 돈으로 결코 옷을 사 입지 않고 밥을 사 먹지 않을 것이요, 삼보의 인연을 맺으리라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여인이 또 말하였다.

‘지원至元 18년<sup>304</sup>에 채제령蔡提領이 큰스님을 청하였는데 그때 큰스님께서 <생로 병사의 고통은 남녀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다 있다. 태어나도 온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 생대生大요, 죽어도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대死大이다. 숨을 내쉴 때 들이쉬는 숨을 보장하지 못하니 덧없음이란 이토록 신속하다. 사람이 이런 일을 잘 살피서 발심하여 도道를 향하려는 자는 그저 ‘견성성불’이라는 화두를 깊이 살피고 생각하여야 한다. 무엇이 나의 성품인가 하고 깊이 살피고 생각하되 언제 어느 때라도 살피고 생각한다면 훌연히 밝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알게 되어 하루 종일 자기가 스스로의 주인이 될 것이요, 생사의 언덕에서 업을 바꾸게 될 것이다>라고 설법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를 지키면서 무엇이 나의 성품인가를 참구하여 지금까지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스님께서 <도는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見聞覺知)에 속해있는 것도 아니며, 아울러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서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무엇이 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 제발 꼭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

304 중국 원元 세조世祖 연간(1264~1294). 1281년이 지원至元 18년에 해당된다.

내가 말하였다.

‘참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이러한 의심을 절대로 놓아 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크게 의심한 뒤에라야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또 물었다.

‘지난날 그대가 보시한 돈에는 어떤 바람이 담겨 있는가?’

여인이 대답하였다.

‘제 바람은 삼보의 인연을 맺고 미묘한 도를 문득 깨닫고서 어서 빨리 여자의 몸을 버리고 서방 안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친히 보리의 미묘한 수기<sup>305</sup>를 받아 영원토록 빙궁한 고뇌를 여의고 다시금 이 세계에 돌아와 큰 시주자가 되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이러한 뜻이 있고 이러한 행원行願이 있음을 알고서 마침내 여인이 보시한 돈을 받아서 암자로 돌아와 그 여인을 위하여 한 길 다섯 자 되는 대들보 하나를 사들이고, 또한 대들보 기등을 받침 큰 돌 하나와 벽돌 500장과 통기와 50편片을 사서 그 여인의 바람을 채워 주었다. 그대들이여, 이 여인이 보시한 돈에 어떤 공덕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밝게 알아라. 하나하나 보고서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여겨지면 그때 그대들에게 정안正眼이 이미 밝아졌음을 인정하겠노라. 나는 감히 여인이 보시한 돈은 보시바라밀을 갖추고 있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동시에 그녀에게 위없는 보리의 수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리라.”

且如山僧 數日前出街廻到于將坊 有一女人 教化底 趕來當街禮拜云 我十年教化積聚鈔五十二貫 要捨與常住 造佛殿三次 到菴中不見長老 是我緣淺福薄 痛心無已 今望長老 攝受爲我 買一莖木一塊石幾片瓦幾片甞 圓成佛殿 結三寶緣 老僧云汝十年教化 所得鈔兩 來處不易 何不留取買衣着買食喫 女云我發心已十年矣 山僧問曰汝姓甚麼 何處住 因何發心 女云休問我姓名 我在養育院 住我二十前 因去大富貴家教化 立於門首 多 時把門人等 罵詈趕逐 有將惡水潑者 由是怨恨 我命不好 前世不會修來 苦惱如是不忍 痛哭而來 來至龍興寺 遇一講主 說經云若人有福 會供養佛 我聞是已 省心省心 從此發心 十年教化 積聚鈔兩 誓願不買衣着 不買食喫 要結三寶緣 又於至元十八年 蔡提領請長老 說法時 我聞說生老病死苦 人人皆有 不論男女貴賤貧富 生不知來處 是

---

305 부처가 수행자에게 미래에 성불하리라고 예언하는 것. 보리의 수기란, 수행자가 위없는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리라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다.

生大死不知去處是死大出息不保入息是無常迅速人能於此省察發心回道者但提撕話頭云見性成佛那个是我性但恁麼叅究看叅來叅去忽然悟明便知生來死去十二時中自有主宰生死岸頭可以轉業我從此持戒叅究那个是我性今經二十年曉得些子見聞又聞長老云道不屬見聞覺知亦不離見聞覺知至今疑着那个是道今日望因便教我山僧云正好叅究不可放捨此疑何耶大疑之下必有大悟山僧又問去日汝所捨鈔兩有願意無女云我有願結三寶緣頓悟妙道早捨女身徑生西方安樂世界親見阿彌陀佛親授菩提妙記永離貧窮苦惱却來此界作大施主普度衆生山僧見他有此志氣有此行願遂受所捨鈔歸菴爲他買一丈五尺樑一條又乘樑柱大石一箇甎五百片箇瓦五十片滿他願心諸仁者洞明此女所捨寶鈔具何功德也未一一見得分曉道得端的時許汝等正眼已明山僧敢道所捨鈔兩具檀波羅蜜十方諸佛同時爲授無上菩提記

## 151. 낙보樂普 화상의 부구가浮沤歌

### 낙보樂普<sup>306</sup> 화상의 부구가浮沤歌<sup>307</sup>

흐린 날에 비가 내려서 뜰에 고이니  
물 위로 넘실넘실 거품이 이는구나.  
거품 하나 사라지면 또 하나가 생겨나니  
연이어 사라지고 생겨나기를 끝없이 되풀이하네.  
처음엔 빗방울에서 거품이 생겼는데  
이제는 바람이 거품을 쳐서 다시 물로 돌아가는구나.  
거품과 물의 성품 다르지 않음을 모른 채  
그 변화를 따라서 다르다고 여기는구나.  
겉은 밝게 빛나고 안은 텅 비었으니  
안팎이 영롱한 것이 보석 같구나.

---

306 낙보 원인樂普元安, 834~898. 중국 당대唐代 스님. 청원 문하. 낙보는 주석하던 산 이름. 취미 무학과 임제 의현에게 도를 묻고 협산 선회夾山善會 회하에서 심요를 얻었다. 후에 호남성의 낙포와 낭주의 소계에 머물면서 사방에서 모여드는 승려들을 지도하였고 임종에 이르러 언종 상좌彌從上座를 접화하여 고고菩薩라고 칭했던 공안은 고래로 총림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당 광화光化 원년 12월 2일 입적하였다.

307 중생의 몸과 세상이 거품과도 같아 허망하기 이를 데 없으니 그런 실상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깨달음을 이를 것을 촉구하는 노래.

맑은 물결 위에서는 있는 듯 보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니 없는 것 같구나.  
유무와 동정의 일은 밝히기 어려워라.  
형상이 없는 중에도 형상은 있구나.  
거품이 물에서 생기는 줄만 알았지  
물 또한 거품에서 생기는 줄 어찌 알았으랴.  
물과 거품을 방편 삼아 나의 몸에 견주어 보니  
오온五蘊이 허망하게 모여 잠시 사람을 이루었구나.  
오온은 공하며 거품은 진실이 아님을 밝게 안다면  
본래의 참됨을 밝게 볼 수 있으리라.

樂普和尚浮漚歌

雲天雨落庭中水 水上漂漂見漚起  
前者已滅後者生 前後相續無窮已  
本因雨滴水成漚 還緣風激漚歸水  
不知漚水性無殊 隨他轉變將爲異  
外明瑩內含虛 內外玲瓏若寶珠  
正在澄波看似有 及乎動着又如無  
有無動靜事難明 無相之中有相形  
只知漚向水中出 豈知水亦從漚生  
權將漚水類予身 五蘊虛攢假立人  
解達蘊空漚不實 方能明見本來真

## 152. 등등騰騰 화상의 요원가了元歌

### 등등騰騰 화상의 요원가了元歌<sup>308</sup>

도를 닦으려 해도 도는 닦을 수 없고  
법을 물으려 해도 법은 물을 수 없네.

---

308 낙경洛京 복선사福先寺 인검仁儉이 지었다. 인검은 측천무후 무렵의 사람으로 늘 산야로 방랑하면서 정착하지 않아서 등등 화상이라 불렸다. 요원가了元歌란, 근원 즉 가장 밑바탕인 마음에 관해 완벽하게 깨달은 노래라는 뜻이다.

미혹한 사람들은 색色이 공空한 줄 알지 못하나  
깨달은 이에게는 역逆과 순順이 본래 없다네.  
팔만 사천 법문의  
지극한 이치는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  
자기 집 주변 일을 알려 애쓰고  
부질없이 다른 고을을 찾아다니지 말라.  
널리 배울 필요 없고  
말솜씨와 총명함, 준수함도 쓸모가 없네.  
어느 달이 크고 작은지 알 필요도 없고  
그 해(歲)의 나머지에도 전혀 관계하지 말라.  
번뇌가 바로 보리요  
맑은 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누군가 내게 와서 뭐하는지 물으면  
그 사람과는 함께 말하지 않으리라.  
아침에는 죽으로 배고픔을 달래고  
낮에는 다시 밥 한 술 뜨네.  
오늘은 그럭저럭 지냈으니  
내일도 자유롭게 이럭저럭 지내리라.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다 알지만  
짐짓 어리석고도 둔한 체 할 뿐이네.

騰騰和尚了元譖  
修道道無可修 問法法無可問  
迷人不了色空 悟者本無逆順  
八萬四千法門 至理不離方寸  
識取自家城郭 莫謾尋他鄉郡  
不用廣學多聞 不要辯才聰儻  
不知月之大小 不管歲之餘閏  
煩惱卽是菩提 淨花生於泥糞  
人來問我若爲 不能共伊談論  
寅朝用粥充飢 齋時更食一頓  
今日任運騰騰 明日騰騰任運  
心中了了摠知 且作佯癡鈍鈍

## 153. 양梁 보지寶誌<sup>309</sup> 화상의 대승찬송大乘讚頌 10수

〈1〉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지만  
눈앞에 있다 해도 보기 어렵다.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한다면  
형상과 소리와 언어를 없애지 말라.  
언어가 바로 커다란 도이니  
번뇌를 끊어 없애지 말라.  
번뇌는 본래 비고 고요한데  
허망한 생각들이 서로 얹히고 설친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알 수 없다.  
마음으로 취하는 형상을 진실하다 여긴다면  
결코 성품을 바로 보지 못할 것이다.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려 하면  
업은 생사의 크나큰 조짐이니  
생사의 업은 항상 몸을 따르니  
캄캄한 지옥에서도 깨닫지 못하네.  
진리를 깨달음에 본래부터 차이가 없으니  
깨달은 뒤엔 누가 늦고 빠른 것이라.  
법계의 부피는 허공과도 같은데  
중생의 마음 지혜로 스스로 작다고 여긴다.  
그저 '나'라는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면  
열반의 법식으로 항상 배가 부르리라.

---

309 금릉 보지金陵寶誌, 418~514. 중국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스님. 금릉은 출신지 이름. 어려서 출가하여 강소성 도립사에서 선정을 닦았다. 태시泰始(465~471) 초년에 불시에 일어나 거소를 정하지 않고 음식도 때를 정하지 않으며, 머리도 길게 기르고 냄비를 손에 들고 행각하는 기행을 보였다. 502년경에 「대승찬大乘讚」 24수를 지어 황제에게 바쳤고, 또 각종 이적을 보여 대중을 교화하였다. 친감天監 13년 겨울에 화림원 불당의 금강신장을 밖에 놓게 하고 열흘 만에 입적하였다.

梁寶誌和尚大乘讚頌十首

大道常在目前 雖在目前難覩  
若欲悟道真體 莫除色聲言語  
言語卽是大道 不可斷除煩惱  
煩惱本來空寂 妄情遞相纏繞  
一切如影如響 不知何惡何好  
有心取相爲實 定知見性不了  
若欲作業求佛 業是生死大兆  
生死業常隨身 黑暗獄中未曉  
悟理本來無異 覺後誰脫誰早  
法界量同大虛 衆生心智自小  
但能不起吾我 涅槃法食常飽

〈2〉

허망한 몸을 거울에 대고 그림자를 비추면  
그림자와 허망한 몸이 다르지 않다.  
그림자는 버리고 몸만 남기려 한다면  
몸의 근본이 허망한 것과 같은 줄 모르는 것이다.  
몸의 근본과 그림자는 다르지 않나니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없앨 수가 없다.  
하나를 남기고 다른 하나를 버리려 한다면  
영원히 진리와 서로 어긋날 것이다.  
또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리라.  
번뇌는 마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에 있으랴.  
분별하고 취사하느라 애쓰지 않으면  
저절로 순식간에 도를 얻으리라.  
꿈꿀 때 꿈속에서 하던 짓과  
깨고 난 뒤 깨어난 경지는 모두 없으니  
깨어났을 때와 꿈속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전도된 두 가지 소견이 다르지 않다.  
미혹을 고쳐 깨달음을 취해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장사꾼들과 무엇이 다르리.  
동정動靜이 모두 없어져 항상 고요하면  
저절로 진여와 하나가 될 것이다.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고 말한다면  
부처와는 언제나 아득하게 멀어져 있을 것이다.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으니  
결국에는 자연히 남김 없으리라.

妄身臨鏡照影 影與妄身不殊  
若欲去影留身 不知身本同虛  
身本與影不殊 不得一有一無  
若欲存一捨一 永與眞理相踈  
更若愛聖憎凡 生死海裏浮沉  
煩惱因心故有 無心煩惱何居  
不勞分別取捨 自然得道須臾  
夢時夢中所作 覺時覺境都無  
飜思覺時與夢 頽倒二見不殊  
改迷取覺求利 何異販賣商徒  
動靜兩亡常寂 自然契合眞如  
若言衆生異佛 迥迥與佛恒殊  
佛與衆生不二 自然究竟無餘

### 〈3〉

법성法性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하여  
거침없이 활짝 트여서 가없다.  
취하거나 버리는 사이에 마음을 두면  
두 경계에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안색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 선정에 들거나  
경계를 거두고 마음을 각관覺觀<sup>310</sup>에 두는 일은  
나무 인형이 도를 닦는 격이니

---

310 각覺은 사물을 미루어 짐작하는 마음의 작용 중에서 비교적 양성한 작용을 말하고, 관觀은 각보다 더 세밀한 작용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선정을 방해한다고 한다.

어느 때에 피안에 도달할 수 있을까.  
모든 법은 본래 공하여 집착할 것 없으며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뜬구름과 다름없네.  
본성이 원래 공한 줄 훌연히 깨닫는다면  
열병을 앓다 땀낼 때처럼 후련하리라.  
지혜 없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대의 색신色身은 별같이 흩어진다는 것을.

法性本來常寂 蕩蕩無有邊畔  
安心取捨之間 被他二境回換  
歛容入定坐禪 摄境安心覺觀  
機關木人修道 何時得達彼岸  
諸法本空無着 眞似浮雲會散  
忽悟本性元空 怡似熱病得汗  
無智人前莫說 打你色身星散

#### 〈4〉

그대 중생들에게 바로 말을 전하니  
있지 않는 것이 곧 없지 않는 것이다.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은 다르지 않은데  
굳이 있음을 상대하여 허망하다고 논할 것인가.  
있고 없음은 허망한 마음으로 세운 이름이니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다.  
두 가지 이름은 그대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생각이 없으면 바로 본래 진여이다.  
생각을 지닌 채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산 위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 잡으려 하는 것과 같네.  
아무리 애를 써도 이익이 없나니  
그 얼마나 부질없는 헛수고인가.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면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번뇌는 모두 없어지리라.

그것이 없어지면 몸조차 없어지고  
몸이 없어지면 부처도 원인도 없다.  
부처도 원인도 얻을 수 없게 되면  
저절로 법도 사람도 없어지리라.

報你衆生直道 非有卽是非無  
非有非無不二 何須對有論虛  
有無妄心立號 一破一个不居  
兩名由你情作 無情卽本眞如  
若欲存清覓佛 將網山上羅魚  
徒費功夫無益 幾許在用功夫  
不解卽心卽佛 眞似騎驢覓驢  
一切不憎不愛 者个煩惱須除  
除之則須除身 除身無佛無因  
無佛無因可得 自然無法無人

### 〈5〉

큰 도는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설함은 어리석은 범부 위한 방편이다.  
이치를 깨닫고 수행을 돌이켜 살펴보면  
비로소 그릇되게 공부한 줄 알게 되리라.  
아직 원통圓通<sup>311</sup>의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저 알음알이에 집착하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음을 돌이켜 보라.  
그 누가 이러한 설법 알아들으랴.  
그대에게 이르니 스스로를 향해 깊이 사색하라.  
그대 스스로 지난 날 죄과를 보아서  
오욕五欲의 부스럼을 없애 버려라.

---

311 주원용<sup>周圓融通</sup>의 줄임말로, 절대 진리는 만물에 두루 퍼져 있다는 뜻이다. 불보살의 깨달음의 경지 를 말한다.

해탈하여 자유롭고 한가하게 거니니  
곳곳에서 풍류를 헐값에 파는구나.<sup>312</sup>  
발심하여 사려고 하는 자 누구인가.  
그는 나와 같이 근심 없는 경지 얻을 것이다.

大道不由行得 說行權爲凡愚  
得理返觀於行 始知枉用功夫  
未悟圓通大理 要須言行相扶  
不得執他知解 迴光返本全無  
有誰解會此說 教君向己推求  
自見昔時罪過 除却五欲瘡疣  
解脫逍遙自在 隨方賤賣風流  
誰是發心買者 亦得似我無憂

## 〈6〉

내견內見과 외견外見<sup>313</sup>이 모두 나쁘고  
불도와 마도 모두 잘못 되었다.  
이것과 저것이라는 두 가지 파순波旬은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구한다.  
생사를 깨달으면 본체가 공한데  
부처와 마귀가 어느 곳에 붙을까.  
허망한 생각으로 분별함을 말미암아  
전신前身과 후신後身이 외롭고 박복하여  
육도윤회가 멈추지 않고  
업을 끝내 제거하지 못하리라.  
생사에서 유랑하는 것은  
모두가 어지러운 잔꾀 때문이네.  
몸은 본래 허무하여 진실하지 않으니

---

312 풍류는 법法을 말한다. 진리를 닦은 이들이 청정한 것은 놓아두고 자비를 드리워 중생의 근기에 맞춰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각성, 앞의 책, p.646 참고)

313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그 누가 짐작하리.  
있고 없음은 내 스스로 만든 것이니  
허망한 마음으로 헤아리느라 고생하지 말라.  
중생의 몸은 허공과 같으니  
번뇌가 어느 곳에 붙으랴.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번뇌는 저절로 녹아 없어지리라.

內見外見總惡 佛道魔道俱錯  
彼此二大波旬 便卽獸苦求樂  
生死悟本體空 佛魔何處安着  
只由妄情分別 前身後身孤薄  
輪回六道不停 結業不能除却  
所以流浪生死 皆由橫生經略  
身本虛無不實 返本是誰斟酌  
有無我自能爲 不勞妄心卜度  
衆生身同大虛 煩惱何處安着  
但無一切希求 煩惱自然消落

#### 〈7〉

가소롭구나. 꿈틀거리는 중생들이여.  
저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짐작하는구나.  
그저 번철 옆에서 떡을 찾으려고 할 뿐  
근본으로 돌아가 밀가루를 볼 줄은 모르는구나.  
밀가루는 정正과 사邪의 근본인데  
사람이 조작하여 다양하게 변화시켜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니  
짐짓 치우쳐서 애욕에 빠져들지 말아야 하리라.  
짐착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요  
구함이 있으면 또다시 그물에 걸리리라.  
인자한 마음으로 일체를 평등하게 대하면  
진여와 보리가 저절로 나타나리라.  
나와 너라는 두 마음을 품는다면

대면하고서도 부처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可笑衆生蠢蠢 各執一般異見  
但欲傍鑿求餅 不解返本觀麪  
麪是邪正之本 由人造作百變  
所須任意從橫 不假偏耽愛戀  
無着卽是解脫 有求又遭羅罥  
慈心一切平等 眞如菩提自現  
若懷彼我二心 對面不見佛面

〈8〉

세간의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도를 가지고서 다시 도를 구하고자 하는가.  
여러 가지 뜻을 찾아 분분하니  
자기 구제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오로지 남의 글을 찾아서 어지럽게 말하여  
지극한 이치 오묘하고 좋다고 스스로 말한다.  
일생을 헛되이 수고롭게 보낼 뿐이니  
영겁토록 생사에 빠지고 말리라.  
흔탁한 애욕에 마음 얹혀 버리지 못하니  
청정한 지혜의 마음이 절로 괴롭구나.  
진여와 법계의 총림이  
도리어 가시덤불과 쑥대밭이 되었구나.  
집착하여 누런 잎을 금이라 여겨  
마삼(麻)을 버리고 황금을 구할 줄은 모르는구나.  
바른 생각 잃고서 미친 듯이 달아나니  
여지로 좋게 꾸미려 할 뿐이네.  
입으로는 경과 논을 외고 있지만  
속마음은 언제나 바짝 말랐네.  
하루아침에 본래 마음이 공한 줄 깨달으면  
진여를 갖추어서 하나도 모자람이 없으리라.

世間幾許癡人 將道復欲求道

廣尋諸義紛紜 自救己身不了  
全尋他文亂說 自稱至理妙好  
徒勞一生虛過 永劫沉淪生死  
濁愛纏心不捨 清淨智心自惱  
真如法界叢林 返作荊棘荒草  
但執黃葉爲金 不悟弃麻求金  
所以失念狂走 強力裝持相好  
口內誦經誦論 心裏心常枯槁  
一朝覺本心空 具足真如不足

### 〈9〉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고만 하나  
끊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도둑이네.  
도둑들이 번갈아가며 서로 제거할 뿐이니  
어느 때 본래의 어묵語默<sup>314</sup>을 깨달을 것인가.  
입으로는 천 권의 경을 외우지만  
본체로 다가가 경의 뜻을 물으면 알지 못하니  
불법의 원통圓通함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문자에 집착하여 뜻을 놓치고 마네.  
두타頭陀 아련야阿練若<sup>315</sup> 고행으로는  
후세 몸의 공덕을 바랄 수는 있겠지만  
그 희망은 성인과 멀어지게 할 뿐이니  
큰 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으랴.  
꿈속에서 강을 건널 때  
사공이 강 북쪽으로 건네다 주었지만  
문득 깨어나면 침상에 편히 잠들어 있었고  
배로 건너간 사실은 전혀 없으며,  
뱃사공과 강 건넌 사람

---

314 일상 동작. 일상의 생활 그 자체.

315 aranya. 아련야阿蘭若. 불교 수행자가 머무는 수도처. 한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의 수행자가 머물면서 함께 수행하기에 적합한, 마을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한적한 곳.

두 사람은 본래부터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과 같네.  
중생들은 미혹하고 헷갈려 서로 속박하며  
삼계를 오가니 피로하기 이를 데 없네.  
생사가 꿈과 같음을 깨닫는다면  
일체를 구하려던 마음이 절로 쉬어지리라.

聲聞心心斷惑 能斷之心是賊  
賊賊遞相除遣 何時了本語默  
口內誦經千卷 體上聞經不識  
不解佛法圓通 徒勞尋行數墨  
頭陀阿練苦行 希望後身功德  
希望卽是隔聖 大道何由可得  
比如夢裏渡河 船師度過河北  
忽覺床上安眠 失却度船軌則  
船師及彼度人 兩箇本不相識  
衆生迷倒羈絆 往來三界疲極  
覺悟生死如夢 一切求心自息

### 〈10〉

깨달아 알면 곧 보리이니  
근본을 깨치면 단계는 없는 것이네.  
안타깝구나! 범부들이 허리가 굽어  
팔십이면 걷지 못하는구나.  
일생을 한갓 헛되이 보낼 뿐  
세월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스승의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  
어미를 잊은 젖먹이와 다를 바 없네.  
도인과 속인들이 앞다투어 모여들어  
종일 죽은 말만을 듣고 있구나.  
자기의 무상은 관찰하지 않고  
마음은 이리떼처럼 탐욕으로 치달리네.  
애달프구나. 이승<sub>二乘</sub>은 협소하고 저열하니  
몸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술이나 고기, 오신채<sup>316</sup>를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경멸하듯 쳐다보네.  
다시 그릇되게 행동하고 미쳐 날뛰며  
기氣를 닦는다며 소금도 식초도 먹지 않는구나.  
가장 참되고 으뜸가는 가르침을 깨닫는다면  
짐짓 남녀를 분별할 필요는 없으리라.

悟解卽是菩提 了本無有階梯  
堪嘆凡夫樞僕 八十不能跋蹄  
徒勞一生虛過 不覺日月遷移  
向上看他師口 恰似失妳孩兒  
道俗崢嶸聚集 終日聽他死語  
不觀己身無常 心行貪如狼虎  
堪嗟二乘狹劣 要須摧伏六府  
不食酒肉五辛 邪眼看他飲咀  
更有邪行猖狂 修氣不食鹽醋  
若悟上乘至真 不假分別男女

## 154. 지공誌公 화상의 14과 송과 송

### 〈1〉 보리와 번뇌는 둘이 아니다(菩提煩惱不二)

중생은 도 닦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번뇌를 없애려고 하네.  
번뇌는 본래 비고 고요한데  
도를 가지고 다시 도를 찾으려 하는구나.  
한 생각 마음이 바로 그것인데  
어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가.  
크나큰 도는 분명히 눈앞에 있거늘

---

316 맵고 냄새가 강한 식물. 불제자가 먹어서는 안 될 매우 채소 다섯 가지. 미늘, 부추, 파, 달래, 흥거<sup>興渠</sup>를 말한다. 흥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는 없고 우전국에서 나는 식물이다. 오훈<sup>五葷</sup>이라고도 한다.

미혹하고 어리석은 이는 알지 못하네.  
불성은 천진하고 자연스런 것이요  
인연도 없고 닦아서 만들 것도 없네.  
삼독三毒이 혀되고 거짓된 줄 모르고  
부침과 생사에만 허망하게 집착하네.  
예전 미혹했을 때가 해탈이었는데  
오늘에 비로소 깨달으니 이른 것이 아니네.

菩提煩惱不二  
衆生不解修道 便欲斷除煩惱  
煩惱本來空寂 將道更欲覓道  
一念之心卽是 何須別處尋討  
大道皎在目前 迷倒愚人不了  
佛性天真自然 亦無因緣修造  
不識三毒虛假 妄執浮沉生老  
昔時迷日<sup>317</sup>爲脫 今日始覺非早

## 〈2〉 지킴과 범함은 둘이 아니다(持犯不二)

대장부는 행동할 때에 걸림이 없으니  
계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지킴과 범함은 본래 생겨나지 않았는데  
어리석은 이들은 그에 속박 당한다.  
지혜로운 이는 하는 일이 모두 공하지만  
성문은 부딪치는 일마다 막히기만 한다.  
대사大士(보살)의 육안은 원만하고 두루 통해 있지만  
이승二乘의 천안天眼에는 가린 것이 있다.  
공한 가운데 유무를 허망하게 집착하고  
형상과 마음이 걸림 없는 줄 알지 못하네.  
보살은 속인들과 함께 살아도  
청정하여 세속에 물든 적이 없다.

---

317 다른 번역본에는 ‘본本’으로 되어 있다.(각성, 앞의 책, p.659)

어리석은 사람은 열반을 탐하고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이에겐 생사가 곧 진실한 경계(實際)이네.  
법성은 텅 비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연기緣起로 이 계송을 대략 만들었네.  
백 살 먹어도 지혜 없으면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라도 지혜 있으면 백 살이리라.

持犯不二

丈夫運用無碍 不爲戒律所制  
持犯本自無生 愚人被他禁繫  
智者造作皆空 聲聞觸途爲滯  
大士肉眼圓通 二乘天眼有翳  
空中妄執有無 不達色心無碍  
菩薩與俗同居 清淨曾無染世  
愚人貪着涅槃 智者生死實際  
法性空無言說 緣起略爲茲偈  
百歲無知小兒 小兒有智百歲

### 〈3〉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다(佛與衆生不二)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으며  
큰 지혜도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네.  
어째서 밖으로만 보배를 구하는가.  
몸 밭(身田)에 밟은 구슬을 스스로 지녔거늘  
바른 도와 그릇된 도가 둘이 아니고  
법부와 성인이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미혹과 깨달음은 본래부터 차별이 없고  
열반과 생사는 한 가지이네.  
결국에는 반연攀緣도 공적하니  
뜻과 생각의 맑고 고요한 경지를 구할 뿐이다.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니  
고요히 무위의 경지에 저절로 들어가리라.

佛與衆生不二

衆生與佛無殊 大智不異於愚  
何須向外求寶 身田自有明珠  
正道邪道不二 了知凡聖同途  
迷悟本無差別 涅槃生死一如  
究竟攀緣空寂 惟求意想清虛  
無有一法可得 僞然自入無爲

#### 〈4〉 이치와 현상은 둘이 아니다(理事不二)

마음자리는 자재롭고 고요하며  
법성에는 본래 열 가지 번뇌(十纏)<sup>318</sup>가 없다.  
모든 것이 부처님 일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생각을 거두어 좌선을 하는가.  
망상은 본래부터 공적하니  
반연을 끊어 없앨 필요가 없다.  
지혜로운 이는 얻을 만한 마음이 없으니  
저절로 다툼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어질 것이다.  
무위의 크나큰 도를 알지 못하면서  
언제 현묘한 이치를 증득하리.  
부처와 중생은 한 종류이고  
중생이 바로 세존인데  
범부는 혗되어 분별을 내어  
무無 속에서 유有에 집착해 미혹에 분주하구나.  
탐욕과 성냄이 비고 고요한 줄 알면  
그 어느 것이 진문眞門 아니리.

理事不二  
心王自在偽然 法性本無十纏  
一切無非佛事 何須攝念坐禪

---

318 탐貪 등의 근본 번뇌에 부수적으로 따라 일어나는 열 가지 번뇌. 무침無慚 · 무괴無愧 · 질嫉 · 간慳 · 회悔 · 면眠 · 도거悼舉 · 혼침惛沈 · 분忿 · 부覆이다. 여러 가지 악을 지어 중생을 엊어매어 생사의 옥에 가둔다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한다.

妄想本來空寂 不用斷除攀緣  
智者無心可得 自然無諍無喧  
不識無爲大道 何時得證幽玄  
佛與衆生一種 衆生卽是世尊  
凡夫妄生分別 無中執有迷奔  
了達貪瞋空寂 何處不是眞門

#### 〈5〉 고요함과 산란함은 둘이 아니다(靜亂不二)

성문은 소란을 피하고 고요함을 구하니  
밀가루를 버리고 떡을 구하는 것과 같네.  
떡은 본래 밀가루에서 생겨났는데  
만드는 사람 따라 다양하게 변하네.  
번뇌가 곧 보리이고  
마음이 없으면 경계 또한 없는 것이요,  
생사가 열반과 다르지 않고  
탐욕과 성냄은 아지랑이나 그림자와도 같네.  
지혜로운 이는 부처를 구하려는 마음 없지만  
어리석은 이들은 밖으로 치닫고 있네.  
일생을 혀되어 보내고 있으니  
여래의 묘한 정수리 보지 못하리라.  
음욕과 성냄의 성품이 공한 줄 안다면  
화탕<sup>319</sup>護湯 지옥과 노탄<sup>320</sup>鑪炭지옥이 저절로 식으리라.

靜亂不二  
聲聞猷喧求靜 猶如弃麪求餅  
餅卽從來是麪 造作隨人百變  
煩惱卽是菩提 無心卽是無境

---

319 끓는 물에 삶기는 고통을 받는 지옥. 넓이 40유순이 되는 18개의 큰 솔이 있어 5백 명의 나찰들이 불을 때면 솔 안에 있는 끓는 쇳물이 뿌어서 불꽃이 되고 이것이 화륜火輪이 되어 다시 솔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계를 파한 이, 중생을 죽여 고기를 먹은 이, 산과 들에 불을 질러 많은 생명체를 다치게 한 이, 또 중생을 태워 죽인 이는 죽어서 이 솔에 삶기는 고통을 받고, 이 과보가 다하면 축생으로 태어나고 8천만 년을 지나서 겨우 사람의 몸을 받으나, 병이 많고 수명이 짧다고 한다.

生死不異涅槃 貪嗔如焰如影  
智者無心求佛 愚人向外馳騁  
徒勞空過一生 不見如來妙頂  
了達姪怒性空 鑊湯鑪炭自冷

### 〈6〉 선과 악은 둘이 아니다(善惡不二)

나의 몸과 마음 쾌락하니  
고요하여 선도 없고 악도 없네.  
법신은 자재하여 방위도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정각 아닌 것 없네.  
육진六塵은 본래부터 공하고 고요한데  
범부가 허망하게 집착을 내는 것이네.  
열반과 생사는 평등할 뿐이니  
사해四海의 그 무엇이 후하고 박할 것인가.  
무위의 큰 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마음으로 헤아릴 필요가 없는 것이네.  
보살은 얹매임이 없어 영통靈通하나니  
하는 일 항상 미묘한 깨달음을 머금고 있네.  
성문들은 법에 집착하여 좌선을 하니  
누에가 실을 토해 스스로 가두는 것과 같네.  
법성은 본래부터 둥글고도 밝으니  
병이 나았는데 왜 약에 집착하는가.  
모든 법이 평등한 줄 안다면  
고요하고 맑고 상쾌하리라.

善惡不二  
我自身心快樂 倏然無善無惡  
法身自在無方 觸目無非正覺  
六塵本來空寂 凡夫妄生執着  
涅槃生死平等 四海阿誰厚薄  
無爲大道自然 不用將心畫度  
菩薩散誕靈通 所作常含妙覺  
聲聞執法坐禪 如蠶吐絲自縛

法性本來圓明 痘愈何須執藥  
了知諸法平等 像然清虛快樂

### 〈7〉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色空不二)

법성은 본래 푸르지도 노랗지도 않은데  
중생이 부질없이 문장을 지어서  
'내가 지관止觀을 설하노라'고  
제멋대로 소란스레 미쳐 날뛰네.  
원통圓通의 현묘한 이치를 모르니  
어느 때나 참되고 항상된 도리를 알 수 있겠는가.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남에게 처방전을 일러주고 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것 같지만  
속마음은 이리떼와 같네.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이에겐 천당과 다름없네.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항상하여 일어나지 않으니  
발길 닿는 곳이 모두 도량이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데  
중생이 제멋대로 둘로 나누네.  
삼독三毒을 없애려고 한다면  
더욱더 재앙을 떠나지 못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마음이 곧 부처인 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극락에만 가려 하네.

色空不二  
法性本無青黃 衆生謾造文章  
吾我說他止觀 自意擾擾顛狂  
不識圓通妙理 何時得會眞常  
自病不能治療 却教他人藥方  
外看將爲是善 心內猶若豺狼  
愚人畏其地獄 智者不異天堂  
對境心常不起 舉足皆是道場

佛與衆生不二 衆生自作分張  
若欲除却三毒 迢迢不離灾殃  
智者知心是佛 愚人樂往西方

### 〈8〉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生死不二)

세간의 모든 법은 허깨비와도 같고  
생사는 천둥이나 번개와 같네.  
법신은 자재롭고 원통하여  
온 세상 드나들어도 간격이 없네.  
헷갈리고 뒤바뀐 망상도 본래 비었으니  
반야는 미혹도 어지럼도 없는 것이네.  
삼독은 본래 스스로 해탈이니  
생각을 모아 좌선할 필요 있을까.  
다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계율에 의하여 판결하려고 하네.  
적멸의 진여를 알지 못하면서  
언제 피안에 오를 수 있으랴.  
지혜로운 이는 끊어야 할 악이 없으니  
쓰임에 따라 마음대로 합치거나 흩는 것이네.  
법성은 본래 비고 고요하여  
생사에 얹매임을 받지 않는데  
번뇌를 없애려고 한다면  
이 자가 바로 무명無明의 어리석은 사람이네.  
번뇌가 곧 보리인데  
달리 선정을 구할 필요 있을까.  
진실한 경지(實際)에는 부처도 없고 악마도 없으며  
마음 본체(心體)에는 형상도 없고 끊음도 없다네.

生死不二  
世間諸法如幻 生死猶若雷電  
法身自在圓通 出入山河無間  
顛倒妄想本空 般若無迷無亂  
三毒本自解脫 何須攝念禪觀

只爲愚人不了 從他戒律決斷  
不識寂滅眞如 何時得登彼岸  
智者無惡可斷 運用隨心合散  
法性本來空寂 不爲生死所絆  
若欲斷除煩惱 此是無明癡漢  
煩惱即是菩提 何用別求禪觀  
實際無佛無魔 心體無形無斷

### 〈9〉 단견과 상견은 둘이 아니다(斷常不二)

대장부는 당당하게 활동하니  
노니는 것이 자유롭고 걸림이 없네.  
어느 것도 그를 해치지 못하니  
견고하기가 금강과도 같네.  
두 끝과 중도에 집착하지 않고  
고요하여 단견斷見도 아니고 상견常見도 아니네.  
오욕五欲과 탐내고 성냄이 바로 부처이니  
지옥이 천당과 다르지 않네.  
어리석은 사람은 혗되어 분별을 내어  
미친 듯이 생사를 떠도는 것이네.  
지혜로운 이는 물질에도 걸림이 없는데  
성문은 깨닫지 못해 초조해 하네.  
법성은 본래 티가 없는데  
중생들이 혗되어 파랗다 노랗다 집착하네.  
여래께서 어리석은 이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간혹 지옥과 천당을 설법하신 것이네.  
미륵이 봄 안에 저절로 있는데  
어찌 다른 곳에서 생각하겠는가.  
진여의 불상을 저버리니  
이 사람이 미치광이 아니겠는가.  
성문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말과 글만 죽어 다니네.  
말과 글은 본래 참된 도가 아니며

싸울수록 말싸움만 거세어지네.  
마음속이 독사와 전갈 같으니  
물리면 이내 상처를 입으리라.  
글 속에서 뜻을 취할 줄 모르니  
언제나 진상眞常을 알게 될까.  
죽어서는 무간지옥에 들어가  
신식神識이 재앙을 받게 되리라.

斷常不二

丈夫運用堂堂 逍遙自在無妨  
一切不能爲害 堅固猶若金剛  
不着二邊中道 僞然非斷非常  
五欲貪瞋是佛 地獄不異天堂  
愚人妄生分別 流浪生死猖狂  
智者達色無尋 聲聞不了惄惶  
法性本無瑕翳 衆生妄執青黃  
如來引接迷愚 或說地獄天堂  
彌勒身中自有 何須別處思量  
弃却真如佛像 此人卽是顛狂  
聲聞心中不了 唯只趁逐言章  
言章本非眞道 轉加鬭詐剛強  
心裏蛇蛇蠍蠍 蟋着便卽遭傷  
不解文中取義 何時得會眞常  
死入無間地獄 神識枉受灾殃

#### 〈10〉 진과 속은 둘이 아니다(眞俗不二)

법사의 설법은 매우 좋지만  
마음은 번뇌를 떠나지 못하였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려 하지만  
그의 태어나고 늙음(生老)만을 더할 뿐이네.  
참과 허망은 본래 둘이 아닌데  
법부는 허망을 버리고 도만 찾으려 하네.  
사부대중이 운집하여 법문을 들으려 하나  
높은 자리에선 논의만 끝이 없구나.

남쪽 자리 북쪽 자리 서로 다투는데  
사부대중들은 좋다고 말하네.  
입으로 감로를 말하고는 있으나  
그 마음은 언제나 바싹 말라 있네.  
자기에게는 본래부터 돈 한 푼 없으면서  
밤낮 없이 남의 보물만 세고 있으니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순금을 버리고 풀더미를 지는 것과 같네.  
마음속 삼독을 버리지 않고서  
언제나 그 도를 얻게 될까.

眞俗不二

法師說法極好 心中不離煩惱  
口談文字化他 轉更增他生老  
眞妄本來不二 凡夫弃妄覓道  
四衆雲集聽講 高座論議浩浩  
南座北座相爭 四衆爲言爲好  
雖然口談甘露 心裏尋常枯燥  
自己元無一錢 日夜數他珍寶  
恰似無智愚人 弃却眞金擔草  
心中三毒不捨 未審何時得道

### 〈11〉 해탈과 속박은 둘이 아니다(解縛不二)

율사는 계율을 지켜 스스로 속박하니  
스스로 속박하면서 남도 속박하네.  
겉으로는 편안하고 고요한 듯 거동하지만  
마음속은 성난 파도와 같네.  
생사의 나룻배를 타지 않고서  
어찌 애욕의 강을 건널 수 있으랴.  
참 종지(眞宗)의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여  
소견은 그릇되고 말만 더욱 많아지네.  
두 비구가 율을 범하고서 우바리를 찾아가 물으니  
우바리가 율에 의해 그 죄를 말하자

비구들은 더욱 얹매이게 되었네.  
방장실에 있던 유마 거사가  
그들에게 다가와 꾸짖으니  
우바리는 잠자코 아무 대꾸 못하였고  
유마거사는 법에 잘못 없다고 설하였네.  
그리고 계戒의 성품은 허공과 같으니  
안팎 사바세계 그 어디에도 있지 않네.  
생멸 없애라는 권고를 수긍하지 않으니  
홀연히 깨달으면 석가와 똑같으리라.

解縛不二

律師持律自縛 自縛亦能縛他  
外作威儀恬靜 心內恰似洪波  
不駕生死船筏 如何度得愛河  
不解真宗正理 邪見言辭繁多  
有二比丘犯律 便却往問優波  
優波依律說罪 轉增比丘網羅  
方丈室中居士 維摩便卽來呵  
優波默然無對 淨名說法無過  
而彼戒性如空 不在內外娑婆  
勸除生滅不肯 忽悟還同釋迦

〈12〉 경계와 비춤은 들이 아니다(境照不二)

선승의 본체는 무명을 떠났는데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겠는가.  
지옥과 천당이 한 가지 모습이요,  
열반과 생사도 혀된 이름일 뿐이네.  
끊어야 할 탐욕과 성냄도 없고  
이루어야 할 불도도 없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니  
자연성지自然聖智는 초롱초롱해지네.  
육진六塵(바깥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절마다 홀로 무생無生에 계합되네.

바른 깨달음은 한 순간에도 깊이 아니  
 삼세가 탄탄하여 모두 평등하네.  
 제지 받을 법도 없고 올도 없으며  
 고요히 원만한 성취에 참으로 들어갔네.  
 사구四句<sup>320</sup>와 백비百非<sup>321</sup>가 끊어졌으니  
 허공과 같아 짓는 일도, 하는 일도 없다네.

境照不二

禪師體離無明 煩惱從何處生  
 地獄天堂一相 涅槃生死空名  
 亦無貪瞋可斷 亦無佛道可成  
 衆生與佛平等 自然聖智惺惺  
 不爲六塵所染 句句獨契無生  
 正覺一念玄解 三世坦然皆平  
 非法非律所制 像然真入圓成  
 絶此四句百非 如空無作無爲

〈13〉 운용에는 결림이 없다(運用無尋)

나 이제 도도히 자유로워졌으니  
 왕공도 재상도 부럽지 않네.  
 사계절이 금강과 같고  
 괴롭거나 즐거워도 마음은 항상하여 변함이 없네.  
 법보는 수미산과 같고  
 지혜는 바다보다 넓네.  
 여덟 가지 바람<sup>322</sup>에 이끌리지 않으니  
 정진도 게으름도 없네.

320 사구분별四句分別. 존재에 관한 네 가지 분류법. 사물의 존재방식을 나누는 네 종류의 범주. 있다(有), 없다(無), 있으면서 없다(亦有亦無),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非有非無)의 네 가지.

321 수많은 부정否定. 사구四句를 근본으로 세워지는 비非의 범주. 또는 고정된 견해를 깨기 위해서 끝없이 부정을 거듭해가는 일. 영원한 부정.

322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여덟 종류의 행복하거나 불행한 상태. 이익, 쇠퇴, 훼손, 명예, 떠받듦, 비난, 괴로움, 즐거움의 여덟 가지이다.

성품에 따라 미친 듯이 부침하고  
얽매임 없이 종횡무진 자유롭네.  
시퍼런 칼날이 목을 겨누어도  
나 스스로 편안하여 거들떠보지도 않네.

運用無尠

我今滔滔自在 不羨公王卿宰  
四時猶若金剛 苦樂心常不改  
法寶喻於須彌 智慧廣於江海  
不爲八風所牽 亦無精進懈怠  
任性浮沈若顛 散誕從橫自在  
莫遮刀劍臨頭 我自安然不采

#### 〈14〉 미혹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다(迷悟不二)

어리석었을 때에는 공空을 색色이라 여겼고  
깨달으면 색을 공이라 여기네.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본래 차별이 없으니  
색과 공은 결국 같은 것이네.  
어리석은 사람은 남쪽을 북쪽이라 말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동쪽도 서쪽도 없음을 아네.  
여래의 현묘한 진리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한 생각 속에 있네.  
아지랑이는 본래 물이 아닌데  
목마른 사슴이 미친 듯 바쁘게 쫓아가네.  
제 몸은 거짓이고 진실하지 않은데  
공空을 가지고서 다시 공을 찾으려고 하네.  
세상 사람들 미혹이 이토록 심하니  
개가 텅텅 짖는 듯하구나.

迷悟不二

迷時以空爲色 悟則以色爲空  
迷悟本無差別 色空究竟還同  
愚人喚南作北 智者達無西東

欲覓如來妙理 常在一念之中  
陽焰本非其水 渴鹿狂趨恩恩  
自身虛假不實 將空更欲覓空  
世人迷倒至甚 如犬吠雷咷咷

## 155. 미증유경未曾有經

『미증유경未曾有經』에서는 말하고 있다.

묘길상보살은 어떤 사람이 구슬프게 울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살생의 업을 지었으니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구제 받을 수 있을까?”

묘길상보살은 이 사람의 인연이 무르익어 교화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스스로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여 자기도 슬피 울며 말하였다.

“나는 살생의 업을 지었으니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리라.”

앞의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나 또한 그러하오.”

그러자 변화한 사람이 그에게 일러주었다.

“부처님만이 우리를 구제하실 수 있을 것이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서로 나란히 부처님에게 나아갔다. 변화한 사람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는 살생의 업을 지었는데 장차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제발 부처님께서는 저희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말처럼 살생의 업을 지었다면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죄상罪相을 일으켰는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만약 과거의 마음에서 일으켰다면 과거는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으리라. 미래의 마음에서 일으켰다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으리라. 현재의 마음에서 일으켰다면 현재는 머물고 있지 않으니 그 마음 또한 얻을 수 없으리라. 삼세를 모두 얻을 수 없으니 어떤 일을 일으키거나 짓는다는 것도 없을 것이요, 일으키거나 짓는 것이 없는데 그

죄상을 어디에서 보겠는가? 선남자여, 마음은 머물지 않으니 안과 밖 그리고 중간에 도 없다. 마음은 빛깔이 없으니 파랗거나 노랗거나 붉거나 희지 않으며, 마음은 지어진 것이 아니니 짓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환술이나 허깨비가 아니니 본래부터 진실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끝이 없으니 한량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취하거나 벌이 없으니 선과 악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는 움직이거나 변하는 일이 없으니 생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니 일체의 숫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지혜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관찰하면 일체법 중에서 마음을 찾아보아도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자성은 곧 모든 법의 성품이요, 모든 법의 성품이 공한 것이 바로 진실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이제 허망하게 두려움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이때 변화한 사람은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베푸신 진실한 가르침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법계의 자성이 청정함을 잘 설법하여 주셔서 저는 이제 죄업의 성품이 공한 것임을 깨달았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꺼이 부처님 법 안에서 출가 수도하여 깨끗한 행(梵行)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이시여,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착하구나.”

이때 변화한 사람은 순식간에 머리칼이 저절로 깎여 나갔고 가사가 몸에 입혀졌다. 그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 열반에 들겠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몸이 허공으로 솟아올라 화화삼매에 들어 스스로 몸을 태웠다. 이때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 변화한 사람을 보고서 ‘나와 같은 죄를 짓고서도 출가하여 법을 듣더니 그는 먼저 해탈하였다. 이제 나 또한 부처님에게 교화와 구제를 받으리라’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위와 같은 인연을 말씀드리며 청하였다.

“제발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구나. 그대가 지은 업은 어디에서 마음을 일으켰느냐? 죄업의 모양은 또한

어떤 것인가?”

이때 그 사람은 선근<sup>323</sup>이 무르익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의 털 구멍에서 거대한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부처님께서 황금빛 손을 내밀어 그의 정수리를 어루만지자마자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 불길이 꺼졌으니 고통을 떠나 큰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깨끗한 신심이 일어나 부처님께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앞서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하신 ‘청정한 법계의 상을 떠나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죄업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 다시는 두려워하는 생각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출가하시켜 주기를 청하였고 다시 사성제의 가르침을 듣고 번뇌의 터끌을 멀리 떠나고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하게 되었다.

未曾有經云 妙吉祥菩薩 因見一人悲泣發如是言 我造煞業 決墮地獄 如何救度 菩薩見其緣熟堪化 卽化一人亦復啼泣 謂曰我造煞業 決墮地獄 前人聞已 言我亦然 化人告之 唯佛能救 相隨共詣 化人白佛 我造煞業 惡墮地獄 願佛救度 佛即告言 如汝所說 造殺業者 汝從何心而起罪相 過去耶未來耶見在耶 若起過去心者過去已滅 心不可得 若起未來心者未來未至 心不可得 若起見在心者見在不住 心亦不可得 三世俱不可得故 卽無起作 無起作故 於其罪相 何所見邪 善男子 心無所住 不在內外中間 心無色相 非青黃赤白 心無所作 無作者故 心非幻化 本眞實故 心無邊際 非限量故 心無取捨 非善惡故 心無動轉 非生滅故 心等虛空 無障礙故 心非染淨 離一切數故 善男子 諸有智者 應如是觀 作是觀者 卽於一切法中 求心不可得 何以故 心之自性 卽諸法性 空即眞實性 由是義故 汝今不應妄生怖畏 是時化人聞佛宣說眞實之法 心大歡喜 卽白佛言 希有世尊 善說法界自性清淨 我今得悟罪業性空 不生怖畏 我今樂欲於佛法中 出家修道 持於梵行 願佛攝受 佛言善哉 是時化人於剎那間 須髮自落 裂裟披身 卽白佛言 我今涅槃 承佛威力 踊身虛空 化火自焚 尔時實造業者 見是化人與我同罪 出家聞法 彼先解脫 我今亦宜求佛化度 前白佛言 如上因緣 願垂救苦 佛言善哉 汝所造業 於何起心 罪業之相 其復云何 是時此人以善根成熟故 聞佛說已 身諸毛孔出大火焰 佛出金手 於其頂上 此人即時 身火得滅 離其苦惱 得大快樂 起淨信心 而白佛言 我先聞佛 廣說清淨法界 離相之法 我今得悟罪業性空 而不復生怖畏之想 投佛出家 復聞四諦之法 遠離塵垢 證無生忍

323 선근善根이란 좋은 과보를 받을 좋은 인因이란 뜻이다. 착한 행업의 공덕 선근을 심으면 반드시 즐거운 과보를 맺는다고 한다. 또는 온갖 선복을 내는 근본이란 뜻이다.

## 156. 능엄경楞嚴經

『능엄경』에서는 말한다.

“보는 것(見)과 그 보이는 것(見緣)과 생각되는 상(所想相)은 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 이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본래 보리의 미묘하고 바르고 밝은 본체인 것이다.”

〔내가 말한다면 “허망한 몸은 원래부터 공하므로 그 전체가 그대로 본각本覺의 마음 자체이다”라고 할 것이다.〕

楞嚴經云 見與見緣 并所想相 如空中花 本無所有 此見及緣 元是菩提 妙正明體 [私曰 妄體元空 全是本覺心體]

또 “누군가 참다움(眞)을 일으켜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방의 허공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하였으니, 말하자면 미혹한 마음에 뒤덮여 있다가 깨닫는 곳(覺處)에서 허공을 보면 티끌의 그림자가 이미 없어지니 허공은 원래 깨달음의 나타남(覺現)인 것이다. 이것을 허공이 사라지고 깨달음이 드러나는 것이라 한다. ‘발發’이란 허망한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말한다.

又云若有一人 發眞歸源 十方虛空悉皆消殞 謂迷情所覆 覺處見空 塵影既消 空元是覺現 謂空消覺現發謂妄盡心開也

또 “안팎의 모든 법이 다 진실하지 않아서 식識으로부터 변한 것이요, 모두가 거짓 이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 “식의 체體는 본래 공한데 변한 것이 어찌 진실하겠는가?”라고 하였다.

又云內外諸法 盡知不實 從識所變 悉是假名 又云識體本空 所變何實

## 157. 기신론起信論

『기신론』에서는 말한다.

“일체 경계는 오직 허망한 생각에서 말미암는 것이므로 차별이 있다. 이러한 마

음생각(心念)을 떠난다면 일체 경계의 상相도 없을 것이다.”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멀하면 여러 가지 법이 멀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起信論云 一切境界 唯依妄念而有差別 若離心念 則無一切境界之相 [如云心生種種法生 心滅種種法滅]

또 말한다.

“이른바 각覺이란 마음의 본체가 생각(念)을 떠난다는 뜻이요, 생각을 떠난 상(離念相)이란 허공계와 같으니 이것이 바로 여래의 평등법신이다.”

又云所言覺義者 謂心體離念 離念相者 等虛空界 卽是如來平等法身

## 158. 동산 양개 화상의 「부모님과 작별하는 편지」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시게 된 것은 모두 부모에게 의지하여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고, 만물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었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없었다면 태어날 수 없었고, 하늘과 땅이 없었다면 자라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부모가 길러주는 은혜를 입고, 천지가 덮어주고 실어주는 은덕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중생들과 삼라만상의 모습을 가진 것들은 한결같이 무상하므로 태어나고 죽는 일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젖을 먹여 기르신 그 정성이 무겁고, 길러내신 은혜가 깊어서 온갖 재물로 모시고 받들더라도 끝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어렵고, 갖가지 고기 반찬으로 모시고 봉양하더라도 어찌 부모님을 영원토록 살아 계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효경』에서는 “날마다 세 가지 희생<sup>324</sup>으로 봉양을 한다 해도 불효만 더할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서로 이끌려서 침몰하여 영원히 윤회에 빠져들고 말 뿐입니다.

그 망극하신 은혜를 갚으려면 출가의 공덕만한 것이 없으니, 그것은 애욕이 흐르

---

324 희생犧牲으로 쓰는 세 가지 짐승인 소, 돼지, 양을 말하는데 부모에게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든 가장 맛난 음식을 표현하기도 한다.

는 생사의 강물을 끊고 번뇌의 바다를 넘게 해주고, 천생千生의 부모님께 보답하고 만겁萬劫 동안 쌓여진 사랑에 보답해 줍니다. 그리하여 삼유三有<sup>325</sup>의 네 가지 은혜<sup>326</sup>에 보답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자식 하나가 출가하면 9족族이 천상에 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금생의 목숨을 버리게 되더라도 맹세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영겁 동안 쌓여온 근진根塵<sup>327</sup>을 반야로 훌연히 밝히려 합니다. 부디 부모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기꺼이 저를 버리시어 마음에 얹어매지 마십시오. 정반왕을 배우시고, 마야 왕비를 본받으소서. 훗날 다른 때에 부처님의 법회에서 상봉하리니 이번 생에는 서로 작별하려 합니다. 저는 감지甘旨<sup>328</sup>봉양을 아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라고 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어머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계송으로 올립니다.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한 채 몇 차례 봄을 지내고 보니  
뜬세상 부질없이 허송세월한 것이 슬프기만 합니다.  
몇몇 사람은 공문 안에서 도를 얻었건만  
저만 홀로 먼지뿐인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삼가 편지 올려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하직하니  
그저 큰 법을 밝혀 어머님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눈물 흘리시며 자주 생각지 마시고  
애당초 제 몸이 없었다고 여겨 주십시오.  
술 속에선 흰 구름이 항상 벗이 되고  
문 앞의 푸른 언덕이 이웃이 되어 줍니다.

---

325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의 존재. 즉 윤회하는 모든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를 말한다.

326 네 가지 은혜는 경전마다 조금 내용을 달리하지만 대체로 부모 · 국왕 · 중생 · 삼보의 은혜를 들거나 또는 부모 · 사장師長 · 국왕 · 시주施主의 은혜를 말한다. 우리들 모든 중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게 되는 모든 은혜를 말하는데, 특히 수행자가 수행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이다.

327 육근六根과 육진六塵(六境). 눈 · 귀 · 코 · 혀 · 몸 · 의지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주관)이 색 · 소리 · 냄새 · 맛 · 촉감 · 법의 여섯 가지 인식 대상(객관)을 상대하며 일으키는 갖가지 번뇌 망상을 말한다.

328 맛있는 음식. 효자가 부모에게 드리는 음식을 밀하며, 정성을 다해 지극히 부모를 모시는 것을 감지봉양甘旨奉養이라고 한다.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사랑과 미움을 영원히 떠나려 합니다.  
조사의 뜻은 가르침 받는 그 순간 밝게 깨닫고  
현묘한 이치는 제일구第一句의 진리를 통해야 합니다.  
친척들이 저와 만나기를 바란다면  
다음 생의 정과인正果因<sup>329</sup>을 기다려 주십시오.

#### 洞山良价和尚辭親書

伏聞諸佛出世 皆托父母而受生 萬類興生 盡假天地之覆載 故非父母而不生 無天地而不長 盡沾養育之恩 俱受覆載之德 噫夫一切含靈 萬相形儀 皆屬無常 未離生滅 稚則乳哺情重 養育恩深 若把若賂供資 終難報答 作血食侍養 安得久長 故孝經云 雖日用三牲之養 猶爲不孝也 相牽沉沒永入輪迴 欲報罔極之恩 未若出家功德 截生死之愛河 越煩惱之苦海 報千生之父母 答萬劫之慈親 三有四恩無不報矣 故云一子出家九族生天 良价捨今生之身命 誓不還家 將永劫之根塵 詛明般若 伏惟父母 心開喜捨 意莫攀緣 學淨飯之國王 効摩耶之聖后 他時異日 佛會上相逢 此日今時且相離別 良价非拒違於甘旨 盖時不待人 故云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 伏冀尊懷 莫相記憶 頌曰 未了心源度數春 翻嗟浮世謾逡巡 幾人得道空門裏 獨我淹留在世塵 謹具尺書辭眷愛 願明大法報慈親 不須酒淚頻相憶 比似當初無我身 林下白雲常作伴 門前青嶂以爲鄰 免于世上名兼利 永別人間愛與瞋 祖意直教言下曉 玄微須透句中真 合門親戚要相見 直待當來正果因

## 159. 후서後書

저 양개가 부모님 봉양을 저버리고서 주장자를 짚고 남쪽에서 노난 지 10년이나 세 월이 흘렀습니다. □□□<sup>330</sup> 만 리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

329 성불할 때, 도를 이룰 때를 말한다. 성불하면 정과正果를 얻게 되고 여기서 인因이란 말은 법을 가리킨 것이다.(각성, 앞의 책, p.730)

엎드려 바라옵건대 어머님께서는 마음을 거두고 도를 사모하시며 뜻을 가다듬어 공空으로 돌아가셔서, 이별의 정은 생각지도 마시고 문에 기대어 제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지도 마소서. 집안일은 다만 인연을 따를 뿐이니 일은 생길수록 점점 더 많아져 날마다 번뇌만 불어납니다. 형님이 부지런히 효도하시니 빙판 속에서도 잉어를 구할 것<sup>331</sup>이고, 아우도 정성을 다해 뜻을 받들어 서리 속에서도 올면서 죽순을 찾아 낼 것<sup>332</sup>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닦고 효를 행하여 천심天心에 합치되어야 하며, 승려는 공문空門에 살면서 도를 사모하고 참선하여 자애로운 덕에 보답해야 하니 지금은 천 개의 산과 만 갈래 물길로 이 두 길이 아득히 떨어져 있어 한 장의 편지에 여덟 줄의 시로써 간단하나마 제 마음을 올립니다.

명리를 구하지 않고 선비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공문空門을 좋아하여 세속의 길을 버렸습니다.  
번뇌가 사라질 때 근심의 불은 꺼질 것이요  
은애의 정이 끊긴 곳에 애욕의 강도 마를 것입니다.  
육근六根의 선정과 지혜를 향기로운 바람이 이끌고  
일념이 겨우 생겨나니 지혜의 힘으로 붙잡으려네.  
어머님, 슬퍼하거나 기다리지 마시고  
죽었거니 여기고 없어졌거니 여겨 주십시오.

#### 後書

良价自離甘旨 策杖南遊 星霜已換於十秋 □□□隔於萬里 伏惟慈母 收心慕道 攝意歸空 休懷離別之情 莫作倚門之望 家中家事 但且隨緣 轉有轉多 日增煩惱 阿兄勤行孝順 須求冰裏之魚 少弟竭力奉承 亦泣霜中之筍 夫人居世上 修己行孝 以合天心 僧在

330 『치문』의 해당 부분에 따르면 “歧路俄”가 빠져 있으며, 이 말은 “거리가 어느 덧……”이라는 뜻으로 “만 리나 떨어지게 되었다”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331 중국 진晉나라 때 사람인 왕상王祥의 일화이다. 왕상은 계모에게 극진히 효도한 것으로 칭송이 자자하였는데 겨울날 어머니를 위해 잉어를 잡으려 할 때 얼음판이 저절로 갈라져 잉어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진서晉書』33.

332 중국 삼국三國 오吳 나라 때 효성이 극진하였던 맹종孟宗의 일화이다.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어 하자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깊이 탄식하였더니 죽순이 자라났다고 하는 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삼국지三國誌』48, 『진서』94.

空門 慕道參禪 而報慈德 今則千山萬水 杏隔二途 一紙八行 聊書寸懷 頌曰  
不求名利不求儒 願樂空門捨俗徒  
煩惱盡時愁火滅 恩情斷處愛河枯  
六根定慧香風引 一念才生慧力扶  
爲報北堂休悵望 比如死了比如無

## 160. 어머니의 답장(娘廻書)

나는 너와 숙세에 인연이 있어 비로소 모자간으로 맺어져 사랑하고 정을 나누었다. 너를 회임하고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신과 부처님과 하늘에 기도하였다. 임태하고 서 달이 차니 목숨은 실낱같았으나 마침내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보석처럼 아꼈고 뚉오줌의 고약한 냄새에도 싫지 않았다. 젖을 먹일 때 힘들어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차츰 어른이 되어 공부하라고 보내었을 때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문에 기대어 돌아오기를 기다렸었다. 그런데 보내온 편지를 보니 굳이 출가하기를 원하였더구나.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이 어미는 늙었으며 형은 박정하고 아우는 가난하거늘 내가 누구를 의지하란 말이냐? 자식에게는 어미를 버릴 마음이 있을지라도 어미에게는 자식을 버릴 마음이 없는 법이다.

한번 네가 타지로 떠난 뒤 이 어미는 밤낮으로 항상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였다. 하지만 이미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맹세하였으니 너의 뜻에 따라야겠지.

나는 네가 왕상王祥처럼 얼음에 눕거나 정란丁蘭<sup>333</sup>처럼 나무를 새기는 그런 효자가 되기를 갑히 바라지 않는다. 그저 바람이 있다면 목련 존자<sup>334</sup>처럼 네가 나를 윤회의 바다에서 해탈시키고 부처의 과위에 오르도록 제도하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깊은 허물이 있게 될 것이니 모쪼록 마음을 다잡고

---

333 중국 후한後漢 때 사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의 모습을 나무로 새겨서 그 어머니 상 앞에서 살아계신 듯 지극하게 봉양하였다는 일화이다. 손성孫盛의 『일사전逸士傳』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334 『목련경』, 『우란분경』에 자세한 일화가 나와 있다. 신통력을 얻은 목련 존자가 어머니 사후를 살펴보니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기에 마음 아파하며 부처님께 어머니의 구제방법을 여쭈어 천상에 나게 한 일화이다.

수행 정진하여라.

#### 娘廻書

吾與汝夙有因緣 始結子母 恩愛情分 自從懷孕 禱神佛天 願生男子 胞胎月滿 命若懸絲 得遂願心 如珠寶惜 糞穢不嫌於臭惡 乳哺不倦於辛勤 稍自成人 送令習學 或暫逾時不歸 便作倚門之望 來書堅要出家 父亡母老 兄薄弟寒 吾何依賴 子有拋母之意 娘無捨子之心 一自汝往他方 日夕常酒悲淚 苦哉苦哉 既誓不還鄉卽得從汝志 我不敢望汝如王祥臥冰丁蘭刻木 但望汝如目連尊者 度我解脫沉淪 上登佛果 如其未然 幽愆有在 切須體悉 切須體悉

## 161. 규봉 종밀圭峯宗密 선사의 계송

본각本覺과 진심眞心이 허망한 생각에 가리운 것은  
깨끗한 거울이 먼지를 뒤집어쓴 것과 같네.  
이제 사마타奢摩他(止)로 망념을 맑게 하니  
객진客塵도 멀하고 마음까지 공하네.  
이로 말미암아 시방의 모든 부처님 나타나시고  
범부와 성현이 본래부터 원융하네.  
내 마음은 본래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데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심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몸과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혈맥을 따르니  
쉬지 않고 호흡하여도 고요하여 소리가 없네.  
여기에서 자연스레 마음이 쉽게 선정에 들고  
여기에서 부처님과 조사님이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하네.

#### 圭峯密禪師頌

本覺眞心妄念翳 猶如明鏡被塵蒙  
今用奢摩澄妄念 客塵已滅卽心空  
由是十方諸佛現 由來凡聖本圓融  
我心元在佛心裏 何疑佛現我心中  
寬放身心隨血脉 綿綿出入寂無聲  
於此自然心易定 於此佛祖證無生

## 162. 용아 거둔龍牙居遁 화상의 계송

한번 무심을 얻으면 그대로가 도의 뜻이니  
여섯 개의 문<sup>335</sup>이 쉬면 몸이 수고롭지 않네.  
인연이 있는 것은 나의 벗 아니요,  
쓸모없는 두 눈썹이 차라리 형제이네.  
깨닫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과 같으니  
승부에 무심하면 마음까지 절로 편해지네.  
예부터 큰 스님은 빈도貧道라 말했으니  
이 문중에 몇 명이나 그것을 향하리.

龍牙遁和尚頌

一得無心便道情 六門休歇不勞形  
有緣不是予朋友 無用雙眉却弟兄  
悟了還同未悟人 無心勝負自安神  
從前古德稱貧道 向此門中有幾人

## 163. 대법안大法眼 선사 인승간경송因僧看經頌

지금 사람이 옛 가르침을 보는데  
마음속의 소란스러움을 면하지 못하였구나.  
마음속의 소란스러움을 벗어나려면  
그저 옛 가르침만 보아야 하네.

大法眼禪師因僧看經頌  
今人看古教 不免心中鬧  
欲免心中鬧 但知看古教

---

335 눈·귀·코·혀·몸·의지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말한다.

## 164. 고덕古德의 계송

### 고덕의 계송

오온이 모두 빈 곳임을 비추어 보아서  
깊은 반야를 수행할 때  
고통과 재앙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결정코 무생無生을 증득하리라.  
바른 성품만을 보고자 한다면  
먼저 아상我相<sup>336</sup>을 꺾어 없애야 한다.  
겉모습은 그 어디에 있는가.  
육혈六穴<sup>337</sup>은 본래 온 곳이 없네.  
신령스럽고 밝은 성품이 툭 트이니  
거침없이 세계가 통하리라.

### 古德頌

照蘊皆空處 深行般若時  
不唯超苦厄 決定訂無生  
若欲見正性 先摧我相亡  
形容何處有 六穴本無從  
豁爾靈明性 僞然世界通

### 고덕古德의 계송

불은 나무에서 나서 나무를 태우고  
지혜는 정情에서 나서 정을 없애버리네.  
바른 마음으로 망념을 관찰하는 것을 지혜라 하니  
지혜는 불가사의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네.

---

336 나라는 생각. 오온이 잠시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을 영원불멸하는 나라고 생각하여 그에 온갖 집착을 일으키고 번뇌가 불어나게 된다.

337 여섯 가지 감각기관. 온갖 더러움이 흘러나오는 구멍이라는 뜻이다.

古德頌

火從木出還燒木 智因情起却除情  
正心觀妄名爲智 智能入覺不思議

## 165. 천복 승고薦福承古

승고承古 선사는 항상 대중들에게 이렇게 권하였다.

“불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며, 오직 스스로 무심하여야 한다.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한나절에 해탈할 것이요, 근기가 둔한 사람은 3년이나 5년 정도면 해탈할 것이요, 아무리 길어져도 10년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그대들을 대신하여 발설拔舌지옥에라도 들어가겠다.”

承古禪師 常勸諸人 莫學佛法 但自無心去 利根人晝時解脫 鈍根人或三五年 遠不過十年 若不悟去 老僧替你入拔舌

# 直指

직지

直指心體要節

Copyright | © 대한불교조계종

2005년 초판인쇄

2020년 재판인쇄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02) 2011-1823

[www.buddhism.or.kr](http://www.buddhism.or.kr)

저자 | 백운 경한(1298~1374)

한글번역 |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편집·제작 | 도반미디어

간행번호 | 010105-01-2020-148

Not for sale



